ISSN 1225-3561

호남문화연구

THE JOURNAL OF HONAM AREA STUDIES

2017. 06.
제 61 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INSTITUTE OF HONAM STUDIES, CNU

호남 문화 연구

목차 제61집

〈권두논문〉

홍어음식의 기호적 전이와 문화적 중층성 — 표인주 _ 1

〈일반논문〉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의 개작 양상과 작가 의식 고찰 — 박찬모 _ 37

참요,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 조태성 _ 69
– 조선후기 공감장의 형성과 투쟁을 중심으로 –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 황금연 _ 97

‘운주사환은천조(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 — 김기용·민영순 _129

19세기 자이당(自怡堂) 이시헌(李時憲)의 ‘백운동별서(白雲洞別墅)’ 승계와 향촌활동 — 박미선 _165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의 국방의식과 남북제승대책(南北制勝對策) — 양승천 _193

전라도 장흥도호부 수군(水軍) 만호진(萬戶鎭) 회령포(會寧浦) 연구 — 이병혁 _223

1960년대 광주·전남 화단 — 김허경 _255
– ‘구상과 추상 논쟁’에 관한 비평 –

오지호 관련 미술비평과 연구사에 관한 연구 — 홍윤리 _287

휘보 _321

호남문화연구 61 : 1~3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권두논문 |

홍어음식의 기호적 전이와 문화적 중층성

Symbolic Metastasis and Cultural Duplicity of Skate Cooking

표 인 주*
Pyo In-Ju

목 차

Ⅰ. 머리말
Ⅱ. 논의의 이론적인 토대
Ⅲ. 홍어음식의 물리적 경험의 변화
Ⅳ. 홍어음식의 기호적 전이 양상
Ⅴ. 홍어음식의 원초적 근원과 확대
Ⅵ. 맺음말

| Abstract |

Skate foods spread out from Heuksando Island to Yeongsanpo, to Jeolla province and the entire regions in Korea because of physical experiences of food culture which are historical events and social change.

The sign content of skate foods has been influenced by placeness, regionality, political nature and festivity related to the environment, histories, cultural conditions and change.

Skate food is originated from 'Hongeojesuk' which is traditionally passed down in Heuksando Island.

Skate foods have been spreading out through various cuisines such as 'Seasoned Skate', 'Hong-O Ae-gook', 'Hongeo Samhap(Fermented Skate

* 전남대학교 교수

and Steamed Pork Slices Served with Kimchi)' and so on.

Skate foods have cultural duplicity. 'Hongeo Joe(Sliced Raw Skate)' was most basic and common cuisine of skate foods. It has been transformed not only by a variety of changes of physical experiences but also experiences of skate foods. And the result is 'Braised Skate',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developed cuisine of skate foods.

Key words : Heuksando Island, Yeongsanpo, Jeolla province, Symbolic metastasis, Skate food, Party food, Political food, Liking food

Ⅰ. 머리말

음식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나 인간과 신의 상호작용,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간의 의사소통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높은 사회계층은 낮은 계층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늘 음식을 사용해왔다. 음식은 사회질서를 표현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1] 이처럼 인간은 음식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문화의 한 축으로 구축해왔는데, 문화가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듯이 음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음식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인 맥락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은 포괄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를 갖는다.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분리되어 문화에 상응하면서 사회화된 결정체이기 때문에[2] 단순히 인간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활용을 넘어서, 그 음식과 연관된 문화적인 활용으로 소비되는 것이어서 문화의 계승·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 음식의 변화가 인간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즉 인간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음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생태적인 변화를 비롯해 사회적인 이념이나 다양한 외적인 환경이 크게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그 장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소야말로 문화적 공간들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장소가 기억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기억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3] 그래서 장소는 각인된 기억의 배열과 기억의 재발견을 위해 이용되어 온 것이다.

---

1) 이숙인(2014), 「18세기 조선의 음식 담론」, 『한국실학연구』 제28집, 한국실학회, 242~243쪽.
2) 한경란(2016), 「연행록에 나타나는 음식 표상과 자기이해 양상」, 『한국어와 문화』 제20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95쪽.
3)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2011), 『기억의 공간』, 그린비, 411쪽.

따라서 음식은 장소성을 반영하기 마련이어서 지역의 정체성의 표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김치를 선택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장소성을 토대로 한국인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치를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의 상징으로서 한국민족성의 정수라고 말하기도 한다.[4] 지역의 음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지역음식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의 다량의 소비를 통해 알려져 있는 향토음식을 지역 정체성의 표지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은 향토음식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전통의 가치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받아들인다.[5] 향토음식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기층민들의 음식으로 간주된 것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을 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상징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홍어음식[6]은 '전라도'와 '흑산도'라는 지역을 연상하게 하는데, 여기서 장소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라도는 문화적 전통의 상징으로서 호남으로 확대되는 문화적 개념이라면, 흑산도는 홍어의 전통적인 산지(産地)를 강조하는 공간적 개념이다. 여기서 전라도와 흑산도의 상관성은 이후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홍어음식의 문화적 맥락을 논의하는데 전라도와 흑산도가 중요한 장소적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홍어음식은 전라도에서 의례잔치나 공동체노동현장에서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실천하는 음식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홍어와 홍어음식에 관한 논의는 주로 홍어에 대한 수산자원으로

4) 한경구(1994), 「어떤 음식은 생각하기에 좋다」, 『한국문화인류학』 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62~65쪽.

5) 황익주(1994), 「향토음식 소비의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70쪽.

6) '홍어음식'이라는 개념은 식재료인 홍어뿐만 아니라 홍어회, 홍어찜, 홍어삼합, 홍어애국 등 홍어를 사용하여 요리한 모든 음식을 포괄하고 문화적인 의미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서 관심이나 식품영양학을 비롯해 홍어음식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홍어음식을 논의할 때 홍어를 가오리와 혼용하여 논의하거나 가오리를 홍어로, 홍어를 가오리로 분류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으로서 홍어와 가오리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7] 홍어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현지에서 홍어 대신 가오리를 사용하여 홍어음식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홍어음식의 문화인류학적인 논의로서는 윤형숙이 주로 홍어요리의 상품화나 전라도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고,[8] 박정석은 홍어를 통해 흑산도와 목포 그리고 영산포를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는데,[9] 흑산도와 영산포의 홍어축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정체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10] 특히 박종오는 민속학적으로 홍어잡이 어로방식[11]과 홍어잡이 어로신앙[12]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문화지리학적으로는 조정규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홍어와 가오리의 음식문화권을 설정하여 의례잔치가 홍어와 가오리의 음식문화권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논의하기도 했다.[13]

---

7) 정충훈은 분류체계에서 가오리류는 홍어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홍어류 중에서 가장 먼저 기재된 종이 홍어이고, 홍어의 어원으로나 종의 구성으로 보아 홍어과로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정충훈(1999),「한국산 홍어류 어류의 분류학적 연구 현황과 국명 검토」,『한국어류학회지』제11권 2호, 한국어류학회, 200쪽.) 그리고 모든 가오리류를 홍어목에 귀속시켰고, 홍어목에는 약 280종이 보고되어 현존하는 가오리 종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정충훈(2000),「한국산 가오리류의 종 목록과 분포상」,『한국수산자원학회지』제3집, 한국수산자원학회.)

8) 윤형숙(2008),「홍어요리의 상품화와 전라도 지역 정체성」,『한국민족문화』제3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9) 박정석(2008),「홍어와 지역정체성」,『도서문화』제32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0) 박정석(2009),「홍어의 상징성과 지역축제」,『한국민족문화』제3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1) 박종오(2008),「홍어잡이 방식의 변천과 조업 유지를 위한 제문제」,『한국학연구』제2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 박종오(2008),「홍어잡이와 관련된 어로신앙의 변화」,『호남문화연구』제42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전라도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연구 핵심은 지역정체성, 민속지식, 음식문화권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다 보니 홍어음식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주제 중심적이고 평면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공시적인 열거에 그치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홍어음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되었는가를 계열체적으로 해명하고, 홍어음식이 갖는 의미를 총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본고의 연구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Ⅱ. 논의의 이론적인 토대

기호적 전이(轉移)란? 동일한 것에 그 경험의 관점에서 기호내용이 사상되어 마치 복제물처럼 다른 기표를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기표에 다른 기호내용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적 전이는 기표뿐만 아니라 기호내용에서도 발생한다.[14] 특히 기호적 전이는 개념혼성(conceptual blending)[15]이라는 과정의 기호적 사상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경험내용과 기호적 의미를 생산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한하게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기호화가 일회적인 기호적 사상을 통해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호적 전이가 멈추면 기호적 경험은 인간의 모든

13) 조정규(2016), 「홍어와 가오리의 음식문화권 연구」, 『문화역사지리지』 제28권 2호, 문화역사지리학회.

14) '기호적 전이'라는 용어와 내용은 체험주의 철학 대담과정에서 〈노양진 교수의 미발표된 예비논문〉에 수록된 견해를 참조한 것임을 밝혀두고, 글의 전체적인 논의를 위해 노양진의 『몸·언어·철학』(서광사, 2009)과 『몸이 철학을 말하다』(서광사, 2013)를 통해 체험주의적 해석 방식을 수용하여 해석하고자 했음을 밝혀둔다.

15)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김동환·최영호 옮김(2009),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38~69쪽.

기억에서 사라진다. 왜냐면 기호적 경험은 인간의 삶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기호적 경험의 단절과 변화는 문화의 소멸과 지속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의 방식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형성된 문화가 지속되려면 기표의 수명이 끝난다고 해도 기호적 내용의 전승을 위해 기호적 전이(metastasis)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호적 전이는 사물에 대한 경험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고 물리적 기반의 변화에서 일어난다. 예컨대 인간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하는 기호내용을 각각 경험의 관점에서 사상하여 달집태우기, 마을신앙,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기호적 경험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것을 기호적 경험, 즉 기표의 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표의 전이는 수평적으로 열려 있다. 물질적인 기반인 생업방식에 따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기표가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생업방식에 따라 동일한 기표라고 할지라도 기호적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기호적 전이는 기표에서만 나타는 것이 아니라 기호내용에서도 나타난다.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달집태우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하고, 개인의 소원을 빌기도 한다. 즉 달집태우기를 전승하고 지속과 변화를 주도해온 공동체와 개인주체들의 다성적(多聲的)[16]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집태우기에 대한 경험의 관점이 각각 다르면 그 기호내용이 다르게 되고, 그것은 기호적 전이로 이어진다. 특히 이와 같은 기호내용의 전이는 기호대상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이 작용한 경우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민속신앙에서 절대자인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앙적 경험은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을제사를 지내면서 농사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건강이나, 새해의 만사형통 등 다

16) 남근우는 민속 연구에 있어서 민속 주체들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공동체 내·외부의 다성적인 관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근우(2009), 「민속의 관광자원화와 민속학 연구」, 『한국민속학』 제49집, 한국민속학회, 240쪽.)

양한 경험의 관점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기호내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면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제사를 지냈지만, 마을제사가 농사의 풍요와는 무관하게 마을의 전통성이나 정체성의 확보 수단으로 지속되거나,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변형되는 경우, 이것은 동일한 기표이지만 기호내용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제사 기호내용의 전이는 물리적 기반의 변화에서 초래한다. 즉 전통농경사회에서 마을제사의 기호내용이 농사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었다면, 도시화를 가속화시킨 기술산업사회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야기한 정보문화산업사회에서의 마을제사 기호내용이 전통농경사회와 다르다. 이것은 기호적 경험의 근간인 물리적 기반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전통농경사회에서 제의적이며 의례음식이었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향토음식이고 건강음식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음식의 기호적 전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호내용의 전이는 기호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리적 기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호 사용자의 다성적인 모습은 다양한 경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농경사회→기술산업사회→지식정보문화산업사회로의 물리적 기반의 변화는 역사, 경제, 자연, 문화 등의 외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호 사용자 경험적 영역의 근거인 물리적 기반의 변화는 기표의 산출자와 수용자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농경사회에서는 기호적 경험이 기호 산출자와 수용자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소통되어졌다면, 정보문화산업사회로 물리적 기반이 변화되면서부터 기호적 경험은 기호 산출자와 수용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기호 수용자를 중시하는 경향을 갖게 했다. 이러한 것은 기호적 경험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김장보다도 김치

를, 음식보다도 식품을, 컨텍스트보다도 텍스트를, 문화보다도 문화산업을 중시하는 경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Ⅲ. 홍어음식의 물리적 경험의 변화

1. 영산도 주민의 집단이주

홍어에 대한 기록은 정약전(1760~1816)의《자산어보》에 등장하는데, 흑산도가 홍어의 생산지로서, 즉 흑산도 홍어는 일반적으로 태도, 다물도, 홍도 등 흑산도 주위에서 잡힌 홍어를 지칭한다.[17] 흑산도의 홍어잡이는 70년대 초까지 다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18] 잠시 중단 되었다가 흑산도를 중심으로 다시 이루어진다. 이후 90년대 중반에는 홍어잡이가 거의 중단되어 한 척의 배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재개된다.[19] 홍어잡이 조업 시기는 음력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즉 초가을부터 봄까지이며, 4월부터 6월은 금어기이다.[20] 국내산 홍어는 흑산도 뿐만 아니라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일대에서 많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흑산도, 영산포, 함평 주포 등 전라도 지방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었다. 홍어를 쌀과 같은 곡식으로 교환해 간 것이다.

홍어와 영산포의 관련성은 흑산도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영산

17) 윤형숙 외(2009),『홍어』, 민속원, 21쪽.

18) 다물도의 경우 처음 어획한 물고기 중 좋은 놈을 골라 처마 끝에 달아놓는다. 보통 4대조를 포함하여 집안에서 돌아가신 조상 수만큼 매달아 놓는데, 각 집집마다 보통 5~6마리 매달아 놓으며, 이를 '홍어제숙 한다'라고 표현한다. (곽유석 외(2015),『다물도』, 국립해양문화연구소, 157쪽.)

19) 윤형숙 외(2009), 같은 책, 60쪽.

20) 곽유석 외(2015), 같은 책, 국립해양문화연구소, 73쪽.

포는 고려 성종 2년(983) 경에 흑산현 사람들이 왜적의 난을 피해 집단이주해와 정착하면서 영산현이 되었다고 한다.[21] 즉 흑산도 인근 영산도 사람들이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피해 이주하여 정착한 데서 영산포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영산포는 1970년대 영산강 하구언 공사로 영산강이 막히기 전까지 흑산도 홍어는 물론 대청도 근해에서 잡힌 홍의 종착지가 바로 영산포였다.[22] 이처럼 영산포는 육지에서 생산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주요 포구이요, 진도, 흑산도 등 서남해안지역에서 잡은 생선들을 거래하던 곳으로서 물류의 거점이자 상거래의 중심지였다.

영산포에 흑산도의 영산도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홍어를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산도 사람들이 고향에서 경험했던 음식에 대한 기억, 고향에 대한 공간적 그리움, 고향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갈망 등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흑산도의 홍어를 먹기 시작한 것이 영산포 일대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을 만들고 먹기까지의 과정들에는 한 사회의 규범, 가치,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는 징표이듯이,[23] 음식에 대한 기억은 동일한 정서적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즉 홍어를 공유함으로서 이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갖고자 한 것이다.

2. 농경사회와 도로·철도의 개통

영산강 유역은 벼농사 발달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후삼국 시기에 많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서 각 지역의 호족이 대두하여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전국 12개 조창(漕倉) 가운데 영산강 유역에는 해

21) 정윤국(1989), 『나주목』, 제일문화사, 90쪽.
22)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137쪽.
23) 김영주(2009), 「음식으로 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 전략」, 『농촌사회』 제19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121~134쪽.

릉창(海陵倉)과 장흥창(長興倉) 2곳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영산강은 관계용수로서 영산강 유역의 농토를 기름지게 하였고, 또 수운로가 되기도 하여 수많은 장시가 형성되었다. 그 가운데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산포장은 전남의 음식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24] 특히 영산포에는 미곡의 집산지로 도정공장이 성행하였는데, 이것은 영산강 유역의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벼농사는 조선 후기 이앙법의 보급으로 인해 공동체노동을 요구하는 농경법에 의해 경작되기 시작했다. 공동체노동조직인 두레를 결성하여 모를 심고 김매기를 하려면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두레는 16세 이상의 성인남자들이 참여하고 10~50 내외로 구성되는 공동노동을 위한 협동조직이다. 따라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꾼들의 음식대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농사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칠월 칠석이나 백중날에 '길꼬냉이', '풍장', '술멕이날'이라 하여 큰 놀이판이 벌어졌다. 이 날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진서턱'을 내야 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 가정에서는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일꾼들을 대접하기도 한다.[25] 이들 일꾼들에게 가장 큰 음식은 홍어음식이다. 그래서 홍어음식을 준비하여 일꾼들에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 도리로 인식되어왔다.

농경사회에서 마을이나 가정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을이 생업공간, 주거공간, 놀이공간, 종교적 공간, 의례적 공간으로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 곳이라면,[26] 가정도 마을의 공간기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가정이 출생과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의 모든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이다. 즉 가정에서 돌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상장례 등을 거행하면서 손님맞

24) 표인주(2013), 『영산강민속학』, 민속원, 20~34쪽.
25) 표인주(2014), 『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32~35쪽.
26) 표인주(2014), 같은 책, 28쪽.

이를 했던 것이다. 찾아온 손님에게 접대하는 음식 가운데 당연히 홍어음식이 빠질 수 없다. 이처럼 일꾼들에게 대접하는 홍어음식이 잔치에서도 필수적이었고, 농경사회에서 홍어음식의 생산과 소비의 구조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홍어음식을 준비하여 동시에 소비했던 것이다.

영산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홍어음식이 나주를 통해 광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기관인 관찰부 소재지의 이동이 인구증가를 확대시켰고, 시장의 발달을 야기하면서 광주의 문화적 위상도 강화되었기 때문이다.[27] 특히 1922년 광주에 철도가 들어오자 농수산물의 유통 확대는 음식문화 교류 또한 확대시켰는데, 홍어음식이 영산강 하류인 목포와 영산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철도 개설의 확장을 통해 광주로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2년 광주역이 설치되고, 이후 송정역까지 10여Km, 담양역까지 20여Km, 여수역까지 160여Km의 철도가 개통된 것은[28] 당연히 홍어음식이 전남의 내륙과 동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철도가 단순히 물류의 운반이나 인간의 이동수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 통로의 역할하기 때문이다.

3. 산업사회와 농촌인구의 이동

산업사회는 대량생산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기술집약적인 기계공업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이었던 한국사회는 대량생산이

27)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8도 체제를 해체하고 23개 관찰부로 변경할 때 전라도에는 전주, 나주, 남원, 제주를 관할하는 4개의 관찰부가 신설되었다. 광주도 나주관찰부에 속한 16개 군 가운데 하나였는데, 1896년 다시 13도체제가 되자 노령산맥 이남 지역을 전라남도라 부르고 그 소재지를 광주로 결정하면서 전남관찰부 소재지가 된 셈이다. 광주가 전남관찰부 소재지가 되면서 제사의 격이 달라졌고, 광주의 사직제를 비롯한 제사를 전남관찰사가 주관하는 제사가 되었던 것이다. (주인택 외(2016),『오디세이 광주 120년』,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6, 33~34쪽.)

28) 주인택 외(2016), 같은 책, 50쪽.

보편화되는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촌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경사회에서 행해졌던 유희적, 의례적, 종교적 기능이 도시로 이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촌에서 인구의 감소는 남녀 간 성불균형의 초래와 고령화를 가져옴에 따라 전통농경사회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예컨대 마을신앙이나 가택신앙이 위축되거나 단절되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종교적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가정에서 행해졌던 의례잔치들이 도시의 전문적인 의례적 공간으로 이동했으며, 가정이나 마을공간에서 경험했던 여가생활이 도시의 유희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전남지역 농촌인구가 광주로 이동하는가 하면 넓게는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농촌에서 도시로 전입할 경우 광역도시나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고향으로부터 가까운 도시의 공간에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제적인 환경이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향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 위함이다. 고향이라는 공간, 고향의 음식, 고향사람들 등 고향의 감성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향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억을 소환할 것이다.

잔치에서 경험했던 홍어음식을 기억하기 위해 도시의 어딘가의 음식점을 찾아 갈 것이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반드시 접대음식으로 나오는 것이 홍어음식인데, 이것은 농촌의 잔치에서 경험한 홍어음식 기억의 재현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도시에서 홍어음식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홍어음식을 생산한 곳과 소비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홍어음식 전문식당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흑산도와 영산포 중심의 홍어음식이 광주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대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홍어음식의 정신적, 물리적 경험에 대한 전통에 의해 홍어음식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지식정보산업사회와 낭만적 향수

지식정보산업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생산, 유통의 급격한 증대, 정보기술의 고도화 등이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신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이다. 즉 경제활동의 물질적 생산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의 생산으로 이동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것은 지역의 경계와 국경은 물론 민족을 초월하여 지구촌의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는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공산품이나 농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생산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문화의 혼용과 퓨전음식의 경험이 확대된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홍어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수입산 홍어가 급증하면서 홍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포장 및 택배상품으로 탈바꿈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입산 홍어로 인하여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라도 지역만의 음식에서 전국적인 음식으로 소비지역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데는 냉장 및 냉동기술의 발달과 유통시설 및 유통망의 확대도 크게 작용하였다.[29]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홍어음식이 특정 지역의 음식이 아니라 기호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홍어음식이 전통음식으로서 낭만적인 향수를 갖게 하는 음식이었지만, 타지역 출신들은 웰빙이나 미식가로서 기호음식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기호음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전라도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장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내가 홍어회를 처음 먹어본 것은 직장생활을 하고 얼마 안 되어

29)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144~145쪽.

서였다. 광주 출신의 직장 상사를 따라 광화문 네거리 허름한 선술집[30]에서 그 짜릿한 홍어회 맛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그 후 가끔 광화문 네거리 그 선술집에 갈 때면 홍어회 이야기와 함께 그의 고향 자랑을 질리도록 들어야 했다."[31]에서처럼 전라도 사람들과 교류 혹은 전라도의 음식문화 체험 등에 의해 홍어음식이 기호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라도를 상징하는 홍어음식이 지역 연고를 초월하여 기호음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지역축제도 큰 역할을 했다. 홍어음식을 소재로 개최한 지역축제는 영산포 홍어축제와 흑산도 홍어축제를 들 수 있다. 축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심리적 기능, 경제적 기능, 교유육적 기능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32] 지역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산포와 흑산도에서는 홍어축제를 홍어와 홍어음식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구로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홍어음식은 하나의 판매상품인 브랜드로서 역할을 한다. 그야말로 홍어음식의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홍어음식의 기호적 전이 양상

기호내용은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호내용은 인간이 사물을 통해 겪는 경험이나 그에 따른 관념으로 구성되고, 그것이 작용하여 다양한 기호적 경험을 생산한 것이 다름 아닌 문화적 기억인 것이다. 문화

30) 공동체 성격이 희박한 대도시에서의 식당은 음식 감상보다는 친척, 친구, 동창, 직장 동료 등의 사회적 관계가 교환되고 확인되는 공간으로 선택된다. (김광억(1994), 「음식의 생산과 문화의 소비」, 『한국문화인류학』 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8쪽)

31) 황교익(2003), 「고향의 맛-음식여행」, 『지방행정』 1월호, 91~92쪽.

32) 표인주(2007), 『축제민속학』, 태학사, 69쪽.

적인 기억은 기호적 경험의 총합체로서 인간의 경험의 관점에서 형성된 은유적인 표현들이다. 기억은 문화의 근원이자 바탕으로서 문화적 기억은 말, 그림, 춤, 축제와 같은 의례적인 소통이나 육체 및 물질적으로 형성된 것 등을 통해 확고하게 객관화된 전통적, 상징적 코드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기억은 사회적 소통과정에서 작동되는 제도적 기억을 통칭하는 개념인 것이다.[33] 음식문화도 사회적 소통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식생활 예법이나 음식 제작과정과 관념, 의례적인 음식과 음식의 상징적인 의미 등 전통과 상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기억을 통해 사건, 사회, 정치 등의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기억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매개물로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인 구술과 기록, 사진, 영상물 등으로 구현된다. 음식문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되어 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고 공간적인 이동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문화적 기억은 인간의 신체/물리적 경험의 변화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문화적 기억인, 즉 기호내용은 환경, 역사,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홍어음식의 기호내용의 변화를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홍어음식의 장소성과 공동체의 잔치음식

홍어가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낚시와 그물에 의해 가오리류와 홍어가 출토되고 있고, 오늘날 홍어가 가장 많이 포획되는 곳은 흑산도 예리패총, 하태도패총, 가거도패총이 위치하는 흑산도 인근지역이다.[34] 지금도 흑산도에서는 홍어잡이 어로방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홍어를 먹기 시작한 곳이 기

33) 고규진(2003), 「그리스 문자문화와 문화적 기억」, 『기억과 망각』, 책세상, 58~59쪽.
34)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57쪽.

본적으로 홍어가 포획되는 지역임은 두말할 여지없다. 홍어가 주로 서남해안 지역에서 포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청도나 백령도에서는 홍어를 대중적이거나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주로 흑산도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겐 일상음식의 하나로 먹지 않았을까 싶다. 따라서 홍어는 흑산도의 중요한 음식문화 지표의 하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흑산도의 영산도 주민들이 오늘날 영산포로 집단이주하면서 음식문화 또한 장소 이동을 했다. 영산도는 농경지역이 아니라 전형적인 어촌이다. 따라서 홍어 또한 어촌의 생활양식에 따라 그에 적합하도록 요리하여 먹었을 것이다. 영산도라는 섬에서 형성된 홍어음식이 벼농사가 중심인 농경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바다에서 포획한 홍어가 영산도에서는 싱싱했다면 영산포로 운반된 홍어는 항해의 여건과 운송기간에 따라 신선도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흑산도에서 포획한 홍어를 영산포에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발효된 홍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홍어음식의 요리가 농경사회인 영산포의 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경지역에서는 홍어음식이 새로운 음식이자 이주문화의 상징이었고, 귀한 손님들에게 접대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이었을 것이다. 영산도 사람들이 집단이주하면서 농경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농경지역에서 맛볼 수 없었던 홍어음식을 그들에게 접대하면서, 그 음식이 접대음식이 되고 일상화되면서 잔치음식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접대음식은 특정의 사회적 관계를 실천하는 행위로서, 곧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35] 영산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경험한 홍어음식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잔치의 접대음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36] 잔치는 비일상적인 시공

35) 김광억(1994), 앞의 논문, 16쪽.
36) 문화적 기억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보존하려는 인간의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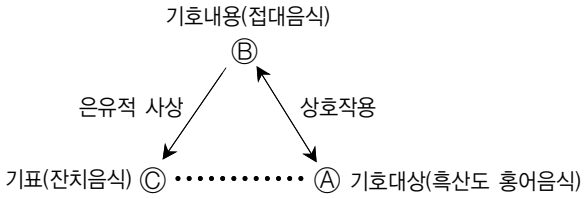
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풍성하게 차린 음식을 별다른 차별 없이 나누어 먹으면서 기분 좋고 자유분방하게 노는 축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잔치음식은 잔치를 잔치답도록 하는 필요조건이었다.[37] 이처럼 개인의 잔치나 공동체의 행사에서 중요한 음식이 홍어음식이었다. 잔치음식은 단순히 의례적인 행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일꾼들을 잔치에 초대한 손님처럼 대접하기 위해 홍어음식을 대접했다. 이것이 영산포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의 농경지역에서 일반화되었다. 즉 흑산도의 일상음식이었던 홍어음식이 영산강 유역에서는 공동체의 잔치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은 홍어음식의 장소 이동에 의해 물리적 경험의 변화와 더불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흑산도의 홍어음식이 영산포로 이주하여 농경사회라는 물리적 경험영역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잔치음식[38]이라는 기호적 내용으로 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흑산도에서 형성된 홍어음식이 기호 내용의 변화에 따라 영산강 유역의 잔치음식으로 정착하는 기호과정은 [Ⓐ기호대상(흑산도 홍어음식)→Ⓑ기호내용(접대음식)→Ⓒ기표(잔치음식)]로 전개된다.

다시 말해 망각되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이다. (최문규(2003), 「문화, 매체, 그리고 기억과 망각」, 『기억과 망각』, 책세상, 362쪽.) 따라서 영산도 사람들이 영산강 유역의 농경민들에게 홍어음식을 접대한 것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보존하려는 욕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7) 박선미(2016), 「동성마을 잔치음식의 구성과 의미」,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8쪽.

38) 농경사회에서 잔치음식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진 생일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장례식, 공동체행사 등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공동체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을 말한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등장한 이래로 오늘날은 이와 같은 가족들의 잔치나 공동체행사들은 모두 가정에서 행하기보다는 도시의 전문적인 연희장소(호텔, 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식당 등)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잔치음식과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 공통점은 역시 홍어음식을 잔치음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홍어음식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섭취되었던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섭취해가고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소비자 중심의 홍어음식이라 함은 더 이상 잔치나 정치적인 것보다도 일반식당에서 제공되는 일상음식으로 자리 잡아 간다는 것을 말한다.



2. 홍어음식의 지역성과 정치적 상징화

홍어음식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명절이나 결혼잔치, 장례식, 공동체행사 등에서 접대음식으로 내놓을 만큼 비싼 음식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홍어잡이가 중단되고 홍어의 품귀현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홍어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흑산도 홍어의 희귀성을 토대로 홍어의 산지로서 흑산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흑산도 홍어'라는 브랜드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어떠한 산지의 홍어보다도 흑산도 홍어의 상품적 가치를 높게 하였던 것이다. 흑산도 홍어의 희귀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홍어의 가격상승은 자연스럽게 홍어음식이 비싼 음식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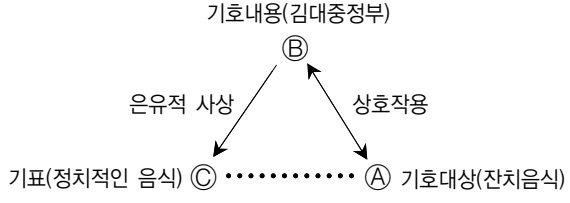
그러다가 수입 자유화 이후 냉장·냉동 시설의 발달과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이 수입 수산물 유통을 촉진시켰는데, 특히 홍어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홍어음식이 전라도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부상하고 수입산 홍어가 전국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즉 홍어의 전국적인 소비는 홍어음식의 대중화를 가져오고, 홍어음식의 지역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전라도의 홍어음식이라는 지역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지역주의, 지역성의 상업적 이용, 중산층의 성장과 외식 및 관광 소비문화의 발달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39] 이처럼 홍어음식이 지역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전라도의 문화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39)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25쪽.

전라도의 정체성과 결부된 홍어음식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기도 한다. 전라도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에서 정치적인 소외,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광주민주화 운동, 민주정부의 상징인 김대중 정부의 탄생 등 현대사의 수많은 정치적 경험 현장이다. 이러한 경험은 전라도라는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전라도를 정치적 지역기반으로 하던 민주당은 홍어음식을 민주당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그것이다.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40] 특히 홍어음식을 소비하는 집단의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적 가치와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홍어음식은 전라도 정치권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하였다. 문화적인 맥락에서 소비되었던 홍어음식이 전라도 정치권력이고 김대중 정부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잔치음식을 경험했던 전라도인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주하고 정착하면서,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라고 하는 물리적 경험 영역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작용하여 정치적인 음식이라는 기호적 내용으로 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에서 형성된 홍어음식이 기호내용의 변화에 따라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정치적인 음식으로 정착하는 기호과정은 [Ⓐ기호대상(잔치음식)→Ⓑ기호내용(김대중정부)→Ⓒ기표(정치적인 음식)]로 전개된다.



40)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27쪽.

3. 홍어음식의 축제성과 문화적 상품

축제는 1990년 중반에 들어서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문화행사의 하나로 선호되었고, 21세기형 문화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축제가 제의적인 행사이면서 유희적인 행사이고, 의례적인 행사이면서 경제적인 행사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사회인 농경사회의 축제일수록 제의성과 의례성이 강하고,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산업사회의 축제일수록 유희성과 경제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축제를 단순히 소비가 아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는 생산의 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41] 영산포의 홍어축제와 흑산도의 홍어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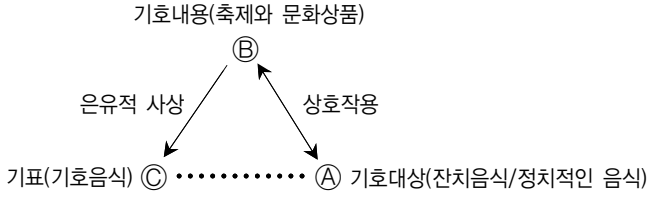
흑산도는 홍어의 생산지로서, 영산포는 가공지(加工地)로서 이미지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획된 것이 흑산도와 영산포의 홍어축제이다. 영산포에서는 '홍어·젓갈축제'를 2000년에 시작했지만 두 번 개최되고 중단되었다가 2007년에 다시 '영산포 홍어축제'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부활되었다. 특히 영산포 홍어 상인들은 비록 홍어가 수입산이라 하더라도 오래 기간에 체득한 기술로 홍어를 가공하고 숙성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만들었고, '숙성 홍어의 메카'라는 점을 부각시켜 홍어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홍어와 관련된 축제의 내용을 보면 홍어 경매와 홍어 예쁘게 썰기 등이 있고, 부대행사로 홍어 전시관을 마련하여 영산포가 숙성 홍어의 메카라는 상징성과 홍어의 집산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42] 토대로 홍어 가공지로서 영산포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흑산도는 자연경관만으로는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어 생산지로서 진정성을 내세워 2007년에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하였다. 홍어의 대표성이 흑산도에 있음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41) 표인주(2007), 앞의 책, 24~25쪽.
42)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182~189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흑산도 홍어축제는 용왕제를 비롯하여 흑산홍어 시식회, 흑산홍어 내장국 맛보기, 흑산홍어 시판, 흑산홍어 썰기 대회, 숙성 흑산홍어 먹기대회 등 홍어 관련 행사내용과 부대행사로 흑산홍어관 운영, 흑산홍어 요리장터 등이 있다.[43] 이러한 것을 보면 흑산도의 홍어축제나 영산포 홍어축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본래 축제 기획 의도는 영산포는 숙성 홍어의 메카로서 이미지, 흑산도는 홍어의 생산지로서 진정성을 강조하고자 했으나 그와 관련된 축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지역이 축제의 상품화를 통해 홍어를 문화적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모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영산포와 흑산도의 홍어축제를 통해 홍어음식의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를 중요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라도의 잔치음식이었고 한국의 정치적인 음식이었던 것이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물리적 경험 영역의 변화에 따라 축제와 문화상품이라는 기호내용이 작용하여 소비자 중심의 기호음식(嗜好飮食)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잔치음식이고 정치적인 음식이 기호내용의 변화에 따라 한국인의 기호식품으로 정착하는 기호과정은 [Ⓐ기호대상(잔치음식/정치적인 음식)→Ⓑ기호내용(축제와 문화상품)→Ⓒ기표(기호음식)]으로 전개된다.



43)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195~198쪽.

결론적으로 홍어음식은 신체/물리적 경험의 변화를 토대로 홍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다성성, 홍어음식이 갖는 개념의 혼종성, 기호내용의 변화가 기호적 전이과정을 통해 기억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만약에 홍어음식이 기호적 전이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홍어음식과 관계된 모든 기억들이 사라졌을 것이다. 홍어음식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기억들이 형성되고 물리적인 경험영역의 변화를 수용하여 기호적 전이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의미를 갖는 홍어음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홍어의 장소성의 이동을 통해 섬지역의 음식이 공동체의 잔치음식으로, 전라도의 잔치음식이 정치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인 음식으로, 잔치음식과 정치적인 음식이 지식정보산업사회 문화산업의 하나인 축제와 문화상품으로 활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기호음식으로 전이되어 홍어음식이 지속되고 있다. 즉 홍어음식이 잔치음식→정치적인 음식→기호음식이라는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총합적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고 있고, 홍어음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간의 소통구조 속에서 생산자보다도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홍어음식의 원초적 근원과 확대

홍어음식의 원초적인 근원은 흑산도의 홍어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흑산도에서 본래 홍어를 말린 뒤 쪄서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흑산도에서 홍어를 날 것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부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산도에서 주로 홍어를 먹었던 마을은 포구가 발달하고 홍어잡이배가 있었던 다촌, 진리, 예리, 비리 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잔치에서 소나 돼지를 잡을 수 없는 경우 홍어를 주로 먹기도 했다고 전해지기도 있다.[44] 이때 홍어를 날 것

으로 먹지 않고 말린 홍어를 쪄서 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홍어음식은 흑산도와 다물도에 전해지는 '홍어제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어잡이 할 때 제일 먼저 잡힌 홍어를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다가 말린 홍어를 쪄서 섣달 그믐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누어 먹는 것을 홍어제숙이라 한다. 말린 홍어를 쪄서 먹는 것은 뱃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월 보름에 지내는 뱃고사를 '큰고사'라 부르고, 제물로 홍어를 올리고 풍어를 기원한다. 제상에 올리는 홍어는 홍어잡이를 하면서 직접 잡은 홍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말려 놓았다가 쪄서 준비한 것이다.[45] 이처럼 말린 홍어를 쪄서 제물로 올리고 그것을 음복한 것을 보면 '말린 홍어찜'을 제사음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잔치음식으로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흑산도의 홍어음식이 영산포에 영산도 사람들의 집단이주와 더불어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산포에서 말린 홍어찜을 먹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싱싱한 홍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말린 홍어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고, 영산포에서 접할 수 있는 홍어는 고작해야 운송수단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신선도보다는 어느 정도 썩힌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산포에서는 발효시킨 홍어를 날 것으로 먹었거나 찜으로 먹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영산포에서는 흑산도와 다른 홍어음식, 즉 '발효시킨 홍어회'나 '발효시킨 홍어찜'을 선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어회는 '발효시키지 않은 것'과 '발효시킨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효시키지 않은 것은 흑산도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선호하는 홍어잡이 선원들이 가장 먼저 먹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홍어회의 원초적 근원을 흑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흑산도 사람들은 홍어를 삭히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먹었고, 중선배가 들어간 서해안 선창이나 포구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싱싱한 홍

44)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124쪽.
45) 박종오(2008), 앞의 논문, 210~217쪽.

어를 먹었다고 한다.[46] 그렇지만 흑산도에서는 1970년대 들어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사흘 정도 삭힌 홍어회를 팔기 시작했다고[47] 한 것으로 보아 영산포의 발효시킨 홍어회가 다시 홍어의 생산지인 흑산도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래 흑산도에서는 '싱싱한 홍어회'와 '말린 홍어찜'을 선호했다면, 영산포에서는 '발효시킨 홍어회'와 '발효시킨 홍어찜'을 선호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홍어음식은 넓은 의미에서 홍어와 가오리를 요리한 음식을 말한다. 주로 홍어는 회와 무침으로 가오리는 무침으로 제공한다. 가오리는 남해안쪽에서 더 많이 서식하여 주로 여수항에 위판되어 소비되었는데, 이러한 관계로 전남의 동부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이 가오리음식문화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홍어음식문화권은 영산강과 호남선을 통해 전라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잔치에서 영산강 유역에서는 홍어회를 제공하고, 섬진강 유역에서는 가오리무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홍어음식문화권이 점차 섬진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48] 이처럼 홍어음식이 더욱 공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어음식은 다양한 홍어요리를 통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기도 한다. 특히 홍어회보다도 '홍어무침'은 홍어의 손질과 더불어 다양한 양념과 미나리 등의 식재료가 첨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화된 홍어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서 홍어의 내장을 이용하여 보리나 나물을 첨가하여 요리한 '홍어애국', 삶은 돼지고기와 잘 익은 김장김치에 홍어회를 첨가하여 먹은 '홍어삼합' 등은 기본적으로 발효시킨 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어음식의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46) 윤형숙 외(2009), 앞의 책, 152~153쪽.
47) 황교익(2003), 앞의 글, 93쪽.
48) 조정규(2016), 앞의 논문, 73~76쪽.

지금까지 홍어음식의 근원에서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험적 영역의 변화에 따라 정신영역인 홍어음식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식재료인 홍어는 '날 것'과 '발효시킨 것'으로 구분되고, 날 것의 홍어는 홍어회로 사용하거나 자연의 바람에 말려 홍어찜의 식재료로 사용한다. 홍어회의 음식 경험이 홍어무침으로 발전하고, 홍어가 없는 경우는 가오리로 대체되어 무침음식[49]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날 것의 홍어는 궁극적으로 열을 가하여 조리한 홍어찜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날 것의 홍어는 포구가 발달한 서해연안 지역에서 주로 선호했을 것이고, 홍어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륙지역인 섬진강 유역에서는 신선한 가오리를 회무침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농경지역인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라도 서부지역에서는 날 것을 발효시킨 홍어를 주로 선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신선한 홍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도 크게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젓갈을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농경지역은 신선한 생선보다도 발효시킨 생선들을 좋아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작용하여 홍어도 삭힌 홍어를 훨씬 선호하지 않았을까 싶다.

영산포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에서는 홍어를 인공적으로 발효시켜 자극적인 맛을 선호했다. 그래서 삭힌 홍어를 홍어회로 사용했을 것이고, 더불어서 평야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돼지고기의 편육과 발효된 김치, 거기에 발효주라고 할 수 있는 막걸리를 곁들여 접대음식인 잔치음식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발효시킨 홍어를 홍어찜으로 사용했고, 그 홍어 내장을 활용하여 홍어애국을 즐겨 먹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경지역인 평야지역에서 삭힌 홍어만큼 자극적이고 기억에 남을 음식은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삭힌 홍어는 소화에도 큰

49) 무침음식은 날 것의 식재료를 익히거나 굽지 않고 자연 그대로 기호에 따라 양념을 활용하여 버무린 음식을 말한다. 주로 식초를 활용한 무침음식을 말하는데, 온갖 생선을 활용한 회무침이나 구체적으로 생선의 이름에 따라 병어무침, 전어무침, 서대무침, 홍어무침, 가오리무침 등을 말한다.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음식의 발전 과정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면서 삶은 음식은 비교적 민주적인 유형의 사회에서만 높이 평가된다고 했고, 요리는 자연이 문화로 변형되는 보편적인 수단이라고 했다.[50]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날 것이고, 날 것을 인공적으로 가공하여 변형한 것이 문화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홍어음식도 마찬가지로 가장 원초적인 것은 날 것인 싱싱한 홍어를 사용한 음식이고, 다양한 경험영역은 물론 삶의 환경적인 변화에 적합한 것이 바로 삭힌 홍어를 사용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 것의 홍어가 삭힌 홍어로 변화된 것이고, 공간적으로 날 것과 삭힌 것의 홍어가 공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홍어음식의 변화 양상을 물리적 경험과 기호적 경험의 융합으로 형성되는 문화적 중층성[51]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모형화할 수 있다.

<table>
<tr><th>영역</th><th>경 험</th><th colspan="4">음 식 민 속</th></tr>
<tr><td rowspan="5">정신</td><td rowspan="5">기호적
경험</td><td rowspan="4">홍어음식(B)</td><td>홍어찜ⓒ</td><td rowspan="3">홍어찜ⓔ
(홍어제숙)</td><td>홍어찜ⓘ</td></tr>
<tr><td rowspan="2">홍어무침ⓑ
(가오리)</td><td>홍어애국ⓗ</td></tr>
<tr><td>홍어삼합ⓖ</td></tr>
<tr><td>홍어회ⓐ</td><td>말린 홍어ⓓ</td><td>홍어회ⓕ</td></tr>
<tr><td>홍어(식재료)(A)</td><td colspan="2">날 것(자연적)</td><td>발효시킨 것(인공적)</td></tr>
<tr><td>몸</td><td>물리적
경험</td><td colspan="4">섬지역(흑산도)→농경사회(영산포)→산업사회(도시화)
→지식정보산업사회(전국화)</td></tr>
</table>

50) 에드먼드 리치, 이종인 옮김(1999), 『레비스트로스』, 시공사, 60쪽.

51) 문화는 우리가 공유하는 물리적 경험과 그것으로부터 다양하게 확장된 기호적 경험의 게슈탈트적 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문화들은 물리적 층위로 갈수록 현저한 공공성을 드러낼 것이고, 기호적 층위로 갈수록 다양한 변이를 보일 것이다. 문화의 중층성이 드러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노양진(2013),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164~167쪽.)

앞의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홍어음식과 관련된 기호적 경험 형성의 근간이 되는 물리적 경험은 섬지역(흑산도)→농경사회(영산포)→산업사회(도시화)→지식정보산업사회(전국화)로 많은 변화를 해왔다. 그러한 영향으로 홍어음식이 〈흑산도 홍어음식→잔치음식→정치적인 음식→기호음식〉이라는 기호적 전이과정을 통해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식재료인 홍어(A)의 활용이 변화되었고, 홍어음식(B)도 ⓐ~ⓘ의 다양한 홍어음식으로 확대되어 발전해오고 있다.

특히 홍어음식의 공공성은 물리적 경험 영역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나타나고, 그 변이성은 기호적 층위로 갈수록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공공성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계승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변이성은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홍어음식의 공공성에 가까운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흑산도 지역에서 날것을 사용한 홍어회와 말린 홍어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경지역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발효시킨 홍어를 사용한 홍어회일 것이다. 이처럼 '홍어회'가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다양한 물리적 경험의 변화와 홍어음식의 경험을 통해 변형된 '홍어찜'은 가장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체험주의적 해석 방식을 토대로 홍어음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하고, 홍어음식의 계보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것은 홍어음식의 물리적 경험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기호적 전이과정과 공간적인 확대, 문화적 중층성을 탐색하는 것이 그 결과이다.

홍어음식이 흑산도에서 영산포로, 영산포에서 전라도 및 전국지역으로 확산

될 수 있었던 것은 음식문화의 물리적 경험 영역인 역사적인 사건과 사회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영산포는 흑산도 인근 영산도 사람들이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피해 이주하여 정착한 데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고, 영산도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홍어를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산도 사람들이 영산강 유역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홍어음식을 접대음식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음식이 영산포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가 개통되면서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라도 내륙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교통시설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생업환경의 변화는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가속화시켰고, 그에 따라 음식문화 또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 농촌인구가 광주를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지식정보산업사회는 지역의 경계와 국경은 물론 민족을 초월하여 지구촌의 시대를 열게 하였으며,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공산품이나 농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생산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홍어음식의 물리적 경험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섬지역(흑산도)→농경사회(영산포)→산업사회(광주 및 수도권)→지식정보산업사회(전국화 및 지구촌화)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호적 전이란 동일한 것에 그 경험의 관점에서 기호내용이 사상되어 마치 복제물처럼 다른 기표를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기표에 다른 기호내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기억의 변화는 인간의 신체/물리적 경험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홍어음식의 기호내용이 환경, 역사, 문화적인 조건의 변화와 관련된 장소성, 지역성, 정치성, 축제성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먼저 홍어음식이 흑산도에서 영산포라는 장소성의 이동에 따라 섬지역의 음식이 농경사회 공동체의 잔치음식으로, 두 번째로 홍어음식의 지역성과 정치성에 따라 전라도를 상징하는 지역음식과 정치적인 음식으로, 세 번째로 홍어음식의 축제적 활용에 따라 기호음식이라는 기호내용의 전이가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홍어음식은 신체/물리적 경험의 변화를 토대로 홍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다성성, 홍어음식이 갖는 개념의 혼종성, 기호내용의 변화가 기호적 전이과정을 통해 기억되면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홍어음식이 잔치음식→정치적인 음식→기호음식이라는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총합적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고 있고, 홍어음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간의 소통구조 속에서 생산자보다도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어음식의 원초적인 근원은 흑산도와 다물도에 전해지는 '홍어제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흑산도의 홍어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흑산도에서는 홍어를 말린 뒤 쪄서 먹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영산포에서는 발효시킨 홍어를 날것으로 먹었거나 찜으로 먹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로 손님들의 접대음식으로 홍어는 회와 무침으로, 가오리는 무침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음식의 선호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남의 동부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이 가오리음식문화권으로 알려져 있고, 홍어음식문화권은 영산강과 호남선을 통해 전라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홍어음식문화권이 점차 섬진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홍어음식은 다양한 홍어요리를 통해 '홍어무침', '홍어애국', '홍어삼합'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음식의 발전 과정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홍어음식도 마찬가지로 가장 원초적인 것은 날 것인 싱싱한 홍어를 사용한 음식이고, 다양한 경험영역은 물론 삶의 환경적인 변화에 적합한 것이 바로 삭힌 홍어를 사용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홍어음식의 문화적 중층성을 보면 홍어음식의 공공성은 물리적 경험 영역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나타나고, 그 변이성은 기호적 층위로 갈수록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홍어음식의 공공성에 가까운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흑산도 지역에서 날 것을 사용한 홍어회와 말린 홍어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경지역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발효

시킨 홍어를 사용한 홍어회일 것이다. 이처럼 '홍어회'가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다양한 물리적 경험의 변화와 홍어음식의 경험을 통해 변형된 '홍어찜'은 가장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곽유석 외(2015),『다물도』, 국립해양문화연구소.
노양진(2009),『몸·언어·철학』, 서광사.
_____(2013),『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2011),『기억의 공간』, 그린비.
에드먼드 리치, 이종인 옮김(1999),『레비스트로스』, 시공사.
윤형숙 외(2009),『홍어』, 민속원.
정윤국(1989),『나주목』, 제일문화사.
주인택 외(2016),『오디세이 광주120년』,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김동환·최영호 옮김(2009),『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표인주(2007),『축제민속학』, 태학사.
_____(2013),『영산강민속학』, 민속원.
_____(2014),『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

고규진(2003),「그리스 문자문화와 문화적 기억」,『기억과 망각』, 책세상.
김광억(1994),「음식의 생산과 문화의 소비」,『한국문화인류학』 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7~50쪽.
김영주(2009),「음식으로 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 전략」,『농촌사회』 제19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121~160쪽.
남근우(2009),「민속의 관광자원화와 민속학 연구」,『한국민속학』 제49집, 한국민속학회, 213~245쪽.
박선미(2016),「동성마을 잔치음식의 구성과 의미」,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정석(2008),「홍어와 지역정체성」,『도서문화』 제32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

연구소.

_____(2009),「홍어의 상징성과 지역축제」,『한국민족문화』제3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87~519쪽.

박종오(2008),「홍어잡이 방식의 변천과 조업 유지를 위한 제문제」,『한국학연구』제2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27~254쪽.

_____(2008),「홍어잡이와 관련된 어로신앙의 변화」,『호남문화연구』제42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1~230쪽.

윤형숙(2008),「홍어요리의 상품화와 전라도 지역 정체성」,『한국민족문화』제3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99~424쪽.

이숙인(2014),「18세기 조선의 음식 담론」,『한국실학연구』제28집, 한국실학회, 233~267쪽.

정충훈(1999),「한국산 홍어류 어류의 분류학적 연구 현황과 국명 검토」,『한국어류학회지』제11권 2호, 한국어류학회, 198~210쪽.

_____(2000),「한국산 가오리류의 종 목록과 분포상」,『한국수산자원학회지』제3집, 한국수산자원학회, 97~106쪽.

조정규(2016),「홍어와 가오리의 음식문화권 연구」,『문화역사지리지』제28권 제2호, 69~80쪽.

최문규(2003),「문화, 매체, 그리고 기억과 망각」,『기억과 망각』, 책세상.

한경구(1994),「어떤 음식은 생각하기에 좋다」,『한국문화인류학』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51~68쪽.

한경란(2016),「연행록에 나타나는 음식 표상과 자기이해 양상」,『한국어와 문화』제20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81~205쪽.

황교익(2003),「고향의 맛-음식여행」,『지방행정』1월호, 91~95쪽.

황익주(1994),「향토음식 소비의 사회문화적 의미」,『한국문화인류학』제2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69~93쪽.

투고일: 2017. 05. 20.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4.

| 국문초록 |

홍어음식의 기호적 전이와 문화적 중층성

홍어음식이 흑산도에서 영산포로, 영산포에서 전라도 및 전국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음식문화의 물리적 경험 영역인 역사적인 사건과 사회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영산포는 흑산도 인근 영산도 사람들이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피해 이주하여 정착한 데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고, 영산도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홍어를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산도 사람들이 영산강 유역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홍어음식을 접대음식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음식이 영산포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가 개통되면서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라도 내륙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교통시설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생업환경의 변화는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가속화시켰고, 그에 따라 음식문화 또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 농촌인구가 광주를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지식정보산업사회는 지역의 경계와 국경은 물론 민족을 초월하여 지구촌의 시대를 열게 하였으며,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공산품이나 농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생산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홍어음식의 물리적 경험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섬지역(흑산도)→농경사회(영산포)→산업사회(광주 및 수도권)→지식정보산업사회(전국화 및 지구촌화)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호적 전이란 동일한 것에 그 경험의 관점에서 기호내용이 사상되어 마치 복제물처럼 다른 기표를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기표에 다른 기호내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기억의 변화는 인간의 신체/물리적 경험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홍어음식의 기호내용이 환경, 역사, 문화적인 조건의 변화와 관련된 장소성, 지역성, 정치성, 축제성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먼저 홍어음식이 흑산도

에서 영산포라는 장소성의 이동에 따라 섬지역의 음식이 농경사회 공동체의 잔치음식으로, 두 번째로 홍어음식의 지역성과 정치성에 따라 전라도를 상징하는 지역음식과 정치적인 음식으로, 세 번째로 홍어음식의 축제적 활용에 따라 기호음식이라는 기호내용의 전이가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홍어음식은 신체/물리적 경험의 변화를 토대로 홍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다성성, 홍어음식이 갖는 개념의 혼종성, 기호내용의 변화가 기호적 전이과정을 통해 기억되면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홍어음식이 〈잔치음식→정치적인 음식→기호음식〉이라는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총합적 기호적 전이를 통해 지속되고 있고, 홍어음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간의 소통구조 속에서 생산자보다도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어음식의 원초적인 근원은 흑산도와 다물도에 전해지는 '홍어제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흑산도의 홍어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흑산도에서는 홍어를 말린 뒤 쪄서 먹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영산포에서는 발효시킨 홍어를 날 것으로 먹었거나 찜으로 먹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로 손님들의 접대음식으로 홍어는 회와 무침으로, 가오리는 무침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음식의 선호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남의 동부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이 가오리음식문화권으로 알려져 있고, 홍어음식문화권은 영산강과 호남선을 통해 전라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홍어음식문화권이 점차 섬진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홍어음식은 다양한 홍어요리를 통해 '홍어무침', '홍어애국', '홍어삼합'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음식의 발전 과정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홍어음식도 마찬가지로 가장 원초적인 것은 날 것인 싱싱한 홍어를 사용한 음식이고, 다양한 경험영역은 물론 삶의 환경적인 변화에 적합한 것이 바로 삭힌 홍어를 사용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홍어음식의 문화적 중층성을 보면 홍어음식의 공공성은 물리적 경험 영역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나타나고, 그 변이성은 기호적 층위로 갈수록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홍어음식의 공공성에 가까운 것은 두 종

류가 있는데, 하나는 흑산도 지역에서 날 것을 사용한 홍어회와 말린 홍어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경지역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발효시킨 홍어를 사용한 홍어회일 것이다. 이처럼 '홍어회'가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다양한 물리적 경험의 변화와 홍어음식의 경험을 통해 변형된 '홍어찜'은 가장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흑산도, 영산포, 전라도, 기호적 전이, 홍어음식, 잔치음식, 정치적인 음식, 기호음식

호남문화연구 61: 37~6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의 개작 양상과 작가 의식 고찰*

A Study on the Aspects of Revision and Authorial Consciousness in 『*My one shadow contained in the shadow of Mt. Jiri*』

박 찬 모**
Park, Chan-Mo

목 차

Ⅰ. 서언
Ⅱ. 서술 방식과 계몽 의식
Ⅲ. 개작과 민중의 수난상 부각
Ⅳ. 결어에 대신하여 : 미완의 최종판

|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uthori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work, its effect and narrative strategy focusing on 『*My one shadow contained in the shadow of Mt. Jiri*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 by Oh Chan Sik. 『*My one shadow contained in the shadow of Mt. Jiri*』 (1990) was first published in 1984 as 『*Mateul* (마뜰)』 and it was revised and published as 『*Mt. Jiri Partisan*(지리산 빨치산)』 in 1989. Despite the two revisions, there are no major changes in key figures and central events. 『*Mt. Jiri Partisan*』 is a minor revision of 『*Mateul*』 such as some words and sentences. Yet, there was a remarkable increase/decrease in 『*My one shadow contained in the shadow of Mt. Jiri*』.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15)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HK교수

commentary on “the genocide of the US Army to people in Namwon” and “the massacre of the civilian population by the army and police” was added by referring to the articles and handouts published in the late 1980s. It was derived from the authorial willingness to gradually overcome ideological bias in consideration of vocation consciousness and social situation. This work intentionally adds to the reality of the suffering that the people had in the swirl of political and national conflict such as the dominat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And, it clearly shows the violence and the surplus of the war along with the crowd of people.

In addition, this work is a growth novel that symbolizes the process of the inexperienced boy growing up as a sensible sexual / social subject, characteriz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narrator. There are many scenes that support the judgment of a young boy speak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 narrator with reasoning ability. Such is characterized by the pre-modern thinking depending on Docham and criticism on tax in kind. In particular, the narrator compared the features of village people who realized the unfairness of the tax in kind with the ‘artisan’ who did the best for their duty criticizing the people’s ignorance and foolishness, who had pursued fallacy gains. Considering that village people were trying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at the end of the war and that ‘I’ also became a diligent and rational subject through further schooling, this intervention of the narrator is ‘growth’ of ‘me’ is s a proof that the author is in touch with the enlightenment of authorial consciousness. In this regard, this work is an enlightenment novel which was intended to bring out the arousal and enlightenment of the people by presenting the intangible people’s image to perform the work diligently even in a turbulent environment.

Key words : Oh, Chan-Sik, *Mateul* (마뜰), *Mt. Jiri Partisan*(지리산 빨치산), *My one shadow contained in the shadow of Mt. Jiri*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 Growth Novel, Consciousness of enlightenment

Ⅰ. 서 언

본 논문은 오찬식(吳贊植, 1938. 2. 15.~2008. 2. 10.)의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이하 『지리산 그림자』)를 중심으로, 작품의 개작 양상과 그 효과, 그리고 작품의 서술 방식에 함축된 작가 의식 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산 그림자』(1990)는 1984년에 『마뜰』이란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으며,[1] 이후 1989년에 『지리산 빨치산』으로 개작되어 출간된 바가 있다. 작품의 개작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개작의 배경을 추론하고, 개작에 따른 효과 등을 논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작품은 어린 소년이 성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성장소설로서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초점화자인 미숙한 소년 화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갖춘 서술자의 관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강화하는 서술 방식에 주목하여 그에 함축된 작가 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북 남원에서 출생한 오찬식은 한국자유문학자협회 기관지였던 『자유문학』의 소설분과위원회 제1차 추천작인 「전야(轉夜)」(『자유문학』, 1959.7)와 「뜨거운 것」(1960.4)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00여 편의 중·단편소설과 『올가미』(1976, 여성세계사), 『거부하는 몸짓』, (1979, 교문사), 『창부타령』(1984, 미덕문화사), 『무꾸리』(1986, 민족문화문고간행회), 『모꼬지(1993, 예술문화사』, 『맥』(2000, 송파문화) 등 10여 권의 소설집, 그리고 『축제의 나그네』(1979, 명지사), 『탈춤』(1988, 인문당), 『도깨비 놀음』(1989, 삼성출판사, 이후 『여울목』으로 개작 1994, 한미디어), 『조의선인』(1993, 다물), 『소설 진시황』(1994, 시사출판사) 등의 장편소설을 출간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1979~1989), 한국문인협회 이사(1979~1992), 국제펜

1) 『마뜰』은 1982년 5월부터 1983년까지 5월까지 13회에 걸쳐 『월간문학』 연재된 후 동일한 제목으로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되었다.

클럽 한국본부 이사(1985～1994) 등을 역임했으며, 「창부타령」(『현대문학』, 1980. 12)으로 제7회 한국소설문학상(1981)을, 「맥」(『월간문학』, 1993.2)으로 제28회 월탄문학상을, 그리고 소설집 『창부타령』(미덕문화사, 1984)으로 평론가협회문학상(1985)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왕성한 창작과 문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 대한 분석은 평론 세 편에 불과할 정도로 영성하다. 그의 중·단편에 관한 평론 한 편과 『마뜰』에 관한 평론 두 편이 고작이다. 그의 작품론을 일별해 보자면, 신규호는 「흥부전」, 「배비장전」, 「주택복권」 등을 고전의 '풍자'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으로, 그리고 「남원 사월초파일」, 「지방주재기자」, 「패언」, 「종명」 등에 대해서는 인간악과 사회비리를 고발하는 작품으로 평가한 후, 오찬식의 문학을 "풍자와 고발의 양면경으로 악을 몰아내는 교화에 힘씀으로써 산업화의 그늘에 가린 민중의 땀과 눈물의 의미를 깨쳐 준", 그리하여 "고전에 뿌리를 두고 자라난 나무에 핀 아름다운 민중문학의 꽃"[2]으로 상찬하였다. 그리고 『마뜰』에 대해서 박태순은 "밑바닥 산골 농민의 시선으로 그 전쟁을 바라보되, 그 관찰 내용 또한 순박한 농민세계 그 자체에 놓았던"[3] 작품으로, 김영호 역시 민중의 생생한 체험과 인간적 고뇌가 담긴 작품이자 "삶의 인간적 조건에 대한 섬세한 시선을 제공해"[4] 주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세 평자 모두 민중적 시각과 정서를 그의 작품세계의 주된 특징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2) 신규호(1985), 「풍자와 고발의 양면경-오찬식의 중단편론」, 『예술계』 6월, 152쪽. 또한 그는 오찬식의 작품세계가 '비판적 휴머니즘'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야」에 대해서 "근래에 보기드문 휴머니티를 높게 평가해서 추천하기로 했다"(주요섭(1959), 「소설추천소감」, 『자유문학』 7월, 131쪽.) 라는 주요섭의 추천사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3) 박태순(1984), 「농민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학-오찬식의 〈마뜰〉을 중심으로」, 『월간문학』 8월, 181～182쪽.

4) 김영호(1984),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상상력」, 『한국문학의현단계 Ⅲ』, 창작과비평사, 462쪽.

박태순과 김영호는 민중의 '체험적 요소'에 각별히 주목함으로써 『마뜰』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의 인식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공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론에서 상론하겠지만 이 작품이 해묵은 이념적 인식틀에서 벗어나 민중적 시선에서 "민족공동체의 파괴"[5]나 "민중의 생활고"[6]를 핍진하게 그려냈다 하더라도 그 원인과 책임을 일정정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평자의 가치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민중의 고통과 수난에 대한 책임 전가와 병행하여 그들을 위한 교육과 계도라는 작가의 계몽의식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린 직접적인 계기가 된 6·25전쟁의 발발 원인과 성격, 그 특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저해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7]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리산 그림자』의 의의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작품의 개작 양상과 그 서술방식 등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후자의 논의 과정에서는 『마뜰』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 중편소설을 참고하여 작가의식을 한층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작품의 범주까지 천착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특정 몇몇 작품으로 그 대상을 국한하고 있는 만큼 오찬식의 작품 세계 전모를 드러낼 수 없지만, 지역 문학 연구차원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8]

---

5) 박태순(1984), 앞의 글, 181쪽.

6) 김영호(1984), 앞의 글, 460쪽.

7) 박태순은 『마뜰』에 대해 "산골 사람들이 그 전쟁의 성격, 원인, 진행과정, 의미, 특성 따위들을 제도로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인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소설 규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전쟁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린이로부터 성인으로 되어간 주인공을 소재"로 삼은 '촌락 소설'로 규정한다. (박태순(1984), 같은 글, 179쪽.)

8) 신규호는 오찬식의 작품을 김유정의 그것에 견주어 "우리 민족문화, 특히 농촌 문화의 백과전서의 구실을 하는 한국어의 보고"라고 평가한다. 강인숙 또한 '풍부한 토속어'에 담긴 원시적 자연 세계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그의 작품 세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하

Ⅱ. 개작과 민중의 수난상 부각

최초 발표작의 서명(書名)이자 허구적 공간인 '마뜰'은 지리산 동북방에 위치한 남원 운봉 지역의 한 마을로, 소년인 '나(덕팔)'가 전쟁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작중 인물인 김만돌에 따르면, 마뜰은 "화랑들이 무예를 익혔을 무렵에 말을 친 곳"[9]이라는 '말들[馬野]'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허구적 지명을 서명으로 격상시킨 배경에는 강렬한 민족성과 함께 목가적 낭만성을 환기하는 공간에 동족상잔의 참극을 배치함으로써 전쟁의 비극성을 고조하고자 했던 작가적 의도로 추측된다.[10] 그리고 이후 서명이 『지리산 빨치산』과 『지리산 그림자』로 각각 수정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빨치산을 소재로 한 회고, 수기, 시, 인터뷰, 증언 등 다양하고 광범한 형식의 글들이 앞을 다투어 발표"[11]되던 시기에 이뤄진 개작인 만큼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대중적 호소력을 증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수정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후술하겠지만 80년대 말에 출간된 수기와 기사 등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가감한 후, 보다 사실적이고 자전적인 체험임을 강조하기 위해[12] '장편성장소설'이란 갈래 명칭을 덧붙여

고 있다. 더불어 『지리산 그림자』는 물론 「종명」과 「사진 찍히는 사람」 등에서 지리산은 모성적 고향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오찬식의 작품은 지역문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호(1985), 앞의 글, 150쪽; 강인숙(1988), 「작품해설」, 『한국장편문학』 15권, 금성출판사, 448쪽.)

9) 오찬식(1990), 『지리산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 실천문학사, 170쪽. 이하 『마뜰』(오찬시(1984), 『마뜰』, 실천문학사)과 『지리산 빨치산』(오찬식(1989), 『지리산 빨치산』, 백양출판사), 그리고 『지리산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를 인용할 경우 「지리산 그림자」로 축약하여 쪽수와 함께 기입하고자 한다.

10) 작가는 『마뜰』에 담긴 이야기가 "육이오 동란으로 빚어진 비극적 삶을, 지리산 자락에 묻혀 살고 있는 서민들로부터 건져 본 당시의 처참했던 생활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찬식(1984), 「작가의 말」, 『마뜰』, 실천문학사, 238쪽.)

11) 정한식(1988), 「빨치산, 그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삶의 괴리 : 이태 『남부군』(두레, 1988)」, 『한국역사연구회회보』 제1집, 한국역사연구회, 16쪽.

12) 작가의 체험적 요소는 서문 혹은 발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 초조의 연

수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개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스토리(story) 국면[13]에서 살펴보자면, 두 차례에 걸린 수정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성분 요소인 인물과 사건에 있어 큰 변화는 없다. 덕팔(나)과 부모, '나'의 친구인 삼환과 그의 가족인 금바우 영감, 일환, 이환, 그리고 말동과 말순, 김만돌 등이 변함없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사건에 있어서도 철부지 소년인 덕팔이 마뜰의 인민위원장인 아버지를 데려오려고 입산했다가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14] 이환, 말동과 함께 귀순한 후 분별력 있는 성적·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성장서사로서의 스토리-선(story-line)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지리산 그림자』의 경우 텍스트 국면의 개작을 통해 특정 서술과 사건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있지만, '사건'을 "하나의 사태로부터 또 하나의 사태로의 변화"[15]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텍스트 국면의 가감이 사태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스토리-선에 미친 영향 또한 미비하기 때문에 스토리 국면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그들 내외는 열심히 일했다. 아내는 땅을 파가나는 남편 뒤에서 띠뿌리를 추리고, 둑을 만들어 물을 실은 다음 볍씨를 붓는다. 피를 가린다. 인분을 찌크린다.

속이었던 공포의 전시하를 직접 체험한 필자의 유년쪽으로 조명해 보았다"(마뜰, 238 ; 지리산 빨치산, 8) "말과 체험은 기록(역사)보다 솔직하고 선명하며 진실하다는 점에서, 그것을 버금갈 만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지리산 그림자, 275)

13) S. 리먼-케넌은 허구적 서사물의 구조를 스토리(story), 텍스트(text), 서술(narration)이라는 세 국면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스토리는 사건들의 참여자와 함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재구성된, 서술된 사건(narrated events)이다. 텍스트는 구술 또는 기술된 담화로서 우리가 읽는 대상물이다. 서술은 제작의 행위 또는 과정이다. 세 국면 가운데 독자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뿐이며, 스토리와 서술은 텍스트의 두 가지 환유인 셈이다. (S. 리먼-케넌, 최상규 역(1985),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4~15쪽.)

14) 아버지는 인민재판 이후 '반동'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떠밀려 추락사한다. 그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3장에서 살펴보았다.

15) S. 리먼-케넌, 최상규 역(1985), 같은 책, 32쪽.

> 산기슭에서 베온 꼴을 말려 썩힌 다음 그 퇴비를 넣자 땅은 금세 기름진 옥토가 되었다. (마뜰, 16 ; 지리산 그림자, 10)

> 그들 내외는 열심히 일했다. 아내는 땅을 파나가는 남편뒤에서 띠뿌리를 추렸다. 그리고 둑을 만들어 물을 실은 다음, 볍씨를 붓는다 피를 가린다, 인분을 찌크린다…… 산기슭에서 베온 풀을 말려 썩힌 다음 그 퇴비를 넣자 땅은 이내 거짓말같이 기름진 옥토로 변해버렸다.(지리산 빨치산, 16-17)

위 인용문은 '나'의 친구인 '삼환'의 부모, 즉 금바우 영감 내외가 부부의 연을 맺고 성실하게 산기슭을 개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텍스트 국면에서 보자면, 『마뜰』에서 『지리산 빨치산』으로의 개작은 문장 단위의 수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리산 그림자』에서는 다시 『마뜰』의 문장 조어법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 국면과 마찬가지로 『지리산 빨치산』으로의 텍스트 개작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16]

그러나 『지리산 빨치산』과 달리 『지리산 그림자』에서는 텍스트 일부를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작이 이뤄졌다. 삭제의 경우 어머니와 우 순경이 한밤에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과 김일성에 대한 '나'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구절이 대표적이다. 빨치산 토벌대원인 우 순경은 우리집에 하숙하는 인물로서 어머니와 통정하는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삭제된 곳은 2쪽에 걸쳐 서술된 대목으로 어머니가 우 순경에게 '기생과 과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다. 둘 간의 밀회를 염탐하며 "누구나 여자들이란 겉보기와는 달리 다소의 갈보 기질이 있는 모양"(마뜰, 200 ; 지리산 그림자, 232)이라고 단정해 버리게 되는, '나'의 그릇된 성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지만, '기생과 과객 이야기'가 어머니가 끌어들인 하위 스토리 수준(hypodiegetic level)의 서술인

16) 이런 까닭에 2장에서는 『마뜰』과 『지리산 그림자』의 인용 쪽수만을 밝히고, 개작 여부와는 무관한 논의인 3장에서는 『지리산 그림자』를 주로 인용하고자 한다.

데다 둘 간의 대화 자체가 매우 선정적인 탓에 그 삭제의 결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유현덕 같은 인물이 바로 김일성 수령처럼 탁월한 어른이라는 것만 말이다. 김일성 수령께서는 후덕하기로 유현덕 뺨친다는 것만 알면 되느니라"
>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먹성 좋게 생긴 사진부터가 잘 먹여 놓은 황소 목덜미 저리 가라식으로 머리와 어깨 구분이 잘 안된 사진에서 구역질을 느낀 우리다. 말을 타고 날렵하게 장백산을 누볐다고 하지만 삼국지의 동탁 같은 체구로 어떻게 달렸을까 싶어서였다. 걸귀같이 먹색였을 사진의 위인을 준수하고도 의젓한, 그러면서도 인자한 이목구비의 유현덕에게 비교하라니 천부당만부당이다. 한데도 우리는 그들 빨치산 간부들의 말에 수긍을 빛을 보여야 했다.
> [빨치산 간부들은] 올 때마다 푸짐한 양식과 선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주었다.) 두툼한 솜옷이며 때로는 흙 하나 묻지 않은 고무신이나 운동화도 가져다 ~~안겨준다~~(안겨주었다.) 그러니 저들이 터무니 없는 말로 우리 귀를 맥질한다해도 아니다라고 우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마뜰 167 ; 지리산 그림자 190, 대괄호는 추가, 괄호는 수정, 밑줄은 삭제, 인용자)

위 인용문에는 아버지가 비운의 죽음을 당한 이후 '나'가 '배암사골(뱀사골)'에서 달궁의 해방군학교로 옮겨 와서 '빨치산 간부'들로부터 교양교육을 받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빨치산 간부가 김일성 수령을 유현덕에 비유하는 데에 대한 부당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는 혜택 때문에 그 부당성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혹은 신격화가 6·25전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삭제된 구절은 순진한 소년 화자의 시각을 빌어 김일성 우상화의 강제성과 허구성을 묘파하고 있다기보다 다분히 '반공 소년'의 맹목적인 비난에 가깝다.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지며, 이런 점에서 인민군의 '도주'(마뜰, 120)를 '퇴각'(지리산 그림자, 136)이라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수정하고 있는 점

도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 그림자』에서 텍스트 국면의 확연한 변화는 삽입 서술 때문인데, '미군의 남원양민 학살사건'과 '군경에 의한 양민 학살사건'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의 남원양민 학살사건'은 80년대 후반에야 '발굴 기사'를 통해 비로소 세간에 알려진 사건으로서,[17] 『지리산 그림자』에서는 '나'가 작중인물인 '삼환이 형'에게 사건의 경위와 전말 등을 전해 듣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해방 직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포고하며 들어선 미군정이 경찰 기능 및 적산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던 남원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4천 여 명의 남원군민들을 향해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남원 군민들이 시위에 나선 근원적인 이유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도 모른 채 순수한 민족애에서 그토록 당하고 빼앗기고만 살아왔던 나라를 비로소 우리 손을 세워보자는 생각"(지리산 그림자, 13)[18]에서였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시위와 총격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미군정의 정치적·정책적 의도와 정보 담당부서 G-2의 보고 등 소년 화자의 지각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개작 시점에 발표된 '발굴기사'를 바탕으로 개작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취재원의 상여소리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그리고 기자가 참고한 문헌 내용들이 고스란히 인용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집 안에서 즉사한 시체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시냇가로 발랑발랑 까져있다. 집 안에서 즉사한 시체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시냇가로 모여들어 널부러져 있었다. 까마귀가 극성스럽게 우는 곳에서는 대여섯구의 시체가 보통이었다. 심지어 다듬

17) 오연호(1988), 「'발굴 기사' 최초 증언, 미국의 '남원학살'」, 『말』 12월, 월간 말. 이 사건은 1945년 11월 17일 전북 남원에서 미군의 총격에 의해 3명이 사살되고, 다수의 양민이 부상을 입은 역사적 사건이다.

18) 오연호(1988), 같은 글, 31쪽.

> 잇돌로 골통을 으깨 죽인 시신도 있었다. **대부분 전투경찰대들(양민들)**이다. (중략) **[좌우지간 당시로서는 빨치산들이 가까운 마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경찰대의 출동은 의외로 늦었다. '군경의 양민 학살사건']** 우리는 여기서 권페기 뒤쪽 산기슭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마뜰, 193-194 ; 지리산 그림자, 222-223, 190, 대괄호는 추가, 괄호는 수정, 밑줄은 삭제, ' '은 요약, 인용자)

위 인용문에는 '나'가 이환, 말동 일행과 함께 해방군학교에서 이탈하여 귀순하던 중, 우연히 조우하게 된 빨치산을 토벌한 직후 인근 마을에서 목격한 장면이 담겨 있다. 『마뜰』에서는 처참하게 살해된 대상이 '전투경찰대들'이었지만 『지리산 그림자』에서는 '양민들'로 수정되어 있으며, 양민들의 참혹한 죽음이 뒤늦게 출동한 경찰대 때문임이 덧붙여져 있다.[19]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당시 산간부락 주민의 고통과 공포가 어떠했으리라는 게 짐작되고도 남는다."(지리산 그림자, 223)라는 구절과, 거창 등지에서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자행된 양민학살에 관한 내용이 국회 조사단 자료를 인용하여 서술되어 있다. 이 또한 참고하고 있는 문헌이 있는데, 곧 『남부군』이다. 이태는 남부군이 보급투쟁을 나갈 때 경찰의 매복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매복은 커녕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전투에서는 형식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빨치산들에게 식량이나 옷가지 등을 빼앗긴 주민들에게는 혹독한 문초를 가하는 경찰대의 행위를 비판하고, 군경에 의해 자행된 양민 학살사건에 대해 '국회 조사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밝힌 바 있다.[20] 남원 양민학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

19) 이해를 돕기 위해 서사 연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나'가 이환, 말동과 함께 후방교란임무를 전달하는 전령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대를 이탈하다. ② 세걸산 밑 권페기 마을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고 연기가 치솟는 걸 감지하다. ③ '나'는 빨치산들이 공연히 민간을 전소시킬 리 없다며 의아해하다(삽입). ④ 민가를 전소시키는 등 후방교란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빨치산을 섬멸하다. ⑤ 권페기 마을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양민들의 모습을 목격하다.(수정 및 삽입) ③은 '나'의 시각에서 덧붙여진 내용으로서 '양민학살'의 돌출성과 의외성을 일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개작을 통해 결국 좌우익 양측에 의해 수난 받는 양민을 전경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에 출간된 수기 자료를 인용하여 군경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을 추가함으로써 작가는 미군정의 지배와 6·25전쟁이라는 정치적·민족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었던 민중들의 고통과 수난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작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을까. 개작의 배경 혹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70년대 후반에 개진된 현장 소설에 대한 그의 입장과 『마뜰』 출간 인터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는 현장 소설과 관련하여 "작가가 현장감 있는 도덕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 사회를 방관할 수 없으며 사회상황을 차원 높은 문제의식과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해부하여 그 실태를 독자들 앞에서 제시해야 한다."[21]라는 견해를 개진한 바 있다. 또한 『마뜰』 출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분단문학의 한계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자, 그는 "수난의 시절을 안팎으로 겪었으면서도 그에 대한 글을 쓰지 않은 건 이유가 뚜렷한 노릇 아니겠어"라며 정치적 핍박을 염두에 둔 반문을 한 후에, '옳은 의사결정'을 위해 "손해보지 않을 만큼은 개방해야지"[22]라는 의사를 표명한다. 소설가의 도덕적·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그의 작가적 의지와, 정치적 분위기를 참작하여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차츰 해소하고자 했던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1971년 중앙정보부 심리전국의 외곽단체인 북한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에 수록된 「지리산」을 검토하면 그의 의지와 태도에 따른 작품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제에 '넌·픽션'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지리산」은 이현상이 '벽점골(빗점골)'에서 사살되기까지의 그의 반인륜적이고 패악적인 행위가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 '외팔이' 이현상은 남로당

20) 이태(2003), 『남부군』, 두레, 223~224쪽.
21) 「문학적 가치 엇갈린 '현장소설'」, 『동아일보』, 1978. 4. 19; 오찬식(1978), 「도덕적인 증인 - 〈특집〉 현장소설 찬반론」, 『월간문학』 5월 참고.
22) 최홍순(1984), 「저자와의 대화 : 소설 '마뜰'의 작가 오찬식」, 『북한』 통권 149호, 북한연구소, 192~193쪽.

당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아온 양민을 부녀대원으로 하여금 죽창으로 살해하게 하거나 양민 처녀 셋을 납치하여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는 등 "피에 주린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살인·방화·약탈 등등 만행의 전부를 저질러오던 공비 두목"[23]으로 형상화된다. 발표지의 매체적 특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전형적인 반공적 시각에서 이현상을 불구적 호색한이자 냉혈한, 그리고 인면수심의 야수성을 지닌 살인마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24] 이렇듯 70년대 중반의 「지리산」과 90년의 『지리산 그림자』을 비교해 보면, 물론 『마뜰』에서 그려진 인민재판의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25] 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수기와 기사를 토대로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흡사 맹목에 가까운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삭제한 이유가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여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의 태도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작에 따라 부각된 민중들의 수난상은 소년 화자의 시각과의 교호작용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과 추악성을 한층 강렬하게 고발하는 촉매가 된다.

> 아무리 생각해보다도 어린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전쟁놀이인 것 같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형제간끼리 총부리를 겨누게 되다니—. 제아무리 골목에서 전쟁놀일 할 때라도 해도 우리들은 형제간을 결코 갈라놓지는 않았다. 가위 바위 보를 해가면서 편을 갈라 노는 징돌이나 자치기에서도 우리는 언

23) 오찬식(1975), 「지리산」, 『북한』 통권 44호, 북한연구소, 234쪽.

24) 이러한 형상화는 '빨갱이'에 대한 이데올로기 왜상(anamorphois)의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찬모(2016), 「'빨갱이'와 이데올로기적 환상 – 여순사건 '반란실정조사반'의 기록과 『수치』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제1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참고.

25) 『마뜰』에서도 '외팔이'인 "빨치산 두목"(155)이 등장하지만 이현상으로 특정되지는 않으며, 인민재판에 따른 처벌 수위는 칠용을 제외하면 모두 태형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칠용은 「지리산」에서 익명의 빨치산으로 등장하며 납치해 온 처녀를 겁탈했다는 이유로 이현상에게 총살당한다. 그러나 『마뜰』에서는 해방군에 자원한 처녀를 겁탈하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된다.

> 제나 형제간을 가라놓는 일을 터부시해왔던 것이다. 형제는 무조건 한편이다. 이런 것은 모두가 양반마을인 마뜰에서는 철칙처럼 굳어왔다. 그런데 이제 보니 진짜로 사람들 목숨을 노리는 어른들 전쟁판에서는 사촌도 아닌 친형제간을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놓았다.(마뜰, 106 ; 지리산 그림자, 119-120)

'나'는 금바우 영감의 아들인 일환과 이환이 각각 국방경비대원과 빨치산으로 참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징돌이나 자치기"에 견주어 이를 미심쩍어한다. 서술자의 논평을 절제함으로써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혈육지간에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6·25의 비극적 본질을 미숙한 소년 화자의 시선을 통해 날카롭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은 두 삽입 서술들과 결부되어 역동적인 의미 작용을 수반한다. 즉,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도 모른 채 순수한 민족애에서 그토록 당하고 빼앗기고만 살아왔던 나라를 비로소 우리 손을 세워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 종내 참극으로 귀결되었던 '미군의 양민 학살사건'이 추가됨에 따라 소년 화자의 의구심은 골육상쟁의 비극을 고발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순수한 민족애'와는 상치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목적, 곧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궁하는 의미 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양민에 대한 토벌군경의 고압적인 태도와 그들에 의한 양민학살 내용이 부가됨으로써 전쟁의 목적에 대해 캐묻는 의문은 그 과정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데에까지 확장된다. 개작 전에는 다분히 전쟁의 비극성을 증언하는 데에 그쳤다면 『지리산 그림자』에서는 전쟁에 관한 본원적인 의문, 즉 전쟁의 목적과 그 과정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쟁의 그악한 폭력성과 추악성을 보다 극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머슴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산기슭을 개간하여 마련한 자신의 논밭을 전쟁 중 토지개혁으로 빼앗기게 되고, 두 아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적하는 금바우 영감네의 비극적 가족사가 양민들의 수난상과 결부되고, 소년 화자의 증언을 통해 본원적 의문을 유발하며 민족애와 동떨

어진 전쟁의 폭력성과 추악성을 고발하는 일련의 의미화의 연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리산 그림자』는 해방 이후 미군정의 지배와 6·25전쟁이라는 정치적·민족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들이 겪었던 고통의 실상을 개작을 통해 의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민중의 수난상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전쟁에 관한 본원적인 의문을 촉발하여 전쟁의 비극성을 넘어선 그 폭력성과 추악성을 일층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Ⅲ. 서술 방식과 계몽 의식

『지리산 그림자』는 이전 작품들과 달리 작가의 자전적 체험을 강조한 '장편성장소설'이란 갈래 명칭이 부기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장소설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보여주는 갈래로서, 내면적 각성과 세계와의 관계 정립을 통해 주인공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주인공 혹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주체의 '성장'이야말로 성장소설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이며, 미숙에서 성숙으로의 변화 과정과 주체의 정립 양상이 바로 성장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26]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나'가 분별력 있는 성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장편성장소설'이란 부기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나'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의 내적 갈등과 돌출적 행위 대부분은 말순과 어머니 등 여성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연찮게 부모가 방사하는 소리를 엿들은 후 나는 말순이의 몸을 생각하며 첫 사정과

26) 최현주(1999),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19쪽 참고.

동시에 “전신을 전율시키는 쾌감의 극치(지리산 그림자, 48)”를 맛보게 된다. 그리고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태독과 학질이라는 일종의 성장통을 겪게 된다. 이후 물레방앗간에서 내무서원과 밀통하는 말순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녀에 대한 실망과 반감은 여성 일반에게로 향한다.[27] 그리고 입산한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온 말순을 충동적으로 강제 겁탈하게 된다.

> (중략)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와 장례를 치러버린 후로 어머니는 많이 달라져가고 있었다. 집안일에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몸단장에는 쫀쫀히 신경을 쓰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니 당신은 아버지의 죽음을 속시원해 하는 눈치 같아 보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던 화장을 시작한 것부터가 이상했다. (중략) 나는 쉽게 이루어져버린 저들 사이가 아무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무식한 여자이기로서니 서방은 서방이다. 비록 숯장이었을망정 빨치산이 되었다가 불행히 죽어버린 서방을 생각해서라도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되었구나 생각한 나는 누구나 없이 여자들이란 겉보기와 달리 다소의 갈보 기질이 있는 모양이라 결론지어 버렸다. (지리산 그림자, 230~232)

마뜰과 운봉 일대를 지키기 위해 전투경찰대와 함께 파견 나온 우 순경이 하숙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어머니의 행실에 대해 심한 실망과 함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 일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 나간다. 어머니를 이렇듯 ‘갈보 기질’ 있는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가는 심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파생물로서 어머니를 성녀 혹은 창녀에 견주는 양가감정에서 기인한다.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상화 과정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변심한 연인(다른 남자, 즉 아버지의 여자)에게 표출되기 마련인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28]

---

27) “역시 여자는 요물이다. 그러고 보니 예부터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말라는 어른들 얘기가 맞는 말인 듯도 싶었다.” (지리산 그림자, 121)

그렇지만 '나'는 어머니가 도망치면 천애고아와 다를 바 없이 된다는 일종의 분리불안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증오의 상념을 떨쳐버린다. 그리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해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사망한 우 순경을 대신해 그의 두 딸을 돌보는 듬직한 오빠이자, 어머니를 돕는 맏이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고,[29] 또한 김만돌의 처가 된 말순에게 존댓말로 응대하며 분별력 있는 성적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철부지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성숙한 주체로서의 성장은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는 사회적 주체로의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

> 하늘에서는 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뜰 사람들은 또다시 칠판 년 전 뒤로 후퇴한 생활을 답습하고 있었다.// 어린 내 눈에도 지랄 같은 세상이었다. 무슨 얼어죽을 놈의 정감록 비결은 또 뭐 말라 삐뚤어진 옴딱지냔 말이다. 저 도도하고 거무튀튀한 소리보다 빠른 제트기의 위용을, 말에도 칼과 창으로 무장한 제아무리 천하무적 장수를 거느린 임금이 나타난다 한들 이 전쟁을 평란시키지는 못하리라 마음먹은 나였다. 그래서 이끈네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어도 단단히 들었는 모양이라 싶어 측은한 생각까지 들었다. (지리산 그림자, 75)

> 특히 정확한 소식과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 라디오를 사둔 것은 그 때문이라는 김만돌 선생의 설명이다. 정오의 뉴스시간에 운동장에 내놓고 크게 틀어주는 것 역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정확히 학생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

28) 여성에 대해 '성녀/창녀'의 양가감정을 갖는 것 또한 일종의 퇴행에 속한다. 유아기,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서 유아는 어머니의 욕망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남근임을 감지한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를 '다른 남자의 여자'로 인식하면서 증오한다. 물론 이전에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상화된 감정 또한 유지된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성녀이자 창녀가 된다. 이 감정은 후에 성인이 된 뒤에도 대상 선택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로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곤 하는 '창녀 콤플렉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김형중(2003), 「정신분석학적 서사론 연구 : 한국 전후 소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1쪽.)

29) '나'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강 교장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기도 한다.

> 라는데, (중략) 제 몇 차의 '판문점 정전회담 결과에 따라 재침은 없을 것이니, 생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
> 지리산의 평화와 함께 사들인 두 대의 라디오 덕분인지 마뜰에는 터무니 없는 소문이 떠돌 새가 없었다. 한 때 소련군이 중공군과 합세해 다시 밀고 내려올 거라는 등의 유어비어 역시 꼬리를 사려버린 마뜰이었다. (지리산 그림자, 263-264)

위의 인용문에는 '정감록(鄭鑑錄)'에 기대어 푸른 나무숲에서 피난처를 구하거나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지만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등 도참설(圖讖說)에 빠진 이끈네 할아버지를 거세게 힐난하며 동정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기승을 떨치고 있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현대전'에 비추어 직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 '나'는 역사 선생인 김만돌을 통해 정감록 따위가 단지 소문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기껏해야 불안과 소외를 떨쳐버리기 위한 자기 위안이거나 열등감을 상쇄시키기 위한 자기 과시의 방편이 바로 소문임을 알게 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얻은 소식과 정보로 인해 소문과 유언비어가 일소된 마뜰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는데, 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회적 주체로 의젓하게 성장한 '나'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소년 화자가 분별력 있고 합리적인 성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이 예시하듯, 성장소설에서는 미숙하거나 순진한 화자의 경험이 성년 서술자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전달되면서 글쓰는 자아(서술자)와 경험 자아(소년 화자)가 서로 의식을 공유하거나 비교하는 메타적 글쓰기가 이루어진다.[30] 경험 자아의 체험이 보고적 서술방식을 통해 제시됨으로써 순진성을 보유한 화자에 의해 세계의 추악성이 사실적으로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적 서술 방식이 시간적 거리가 내재된 추체험에 의거하는 만큼 그 체험을 반성적으로 사

30) 최현주는 이에 대해 성장소설은 자기 고백의 담론 방식과 단성적 서술방식의 담론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현주(1999), 앞의 논문, 19쪽.)

유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수반됨으로써 '성장'의 주제적 측면이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서술자에 의한 반성적 추체험이라는 단성적 서술 방식과 주제적 측면에서 『지리산 그림자』에 접근할 경우, 주목되는 것이 미숙한 소년 화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갖춘 서술자가 개입하여 그것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서술 방식이다. 작품에서는, 전쟁이 발발하고 그 해 인민군이 마뜰에 진주하고 이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토지개혁이 이뤄진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 비행기 폭격이 시작되면서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받았던 마뜰 사람들의 태도는 전쟁의 판세와는 무관하게 현격하게 변해간다. 동네 이끈네 할아버지의 논 다섯 마지기를 분배받아 인민위원장인 아버지를 마치 '상감'처럼 떠받들던 금바우네 머슴 두수는 현물세의 부당함을 아버지에게 토로한다. '콩포기'는 물론 '나락모가지'까지 세어서 현물세를 매기는 통에 수입이 새경보다 못해 그저 맘 편하게 고기나 잡아먹고 살겠다는 것이다.[31]

"엣다! 우리들 똑같이 노나 묵자."

---

31) 김영호는 북한식의 무상몰수·무상분배가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농민의 자율적 요구에 기반을 두지 않고, 또한 인민군의 전투력을 유지시켜주는 가혹한 수탈의 제도적 기반이 되면서 땅을 빼앗긴 쪽과 얻은 쪽 모두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김영호(1984), 앞의 글, 457쪽.) 현물세와 관련한 북한 법령과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김재웅(2010),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 『역사와 현실』 제75집, 한국역사연구회 참고.
이에 반해 이태는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서울에서 살았던 나는 당시의 농촌실정은 잘 몰랐지만 토지개혁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문이 항상 떠돌았을 뿐 아니라 농촌의 인심이 대대로 이웃 간에 살며 알고 지내온 남의 전답을 거저 내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겨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좌파의 구호가 크게 먹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태(2003), 앞의 책, 79쪽.)
다른 한편 『태백산맥』에서는 현물세에 대해, 김범우의 시선을 빌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농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아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수확을 바로 눈앞에 둔 채로 다시 그 꿈이 깨질 위기를 맞고 있었다."라며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조정래(2007), 『태백산맥 7』, 해냄, 180쪽.)

나는 나도 모르게 양쪽 주머니에 있는 가락엿을 잔디 위에 꺼내놓고 개수를 헤아려 나누었다.

"공산당 아들이라 공산당식으로 노느디 ……"

"버파 가튼 자식하고는 — 이건 공산당식이 아니여. 그저 친구식이랑개. 공산당은 주구도 현물세라는 걸 받아 챙겨뿐징개, 나눈 것이 어디 나눈 것이더냐."

"허긴 그래. 빼앗은 쪽도 귀경이나 허겠어. 그 현물세라는 것 땜시로 —"

삼환이는 자기 집 논을 빼앗긴 데 대해 말한 것 같았다. (중략) 삼환이가 측은해 보이기는 처음이었다.(지리산 그림자, 99)

두수의 행동거지를 보며 그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며칠 후 삼환에게 가락엿을 똑같이 나눠준다. 엿가락을 건네받은 삼환이가 '공산당식'이라며 조롱하자 나는 발끈하며 현물세 없는 '친구식'이라고 반박한다. 아버지 금바우가 땅을 몰수당하는 것을 봐온 삼환조차 분배 받은 측의 입장을 헤아리는 모습과, 그런 그를 가엾이 여기는 '나'의 모습이 소년 화자의 경험과 인식 범위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이러한 장면 제시 이후 현물세의 부당함과 토지개혁의 허구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두수의 경우처럼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근면하게 생활하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지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았더라도 "텃밭의 감자포기 알맹이까지 헤아려 전체 논밭 수확의 7할을 전시체제하의 현물세로 매겨가"(지리산 그림자, 116)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현물세를 보완하는 제도인 배급제를 시행한다지만 그조차도 일제 강점기의 "지랄 같은 행정방침"(지리산 그림자, 116)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머슴살이와 배급제 등은 분명 소년 화자의 경험과 인식 너머에 있는 것으로서, 추체험을 매개로 서술자는 '나'의 인식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험 자아와 의식을 공유하며 초점화자인 소년 화자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술의 국면에서 스토리 외적(extradiegetic) 서술자가 스토리 내적(intradiegetic)

서술자인 초점화자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이러한 서술 방식은, 아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수처럼 토지개혁에 혹했던, 다시 말해 무상분배에 현혹되어 허황된 욕심을 부린 민중들의 무지와 우매를 비판하기 위한 작가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사람들이란 정성을 쏟으면 무슨 일이고 남이 보기엔 보매 물건 같지만도 사용헌 사람은 그만큼 편체. 시방 내가 하는 일도 그려. 값을 치루고들 챗아간 물건이,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나 편케 쓰여질 것인가 하는 데에만 정성을 쏟으면서 일한다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을 쏟지 않는 인생같이 슬픈 사람은 없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여. 무슨 일이 됐건 간에 맡은 일이면 무조건 정성을 쏟아야 돼. 부시로 물오리 사냥 하겠다는 허황된 꿈은 애시당초 생각지 말고 말여. 그래야만 이담에 커서 존 사람이 된당개. 어떠 내 얘기 싱겁냐? (지리산 그림자, 127)

인민군들이 퇴각하기 전, '나'는 비행기 공습 때 주은 탄피고리로 부시를 만들어 물오리를 잡을 요량으로 대장간에 들르게 된다. 삼환에게서 들은 대로라면 물오리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에 따르면, 밤중에 냇가 절벽 끝에 매달린 소나무 밑으로 가서 부시로 불꽃을 일으키면 나무에서 보초를 서던 물오리가 자던 동료를 깨우고, 주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알게 된 동료 물오리들이 보초새를 물어뜯어 죽인다, 한참 있다가 다시 불꽃을 일으키면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나중에 절벽 밑으로 떨어진 물오리를 줍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는 '나'의 말에 대장장이 삼태미 노인이 건네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데, '제값'을 치르지 않는 "허황된 꿈"을 좇지 말고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 말의 요지이다. 초점화의 대상인 삼태미 노인의 이 말은,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았음에도 현물세 탓에 일손을 놓아버린 채 시국담으로 허송세월을 하던 마을사람들과 달리, 비록 남의 땅의 되어버렸을망정 자신의 옛 땅에서 열심히 피를 가려내곤 하던 금바우 영감의

행동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리산 공비가 완전히 전멸”(지리산 그림자, 254)된 후, 자식들을 고등공민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무엇이고 똑같이 공짜로 분배해준다는 데 웬 떡인가 싶어 덮어놓고 날뛰었던 무지한 소치에 대한 죄닦음 같은 것이었다면 지나친 표현만은 아닐 성 싶다.”(지리산 그림자, 253)라는 서술자의 직설적인 논평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물오리 사냥은 시류에 편승하여 허황된 이득을 추구했던 마을 주민들의 무지와 우매를 질타하는 알레고리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작가는 서술자의 적극적 보증이라는 서술 방식을 통해 소년 화자에게 신빙성을 부여하여 금바우 영감과 대장장이 삼태미 영감처럼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장인(匠人)과 같은 민중상을 바람직한 전범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중들의 무지와 우매를 비판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곧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휘둘린 민중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마뜰에서 현물세라는 것 때문에 공짜로 분배받은 전답을 도로 토해 내놓은 광경을 보고서도”(지리산 그림자, 164) 현물세의 부당함을 끝내 인지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우발적인 죽음은 상징적이다. 그의 죽음이 ‘나’라는 인물의 성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혈육을 잃은 ‘나’의 슬픔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토지개혁과 현물세를 맹신하는 ‘마뜰인민위원장’의 종말이자, 무지와 몽매의 종언을 의미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나’가 부재하는 아버지의 몫을 대신하는 ‘성장’의 배경과, 마뜰이 “부자마을로 부상한 듯한 기분을 만끽케 하는 풍요로운 계절 속에 누워 있”(『지리산 그림자, 264쪽)게 되는 배경에 대장장이 영감이 언급한 ‘근면성’[32]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주체

32) “평화란 두 글자의 상징은 곳곳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인내성과 무한한 지구력으로 마뜰 사람들의 근면성을 되찾게 해 너그럽게 오감을 살찌워갔다. 그

정립(성장)과 유토피아적 세계(풍요)로의 진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통과의례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33] 환언컨대, 금바우 영감과 삼태미 영감 같은 장인적 민중상은 반면교사의 은유이자 아버지의 죽음과 유토피아적 비전의 환유인 것이다.[3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장인'은 그 성격상 어떠한 존재일까. 그것은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의 '민중'이나 기술과 예술적 역량을 갖춘 '장색(匠色)'[35]이 아닌, 무지·몽매·나태·우매 등의 의식구조를 개조하는 '교사'에 가깝다.

> 삼사월호 표지는 개나리로 했다. 노란 개나리꽃이 담장에 여울졌는데, 그 밑에서 어미닭을 쫓아다니며 노니는 노란 병아리의 귀여운 방울 같은 울음소리가 금방 들려올 듯한 구도였는데도 실장은 고개를 외로 뺐다.
>
> "병아리나 개나리는 둘 다 색감이 노랗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죽어요. 색깔 구도로 봐서 그렇잖아요. 이건 완전히 편집 미스예요. 그렇게들 생각지 않아?"
>
> **여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오지 않았던 타성 때문에 머쥡던 우리는 자연 고될 수밖에 없었다.**
>
> (중략) 그런데 실장의 잔소리는 표지에서 시작되더니 목차·화보, 급기야 본문

해 봄 따라 바쁘지 않은 마뜰 사람은 없었다." (지리산 그림자, 252쪽)

33) 박태순은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가 "목가적이고 평화롭던 산골의 공동체적 삶의 파괴이며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살아남기 주의'가 '나'의 가장 강한 삶의 원동력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생사의 이분법에 매몰된 채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경시하고 장인적 민중상을 도외시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과 '나'의 '삶'에 함축된 상징적 연속성을 간과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박태순(1984), 앞의 글, 178~179쪽.)

34) 김윤식과 정호웅은 '아버지의 부재'가 우리 소설의 특징을 나타내는 내적 형식으로서 파행적인 역사 전개의 폭력성을 반영하거나, 전통의 부재 혹은 이념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산 그림자』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나'의 성격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통과의례라는 상징적 과정으로 간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내적 형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일 듯싶다. (김윤식·정호웅(1995), 『한국소설사』, 예하, 439~440쪽.)

35) 유영대(1998), 「한국문화와 장인의 미학」, 『한국학연구』 제10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07쪽.

> 쪽으로 들이닥쳤다. 괘선과 코머 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쏟았다.[36] (강조 인용자)
>
> "**근면과 협동심**은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일부 못된 도시 청소년들을 보세요.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학대하는가 하면 여름 바캉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집을 터는 등 갖은 청소년들의 비행이 라디오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중략) 또한 어려서부터 **게으름을 가르쳐서야 쓰겠습니까. 공부시간 외에는 자꾸만 일을 해야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단단한 땅에 물 고이더라도 그토록 단련시켜 놓아야만이 그들이 성장한 다음 어디다 내놓아도 자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근면과 협동심**으로 가정에, 이웃에, 나아가서는 사회에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학교를 믿고 귀여운 자녀들을 맡겨놓은 이상, 학교 선생이 이끌어가는 대로 잠자코 구경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37] (강조 인용자)

인용문은 각각 「장인(匠人)」과 「모꼬지」의 일부로서, 두 중편소설은 『마뜰』과 같은 해에 출간된 『창부타령』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위의 인용문에는 홍보부 사보(社報) 제작 부서로 새롭게 부임한 실장이 전문가적 안목으로 사보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며 그간 부서 내에 만연해 있던 타성과 안일을 타파해 가고자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현대인의 의식구조 깊숙이 자리한 무기력과 나태와 부도덕성을 파헤쳐 인간이 지녀야 할 본성을 일깨우"[38]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래 인용문에는 산간 오지마을인 배실[梨谷]마을에 '농민운동가'인 강준이 들어와 각고의 노력 끝에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얻어 국민학교를 유치한 후, 교장실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훈계하듯 당부하는 말이 제시되어 있다. 가정과 이웃,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면과 협동심, 노동에 대한 당위성을 심어줄테니 학교에 자녀 교육을 일임하라는 내용이다. 강훈 또한 「장인」의 실장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의식구조를 개조"[39]하기

36) 오찬식(1984), 「장인」, 『창부타령』, 미덕문화사, 26~27쪽.
37) 오찬식(1984), 「모꼬지」, 『창부타령』, 미덕문화사, 165~166쪽.
38) 김병욱·김영기·김은경(1984), 「발문」, 『창부타령』, 미덕문화사, 264~265쪽.
39) 오찬식(1984), 같은 글, 184쪽.

위해 노력하는 인물인 것이다.

두 작품을 참고하자면, 장인은 우직한 농투성이나 물건에 혼을 불어 넣는 야공(冶工)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외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전문적 지식과 자긍심, 성취에만 머무르지 않고[40] 주변 존재의 '의식구조의 개조'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꼬지』에서 강준이 농민운동가이자 교사로서 설정되어 있고,[41] 『장인』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그 기능적 역할에만 종속된 익명의 교사마냥 작중 인물인 실장이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42] 그리고 『지리산 그림자』에서 장인적 민중상이 축자적으로 반면교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43] 이들 모두는 '교사'이다. 계몽이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게으름과 비겁함'에 '결단과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44] 이들 '교사'는 계몽가에 다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작가에게 장인이란 무지, 우매, 나태, 안일, 타성 등을 일깨워주는 계몽가이며, 『지리산 그림자』의

40) 류청산은 교육학적 측면에서 '장인정신'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해나가는 행위에 강한 성취동기를 부여해 주는 정신"으로 규정한다. (류청산(2007), 「실과 교육 교육학 및 내용학의 성격과 철학적 배경 고찰」, 『실과교육연구』 제13집,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39쪽.)

41) 강준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곳 주민들에게 솔선하다 보니, 깨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이곳에 제가 솔선을 보임으로 해서 어른들에게만 하면 된다는 의지보다는 어린 새싹들에게 그 정신을 심어준다면, 끊임없이 농민운동가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착안이 되어 남다른 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찬식(1984), 앞의 글, 167쪽.)

42) 『장인』에서 실장의 이름은 끝내 서술되지 않는데, 교사처럼 그 기능적 역할에 방점을 찍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3) 금바우 영감이 직접적인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도 서술되어 있다. 고무신보다 미투리를 즐겨 신는 그의 '절약정신'이 마을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마을사람들이 그 집 행랑채에 모여 "미투리 강의(?)와 실습"(지리산 그림자, 133쪽)을 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44)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편역(2009),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13쪽.

장인적 민중상은 이러한 계몽 의식이 함축된 작가적 이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학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무지한 소치에 대한 죄닦음"으로 규정하는 서술자의 논평과 '나'가 학교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성장 과정에는 이렇듯 작가적 이념으로서 계몽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가의 계몽 의식을 염두에 둘 때에만 비로소 금바우 영감을 '아기장수'[45]의 후손으로 설정한 까닭을 납득할 수 있다. 작가는, 민중의 영웅을 초월적 섭리에 따라 출현하는 신이한 능력을 갖춘 신화적 존재라기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주변 민중들의 나태와 우매, 무지 등을 일깨우는 현실적 존재라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 금바우 영감을 아기장수의 후손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요컨대 작가는 소년 화자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서술 방식을 통해 계몽 의식을 '장인적' 민중상으로 구현했던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성장소설이면서도 동시에 계몽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결어에 대신하여 : 미완의 최종판

지금까지 본고는 『지리산 그림자』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민중의 수난상이 한층 부각되어 있으며, 또한 민중의 전범이자 영웅상으로 제시된 장인적 민중상에 작가의 계몽 의식이 함축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전자는 『지리산 그림

45) 작품에서 아기장수 설화는 변형된 형태로 차용된다. 금바우 영감의 증조부는 임진왜란 당시 정승으로서 임금을 보호한 주역이었으나 모함을 받아 마뜰로 귀향을 오게 된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아들 삼형제에게 자신을 죽은 말과 콩·팥을 각각 서 말씩과 함께 공동우물에 넣어달라고 당부하고, 3년 후 "천하무적의 장수"(지리산 그림자, 21쪽)로 환생할 것이라고 이른 후 운명한다. 그러나 그 말을 엿들은 정승 부인의 발설로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자』의 개작 양상과 그 효과에, 후자는 서술 방식에 논점을 맞춰 살펴본 결과이다. 이제 민중의 수난상과 장인적 민중상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급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쟁점은 민중의 수난과 고통, 그리고 전쟁의 폭력성·추악성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본원적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즉 전쟁의 목적과 그 정당성을 추궁하는 심문에 대해 장인적 민중상이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몽 의식을 함축한 장인적 민중상은 전쟁의 목적과 그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그 어떠한 답도 마련해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리산 그림자』을 차치하고 『마뜰』 혹은 『지리산 빨치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보다 자명해진다. 이 경우 민중의 수난과 고통은 좌익 세력에 의해 자행된 수탈과 살상으로 한정되고, 또한 좌익 세력의 토지 정책에 현혹되어 허황된 욕심을 좇은 무지한 민중들을 탈이데올로기적인 존재인 장인적 민중상에 비추어 질타함으로써 결국은 이데올로기적 허욕에 감염된 민중을 계도하고자 하는 반공 서사물로 독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당대의 자료와 기사를 활용하여 민중의 수난상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크나큰 고통과 상흔을 야기한 전쟁의 목적과 그 정당성을 의당 심문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민중의 계도와 계몽에 자족한 개작의 한계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의 입산 전력을 조롱거리로 삼는 삼환과의 갈등을 둘 사이의 우정으로 봉합한 점 역시 전쟁에 관한 본원적 질문은 물론 예견되는 전후(戰後) 갈등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조차 숙고의 여지를 차단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분단문학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는 이러한 점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달궁 해방군학교에서 한문 선생이 아동 교육을 담당한다거나 '나'에게 비역질을 가한다던가 하는 점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설정이다. 특히 어머니와 우 순경의 통정은 좌익 가족들에 가해졌던 군경의 엄혹한 처벌과

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환과 말동, 그리고 김만돌의 귀순 계기가 불확실하다는 점 또한 서사적 개연성에 있어서 흠결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계와 흠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지리산 그림자』는 영구히 개작될 수 없는, 미완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오찬식(1975),「지리산」,『북한』 통권 44호, 북한연구소.

_____(1984),『마뜰』, 실천문학사.

_____(1984),『창부타령』, 미덕문화사.

_____(1989),『지리산 빨치산』, 백양출판사.

_____(1990),『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 실천문학사.

최홍순(1984),「저자와의 대화 : 소설 '마뜰'의 작가 오찬식」,『북한』 통권 149호, 북한연구소.

이 태(2003),『남부군』, 두레.

조정래(2007),『태백산맥』, 해냄.

2. 단행본 및 학술논문

김영호(1984),「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상상력」,『한국문학의현단계 Ⅲ』, 창작과비평사.

김재웅(2010),「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역사와 현실』 제75집, 한국역사연구회.

김형중(2003),「정신분석학적 서사론 연구 : 한국 전후 소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청산(2007),「실과 교육 교육학 및 내용학의 성격과 철학적 배경 고찰」,『실과교육연구』 제13집,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박찬모(2016),「'빨갱이'와 이데올로기적 환상 – 여순사건 '반란실정조사반'의 기록과「수치」를 중심으로」,『감성연구』 제1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박태순(1984),「농민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학-오찬식의 〈마뜰〉을 중심으로」,『월간문학』, 8월.

신규호(1985),「풍자와 고발의 양면경-오찬식의 중단편론」,『예술계』, 6월.
오연호(1988),「최초 증언, 미국의 '남원학살'」,『말』 12월, 월간 말.
유영대(1998),「한국문화와 장인의 미학」,『한국학연구』 제10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한식(1988),「빨치산, 그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삶의 괴리 : 이태『남부군』(두레, 1988)」,『한국역사연구회회보』 제1집, 한국역사연구회.
김윤식·정호웅(1995),『한국소설사』, 예하.
S. 리먼-케넌, 최상규 역(1985),『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편역(2009),「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투고일: 2017. 5. 10. **심사기간:** 2017. 5. 25~2017. 6. 11. **게재확정일:** 2017. 6. 14.

| 국문초록 |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의 개작 양상과 작가 의식 고찰

본 논문은 오찬식의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를 중심으로 작품의 개작 양상과 그 효과, 그리고 작품의 서술 방식에 함축된 작가 의식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1990)는 1984년에 『마뜰』이란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1989년에는 『지리산 빨치산』으로 개작되어 출간된 바가 있다. 『지리산 빨치산』은 『마뜰』의 단어와 문장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에는 '미군 남원양민 학살사건'과 '군경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서술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80년대 후반에 발표된 기사와 수기 등을 참고하여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는 작가적 의지와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던 작가적 태도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작품은 이처럼 해방 이후 미군정의 지배와 6·25전쟁이라는 정치적·민족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들이 겪었던 고통의 실상을 개작을 통해 의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민중의 수난상을 부각하고, 전쟁에 관한 본원적인 의문을 촉발하여 전쟁의 폭력성과 추악성을 일층 강렬하게 고발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린 소년이 분별력 있는 성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성장소설로서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숙한 소년 화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갖춘 서술자의

관점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서술 방식이 주목되는데, 현물세에 대해 비판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가는 초점화자에 대한 서술자의 적극적 보증이라는 서술 방식을 통해 소년 화자의 신빙성을 강화하여 자신의 소임을 정성껏 수행하는 '장인'적 민중상을 제시함으로써 시류에 편승하며 허황된 이득을 추구했던 민중들의 무지와 우매를 질타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인이 교사이자 계몽가로서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장인'적 민중상에는 민중들을 계도하고자 했던 작가의 계몽 의식이 함축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민중의 각성과 계몽을 추동하고자 했던 성장소설이자 계몽소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작을 통해 부각된 민중의 수난상이 전쟁의 목적과 그 정당성에 대한 추궁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소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오찬식, 『마뜰』, 『지리산 빨치산』, 『지리산 그림자에 담긴 내 그림자 하나』, 장인적 민중상, 성장소설, 계몽의식

호남문화연구 61: 69~9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참요,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 조선후기 공감장의 형성과 투쟁을 중심으로 –

The prophetic song, A Sign of Emotional Modernity

조 태 성**
Jo, Tae-Seong

목 차

Ⅰ. 머리말
Ⅱ. 공감장의 형성과 노래의 역할
Ⅲ.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참요
Ⅳ. 맺음말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sympathetic field and its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o this article noted the revolt of the Donghak(東學) Peasant Revolution and its prophetic song. There is no doubt that the role of sympathy is great in the formation of the sympathetic field. But it can not be overlooked that such sympathy is constituted by specific public opinions. Above all, I tried to reveal through the song that the way of revealing such public opinions can be more effective than text.

In particular, I paid attention to what kind of purpose it was intended to use rather than the content of the song. In other words, I wanted to talk about the formation of community and the way of forming sympathy through the prophetic song. Also, based in this, I tried to reveal what the desires of the contemporaries wanted to form this movement.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HK부교수

In conclusion, they became aware of ‘people’ through Donghak, wanted to reveal it, and tried to live ‘humanly’ through it. Such desires have singed songs, and they have formed their own communities through singing. The community has struggled with the existing communities and eventually failed, but the emotional experience of forming a community or a sympathy field has not disappeared.

Key words : Prophetic song, Donghak(東學), Emotion, Sympathetic field, Modernity

Ⅰ.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참요란 시대의 변화 혹은 정치적 징후를 예언하거나 암시하는 노래이다. 따라서 참요는 주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불릴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특정 시·공간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상정하고, 당시 불렸던 참요를 통해 '공감장(共感場)'[1]의 형성과 투쟁의 과정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공감장'을 연구의 한 방식으로 삼는 까닭은 공감이 더 이상 일상적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작동해온 또 다른 메커니즘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감장은 한 사회 혹은 공동체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근대적' 삶을 지향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음을, 즉 모더니티의 자장 아래 흔적도 없이 포획되어 버렸던 또 다른 근대의 한 징후였음을 밝히고자 하는 입론이 될 수도 있다. 굳이 다중근대 등등의 개념에 연연할 것도 없이, 또한 그런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감성 혹은 감성적인 것들[2], 감성적인 행위들을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근대를 설명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라는 것이다. 물론 참요는 이러한 감성적 근대성으로서의 공감장의 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문학적·문화적 매개체로서 그것 자체의 문학사회학적 의의를 찾는 것도 이 글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우선 공감장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그 구성 요건들, 그리고 그런 사례로서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개괄할 것이다. 이어 제3장

1)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인문학연구단에서 새로운 삶의 형성과 모색을 위한 일종의 대안적 근대를 찾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조태성(2015), 「감성발현체로서의 시조의 역동성」, 『시조학논총』 제42집, 한국시조학회, 96쪽에 보다 자세하다.

에서는 공감행위의 구체적 사례 중의 하나로 참요를 언급할 것이다. 특히 이 장은 기존 공론장의 구성 요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문자'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통'의 측면을 노래를 통해 담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문자를 점유하는 하나의 계층적 층위에서가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층위에서의 공감적 사회구조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Ⅱ. 공감장의 형성과 노래의 역할

1. 18~19세기 종교공동체의 형성과 종교가사

이 글에서 말하는 공감장(共感場, sympathetic field)이란 한 마디로 '차이들의 마주침'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차이'의 층위는 '삶'에 귀속되는 모든 것이다. '삶'이라는 단어 앞에 올 수 있는 모든 수식어와 관련된 층위를 아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삶 혹은 사회적 삶, 윤리적 삶 등등의 수식어들이 가지고 있는 층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주침'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마주침의 과정에서 작게는 개인의 감성이 소통되고 공유되며, 크게는 대사회적인 감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언제나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촉발되는 감정이 내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의 교통(交通)과 공유(共有)가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감장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감성이 갖는 동시성, 상호성, 횡단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한 사회 및 역사의 동역학을 추동하는 인간 행위의 내적 동인을 감성론의 차원에서 포착하기 위한 분석적 또는 비판적 개념"[3]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나 행위로는 '공론(公論)', '공감(公感)', '교감행위(交感行爲)' 등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비로소 공감(共感, sympathy)이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구체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마주침의 기제는 '공론(公論)'이다. 공론이란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의견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공통된'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반드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특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4] 사실 공론과 공감이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공론과 공감은 서로 중첩되고 교차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 이른바 내부감각인 공감이 외적으로 구체화된 형태가 공론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렇게 마주침의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시도 혹은 그런 방식들에 의해 비로소 공감(共感)은 구조화된다. 그리고 그런 시도나 방식들이 교감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공감은 교감과는 분명 다른 어떤 것이다. 그래서 공감을 완성하기 위한 공론(公論)이 다시 필요하다. 즉, 이런 공론에 대한 공감(公感)이 형성되고, 이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공유의 과정이 결합하면서 공감장의 토대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공동체 혹은 종교적 공감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그런 공동체 혹은 공감장들을 구조화하는 일이 곧 당대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하나의 대안적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감장은 감성의 사회적 성격을 해명하면서 동시에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담보

3)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2017),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11쪽.
4)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이런 현상이 일반으로부터 분리된 '특정 여론조직기구들'로부터 형성된다고 본다. 결코 '우리 편'이라고 보지 않는 현대적 언론매체들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5)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2017), 같은 책, 47쪽.

하는 인간의 감성적 동인을 분석·비판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6]인 까닭에 그 자체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개념이며, 또한 구성적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19세기 조선사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종교공감장은 서학(西學)과 동학(東學)이다. 이 중 "서학은 천주교이다. 18세기 조선사회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갈망하였고,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서학이라는 학문이 점차 신앙으로 발전하여 천주교라는 종교문화가 형성되"[7]게 한 요인이었다고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천주교는 그 정착의 과정에서 기존 민간신앙뿐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의 사상적 요인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험난한 박해의 과정을 거치긴 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천주교에서는 교리의 전파를 통한 교세의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것이 바로 '노래'이다.

일반적으로 천주가사는 "교우들의 신심과 교리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되어, 천주교의 포교를 위해 활용되었다. 선현들은 조선시대의 사회상과 천주교의 교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인 노래문화를 형성하고, 우리의 민족성을 토대로 변화 발전"[8]시켰다고 보인다. 종교로서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사문학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또한 "천주교 사상을 우리의 정서에 맞는 律調와 언어로 표현하여 천주가사를 창작하여 전파하였다. 교리와 교훈의 설명에도 유학의 경전이나 동양사상을 인용하여 引儒論的 표현으로 우리의 정서적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으로 다가갔다. 방대하고 건조한 종교사상을 토착화하여 집약적으로 구현"[9]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천주공경가〉에서도 볼 수 있듯

6)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2017), 앞의 책, 15쪽.
7) 이권형(2013), 「18·19세기 천주가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쪽.
8) 강영애(2012), 「노래로 불려 진 천주가사의 음악적 특징」, 『국악원논문집』 제26집, 국립국악원, 97쪽.

이 천주가사는, 비록 초기 작품이기는 하지만, 유교문화에 기반한 효와 충의 정신을 비교적 충실히 표방하고 있다.

어화세상 벗님ᄂᆡ야 이네말ᄉᆞᆷ 드러보쇼 지분에ᄂᆞᆫ 어른잇고 ᄂᆞ라에ᄂᆞᆫ 임군있네
네몸에ᄂᆞᆫ 령혼있고 ᄒᆞᄂᆞᆯ에나 텬쥬있네 부모의게 효도하고 임군에난 충셩ᄒᆞ네
ᄉᆞᆷ강오륜 지켜가ᄌᆞ 텬쥬공경 읏듬일세 이ᄂᆡ몸은 죽어저도 령혼ᄂᆞᆷ아 무궁ᄒᆞ다
인륜도덕 텬쥬공경 령혼불멸 모르며는 사ᄅᆞ셔ᄂᆞᆫ 목셕이요 주거서난 ᄃᆡ옥이라
텬쥬잇다 알고서도 발ᄉᆞ공경 ᄒᆞ지마쇼 알고서도 아니ᄒᆞ면 죄만졈졈 싸인다ᄂᆡ
죄짓고서 두려운ᄌᆞ 텬쥬없다 시비마쇼 아비업ᄂᆞᆫ ᄌᆞ식밧나 야의없ᄂᆞᆫ 음ᄃᆡ잇ᄂᆞ
임군용안 못ᄇᆡ앗다 ᄂᆞᄅᆞᄇᆡᆨ셩 아니런가 텬당지옥 가보왓나 셰ᄉᆞᄉᆞᄅᆞᆷ 시비마쇼
잇ᄂᆞᆫ텬당 모른션비 텬당업다 어이아노 시비마쇼 텬쥬공경 미더보소 ᄭᅴ다르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천주공경가〉[10]

이 노래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교의 효와 충, 즉 삼강오륜을 내세우면서, 다음 이를 토대로 천주공경을 표방한다. 과거의 신분제도와 그로 인해 굳어진 여러 가지 부정적 삶의 방식들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낡았지만 익숙해져버린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천주를 결합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교가 주는 새로운 역할 아래에서 기존과는 다른 충격으로 사람들을 결속시키며 연대하게 하는 일종의 공감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필자는 노래를 통한 공감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동학은 동양의 전통 철학인 유교를 배경으로, 불도(佛道)와 선도(仙道)의 철학을 차용하여 '인간의 주체성과 평등성'을 강조한 민족 고유의 신앙이

9) 이권형(2013), 앞의 논문, 72쪽.
10) 임기중(2005),『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16, 아세아문화사. 이하 이 글에서 인용하는 가사작품의 원문은 모두 이 책에 의한다.

자 사상이다. 수운 최제우(1824~1864)가 창시하였다. 창도 이후 동학의 포덕은 혼탁한 사회에 신음하던 농민층에 커다란 희망이 되어갔다. 또한 농민층과 친화력이 강했던 동학은 몰락양반과 지식층에서도 호응자가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동학이 당시 지향점을 잃은 유교정치이념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중의 지도 이념을 제시한 데 있었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변화된 민중에게 새로운 윤리관과 위협적인 서학에 반하여 고유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 결합한 주체의식이 있었다. 특히 혁명사상이었고, 외세위협에 대항하려는 저항의식이 있는데다 현실부정적인 예언사상이 곁들여진 민족인 종교사상을 창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11] 이러한 동학사상의 면모는 최제우 자신이 지은 여러 가사작품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ᄋᆡ달하다 ᄋᆡ달하다 너의음ᄒᆡ ᄋᆡ달하다 우리야 뎌럴진ᄃᆡᆫ 머ᄌᆞᆫ은 셰월에도
괴질바ᄅᆡᆯ 졍이업다 ᄲᅱ고보고 죽고보셰 ①요악ᄒᆞᆫ 고인물이 할말이 바이업셔
셔학이라 일홈하고 왼동ᄂᆡ 웨ᄂᆞᆫ말이 사막년 뎌인물이 셔학에나 ᄊᆞ잡힐ᄉᆡᆼ
그모르ᄂᆞᆫ 세샹ᄉᆞᄅᆞᆷ 그걸노셔 말이라고 취켜들고 하ᄂᆞᆫ말이 용담의ᄂᆞᆫ 명인나셔
범도되고 룡도되고 셔학에ᄂᆞᆫ 용터라고 죵죵거름 치ᄂᆞᆫ말을 력력히 못하너라
거록ᄒᆞᆫ 내집부녀 이글보고 안심하소 ②소위셔학 하ᄂᆞᆫ사ᄅᆞᆷ 암만봐도 명인업네
셔학이라 일홈하고 내몸발쳔 하렷던가 ③초야에 무친사ᄅᆞᆷ 나도또ᄒᆞᆫ 원이로다
하ᄂᆞᆯ님게 밧은ᄌᆡ됴 만병회츈 하지마는 이내몸 발쳔되면 하ᄂᆞᆯ님이 주실ᄂᆞᆫ가
주시기만 줄ᄌᆞ시면 편작이 다시와도 이내션약 당홀손야 만셰명인 나ᄲᅮᆫ인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 가련하다 젼셰임진 몃힐넌고 이ᄇᆡᆨᄉᆞ십 안일넌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ᄀᆡ벽 안일넌가 요슌셩셰 다시와셔 국태민안 되지마ᄂᆞᆫ
긔험하다 긔험하다 아국운수 귀험하다 ④ᄀᆡ갓흔 왜적놈아 너의신명 도라보라
너의역시 하륙히셔 무슨은덕 잇셔던가 (중략)

11) 최효식(1998), 「수운 최제우의 생애와 사상」, 『동학연구』 제2집, 한국동학학회, 54~55쪽.

내집부녀 긔장하다 내가또ᄒᆞᆫ 신션되야 비샹텬 ᄒᆞᆫ다히도 ᄀᆡ갓흔 왜젹놈을
하ᄂᆞᆯ님게 조화밧아 일야간에 쇼멸하고 젼지무궁 하여노코 ⑤대보단에 ᄆᆡᆼ셔하고
한의원슈 갑허보셰 즁슈ᄒᆞᆫ 한의비각 헐고나니 초개갓고 붓고나니 박살일셰

〈안심가〉 中

요박ᄒᆞᆫ 이셔샹에 불망기본 하여셔라 임군의게 공경하면 츙신렬ᄉᆞ 안일넌가
부모님게 공경하면 효ᄌᆞ효부 안일넌가 슙흐다 세샹사ᄅᆞᆷ ᄌᆞ세보고 공경하쇼
나도또한 츌셰후에 죠실부모 안일넌가 졍셩공경 업셔시니 득죄부모 안일넌가
나도또한 츙렬손이 초야에 ᄌᆞ라나셔 군신유의 몰나시니 득죄군왕 안일넌가
허송셰월 지ᄂᆞ나니 거연ᄉᆞ십 되엿더라 ᄉᆞ십평ᄉᆡᆼ 이ᄲᅮᆫ인가 무가내라 할길업ᄂᆡ
⑥하원갑 경신년에 젼ᄒᆡ오는 셰샹말이 요망ᄒᆞᆫ 셔양적이 즁국을 침범ᄒᆞ셔
텬쥬당 놉히셰워 거소위 하ᄂᆞᆫ도를 텬하에 펼나하니 가쇼졀챵 안닐넌가

〈권학가〉 中

위 〈안심가〉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불안해하던 부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은 노래이다. 여기에서 최제우는 득도한 뒤 하늘에서 물형부(物形符)를 받아 이를 그린 종이를 먹고 선풍도골(仙風道骨)이 된 자신을 오히려 서학(西學)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어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곧 왜적을 쓸어버리고 우리나라의 운수를 보전할 몸임을 밝히고, 따라서 부녀자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설득한다.[12]

계속해서 위 노래 〈안심가〉 ①과 ②에는 서학에 대한 최제우의 생각도 담겨 있다. 요망한 것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서학이라고 이름하고는 그것으로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서학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구제할 능력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③은 자신이 서학을 하고 있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은 서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오히려 초야에 묻혀 세상의 앞

12) 임기중(2005), 앞의 책 2, 95쪽 참조.

길을 열어 무극대도를 펼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다.

이 노래에는 서학에 대한 배격뿐만 아니라 외세 배격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나타나 있다. ④에서는 '개 같은 왜적놈'을 들어 나라의 운명이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설파한다. 비록 수 백 년이 지나기는 했으나 지난 임진년의 치욕을 상기시키고 있음이다. ⑤는 일본뿐만 아니라 청나라에 대한 원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한의'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청나라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그들이 중수한 비각을 헐어버리자고 함으로써 청나라에 대한 동학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작품 〈권학가〉의 ⑥에는 서양에 대한 배격 의지가 드러난다. '서양적'들이 중국을 침범하면서 앞세운 것이 '천주당' 즉 서학이었고, 이를 통해 이른바 '도'라는 것을 설파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 우스워 창자가 끊어질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로만 보더라도 당시 서학과 외세에 대한 동학의 입장이 매우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최제우는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의 역사에서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이라는 치욕과 굴종을 겪게 한 장본인이었고, 당시에도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동서를 막론하고 외세는 배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왜에 대한 증오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당시는 임진년의 과거가 아니라 현실에서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혁명하던 동학군에게 더욱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13] 이처럼 서학과 외세 배격에 대한 그의 사상은 이후 동학이라는 종교공감장의 한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상의 노래들에서 필자는 공감장의 형성이 특정 공론에 의한다기보다는 기존 공감장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수용하거나 변용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즉, 모든 공감장들의 공론은 곧 여론

13) 정재호(1994), 「동학가사(東學歌辭)와 동학혁명(東學革命) -『용담유사』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쪽.

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가 바로 당대의 종교가사일 수도 있음을 살폈다. 이렇게 종교가사는 특정 공론의 공고화와 그로부터 비롯하는 공감의 지속성,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장은 어떤 경우 추상적 시간이자 공간일 수도 있다. 어떤 장(場)들은 그 한자의 표상적 의미와는 달리 특정 장소나 공간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흐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파장들을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로 이런 공감장들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날 수 있다. 19세기 조선의 '~파(派)'들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개괄하면서 공감장의 형성과 투쟁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공감장으로서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서세동점'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상과 운동이 일어나 각축하면서 '서세동점'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우선, '서세동점'의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세력은 조선왕조의 젊은 양반 관료들과 실학자의 후손 등이었다. 김옥균과 박영효를 비롯한 양반 관료, 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등이 손잡고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개화파가 있다. 다음으로, 재야(在野)의 양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파이다. 이들은 위정척사운동을 통해 서구문명의 제국주의적이며 침략적 성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조선왕조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자학(朱子學)의 수호를 통해 서세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했다. 이들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은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양자 모두 지배엘리트층이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14]

이 양자에 대해 민중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된 사상이 바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을 세운 최제우는 몰락양반의 서자로서 평민이나 다름없는 신분이었고, 그 덕분에 동학은 창도 초기부터 민중층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봉준은 동학이 창도된 지 2~30년이 흐른 뒤인 1880년대 후반(또는 1890년대 초반)에 동학에 입도(入道)하여 1892년경에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동학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가 주목한 동학사상은 개화사상이나 위정척사사상과는 달리 서구문명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보여 주고 있다.[15]

주목할 점은 이들 시기보다 앞서 서학이라는 뚜렷한 사상 혹은 종교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서학은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과학기술문명과 한역서학서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세기 중반에는 실학파 유학자들에 의해 그 종교성 측면에서 배격하자거나 반대로 정신적 실천 종교로 받아들이자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서학에 비교적 온건했던 정조의 죽음 이후 반천주교적 성향을 지닌 벽파(僻派)가 등장함으로써 19세기에 즈음하여 서학은 박해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앞서 말한 공감장의 관점에서라면 이 시대에는 우선 '서학'이라는 종교적 공감장, 그리고 이후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라는 두 개의 거대 공감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더해 동학이라는 새로운 공감장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형성된 세 개의 공감장은 엘리트 지배계층에 의해 형성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외세에 대응하는 그들의 태

14) 박맹수(2003), 「'녹두장군'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 『인문연구』 제69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0~11쪽. 참조.
15) 박맹수(2003), 같은 논문, 11~12쪽. 참조.

도, 즉 개화냐 위정척사냐였다. 서학은 물론 그들에게서는 외세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그 태도들은 그들 각각의 공론(公論)에 다름 아니었으며, 그 공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그들만의 공감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새로 가세한 "동학은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운수' 즉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동학과 하나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학과 그 길이 같지만, '이치' 즉 그 보편적인 진리가 구현되는 시공간이라는 구체적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서세=유럽문명이 지닌 보편성은 긍정하면서도, 시공간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구체적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편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표방함으로써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개화사상이나 위정척사사상과는 그 위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 가운데, 민중층을 기반으로 삼아 성립된 동학은 불행하게도 개화 사상가 및 위정척사 사상가 양 측의 견제와 탄압 속에서 공인받지 못했다. 특히 동학사상과 동학의 조직을 기반으로 전봉준이 최고지도자가 되어 전개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개화와 척사 양 측으로부터 탄압"[16]받기도 하였다.

동학에 대한 탄압은 경주진의 김영장이라는 자가 사교(邪敎) 금압책에 따라 가장 먼저 최제우를 체포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최제우의 석방을 호소하기 경주진에 몰려든 교도가 거의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후 최제우는 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동학의 포교를 위해 접주제(接主制)를 실시한다. 일종의 세력화를 도모함으로써 정치에서도 위압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실 "동학사상은 사회개혁의 원리, 정치혁명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당시 유교적 관념 속에서 이를 신봉하고 있던 기존의 사회체제는 사회개혁 및 혁명을 제시한 동학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동학의 개벽사상은 독선적이고 자기 과시적이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16) 박맹수(2003), 앞의 논문, 앞의 쪽.

핍박을 면하지 못했"[17]던 것이다.[18]

이후 동학은 1894년 전봉준(全琫準) 등이 주도한 대규모 농민봉기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동학과 이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동학이 주체가 되어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는 견해에서는 이 사건을 '동학혁명', '동학운동' 등으로 표현한다. 반대로 동학은 종교적 외피에 지나지 않았으며 봉건사회와 외세의 수탈에 맞선 농민의 항쟁이 주된 측면이었다는 견해에서는 '동학'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1894년 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등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반봉건·반외세의 농민전쟁이 주된 측면이지만 동학이 조직 동원이나 사상에 미친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서는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19]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명칭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한 어떤 공감의 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감장은 항상 중층이고 교집합이다. 그리고 이들의 교집합은 구성원으로서의 '계층'에 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나의 공감장 내부에서 설령 공론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계층의 문제는 또 다른 공감장을 형성시키며 기존의 공감장과 투쟁하게 될 수도 있다. 외세에 대한 동학의 공론은 위정척사파의 공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앞서 말했듯이 동학은 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요컨대 복잡다단한 시대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에 의해 당대의 '지금'은 언제나 몇 개의 뚜렷한 거대 공감장을 형성시킨다. 개화파, 위정척사파, 서학,

17) 최혜경(2002),「동학의 사회개혁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동학연구』제12집, 한국동학학회, 60쪽.

18) 당시 유교 이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민중의 지도이념을 제시하였던 동학은 이후 단순한 종교의 포교운동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일련의 동학운동 곧 복합상소, 교조신원운동을 통한 조직적이 운동을 거치면서 점차 정치운동으로 성장해 나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혜경, 같은 논문, 61쪽).

19) 이영호(2016),『동학사상과 조선 농민혁명전쟁』, 동인통문, 20~26쪽.

동학이라는 이름의 공감장들은 한 편에서는 서로 얽혀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배제하고자 있었다. 중층의 양면성이다. 동학이 다른 공감장들의 공론에 의해 '도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그들에 의하면 동학은 해체되어야 할 공감장이었고, 결국 실패한 공감장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공론들의 성격에 따라 그것이 함의하거나 혹은 지향했던 가치들도 함께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동학공감장이 천명했던 공론의 기저가 기존 공감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아니면 보지 않았거나 볼 필요가 없었던- '새로운' 계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저 사람'에서 '평등한 사람'으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계층'의 움직임이 동학공감장의 공론에 공감을 부여하는 자발적 욕망, 즉 기존 공감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생겨나서는 안 되는 파괴적 욕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공감장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 투쟁의 동력이 다했을 때 공감장 또한 사라지고, 그로부터 또 다른 공감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또한 공감장의 구성원은 하나의 공감장에 속하는 것만은 아니다. 공론에 의한 공감장에 속해 있는가 하면, 사적 감정이나 교감 등에 의해 형성된 공감장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관점에서 하나의 거대 공감장은 또 다른 공감장들을 포섭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공감장은 언제나 중층이다. 감성적 근대의 한 징후는 이러한 '중층'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관점이기도 하다.

나아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감장의 공론에 대한 효용성이나 신뢰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공감장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들은 또 다른 공감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들만의 공감장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투쟁은 곧 공감장의 생존 방식이다. 하나의 공감장 내부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투쟁은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공감장들 사이에서의 투쟁은 공론의 투쟁이 되는 것이다.

Ⅲ.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참요

위르겐 하버마스가 지적한대로, “공론장이 되려면 조직(협회), 정보 생산 기제(신문과 팸플릿)와 유통 네트워크(시장과 상점, 유통망), 정보가 함축하고 지향하는 가치관 또는 계급 이해(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계급 이해를 발전시키는 지적 기구들(대학, 학교, 강습소)이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작동해야 한다. 계급 이해를 어떻게 누가 대변하는지, 부르주아적 세계관을 누가 재생산하고 유통하는지, 대립 계급들의 억압과 방해에 부르주아 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상세히 분석해야 공론장의 형성을 입증할 수 있다.”[20]는 관점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또한 지엽적기도 하다. 이름 그대로 ‘부르주아’에 한정되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조직, 정보 생산 기제, 유통 네트워크, 가치관(계급이해), 지적 기구’들이라는 공론장의 형성 요건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문자와 그것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 혹은 그런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의 공론장을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공론장의 형성 요건들과는 달리 공감장은 굳이 문자를 전제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요건들을 굳이 갖추지 않더라도 그런 요건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거칠게나마 수행한다. 계급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급들이 구성했던 공론장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감장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때 주요한 매개로 작동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래’이다. 공론장이 아닌 공감장 내부에서 노래는 문자를 전제하지 않아도 조직을 구성하게 하며, 계급의 가치관을 반영시키고, 스스로 유통될 수 있는 유효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실례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하여 유행했던 참요를 들 수 있다. 공감장들 사이의 투쟁, 예를 들어 기존 공감장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공감장

20) 위르겐 하버마스(2002), 앞의 책. 송호근(2013),『시민의 탄생』, 민음사, 453쪽 재인용.

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투쟁은 시작되지만, 그 공감장의 영역이 기존 공감장의 영역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거나 봉기이거나 전쟁일 수 있다. 당대 참요는 이런 투쟁의 전조를 말해주거나 특정 공감장 내부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한편 투쟁의 결과를 예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인다.

대개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참요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엔 다양한 참요가 존재한다. 동학 자체가 가진 다양성, 예를 들어 공론의 다양성들 즉 외세 배격, 서학 배격 등에서 비롯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다양한 욕망에서 비롯한 까닭이지 않을까 한다. 동학이라는 거대 공감장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론장에서 각기 비롯하는 공론의 징후나 예언, 결과로서의 참요의 텍스트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참요란 시대의 변화나 정치적 징후를 예언하거나 암시하는 민요이다. 도참사상을 토대로 형성된 민요로서, 이 중 참언을 노래로 부른 것이 참요이다. 이 용어는 근래에 학자들이 내세운 것으로 옛 문헌에서는 이런 노래를 '동요'라고 일컬었다. 대표적인 노래로는 조선초 정도전의 죽음을 암시한 〈남산요〉, 동학농민혁명 당시 불렸던 〈파랑새요〉, 〈녹두새요〉 등이 있으며, 고대·중세시기에 전쟁이나 변란, 왕권 교체기 등 주로 사회가 혼란할 때 나타난다.

이 중 특히 민중봉기와 관련된 참요로는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기 전 해에 나돌았던 〈홍경래난요〉가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노래로는 〈가보세요〉·〈녹두새요〉·〈파랑새요〉 등이 있다. 〈가보세요〉는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간다'라는 가사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혁명 자체를 예언했다든지 병신년에 이르러 거사가 실패하리라는 것을 예언한 참요로 보기도 한다. 〈녹두새요〉·〈파랑새요〉는 전주 고부 녹두새 또는 파랑새에게 녹두밭에 앉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학혁명에 관한 이런

노래가 예언인지 아니면 선동이나 회고인지 명백하게 판별하기는 어렵다.[21)]

물론 이렇게 다양한 공론으로서의 참요, 공감장 형성 기제로서의 참요가 언제나 긍정적일 것이라는 추론 또한 온당하지 않다. 특히 동학이나 동학농민혁명을 접하는 기층 민중들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학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동학에의 입도를 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들 중에도 동학군을 비적(匪賊)으로 여기고,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만류하는 일이 적지 않았을 것"[22)]이며, 당시 불리던 〈녹두새요〉가 이런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동학이라는 당대의 특정 공감장 내부에서 다양한 공론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민중들의 공감을 가장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노래 〈파랑새요〉이다. 이 노래는 4·4조, 4구 2절의 형식을 가진 민요로 동학민요 중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불린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까닭에 '파랑새'가 '녹두새', 또는 '무당새'로 바뀌기도 한다. 다음은 〈파랑새요〉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노래이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23)]

이 〈파랑새요〉는 다른 참요들과는 달리 내포한 의미의 해석이 유독 갈리는 편에 속한다. "참요는 국가 정세의 흐름 중 민감한 부분을 담고 있기에 은유적

21) 다음 백과사전 참조.
22) 심경호(2012), 『참요』, 한얼미디어, 543쪽.
23)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1993),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재인용.

수사법을 사용하여 함축적,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문의 형태에 은유적 표현으로 쓰여졌으므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노래라 여겨질 수 있지만, 예언의 모습으로 의도적인 면을 강하게 표출시킨 노래이다."[24]라는 진술처럼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 함축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해석자마다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작품의 배경인 동학농민혁명이나 혁명의 주동자인 '전봉준'을 위주로 해석하는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인물인 전봉준은 새로운 하늘을 찾는 민중에게는 희망이었다. "'하늘'은 민족 공동체가 꿈꾸는 평등한 세상이며, 분노와 저항만의 하늘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념이 담긴 공간"[25]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노래에서 우리는 "민중의 희망인 영웅의 좌절을 애달아하는 민중의 한을 읽을 수 있다. 녹두로 상징되는 전봉준 장군은 동료이면서 한울이었다. 동학사상을 통해서 민중에게로 돌아온 한울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혁명의 실패로 찢겨진 한울을 슬퍼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봉준 장군이 철저한 동학교도였고 동학군의 상당수가 동학도인이었다는 가정 아래서 살펴보면 대다수 민중들이 동학사상에 대한 심정적인 지지가 있었음"[26]은 부인할 수 없다.

영웅의 좌절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바라보던 민중들에게도 또한 좌절이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비롯한 우울과 안타까움은 다시 노래를 통해 한으로 승화되었고, 그것은 동학에 대한 감성적 공감을 확대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파랑새요〉라는 한 노래가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파랑새요〉는 특정 공론과 그것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24) 조영주(2001), 「참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쪽.
25) 권미란(1994), 「신동엽의 『금강』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쪽.
26) 김영대(2001), 「한국 근현대시의 동학사상 연구-경천사상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42쪽.

민중들의 한을 담고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팔왕새요〉이다. 6구 3절 형식의 이 노래에서는 파랑을 '팔왕(八王)'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봉준의 성씨 '전(全)'을 파자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노래 전문이다.

> 새야 새야 八王새야
> 너 무엇하러 나왔느냐
> 솔잎 댓잎이 푸릇푸릇
> 夏節인가 하였더니
> 白雪이 펄펄 흩날리니
> 저 건너 靑松綠竹이 날 속인다[27]

이 노래에 보이는 '하절(夏節)'과 '백설(白雪)'은 동학혁명이 가장 성했던 시기와 실패하여 좌절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청군의 상륙이 '夏節'이었고 패배하여 퇴각한 시기가 '백설이 펄펄 흩날리는' 엄동설한이었던 것도 역사적 사실과 맞아 떨어진다[28]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파랑새를 전봉준이나 동학과 관련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나라를 침탈한 악당으로서 '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랑새의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의미가 강하다. 공감이 "정(情)의 마주침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정의 껴안음을 통해 감정적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29]을 감안한다면, 당시 민중의 안타까움은, 적어도 노래를 통해서라면 관계적인 동시에 지향적인 감정

27) 오지영(1994), 『東學史』, 대광문화사, 171쪽.
28) 신순철·이지영(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11쪽. 참조.
29)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2017), 앞의 책, 21쪽.

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과 지향성이 공감장의 기본 요소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한편, 다음 〈녹두새요〉는 동학에 대한 당대 민중의 보편적 공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랫녘 새야 웃녘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두루박 딱딱 우여어

아랫녘 새야 웃녘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두루박 딱딱 우여어[30]

여기에서 '새'는 민중이고, '두루박'은 두류산(頭流山)이며, '녹두새'는 전봉준(全琫準)의 별명이요, '딱딱 우여어'는 '날아가라'는 뜻이다. 이는 조선조 고종 때 전라도 고부의 향리의 아들인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할 것을 예언한 참요이다. 또한 이 노래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동학군에 가담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말리는 듯한 어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는 1970년대부터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그 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조차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것[31]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32]

30) 심경호(2012), 앞의 책, 540쪽.
31) 심경호(2012), 같은 책, 541쪽.
32) 이 무렵 <봉준요>도 불렸는데, "봉준아 봉준아 전봉준아/양에야 양철을 질머지고/놀미 갱갱이 패전했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미는 논산(論山)이요, 갱갱이는 강경(江景)의 토박이말이니 전봉준이 싸움에 지는 곳을 예언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이 노래는 동학에 대한 민중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장 내부를 구성했던 사람들 사이에 특정한 거리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일부가 동학 자체를 거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에게서도 두려움, 안타까움 등의 감정이 노래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장의 구성원들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인 까닭에 그들의 감정 역시 본능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본능적인 것, 혹은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감정의 발현 양태일 것이다. 공감장의 자장 내에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역사적이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구조화되면서 동시에 구조화"[33]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을 필자는 특히 감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런 감성의 긍·부정성에 따라 공감장의 성격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성의 긍정적 전파와 연대감의 고취가 바로 노래를 통해 형성되었고, 그것이 공감장의 발생-소멸의 과정에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장의 의도는 참요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는가를 살피는 일이었다. 즉, 참요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나아가 공감장의 형성 방식 등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런 움직임을 형성시키고자 했던 당대인들의 욕망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일이었다. 그들은 동학을 통해 '사람[人]'임을 자각했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통해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 그런 욕망이 노래를 부르게 했고, 노래를 통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결성하였으며, 그 공동체는 기존 공동체들과의 투쟁을 벌였고, 결국은 실패했지만, 공동체 형성 혹은 공감장의 형성이라는 감성적 경험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경험들이 결국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33)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2017), 앞의 책, 12쪽.

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징후가 곧 민중에 의한 공감장의 체현과 그 발현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Ⅳ. 맺음말

논(論)이 의식의 장이자 구체적인 장이라면 감(感)은 무의식의 장이자 추상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무의식은 인지되지 못한 의식뿐만 아니라 이미 인지되었지만 아직 발현되지 못한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계기에 의해, 그것이 봉기이든 혁명이든,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의식적 행위의 토대로서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는, 특히 민중의 노래는 이런 무의식의 집합적, 공감적 발현이다. 그것은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적층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재의식화 되기도 한다. 노래를 통해 개인들의 무의식적인 감(感)이 의식적인 논(論)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며, 그런 이동의 과정과 공간을 이제 연대의 공유라거나 공감의 장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사실 이 글은 참요를 대상으로 공감장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그 구성 요건들을 통해 농학농민혁명이라는 봉기를 다시 보고자 하였다. 공감장의 형성에 있어 공감의 역할이 지대하는 점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감이 특정 공론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그런 공론들을 드러내는 방식은 문자라기보다는 노래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참요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기존 공론장의 구성 요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문자'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통'의 측면을 노래를 통해 담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살피는 일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공감장은 문자를 점유

하는 하나의 계층적 층위에서가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층위에서의 공감적 사회구조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감성적 근대란 이러한 공감장이 실현되는 지점 혹은 시도되는 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익두(1989),『전북의 민요』, 전북애향운동본부.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1993),『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송호근(2013),『시민의 탄생』, 민음사.
신순철·이지영(1998),『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심경호(2012),『참요』, 한얼미디어.
오지영(1994),『東學史』, 대광문화사.
이영호(2016),『동학사상과 조선 농민혁명전쟁』, 동인통문.
임기중(2005),『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6, 아세아문화사.
위르겐 하버마스(2002),『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

강영애(2012),「노래로 불려 진 천주가사의 음악적 특징」,『국악원논문집』 제26집, 국립국악원, 97~149쪽.
권미란(1994),「신동엽의『금강』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대(2001),「한국 근현대시의 동학사상 연구-경천사상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맹수(2003),「'녹두장군'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인문연구』 제69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36쪽.
이권형(2013),「18·19세기 천주가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재호(1994),「동학가사(東學歌辭)와 동학혁명(東學革命) -『용담유사』를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문학회, 193~212쪽.
조영주(2001),「참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태성(2015),「감성발현체로서의 시조의 역동성」,『시조학논총』 제42집, 한국

시조학회, 93~115쪽.
최혜경(2002),「동학의 사회개혁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동학연구』제12집, 한국동학학회, 53~72쪽.
최효식(1998),「수운 최제우의 생애와 사상」,『동학연구』제2집, 한국동학학회, 27~71쪽.
다음 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고일: 2017. 05. 19.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3.

| 국문초록 |

참요,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 조선후기 공감장의 형성과 투쟁을 중심으로 —

이 글에서는 참요를 대상으로 공감장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그 구성 요건들을 통해 농학농민혁명이라는 봉기를 다시 보고자 하였다. 공감장의 형성에 있어 공감의 역할이 지대하는 점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감이 특정 공론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그런 공론들을 드러내는 방식은 문자라기보다는 노래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참요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참요의 문학사회학적 의의를 찾는 것도 이 글의 주요 목적이었다.

특히 노래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는가를 살피는 일에도 주목하였다. 즉, 참요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나아가 공감장의 형성 방식 등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런 움직임을 형성시키고자 했던 당대인들의 욕망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동학을 통해 '사람[人]'임을 자각했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통해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 그런 욕망이 노래를 부르게 했고, 노래를 통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결성하였으며, 그 공동체는 기존 공동체들과의 투쟁을 벌였고, 결국은 실패했지만, 공동체 형성 혹은 공감장의 형성이라는 감성적 경험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경험들이 결국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징후가 곧 민중에 의한 공감장의 체현과 그 발현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참요, 공감장, 동학농민혁명, 감성, 근대(성)

호남문화연구 61: 97~12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A Korean Linguistic Study on the Traditional Lexicon in Jeonnam Province

황 금 연**
Hwang, Geum-Yeon

목 차

Ⅰ. 머리말
Ⅱ. 마을굿 관련 어휘
Ⅲ. 신격 어휘의 구조
Ⅳ. 민속어휘와 의미
Ⅴ. 마무리

| Abstract |

This study defined special lexicon or expressions shown in *Maeul Gut* in Jeonnam Province as traditional vocabulary and speculated on their semantic and morphological aspects. When dictionary meaning of *Maeul Gut* was examined, it was discovered that *Maeul Gut* names including *Dongshinje,* Dangsanje, Dongje and Donggosa have comprehensive meaning. For names of the Gods who are the subjects of *Maeul Gut*, names of 'human and natural things' and 'natural things and human' were usually combined, but the words of 'up and down' and 'before and after' were combined according to positions of the Gods. Hwajoo, Yoosa and Panjoo were used to indicate persons who were in charge of a sacrificial offering in *Maeul Gut* and they were differently used according to regions. The word which indicates the behavior of presenting an offering to Maeul gods is *Hunsik*. Similar words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352).

** 전남대학교

are *Gosure, Suban* and *Naejeon*. The word of '*Gosure*' is not used in *Maeul Gut*. *Sooban* has two meanings of dipping rice in water and offering food to Gods. *Mulbap, Murebap, Morap, Mulmari, Mulmanbap* and *Suksoo* are synonyms. '*Sooban*' was derived from *Shupan*, an ancient word and it was presumed that it coexisted with *Mulbap* in the 17th century. For *Murebap*[<*Mulebap*], an adverbial case particle of 'e' was added to '*Mul*' and '*Bap*' was combined with them, and then it became a word of *Murebap*. *Suksoo* is defined as '*Sungnyung*' in Korean dictionary, but in *Maeul Gut*, it indicates dipping part of offerings in *Sungnyung* or eating it. It is suggested that *Sooban* is different from Suksoo in that it means dipping food in water or eating the food in water.

It was identified that *Naejeon*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Hunsik* in that straws are spread over the floor on which offerings are spread or presented.

Hunsik has two meanings of burying offerings in the ground or spreading them on the ground. *Georibap, Gilbap* and *Georaebap* have a similar meaning to *Naejeon*. Meanwhile, *Naejoen* is a unique(the only) morpheme which is not us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of Korean dictionary and it appears as an independent morpheme in *Maeul Gut*. *Jipdolryang* has a similar meaning with *Jipdollim* and *Jisinbalpki* and is a special word which is used only at Gwangyang and is not shown elsewhere. Through the correspondence relation between *Jipdolryang* and *Jipdollim*, it was discovered that the word of '*Dolryang*' means turning. It was presumed that '*Dolryang*'(a dialect of epidemic) as a dialect of Jeonbuk and Chungnam means turning. *Geumjool*(an exorcistical rope) has a similar meaning to *Baramjool*. The former means blocking evil things while the latter means praying for luck. *Ingujeon, Hogujeon, Myonghwajeon* and *Chondon* indicate the ways of raising funds for sacrificial rites. *Ingujeon* and *Myonghwajeon* are terms of raising fund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ople. *Hogujeon* is the term of raising funds according to the number of families. *Chondon* is used in Jindo for which '*Chon*' is combined with '*Don*(money)'.

For *Areumjang*[*Allimjang*], *Allim* indicates informing village people of

Maeul Gut. *Samtang* means three different bowls of soups, *Samchaenamul* means three different dishes of greens and *Samsilgwa* means three different kinds of fruits. Their specific kin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villages.

Key words : Jeonnam, traditional vocabulary, *Maeul Gut*, *Tangsanje*, *Hwajoo*, *Sooban*, *Naejeon*, *Sukseo*, *Jipdolryang*

Ⅰ. 머리말

민속은 한 사회의 문화 현상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형성된다. 큰 틀에서 민속은 인간의 삶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세계 전역에서 동질성을 띤다고 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삶의 형태가 다르므로 민속현상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좁은 의미의 민속 현상은 인간 삶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 이런 민속 현상은 시·공간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언어를 통해 집적되고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민속 현상은 상시적이지 않아서 일정한 시간, 공간에서 특정한 날에 이루어진다. 즉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지닌 인간 삶의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 현상에 반영된 삶은 언어로 구전되거나 문자로 정착하여 전승, 전파된다. 민속 현상에서 드러나는 언어들은 일상적인 언어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한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민속의 언어들은 일상적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속 연행시에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일 것이므로 특수어와 같은 언어로 볼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언어를 반영할 것이므로 방언적 요소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표준어와 방언(지역어)로 크게 나눌 수 있듯이, 동일한 민속 현상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역에 따른 민속 현상의 차이가 당연하듯이 같은 민속 현상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어휘도 해당 지역의 언어 현상을 반영할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가택신앙의 하나인 조상단지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주로 ‘시준단지’, ‘세존단지’ 등으로 불리고 있음에 반하여, 전라도 지역에서는 ‘귓것단지’, ‘지앙단지’, ‘신주단지’, ‘제석단지’, ‘지숙단지’, ‘지석단지’, ‘조상단지’ 등으로 불리고,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거의 ‘조상단지’라고 통칭

되고 있다.[1] 이런 사실은 전남지역에 행해지는 마을굿의 어휘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미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드러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어휘는 국어학의 연구대상으로, 방언의 하위 부류라 할 수 있다. 방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어휘 체계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므로 모든 품사의 방언 어휘가 연구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민속(학)의 연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여 그 문화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연구 영역을 종합하면, 민속어휘는 방언의 하위 부류로 민속 문화 현상을 나타내는 어휘로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어에는 없는 어휘가 민속문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어휘, 표준어나 방언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있을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의미나 기능으로 사용되는 어휘, 그리고 표준어와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나 기원에 따라 음운·형태, 의미를 전혀 달리하는 어휘를 민속어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어나 일부 방언의 경우는 국어사전에 실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실리지 않는 많은 어휘들이 일상 생활에서 빈빈히 쓰이고 있는데, 이들 중 특히 민속 현상과 관련되거나 특정 민속 현상을 지시하는 어휘는 민속어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2] 어떤 어휘가 비록 국어사전류에 실려 있는 경우라 하여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통용될 수 있다. 이런 어휘는 곧 민속어휘에 속한다. '천룡(天龍)'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장가운데 제천과 용신."으로 불교 용어로 기술되어 있으나, 민속현장에서는 마을신의 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민속어휘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대보름'은 세시풍속의 하나로, 『표준』에 '[민속]'의 표지가 달려 있으나 이런 낱말을 민속어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대보름'이 표준어이기도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동일

1) 나경수·이돈주·서상준(1991),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연구(Ⅰ)」, 『한국민속학』 제24집, 민속학회, 61쪽.
2) 나경수(1994), 『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39쪽.

이 연구에서는 민속 현상에 나타난 특수한 표현을 민속어휘로 보고, 이들 어휘에 대한 국어학적, 특히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의미론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민속어휘는 전남지역 마을굿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호남마을굿총서』(1~9)[3]가 기본 자료이다. 『호남마을굿총서』(1~9)는 전남지역 마을굿을 직접조사하여 기록한 조사보고서인데, 이에 나타나는 어휘 자료는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한 것이므로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남지역 민속어휘의 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마을굿 관련 어휘

마을굿의 전승은 마을 단위로,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주민들과 마을의 수호신을 위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집단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굿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동신제라 할 수 있다. 전남지역의 마을굿의 대표적인 명칭은 당산제라 할 수 있는데, 당제, 거리제 등도 마을굿 명칭으로 자주 나타난다.[4]

---

3) 이 총서들은 나경수 외(2007-2008)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필자를 비롯한 여러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채록하여 간행한 것이다. 『함평군 마을굿』; 『장성군 마을굿』; 『담양군 마을굿』; 『진도군 마을굿』; 『화순군 마을굿』; 『구례군 마을굿』; 『광양시 마을굿』; 『곡성군 마을굿』; 『여수시 마을굿』(민속원) 등.

4) 광주를 포함한 전남의 마을신앙은 모두 1,369개의 제의가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도 당산제가 54%(740개), 당제가 19%(255개)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리제(4.5%), 산신제(3.7%), 도제(3.1%), 갯제(1.6%)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 제의 명칭 분포에서는 장성, 화순, 광주, 보성, 영광, 함평, 나주, 담양, 고흥, 곡성, 구례, 순천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산제가 높은 빈도를 보이면서도 광양, 완도, 여수, 해남, 신안 등 섬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당제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지역의 마을 신앙 명칭 역시 다양하여 55개 정도가 확인된다. (정명철 외(2016), 「제의명칭의 분포로 본 마을신앙 문화권 설정」, 『한국민속학』 제64집, 한국민속학회, 106쪽 참고.)

이 장에서는 마을굿[5]과 동신제 그리고 전남지역의 대표적 명칭인 당산제의 어휘 의미적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마을굿, 동신제의『표준』기술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마을굿「명사」『민속』
마을이 넉넉하고 평안하기를 비는 굿.「참고어휘」동신제(洞神祭), 탑신제(塔神祭).

2) 동신-제(洞神祭)「명사」『민속』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켜 주는 신인 동신(洞神)에게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풍년을 빌며 정월 대보름날에, 서낭당, 산신당, 당산(堂山) 따위에서 지낸다. ≒당제02(堂祭)·대동신사·대동치성·동고사·동고사굿·동제04(洞祭)·부락제·산천제01(山川祭)·수살제·토신제.

1)과 2)를 참고하여 보면, 마을굿과 동신제의 의미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둘은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이다. 동신제의 세부 기술 내용을 참고하면 그 명칭이 지역에 따라, 마을에 따라 달리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굿, 동신제, 동제, 부락제, 동고사 등은 마을의 제사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 명칭인 반면 당산제, 당제, 산천제, 천제, 수살제, 토신제 등은 마을 제사의 구체적 성격이나 대상 또는 제장을 포함하는 명칭이다. 마을굿과 동신제는 당산제, 당제, 산천제 등 마을마다 달리 부르는 개별 명칭을 통틀어 포함하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마을굿, 동신제, 동제, 부락제 등과 당산제, 당제, 산천제 등의 명칭 간의 의미관계는 상하위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당산제, 당산, 당제의『표준』기술 내용이다.

---

5) 마을신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표적 명칭과 특징에 대해서는 표인주를 참고하면 된다. (표인주(2010),『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149~152쪽.)

3) 당산제(堂山祭) 명 『민속』

① 당산에서 산신(山神)에게 지내는 제사. ¶당산제를 지내다. ② '동신제(洞神祭)'를 달리 이르는 말.

4) 당산02(堂山) 「명사」 『민속』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이 있다고 하여 신성시하는 마을 근처의 산이나 언덕.

5) 당제 「명사」 『민속』 = 동신제.

당산 집은 마을의 수호신인 당할머니를 모시고 매년 당제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었다. 《송기숙, 암태도》

위의 3)②를 통해, 우리는 동신제와 당산제는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는 상하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동신제, 마을굿 등의 의미역이 당산제의 의미역보다 넓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마을굿총서』[6](이하 '『총서』')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당산제, 당제, 거리제[道祭], 충제(蟲祭) 등을 포괄하는 어휘로 마을굿 또는 동신제 등의 명칭이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3) ①과 4)를 견주어 보았을 때, 당산(4: "… 마을 근처의 산이나 언덕.")은 『총서』에 의하면 마을 근처에 있는 구체적 장소, 즉 당집, 나무, 비석, 바위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산, 언덕을 일컫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전남지역의 마을굿에서의 당산의 구체적 대상과 『표준』에서 기술한 당산의 구체적 대상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마을굿, 동신제, 부락제 따위는 상위어로, 당산제, 당제 따위는 하위어로 파악하였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하위어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지칭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후자는 하위어로서 상위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호칭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명칭만 놓

6) 각주3에 제시한 총서 전체를 말한다.

고 보면, 마을굿, 동신제, 동제, 부락제 등은 제[祭]의 전승 단위[마을]을 중시하여 붙인 명칭으로, 당산제, 당제, 산천제, 천제, 수살제, 토신제, 정제, 천룡제 등은 전승 대상을 중시하여 붙인 명칭으로 파악된다. 후자는 당집, 나무, 돌, 샘[우물], 하늘, 땅 등의 자연물과 마을굿 명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신격 어휘의 구조

신격(神格)은 보통 신의 성격 또는 신과 같은 성격을 일컫는 말이다. 마을굿[7]에서는 어떤 대상물에 신의 자격을 주는 신격화가 이루어는 일이 예사이다.

마을굿에서 신격의 표현은 대개 제명(祭名), 신체(神體), 제장(祭場) 등과 일치한다. 신격은 마을의 제사 명칭에 따라 명명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전남지역 마을굿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당산제인데, 이 당산제의 명칭에 따라 신격의 이름이 '당산~' 또는 '~당산' 등으로 불린다. 그리고 신체에 따라 신격이 명명되기도 한다. 입석[선돌]에 모시는 경우는 '선독~', '비석~', '~독', '~미륵' 등으로, 나무에 제를 지내는 모시는 경우는 '소나무~' 따위로, 샘[우물]에 제를 모시는 경우는 '샘~', '~샘'의 신격 이름이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제를 모시는 장소에 따라 신격의 이름(또는 제의 명칭)이 구분되기도 한다. 제를 모시는 장소가 마을 앞뒤의 산이거나 마을 뒤의 언덕이면 신격의 이름이 '천룡~', '천륭(철륭)~', '철용~' 등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서』에 나타난 신격의 명칭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7) 이하의 서술에서는 마을제사와 관련한 명칭을 '마을굿'으로 통칭하며, 구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제명을 쓰기로 한다.

6) 당산, 당산신
7) 소나무당산, 미륵할머니, 할아버지장승 / 할머니장승
8) 할아버지당산 / 할머니당산 / 아들당산 / 딸당산
// 아들미륵 딸미륵(또는 손자미륵)
9) 당산할아버지(또는 당산하네) / 당산할머니 / 당산할매
10) 천룡할아버지(또는천룡하나씨) / 천륭할아버지(천륭하나씨), 천륭신
11) 선독할머니 / 비석할매 / 할머니독(또는 할매독)
12) 샘할머니
13) 웃당산(윗당산, 상당산) / 아랫당산(하당산), 윗뜸철륭 / 아랫뜸철륭

먼저 이들 명칭은 조어 구조로 보면 인격체와 자연물의 결합이다. 즉 '인간+자연물', '자연물+인간'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천룡, 천륭(신), 당산(신)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천룡(천륭)이 대체로 산에 있는 나무, 바위, 입석 등 일정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당산(堂山) 역시 신격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연물인 '당집'이므로 자연물로 존재한다. 자연물은 당연히 [-인간]의 자질을 갖는다. 할아버지, 하나씨, 하네, 할머니, 할매 등은 각각 할아버지[祖父]와 할머니[祖母]의 방언형으로 [+인간]의 자질을 갖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의 신격 명칭들은 인격체와 자연물이 통합되었을 때 그 명칭에 신격의 자질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아버지(하나씨, 하네)와 할머니(할매)는 인격체인데, 친족관계 어휘인 조부(祖父)와 조모(祖母)라는 사전적 의미라기보다 존숭(尊崇) 대상이라는 어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산 명칭의 위계는 '손자-아들(딸)[아버지][8]-조부(조모)'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부(증조모)-고조부(고조모)… 조

8) 당산의 명칭에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상'을 포괄함으로써 '존숭'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신격화된 존재로 여긴다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외에 손자, 아들 어휘도 자연물과 결합하여 신격화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제사를 모시는 당산이 많을 때 구분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아들과 딸, 손자는 일상어에서 존대의 대상은 아니지만 당산인 자연물(예: 아들당산, 딸당산, 딸미륵, 손자미륵)과 결합하였을 때는 존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갖는 존숭의 의미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존숭의 의미는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에서 제를 지내는 주된 대상이 할아버지당산, 할머니당산임에 비해 아들당산, 딸당산 등에는 제를 모시는 데에 있어 수의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신격의 명칭은 다양하다. 제를 모시는 구체적인 신체가 있음에도 6)의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당산', 또는 '당산~'의 줄임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6)은 7), 8), 9)의 근간이 되는 기본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산신(堂山神)은 의미적으로 볼 때 당산(堂山)과 일치한다. 당산에 이미 신(神)의 뜻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당산신은 마치 '메'를 '메밥'으로 말하는 것처럼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7), 11), 12) 명칭은 제를 모시는 신체와 직접 결합하여 명명된 경우로 구체적인 자연물을 포함한 것이다. 소나무당산은 신체가 소나무임을, 장승할아버지는 신체가 장승임을, 선독할머니·비석할매·할머니독, 샘할머니 등은 각각 선독, 비석, 장승 등 돌[石]과 샘[井]임을 알 수 있다. 미륵할머니의 미륵은 미륵불을 말하지만 실상은 선돌이라는 점에서 신체와 직접 결합하여 명명한 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당산~', '~당산', '천룡~'류 등도 마찬가지다. 당산, 천룡으로 일컬어지는 대상이 나무, 돌[石], 산 등으로 다양하다. 예컨대, 『함평군 마을굿』(2007: 204)[9]에 의하면 신격은 "당산하네 또는 당산할아버지", "당산할

9) 『총서』는 본 연구 대상 자료이므로 참고문헌에 기재한 방식대로 군명의 마을굿과 연도

매 또는 당산할머니"로 불리는데 이때의 신체는 입석이다. 그리고 천룡이라 했을 때도 천룡의 신체가 산, 나무, 바위가 되기도 한다.

13)은 당산의 위치에 따라 명명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리적으로 높은 또는 위쪽에 위치해 있으면 웃당산[상당산], 낮은 곳에 있으면 아랫당산[하당산]으로 부르는 것이 예사이다. 또한 주민들의 심리적 방위개념에 따라 명명되는 경우도 있다. 당산의 위치가 지리적으로는 비슷한 높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을주민들의 위아래, 앞뒤에 대한 심리적 판단에 따라 웃당산, 아랫당산, 앞당산, 뒷당산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신격 명칭의 결합관계를 보면 핵어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신격의 명칭에서 핵어, 즉 근간요소는 당산, 천룡, 독, 샘 등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따위는 주변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당산, 천룡 등을 핵어로 하여 이들의 앞뒤에 여러 주변요소들이 놓여 신격의 명칭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Ⅳ. 민속어휘와 의미

1. 화주, 유사, 판주

마을굿을 지내는 모든 마을은 제물을 준비하여 모시게 된다. 제사에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주, 헌관, 축관, 집사 등이다. 이들을 역할별로 나누며, 제수를 준비하는 화주, 절을 하는 헌관, 독축을 하는 축관, 집례를 하는 집사 등이 있으며, 뒷심부름을 맡을 사람을 뽑기도 한다.[10]

마을굿에서 화주(化主)는 일반적으로 제주를 말하며, 제물 일체를 맡는다.

를 표기하기로 한다.

10) 나경수(2001), 「광주·전남지역의 당산제 연구(3)-전승과 변화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34집, 한국민속학회, 73쪽.

『표준』에 의하면, 화주는 "별신굿이나 도당굿 따위의 제주(祭主)."로 기술되어 있다. 전남지역 마을굿은 마을 주민들이 제주, 제관, 헌관 등을 뽑아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서 무당이 주재하는 도당굿, 별신굿과는 차이가 있다.

이 지역 마을굿에서는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화주라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며, 유사, 판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유사(有司)는, 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11] 또는 단체나 자생적 조직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직책으로 흔히 '소임(所任)'이라고도 한다.[12] 그러나 마을굿에서의 유사는 제물을 준비하는 화주를 지칭한다. 사전적 풀이를 감안하면 마을굿의 유사는 전연 다른 별개의 어휘가 아니라 사전의 의미를 확대하여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굿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책을 담당한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야 하므로 유사라 표현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마을굿의 유사는 사전과는 다른 의미임은 확실해 보인다.

화주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어휘로 '판주'가 있다. 화주가 제주로서 제물 일체를 맡는 것에 비해 판주[13]는 제물을 준비하고 장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마을굿의 판주는 현재는 쓰이지 않는 판주(辦主)[14]와 관련이 깊다. 마을굿에서 제물을 준비, 장만하는 판주는 결국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판주는 역사어로서 사어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마을굿에서는 살아 쓰이고 있는 민속어휘로 볼 수 있다.

---

11) 유사: 「1」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2」 기독교 교회의 제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표준』 참고.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7. 4.10) 참고. 강화 외포리 곶창굿에서는 '소임'이라 한다.

13) "마을굿으로 도제(道祭: 도지, 거리제라고도 함)를 모시는데, 제주와 판주를 따로 뽑는다. 제주는 도제를 관장하는 일을 하고 제물 준비는 판주가 맡는다. (밑줄 필자.)" (나경수 외(2007), 『진도군마을굿』, 민속원, 455~456쪽 참고.)

14) 판주: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 『표준』 참고.

2. 헌식, 고수레

마을굿 의식 중에 하나로 헌식(獻食)을 하는 행위가 있다. 헌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바치는 행위이다. 『표준』에는 불교용어로, “절에서 대중이 공양할 때에 음식을 조금씩 덜어 아귀에게 줌.”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을굿에서의 헌식은 제사가 끝난 뒤 음복하기 전 또는 음복과 동시에 제물을 조금씩 거둬 당산 주변에 뿌리거나 구덩이를 파고 묻거나 헌식대 또는 헌식돌에 올려놓는 일을 말한다. 마을굿 연행 현장에서 헌식의 의미와 『표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연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속현장에서 행해지는 헌식은 『표준』의 풀이와는 다르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헌식의 속성, 즉 개념적 의미(신, 귀신 따위에게 음식을 덜어 바치는 행위)는 같을지라도 마을굿 행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미의 확대로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불교의식의 하나가 민간에서 확장되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헌식에 대한 『표준』의 기술에 따르면, 마을굿의 헌식은 불교 용어에 기원을 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마을굿의 기원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 가운데 마한의 시월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15], 불교의 정결의례, 밀교의례가 다양한 민간신앙적 요소를 포용하고 있다는 점[16]을 고려하면 헌식의 의식은 불교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민간신앙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헌식이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이는 ‘고수레’[17]와 의미적으로 가깝

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2), 『한국민속대관3-민간신앙·종교』,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203~203쪽.

16)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2), 같은 책, 530~531쪽.

17) 민간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떠어 던지는 일. 『표준』 참조. 고수레는 3가지의 민간어원설이 있다고 한다. ① 단군의 신하로 고실(高失)이 있었는데, 농사를 처음 백성에게 가르쳤으

다. 고수레와 헌식의 외연적 의미는 같다. 그러나 마을굿에서는 고수레(고시레, 고시라)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헌식, 내전, 수반[18] 등의 표현을 쓴다. 고수레라 하는 경우는 헌식을 하면서 말하는 감탄사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19] 전남지역의 당산제에서 헌식할 때 고수레의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산이나 들, 바닷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중간이나 끝에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먹을 음식 중 일부를 떼어 주변에 뿌리거나 둘 때 '고수레'라는 표현을 쓰고, 당산제, 당제, 거리제 등 마을굿에서는 헌식, 수반, 내전 등의 표현을 쓰는 것으로 각각 분화되어 사용되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헌식과 고수레의 의미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헌식은 제물을 주변에 뿌리거나, 땅속에 묻거나, 헌식대에 올려놓는 데 반해, 고수레는 제물을 뿌리거나 던지는 일만을 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마을굿에서는 고수레의 행위보다는 구덩이를 파고 제물을 묻거나 짚 따위를 깔고 제물을 뿌리는 방식의 헌식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므로 그 공덕을 잊지 않기 위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던져 바쳤다. 〈撰園史話, 太始記〉 ② 무당이 악귀를 쫓기 위해 밥을 물에 말아 '고시라'라고 하는 것은 고씨(高氏)를 통해서 귀신을 쫓기 위함이라 〈동언고략 4〉 ③ 해동가요에 실린 사설시조에서, 배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고스레 고스레 所望 일게 ᄒᆞ오쇼셔"라고 했다. 마지막의 '고스레'는 신(神)이 되는 동시에 농사와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고수레는 고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무속에서의 고수레 신이 민가(民家)에 퍼진 것이다. 고수레의 어근은 '곳'이다. '곳'이 신 또는 존장자의 뜻을 지닌다. …고수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의 뜻일 것이다. (서정범(2003), 『국어어원사전』, 보고사, 59~60쪽.)

18) 수반, 내전 등은 절을 달리하여 논의한다.

19) "헌식을 하면서 '퇴고시라'"라는 기록(나경수 외(2007), 『진도군 마을굿』, 민속원, 180; 449쪽)과 "제물을 조금씩 떼어 내서 주위에 뿌리는데 '고시래'라고 한다."라는 기록(나경수 외(2007), 『곡성군 마을굿』, 민속원, 68쪽)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전남지역 마을굿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3. 수반[물밥, 무레밥, 무랍], 숙수, 내전, 거리밥

아래의 내용은『표준』의 수반, 물만밥, 물말이, 물밥, 무랍에 대한 기술 내용이다. 이를 보면 수반, 물만밥, 물말이는 일반명사, 물밥과 무랍은 민속어휘 명사이다.

14) 수반(水飯)「명사」= 물만밥.
15) 물만밥「명사」물에 말아서 풀어 놓은 밥. ≒ 물말이「1」·수반03(水飯)·수요반·수화반.
16) 물말이「명사」「1」= 물만밥.「2」물에 흠뻑 젖은 옷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
17) 물밥「명사」『민속』
무당이나 판수가 굿을 하거나 물릴 때에, 귀신에게 준다고 물에 말아 던지는 밥. ≒ 무랍02.
18) 무랍「명사」『민속』= 물밥.

마을굿에서 수반(水飯)은 마을 수호신에게 올리기 위해 메(밥)을 물에 마는 일 또는 의식을 일컫는다는 점에서『표준』의 그것과 기본적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반이 마을굿에서 메밥을 물에 말아 땅에 묻거나 뿌리는 놓은 음식 또는 그런 의식을 뜻하기 때문에 17)의 '물밥'[20]과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반은 민속어휘로 규정할 수 있다. 마을굿에서 '수반을 하다'는 헌식을 하는 행위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수반과 동일 의미의 어휘로 '물밥', 무레밥(무래밥), 숙수 등이 있는데, 이들은『표준』의 기술 내용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헌식의 의식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수반과 물밥은 한자어와 고유어라는 점에서 보면 절대동의어라 할 수 있는데

20) "백지에 제물을 조금씩 떠어내어 놓고 노인당 밖에다 놓아두는데, 이것을 '물밥'이라고 한다." (나경수 외(2008),『여수시 마을굿』, 민속원, 91쪽.)

『표준』의 세부 정보 즉, 일반어휘와 민속어휘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반은 '슈판[水飯]'이 변화된 형태이다. '슈판'은 『음식디미방』[21]에 '슈판 ᄆᆞ리'로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시기에 '믈밥'의 표기도 관찰된다.

19) 밥 섯근 것시 슈판 ᄆᆞ리 ᄀᆞᄃᆞ니 칠 일 후 ᄡᅳ느니라 〈음식디미방 점쥬 20b〉
20) 누쥰의 감히 달라 ᄒᆞ디 못ᄒᆞ므로 믈밥 즈의 남은 거슬 모화 먹더니〈(承下些殘湯冷飯) 서울대 忠義水滸 22: 11b)〈고어대사전 3. 278〉

슈판의 '판'은 '水飯'의 '飯(fan)'에서 직접차용어한 것으로, 이것이 후대에 수반(水飯)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반의 고유어 표기인 '믈밥' 표기도 나타나는데 국어사적으로 양순음 아래에서 'ㅡ'원순모음화 현상이 17세기 말에 확인되므로[22] '슈판'과 '믈밥'이 공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디미방』의 '슈판ᄆᆞ리'는 현재 수반, 물말이로도 쓰인데, '슈판ᄆᆞ리'를 참고하면 '수반'은 'ᄆᆞ리'가 탈락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물말이는 일종의 혼태형, 즉 슈판ᄆᆞ리의 '슈'의 고유어 '물'과 '말이'가 결합한 조어로 볼 수도 있다. 백두현(2012: 395)에서는 수반과 물말이의 혼태형으로 '슈판ᄆᆞ리'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슈판ᄆᆞ리, 믈밥 등의 어휘가 확인되므로 이 두 어휘의 혼태형으로 물말이가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수반말이는 사어화되었다.

'무레밥'은 『표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말샘』[23]에 "물에밥 : '물

21) 『음식디미방』은 1670-1680년 사이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현(2012), 『음식디미방주해』, 글누림, 15쪽.
22) 이기문(2009), 『국어사개설』, 태학사, 213쪽.
23)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search/, 2017. 4. 30.).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어휘 자료 누리집이다.

밥’의 전남방언.”으로 나타난다. 물에밥은 ‘물+에+밥’의 구조를 가지므로, 마을굿의 무레밥(〈물에밥)은 민속현상과 관련하여 어휘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국어의 조어법상 ‘체언의 부사격+용언’의 구성은 흔한 현상이나 ‘체언의 부사격+체언’이 결합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체언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없는 조어 구조를 지닌 특성을 가진 국어에서 물에밥은 특수한 조어 방식으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물에밥을 ‘물+의+밥’의 구조로 파악하면, 관형격조사 ‘의’를 ‘에’로 발음한 데서 물에밥이 생성된 것[24]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물밥의 동의어로 ‘무랍’은 마을굿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 어휘의 형성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물밥의 의미를 고려하면 ‘*물+압’, 또는 ‘*물+밥’으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하나 전자는 개연성이 떨어져 상정하기 어려우나, 후자는 유성음사이에서 ‘ㅂ’탈락[25]을 적용한 통시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시적 현상을 고려하면 ‘물밥〉물압〉무랍’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시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물에밥과 유사한 구조의 어휘가 일반명사로 분류되어 있는 ‘물만밥’이다. 이는 ‘물에 만 밥’ 또는 ‘물을 만 밥’에서 조어된 것으로 보인다. ‘밥’에 관형사형 ‘물에 만’이 얹힌 구성으로 조어된 어휘이다.

숙수는 전남지역 마을굿에서 보이는 유일한 어휘인데 수반과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로 추정된다. 숙수의 『표준』과 마을굿의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 전남방언에서 남편의 동생 부인은(손아래 올캐) ‘동숭에, 동숭에덕, 동상으덕, 동숭아덕’ 등으로 불린다. (이기갑(2016), 「전남신안 지역어의 어휘적 특징」, 『국어의미론의 접목과 확장』(윤평현선생정년기념논총), 역락, 383쪽.) ‘동숭에덕’은 ‘동숭으덕’을 감안하면 ‘동숭+의+덕’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동숭에덕은 ‘동숭의덕’ 즉 ‘관형격조사 ’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25) 통시적으로 보면 ‘ㄹ’아래서의 ‘ㅂ’탈락(예, 글발〉글왈, 물밭〉물왇)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변화는 ‘ㅂ’이 유성음(‘붕’)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공시적으론 설명하기 곤란하다.

21) 숙수(熟水)「명사」『민속』 제사에서, '숭늉'을 이르는 말.
¶ 삽시했던 숟가락을 뽑으면서 흰 밥알 몇 알을 숙수 숭늉 대접에 담갔다. ≪최명희, 혼불≫

22) 숙수 : "삼헌이 끝나면 '숙수'를 한다. 숙수는 밥의 일부를 떠서 국에 마는 것을 말한다." 『담양마을굿』(2007: 303) 참고.

『표준』에는 "'숭늉'을 이르는 말."로 설명되어 있어서 마을굿에서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21)의 제시문을 보면 "숙수 숭늉 대접에 담갔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숙수가 '숭늉'의 뜻이라면 동일한 의미의 어휘가 반복되는 표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마을굿에서 숙수는 숭늉에 마는 것, 또는 그것을 올리는 일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22)의 '국'에 마는 것과 '숭늉'은 '끓이거나 익힌'이라는 의미적 동질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수반은 '숭늉'이 아니라 '찬물'에 마는 것, 또는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헌식하는 일을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숙수(熟水)는 자체 의미가 숭늉이므로, 마을굿에서는 메밥 따위를 숭늉에 만 것 또는 그것을 헌식하는 의미의 어휘로 볼 수 있다.

헌식과 같은 표현으로 '내전'[26]이 나타난다. 내전은 사방에 있는 잡귀들에게 먹고 물러가라는 뜻으로, 제물을 걷어 소금을 뿌린 후에 제장 근처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뿌려 놓는 일을 말하므로[27] 헌식과 같은 개념의 어휘로 볼 수 있다. 『진도군 마을굿』(2007: 110)에서 헌식을 '내전을 준다' 또는 '무래밥[무레밥]을 준다'고 한다는 기술은 내전과 헌식은 같은 의미의 어휘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준다. 내전과 헌식은 그 세부적인 면에서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헌식'이 제를 지낸 후에 제상의 음식을 조금씩 떼어 일정 장소에 묻거나 뿌리는 반

26) 이는 주로 『진도군마을굿』(2007)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도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나경수 외(2007), 『진도군 마을굿』, 민속원, 43, 50, 84, 110, 138~139, 229, 459~460쪽 참고.)

27) 나경수 외(2007), 『진도굿 마을굿』, 민속원, 84쪽 참고.

면에 '내전'이라 할 때는 음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짚 따위를 깔고 제물을 뿌리거나 올려 놓는다는 점에서 이 둘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28]

한편 내전은『표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남방언사전』을 비롯한 지역어에 볼 수 없어서 정체가 명확치 않다. 다만『우리말샘』'내전밥'[29]에서 내전이 확인된다. 내전과 내전밥이 '밥'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유의어로 추정할 수 있다. 내전이 내전밥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이 한군데 있다.[30] 마을굿의 내전과『우리말샘』내전밥 간에 구체적 의미 차이가 있으나 민속과 관련된 어휘라는 점, '밥'의 공통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굿에서는 내전의 기원이 내전밥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마을굿 연행현장에서 기존부터 쓰였던 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 그 전후 관계를 밝히기는 확실치 않다. 다만 앞서 제시한 바처럼 우리의 마을굿에서 '내전'이 쓰였음은 분명하다. 한편『우리말샘』의 정보에 따르면 '내전'은 '밥'과 통합하는 특이형태소라고 할 수 있으나 마을굿에서는 자립성을 갖고 단독형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내전과 유사한 명칭으로 '거리밥', '거래밥', '길밥'이 있다. 다음을 보자.

> 23) "제사가 끝나면 제상에서 골고루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백지에 싼다. 이것을 가지고 제관들은 장승이 서있는 곳으로 간다. 옆에 땅을 파고 가져간 음식을 묻는다. 이러한 헌식이 끝나면 길을 따라 짚을 길게 깐다. 앞 사람이 짚을 깔고 가면 뒤에 따르는 사람은 '갈포래죽'을 그 위에 듬성듬성 떠놓는다. (중략) 성씨의 수만큼 거리밥을 주는 것이다. (중략) 헌식과 거리밥까지 주고 나

28) 이는 진도 지역의 마을굿의 명칭과 관련이 있을 듯도 하다. 진도 지역에서 '내전'이라 표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마을굿 명칭이 '거리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29) 내전밥: 『민속』 무속에서, 머리가 아플 때 접시에 담아 머리맡에 두는 밥. 자고 일어나서 내다 버리면 아픈 머리가 낫는다고 한다.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 2017.4.30 참고.)

30) 나경수 외(2007),『진도군 마을굿』, 민속원, 299쪽 참고.

면….(밑줄 필자.)" 『진도군마을굿』(2007: 65).

24) "소지가 끝나면 상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떠어서 돌 아래에 묻는 것으로 헌식을 한다. (중략) 당할아버지에게 지내는 제사가 끝나면 길밥, 거래밥을 놓는다. 길밥은 모두 (중략) 짚다발을 깔고 그 위에 갈파래에 매생이를 넣고 끓인 국을 놓는 것이다.(밑줄 필자).", 『진도군마을굿』(2007: 121).

위의 23), 24)의 밑줄 친 내용을 종합하면 거리밥[길밥, 거래밥[31]]은 헌식의 다른 표현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앞서 논의한 내전의 의미와 차이가 없으므로 내전과 유의어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전, 거리밥 등이 진도 지역에 분포하는 어휘라고 한다면 '지신밥', '지주밥'은 담양 지역[32]에서 쓰이는 어휘로 판단된다. 지신밥, 지주밥 역시 헌식의 개념인데 내전이 땅에 묻지 않고 뿌리거나 올려 놓는 점과는 다르게 이는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신밥과 지주밥은 같은 의미로 판단되며, 다만 구술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신밥의 경우 '지신(地神)', '지신굿'의 '지신'과 관련된 의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언키는 어렵다.

---

31) '거리밥'의 방언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반 가정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난 후에 대문 앞에 짚이나 평평한 소쿠리 등을 깔고 제사 음식을 놓아두는데[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함] 이를 '거래[거레]'라고 한다. 필자의 어머니[전남 완도 거주]를 통해 들어 익히 알고 있는데 이 '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32) "모든 (제의) 절차가 끝나면 제물에서 밥 한그릇씩을 각각 김에 싸서 2개의 투가리(뚝배기)에 담아 마주해서 덮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지신밥'이라고 한다. 화주가 지신밥을 가지고 굿을 치는 사람을 뒤에 따르게 하여, 탑으로 가져가서 땅에 묻는다.(밑줄 필자)." (나경수 외(2007), 『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92쪽 참고.) "마을사람들이 소지를 하는 동안 화주와 축관이 '지주밥'을 묻는다. 지주밥은 제사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어 김 한 장으로 싸는 것을 말하는데, 당산할머니 나무 근처에 매년 묻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에는 예전부터 묻어 놓은 그릇이 있어서 그 안에 지주밥을 넣고 황토로 덮는다. (밑줄 필자)." (나경수 외(2007), 『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103쪽 참고.)

4. 집돌량

마을에서 민속놀이의 하나로 마을사람들이 농악대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며 악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일을 지신밟기라 하며, 답정굿·뜰밟기·뜰밟이·마당밟이, 매귀, 매굿, 매귀굿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러한 지신밟기하는 일을 고유어로 '집돌림'이라고 한다. 전남지역의 마을굿에서도 앞서 든 다양한 어휘들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광양 지역에서는 집돌림을 '집돌량'이라고 부르고 있다[33]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하다. '집돌량'과 집돌림의 같은 의미로 파악되는데, 여기서 선행 요소 '집'을 제외하면 '돌림=돌량'의 관계가 파악되는데 '돌량'의 정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돌림'과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면 '돌'은 '돌-'[回]의 의미로 파악되지만 '량'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집돌량의 형성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돌림병의 방언 '돌량'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돌량'은 『표준』에는 충남의 방언으로, 국립국어원 지역어 자료[34]에는 전북, 충남방언으로 나타난다. 돌림병은 돌량, 돌금, 돌게 등 핵심 요소 '病'이 빠진 형태로도 방언에 나타난다. 전남지역에는 돌림병의 방언으로 돌게, 돌게병, 돌금 등은 나타나지만[35] 돌량은 나타나지 않는다. 집돌량과 돌량(病)은 둘 다 [돌다]라는 의미적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돌량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집돌량이 '집+돌량'의 구성임을 감안하면 돌림의 방언으로 '돌량'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돌림(병)의 방언으로 돌량이 있음을 감안하고, 집돌림, 집돌량과 돌림병, 돌량이 일정 지역을 돈다는 의미적 동일

33) 『광양시 마을굿』에서만 쓰이는 어휘이므로 광양 지역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나경수 외(2007), 『광양시 마을굿』, 민속원, 102, 134, 142, 160, 214, 260, 270쪽 참고.)
34) 국립국어원, 『지역어 자료』(http://www.korean.go.kr/front/wordLocal, 2017.4.20.).
35) 이기갑 외(1997),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64쪽.

성을 참고하면 집돌량은 광양 지역에서만 쓰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5. 금토, 금줄와 바람줄

마을굿을 지내면서 금기시 해야 할 일은 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제장에서도 이루어진다. 제관, 화주, 제장의 출입을 금하는 일은 황토를 뿌리고 새끼로 꼰 줄을 치는 것으로 행해진다. 짚으로 꼬는 새끼는 오른쪽으로 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일에는 왼쪽으로 꼰 새끼인 '왼새끼'를 거는 것이 특징이다. '왼새끼'는 전남방언에서 '외악사내키'라 부르지만 마을굿에서는 왼새끼로 꼬아 줄을 거는데 이 줄을 보통 금줄, 인줄이라 한다. 전남지역에서는 금줄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성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잘 쓰지 않는 인줄[36]이 자주 쓰이고 있다.

『담양군마을굿』에 의하면 일부 마을에서 금줄을 '바람줄'이라 부른 곳[37]이 있다. 바람줄은『표준』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이 어휘가 금줄과 유의관계에 있음은 확실하다. 이들의 내포적 의미를 추정해 보면, 금줄이 부정한 것(사람, 잡귀) 출입을 금하는 벽사의 성향이 강한 어휘라고 한다면 바람줄은 부정한 것의 출입을 경계함으로써 개인과 마을의 복을 기원하는 소망[바람]이 담긴 진경의 뜻을 가진 어휘로 추정할 수 있다.

금기와 경계를 위해 황토를 뿌리는데, 황토를 금토[38]라고도 일컫는다. 금토는 금줄에서 견인된 어휘로 보인다. 마을굿에서의 금토가 곧 황토를 가리킨다

---

36) 『장성군 마을굿』에는 인줄과 금줄이 함께 쓰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금줄이라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함께 쓰인다. (나경수 외(2007), 『장성군 마을굿』, 민속원, 61, 71, 94, 107, 122쪽 참고.)

37) "내당마을에서는 금줄을 '바람줄'이라고 부른다. 바람줄은 … 이장이 왼새끼로 꼬아 만든다."(나경수 외(2007), 『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284쪽)와 "황토를 뿌리고 바람줄(금줄)을 쳐서…".(나경수 외(2007), 『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387쪽)에서 확인된다.

38) 여천시에서도 볼 수 있다. (순천시민속학연구회·여천시(1995), 『여천시의 민속과 축제』, 정문사, 19쪽.)

고 보면, 황토는 금기를 상징하는 내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인구전, 호구전, 명화전, 천돈

일반적으로 마을굿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마을의 공동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마을 주민들에 걷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주민들에게 걷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구의 인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정해진 일정 비용을 걷는 호구전(戶口錢)이다. 다른 하나는 가구별이 아닌 가구의 사람 수에 따라 비용을 걷는 인구전(人口錢)이다. 호구전과 인구전은 국어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을굿에서 앞서 밝힌 의미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민속어휘로 볼 수 있다. 명화전은 당산제를 모실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렴하는데, 가구 별 인원 수에 따라 걷는 것[39]을 뜻하지만 마을굿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제보자의 개인적 표현으로 추정되는데, 명화전의 의미를 고려하면 '*名貨錢'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아주 특별한 어휘로 '천돈'이 있다. 천돈은 진도 지역의 마을굿에서 드물게 쓰인다[40]. 천돈을 제비로 사용하는 돈의 뜻인데, 이 어휘가 특별히 상여를 운상하면서 받은 돈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돈을 달리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천돈은 '돈'은 뜻하는 어휘임은 확실하지만 현재는 사어화되었다. '천돈'은 돈, 재물의 옛말인 '천'[41][錢]과 '돈'이 결합된 어휘[42]이다.

---

39) 나경수 외(2007), 『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144쪽 참고.

40) "'천돈'은 마을 장례 때 상여를 운상하면서 받은 돈을 일컫는다." (나경수 외(2007, 『진도군마을굿』, 민속원, 91, 118쪽.)

41) 천내라 가노라(錢去)〈朴초上19〉

42) 이런 조어 방식으로 생성된 어휘에 '바람벽'이 있다. 이는 벽(壁)의 옛말 '바람'과 '벽'(壁)이 결합이다.

7. 아름장[알림장], 알림

마을굿의 실시를 널리 알리는 일환의 하나로, 한지에 제신명, 제일 연월일 등을 써서 금줄에 꽂아 알리는 일. 또는 종이를 일컫는 표현이 '아름장[알림장]'[43]이다. '알림'[44]은 농악대가 불을 들고 제를 모실 곳을 한 바퀴 도는 일을 말하는데 이 역시 마을굿을 알리는 역할 중의 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8. 삼탕, 삼채나물, 삼실과

마을굿을 지낼 때 때 제상에 올리는 제물들이 많은데 그 중 탕류, 나물류, 과일류 등도 있다. 제상에 탕 3가지, 나물 3가지, 과일 3가지를 올리는데[45], 이들을 각각 삼탕, 삼채(나물), 삼실(과)이라 일컫는다. 이들 어휘는 당산제, 거리제 등 마을굿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Ⅴ. 마무리

이상에서 전남지역의 마을굿에 나타나는 특수한 어휘나 표현을 민속어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태 의미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논의한 바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마을굿과 관련하여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바, 마을굿은 동신제, 당산제, 동제, 동고사 등 많은 명칭을 아우르는 대표적 어휘로 파악하였다. 마을굿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신격 명칭

43) 나경수 외(2007), 『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121쪽 참고.
44) "농악대는 알림(아름장)이라하여 불을 들고 당산제를 지낼 곳을 한 바퀴 돈다."(나경수 외(2007), 『장성군 마을굿』, 민속원, 50쪽.)
45) 이 절의 어휘들은 따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지역 마을굿에서 지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상에 올리는 3가지의 탕, 나물, 과일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은 ‘인간+자연물’, ‘자연물+인간’의 순서의 결합 양상이 일반적이지만 신격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방위적 개념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

마을굿에서 제물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어휘인 ‘화주’, ‘유사’, ‘판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 어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다.

헌식은 마을굿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포괄하는 어휘로 파악하였다. 이와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로 고수레, 수반, 숙수, 내전 등이 있다. 헌식 행위로서 고수레는 마을굿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는다. 수반은 사전적 의미인 밥을 물에 마는 일에 더해 헌식 행위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의 유의어에 물밥, 무레밥, 무랍, 물말이, 물만밥, 숙수 등이 있다. 수반은 옛말 슈판[水飯]에 기원한 것으로, 17세기말에는 믈밥과 공존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무레밥[〈물에밥]은 ‘물’에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하고 다시 ‘밥’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무레밥으로 어휘화한 것으로 보았다. 숙수는 국어사전에 ‘숭늉’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마을굿에서는 제물의 일부를 숭늉에 마는 일 또는 그것을 헌식하는 일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또한 수반이 물에 마는 일 또는 그것을 헌식하는 일이라는 의미을 갖는다는 점에서 숙수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내전은 주로 바닥에 짚 따위를 깔고 제물을 뿌리거나 올려 놓는다는 점에서 헌식과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헌식은 제물을 땅에 묻거나 뿌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전과 의미적으로 비슷한 어휘로 거리밥, 길밥, 거래밥 등이 있음도 확인되었다. 한편 내전은 국어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특이(또는 유일)형태소인데 마을굿에서는 자립형태소로 나타난다.

집돌량은 일반적으로 집돌림, 마당밟이 등 여러 이칭들과 같은 의미인데 광양 지역에서만 쓰이는 어휘일뿐 그 외 전남지역이나 기타, 전국적으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어휘이다. 집돌림과 집돌량의 대응 관계를 통해 ‘돌량’은 [돌림,

回]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 돌량은 전북, 충남방언에 '돌림병'의 방언 '돌량'도 [돌림]의 의미이므로 이들간에 의미적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줄과 바람줄은 유의적 관계에 있는데 금줄이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람줄은 복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의미로 파악하였다. 인구전, 호구전, 명화전, 천돈은 마을굿의 제비 마련 방법에 따른 명칭들이다. 인구전과 명화전은 사람의 수에 따라 비용을 걷는다는 의미의 어휘이고, 호구전은 가구 수에 따라 비용을 걷는다는 의미의 어휘이다. 천돈은 진도지역에서 드물게 일컫는 표현인데 돈, 재물을 뜻하는 사어화된 옛말 '쳔〈천, 錢)'과 고유어 '돈'이 결합한 어휘이다.

아름장[알림장], 알림은 마을굿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에 알리는 일을 일컫는다. 삼탕, 삼채나물, 삼실과는 마을굿을 지낼 때 제상에 올리는 3가지 탕, 나물, 과일을 뜻하는 어휘로 구체적인 내용물은 마을에 따라 다르다.

마을굿의 어휘들은 국어사전에 등재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마을굿 어휘는 지역어로서 민속 연행 과정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어 어휘의 풍부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국어 사전류에 선별 등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나경수 외(2007),『함평군 마을굿』, 민속원.
_____,『장성군 마을굿』, 민속원.
_____,『담양군 마을굿』, 민속원.
_____,『진도군 마을굿』, 민속원.
_____,『화순군 마을굿』, 민속원.
_____,『구례군 마을굿』, 민속원.
_____,『광양시 마을굿』, 민속원.
_____,『곡성군 마을굿』, 민속원.
_____,『여수시 마을굿』, 민속원.

2. 단행본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2), 『한국민속대관』(제3권, 민간신앙·종교),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국립국어원 편(2007),『방언이야기』(국어자료총서1), 태학사.
기세관(2015),『광양방언사전』, 한국문화사.
김태곤(1979),『한국무가집1』, 집문당.
나경수(1994),『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서정범(2003),『국어어원사전』, 보고사.
순천시민속학연구회·여천시(1995),『여천시의 민속과 축제』, 정문사.
박재연 주편(2010),『고어대사전』 3, 학고방.
백두현(2012),『음식디미방주해』, 글누림.
이기갑 외(1997),『전남방언사전』, 태학사.
이기문(2009),『국어사개설』, 태학사.

이익섭(2006),『방언학』, 민음사.
임지룡(1993),『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조항범 편(1994),『국어 어원연구 총설(1)』, 태학사.
표인주(2005),『남도 민속과 축제』, 전남대출판부.
_____(2010),『남도민속학』, 전남대출판부.

3. 학술논문 및 기타 자료

나경수(2001),「광주·전남지역의 당산제 연구(3)-전승과 변화의 양상을 중심으로-」,『한국민속학』 제34집, 한국민속학회, 61~84쪽.
나경수·이돈주·서상준(1991),「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연구(Ⅰ)」,『한국민속학』 제24집, 한국민속학회, 51~79쪽.
이기갑(2016),「전남신안 지역어의 어휘적 특징」,『국어의미론의 접목과 확장』(윤평현선생정년기념논총), 역락, 381~404쪽.
정명철 외(2016),「제의명칭의 분포로 본 마을신앙 문화권 설정」,『한국민속학』 제64집, 한국민속학회, 89~123쪽.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지역어 자료』(http://www.korean.go.kr/front/wordLocal)
국립국어원,『우리말 샘』(https://opendict.korean.go.kr/search/)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투고일: 2017. 05. 18.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4.

| 국문초록 |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이 논문은 전남지역의 마을굿에 나타나는 특수한 어휘나 표현을 민속어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태·의미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먼저 마을굿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바, 이와 유의관계에 있는 동신제, 당산제, 동제, 동고사 등 많은 명칭의 포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을굿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신격(神格) 명칭은 '인간+자연물', '자연물+인간' 순서의 결합 양상이 일반적이지만 신격의 위치에 따라 '상하', '전후'의 어휘가 결합된 경우도 있었다.

화주, 유사, 판주 등이 마을굿에서 제물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어휘로 쓰였는데 이들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마을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포괄하는 어휘는 헌식이다. 헌식과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들로 고수레, 수반, 내전 등이 있다. '고수레'의 표현은 마을굿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 수반은 밥을 물에 마는 일의 의미와 헌식의 행위 등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의 유의어에 물밥, 무레밥, 무랍, 물말이, 물만밥, 숙수 등이 있다. 수반은 옛말 슈판[水飯]에 기원한 것으로, 17세기말에는 믈밥과 공존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무레밥[〈물에밥]은 '물'에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하고 다시 '밥'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무레밥으로 어휘화한 것으로 보았다. 숙수는 국어사전에 '숭늉'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마을굿에서는 제물의 일부를 숭늉에 마는 일 또는 그것을 헌식하는 일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수반이 물에 마는 일 또는 그것을 헌식하는 일이라는 의미을 갖는다는 점에서 숙수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내전은 주로 바닥에 짚 따위를 깔고 제물을 뿌리거나 올려 놓는다는 점에서 헌식과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헌식은 제물을 땅에 묻거나 뿌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전과 의미적으로 비슷한 어휘로 거리

밥, 길밥, 거래밥 등이 있음도 확인된다. 한편 내전은 국어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특이(또는 유일)형태소인데 마을굿에서는 자립형태소로 나타난다.

집돌량은 집돌림, 지신밟기 등과 유의관계에 있는데 광양 지역에서만 쓰이는 어휘일뿐 여타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어휘이다. 집돌림과 집돌량의 대응 관계를 통해 '돌량'은 [돌림, 回] 의미의 어휘로 파악하였다. 전북, 충남방언의 '돌량'(돌림병의 방언)이 [돌림]의 의미인 점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금줄과 바람줄은 유의적 관계에 있는데 금줄이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람줄은 복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의미로 파악하였다. 인구전(人口錢), 호구전(戶口錢), 명화전(*名貨錢), 천돈은 마을굿의 제비를 마련하는 데 방법에 따른 명칭이다. 인구전과 명화전은 사람의 수에 따라 비용을 걷는다는 의미의 어휘이고, 호구전은 가구 수에 따라 비용을 걷는다는 의미의 어휘이다. 천돈은 진도 지역에서 드물게 일컫는 표현인데 돈, 재물을 뜻하는 옛말 '쳔'(〉천, 錢)과 '돈'이 결합한 어휘이다.

아름장[알림장], 알림은 마을굿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에 알리는 일을 일컫는다. 삼탕(三湯), 삼채나물(三菜), 삼실과(三實果)는 마을굿을 지낼 때 제상에 올리는 3가지 탕, 나물, 과일을 뜻하는 어휘인데 각각의 구체적인 종류는 마을에 따라 다르다.

주제어 : 전남, 민속어휘, 마을굿, 당산제, 화주, 수반, 내전, 숙수, 집돌량

호남문화연구 61: 129~16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운주사환은천조(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

‘Unjusa Hwan-ŭn-ch’ŏn-jo’ New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Inscription on an Inscribed Roof Tile

김 기 용* 민 영 순**
Kim, Ki-Yong Min, Yeong-Soon

목 차

Ⅰ. 머리말
Ⅱ. 운주사 출토 문자기와
Ⅲ. ‘운주사환은천조(雲住寺丸恩天造)’ 해석사례와 분석
Ⅳ. ‘丸’자의 판독과 해석
Ⅴ. 맺음말

| Abstract |

Hwasun Unjusa temple is mainly known for the many stone pagodas and stone statues of Buddha that are found inside the temple grounds, but there is also a separate area in its premises that was intended for the temple buildings. The construction of this area was completed in the beginning of the eleventh century, during the Koryŏ dynasty period, and the temple there functioned continuously up until the sixteenth century. It is precisely in this area that in four instances inscribed roof tiles were discovered during excavation works. Among these tiles a certain type where the name of the temple is written in the inscription *Unjusa hwan-*

* KD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호남고문헌연구소 감사

ŭn-ch'ŏn-jo (雲住寺丸恩天造) was found in larger quantities at the excavation sites, calling for scholarly attention.

The text on this type of inscribed roof tiles has a fairly simple structure, and yet save for the first three characters *unjus* atemple it has been considered a difficult task to determine the exact meaning of the inscription. Especially problematic is the case of the fourth character *hwan*(丸) which was engraved in a peculiar shape－丸. The interpretation of this character has been a rather difficult matter, so a new analysis and reconsideration of the calligraphy style used is needed. After performing an epigraphic analysis of the character 丸 by carefully considering the calligraphy style and calligraphy principles, as well as other examples of usage and misinterpretation of characters carved on other inscribed roof til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丸 character should, in fact, be read as *wa*(瓦), which means "roof tile". In other words, the inscription changes from *Unjusa hwan-ŭn-ch'ŏn-jo*(雲住寺丸恩天造) to *Unjusa wa-ŭn-ch'ŏn-jo*(雲住寺瓦恩天造).

In most cases, the contents of the text found on inscribed roof tiles could either have a commemorational character, recording the name of the maker, the year, etc, or it could also function as a charm or auspicious token of a sort. In the revised inscription, the focus of attention becomes the word *ŭn-ch'ŏn*(恩天). If we understand the text as a record, then these two characters would fall in one of the following name categories: era name, name of a person or a Buddhist monk, reference to Buddhist scriptures, name of a building, name of an institution etc. Therefore, the whole inscription would read: "The roof tiles of *Unjusa* temple were made by the tile craftsman (or the Buddhist monk) *Ŭnch'ŏn.*" In case the inscribed tiles were meant to serve as an auspicious token, however, the word *ŭn-ch'ŏn*(恩天)would mean "the favor of Heaven(God)" or "the favor of the Emperor", and the sentence would have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The roof tiles of *Unjusa* temple were made with the favor of Heaven/the Emperor."

Key words : Unjusa temple, *hwan-ŭn-ch'ŏn-jo*(丸恩天造), decoding, roof tile script, inscriptions

Ⅰ. 머리말

화순 운주사는 다양한 형태의 석불석탑이 산재해 있어 천불천탑의 사찰로 알려져 있다. 사찰로서 유래가 없는 수많은 석불석탑의 배치, 토속적이고 민예적인 탑상(塔像)의 형태, 칠성바위, 구전 설화 등은 불교, 탑상과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심과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다.

운주사 사역은 석불석탑이 배치되어 있는 탑상구역과 사찰 건물이 있었던 건축물 구역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다. 탑상구역에는 많은 석불석탑이 배치되어 있지만 탑상에 내장되는 사리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탑상의 형식 등 외형적인 특성으로는 운주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찰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 및 문자자료의 부족으로 운주사가 언제, 어떠한 성격과 목적으로 창건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운주사 건축물 구역은 초창기 건물이 집합되었던 구역으로서 현재는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 채 유적지로 남아 있다. 건축물 구역은 늦어도 고려시대 11세기 초에 창건되어 4차에 걸친 중창기를 거치면서 약 600년간 존속하다가 정유재란 이후에 폐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일주문의 좌측에 있는 다리를 건너, 산 구릉지가 시작되는 행정 구역상 도암면 용강리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이후 정지(整地)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 구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현재 사찰의 실상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구역에서 출토된 문자기와는 사명(寺名)과 성격을 밝히는 실증적인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 구역에서 출토된 문자기와는 ‘雲住寺丸恩天造’ 암키와, 범자문(梵字

1) 전남대학교 박물관 · 화순군(1900), 『운주사 : 발굴조사보고서 3』,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59쪽.

文)으로 쓰인 '옴마니반메훔' 수막새와 '옴파람' 암막새, 조선시대 기년(紀年)이 명기된 '홍치8년(弘治八年, 1495년)' 막새기와 4건이 있다.[2] 이중에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는 운주사 사명(寺名)이 포함된 가장 오래된 문자 자료에 해당되고 있다.[3]

운주사 출토 문자기와에 대한 연구는 범자문 기와 관련 연구[4], 운주사 사명과 관련된 연구[5] 등 수편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주제인 사명을 포함한 4자의 문자로 구성된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없으며, 운주사 연구에 포함하여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6] 또한 그 해석은 정확한 뜻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雲住寺丸恩天造'의 내용이 간단하게 구성된 문장임에도 해석이 쉽지 않고 주목 받는 이면에는 자료 해석의 중요성과 함께 어떤 시사점이 내재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해석되었던 내용, 서체와 관련된 판독과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문자기와의 용례를 분석·검토하게 된 것이다.

운주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새로운 판독과 해석을 추구하였으나 부족함이 없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운주사의 성격과 정체성을 밝히는데

---

2) 황호균(2009), 『운주사 자료집성』,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214쪽.

3) 운주사 사명이 기록된 가장 빠른 문헌 기록은 조선 성종12년(1481)의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이다. 『東國輿地勝覽』卷之 四十 綾城縣 佛宇條. "雲住寺 在千佛山 寺之左右山脊石佛石塔 各一千 又有石室 二石佛相背以坐" 참고로 「麟角寺 普覺國師碑銘 陰記」(1295)의 '大禪師 雲住寺 惠如, 首座 雲住寺 淸遠' 기록, 『湖山錄』(1307)에 적힌 '雲住寺 大師宗銳' 기록은 『東國輿地勝覽』보다 이른 기록이지만 화순 운주사를 지칭하는 기록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황호균(2009), 같은 책, 319쪽)

4) 허일범(2014), 「운주사의 밀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전남대박물관.

5) 김병인(2015), 「화순 운주사의 '寺名' 변화와 그 함의」, 『호남문화연구』 제57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6) 황호균(2009), 같은 책; 김창현(2014), 「운주사 천불천탑의 도교적 성격」, 『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전남대학교 박물관.

일조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Ⅱ. 운주사 출토 문자기와

1. 문자기와

기와는 건축물의 지붕재로서 점토를 와범(瓦範) 등의 제작틀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서 제작한다. 기와는 일반적으로 수키와[圓瓦, 夫瓦], 암키와[平瓦, 女瓦], 막새[瓦當]기와 등의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기와 표면에는 선(線)·승석(繩蓆)·격자(格子)·화엽(花葉) 등의 문양(文樣)이 장식되어 있다. 기와 중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를 문자기와 또는 명문(銘文)기와라고 하며 금석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7]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기와는 평양 대동강 부근에서 출토된 '낙랑예관(樂浪禮官)'·'낙랑부귀(樂浪富貴)'·'대진원강(大晋元康)'[8]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이다.[9] 문자기와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시대를 거쳐 남북국·고려·조선시대의 기와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고려시대는 범자(梵字) 문자기와가 출현하여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0] 밀교의 진언(眞言, mantra)을 의

7) 일반적으로 금석문이라 하면, 금속성 재료에 기록한 금문과 석재에 기록한 석문을 일컫는다. 금문, 석문뿐 아니라 토기 銘文, 나무 조각에 쓴 木簡의 기록, 직물에 쓴 布記, 고분의 벽에 붓글씨로 기록한 墨書銘, 漆器에 기록한 묵서, 기와나 전돌의 銘文 등을 포괄하여 부르기도 한다. 문자기와는 넓은 의미의 금석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8) 元康은 西晉 연호(291~299)이다.

9) 장기인(2003), 『한국건축대계 Ⅵ 蓋瓦』, 보성각, 35~36쪽. 평양 대동강변의 토성 유적에서 '樂浪禮官' 등의 문자가 시문된 막새가 발견되었고 완형 이외에 잔편도 여러 개 발견되었다. 이외에 吉祥語를 넣은 萬歲, 千秋萬歲, 富貴 등의 글자를 篆書로 양각된 것이 있다. 발견된 기와는 낙랑시대의 기와로 그 시기는 後漢에서 西晉시대에 이르는 기와로 보고 있다.

미하는 범자문 기와는 당시 사찰의 밀교적인 성격과 불교문화를 짐작하게 한다. 문자기와는 제작연대, 제작처, 제작 동기 등 역사적 사실의 한 단면을 제공함으로서, 유적 유물에 대한 편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단서를 알게 해준다.

사찰에서 출토되는 문자기와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길상문, 사찰명(寺刹銘), 지역명, 기년명(紀年銘), 시주(施主) 및 화주명(化主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찰명 문자기와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폐사지의 이름을 찾게 해주고 문헌에 나타나는 해당 사찰명과 관련지어 그 사찰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11] 오늘날 축원적인 내용, 가족명, 주소 등을 기와에 기록하는 사찰의 기와 불사는 이와 같은 문자기와의 전통이 이어진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출토 문자기와

운주사가 등장하는 문헌 및 문자자료는 모두 36건이다.[12] 이 가운데 용강리 건축물 구역에서 출토된 문자기와는 4건이 있다. 출토된 문자기와는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雲住寺丸恩天造' 암키와 이외에 범자문으로 쓰인 '옴마니반메

10) 범자는 고대 인도에서 梵語를 적는데 쓰인 表音文字로 인도 문자의 일파인 悉曇子母[Devanagari]를 말한다. 실담(범, siddham)은 불가에서 漢子譯으로 成就吉祥의 뜻이 있으며 범어의 子母이다. 실담문자는 일찍이 불교의 전래와 함께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해졌는데 그 기원이나 字數 등은 일정하지는 않다. 범자문의 내용은 밀교의 진언(眞言, mantra) 즉 ① 불타의 말이나 法身의 말, ② 呪文 등을 표시한다. (장기인(2003), 같은 책, 63쪽.)

11) 류환성(2010),「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신라사학보』제19집, 신라사학회, 131쪽.

12) 황호균(2014),「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천불천탑의 제작공정 복원론」,『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전남대박물관, 79쪽. 운주사가 등장하는 문헌자료는 지리지·읍지류는 11건, 기문은 12건, 신문·잡지기사는 8건이며, 기와 명문자료는 4건이다.

훔’ 수막새, ‘옴파람’ 암막새, 기년이 명기된 홍치8년(弘治八年, 1495년) 막새기와 4건이며, 1, 2차 발굴조사[13]에서 출토되었다.

가. 범자문(梵字文) 문자기와

범자문이 부조된 ‘옴마니반메움’ 수막새와 ‘옴파람’ 암막새[14]는 고려 후기의 건물에 사용된 기와로 추정되고 있다.[15] 하지만 일휘문(日輝文)과 함께 범자문이 적용된 운주사 범자문 문자기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제작 시기는 12세기로 비정되고 있다.[16]

1차 발굴조사에서 ‘옴마니반메움’ 수막새는 2점이 출토되었으며 1점은 양호, 1점은 반파되어 있다. 수막새 주연(周緣)에는 태선(太線)을 돌기시켰으며, 중앙에 반구형 일휘문을 부조하였다. 일휘문 주위에 태선을 두르고, 외구(外區)

---

13) 운주사의 유적조사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4차의 발굴조사와 2회의 학술조사가 있었다. 1차 1984.5.15.-6.20, 2차 1987.9.12-11.10, 3차 1989.2.20-3.30, 4차 1989.9.18-11.14.

14) 범자문 수막새는 중앙의 일휘문 위쪽에 ‘(oṃ)’을 중심으로 ‘(oṃ ma ṇi pha dme hūṃ)’ ‘六字大明王眞言’ 6자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배치되었다. ‘oṃ’의 의미는 모든 진언의 어머니, 大遍照如來 娑婆世界釋迦變相이고, 부처님이 멸도 후에 모든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려고 변한 것이라고 한다. ‘ma ṇi’는 보주, 혹은 여의주, ‘pha dme’은 ‘연꽃에’라는 의미가 있다. ‘hūṃ’은 “眞心種子, 阿閦如來, 東方琉璃光佛을 지칭하고 있어 더러움과 죄악을 없애주며 보리심을 발하게 하고 모두 정토를 염원함에 귀의케 한다.”고 진언집에 설명되어 있다. ‘hūṃ’은 “정결케하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라고 한다. 암막새 (pa oṃ raṃ)은 ‘oṃ’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휘문을 그리고 끝에 ‘pa’, ‘raṃ’의 범자를 배치하였다. ‘raṃ’은 금강어보살의 種字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규(2013), 「고려~조선시대 범자문 와당의 형식과 제작특성 고찰」, 『선사와 고대』 제38호, 한국고대학회, 389쪽; 이용진(2012),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의 범자 해석」. 『역사민속학』 제3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6쪽.)

15) 황호균(2009), 앞의 책, 214쪽.

16) 운주사 출토 범자문 기와는 범자문과 일휘문이 함께 나타나는 형식으로서 접합 각도가 직각에 가깝고, 소성도가 경질보다는 연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이 고려 범자문 기와의 초기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1900), 앞의 책,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61쪽; 鄭濟奎(1990), 「운주사의 성립과 그 불교사상의 배경」, 『檀國大學校 大學院 學術論叢』 14,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상규(2013), 같은 논문, 389쪽.)

에는 범자 6자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양각하였다.

'옴파람' 암막새는 2점이 복원이 불가능한 파편으로 출토되었다. 가장자리에는 도드라진 양각(陽刻) 계선(界線)만 두고 양쪽에 범자문을 그 안쪽에 반구형 일휘문을 장식하였다. 일휘문은 범자 수막새와 형태나 태토(胎土) 등이 동일한 수법이다. 이러한 범자문 기와의 진언, 운주사의 석불·석탑형식, 상징적 문양 등은 티베트, 몽골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밀교적 표현 방식이 반영되었다고 한다.[17]

나. 弘治八年(1495년) 문자기와

'홍치팔년'(1495, 연산군 1년) 막새기와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이나 동물 얼굴 형태이다. 가장자리에 양각 계선을 두고 또 막새 면에서 양쪽 상단에 반구형 일휘문을 두었으며 이 일휘문 주위의 계선과 그 사이에 5개의 계선을 세로로 배열하였다. 명문은 일휘문 양 옆에 세로로 명문과 일휘문 사이의 계선안에 명문을 각각 양각하여 놓았다. 명문의 내용은 제작 연대와 시주자들을 양각하였으며, 운주사가 정유재란 이후 폐사되기 전의 마지막 중창시기에 사용한 기와가 된다.

다.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

운주사 사명이 새겨진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는 운주사의 한자 표기 명칭을 명확하게 밝혀 주는 실증 자료가 되고 있다.[18] 기와의 명문은 암기와의 상면에 종서로 양각되어 계선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문자가 반복되어 있다. 1차 및 2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으며, 기와의 제작 연대는 범자 일휘문 암·수막새보다 이른 시기인 고려 중기로 여겨지고 있다.[19]

---

17) 허일범(2014), 앞의 논문, 305쪽.

18) 기록상 운주사의 漢字 사명은 雲住寺, 雲柱寺, 運柱寺, 運舟寺 등, 雲자와 住자가 음이 같고 뜻이 다른 한자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雲住寺丸恩天造' 암기와의 발굴조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문와(銘文瓦), 평기와로 수십 편(片)이 출토되었다. 건물기단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는데, 이곳은 기와층을 이루고 있어 전술한 숫·암막새 편들과 혼재되어 있다. 기와 편들은 흑회색, 적갈색과 회백색 등이 있으나 이는 소성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상면에 양각된 명문들은 동일하고 모두 같은 글씨체로 보아 그러하다. 명문은 평기와 상면에 '雲住寺丸恩天造'를 종서로 양각하였다. 명문사이에는 양각 계선(界線)을 두고 있으며 명문 하에는 어골문(魚骨文)으로 장식하였다. 글씨의 크기는 3×3 cm 정도이고 계선의 간격은 4~5cm이다. 뒷면은 헝겊 자욱이 남아 있고 홈이 횡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크기는 길이가 44.5cm이나 폭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두께는 2cm 내외이다.」[20]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는 상면에 양각된 명문이 동일하고 모두 같은 글씨체, 명문 사이의 양각 계선, 명문하의 어골문 형태로 볼 때 타날판에 직접 명문을 음각하여 타날하는 기와제작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골문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기와문양으로서 조선시대에 이어진다. 이렇게 타날판에 직접 문양과 명문을 새기는 방법은 고려시대 명문기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되며, 기와의 제작공정을 줄여 다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제작기술의 변화로 추정하고 있다.[21]

---

19) 황호균(2009), 앞의 책, 219쪽.

20) 전남대학교 박물관(1984), 『운주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143~144쪽.

21) 기와에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기와의 타날 및 整面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점토 표면에 도구로 직접 글씨를 새기는 방법, 1차 타날 이후 印章 또는 명문이 새겨진 타날판에 의한 2차 타날 방법, 타날판에 직접 명문을 음각하여 타날한 방법이 있다. (김정주(2015), 「高麗時代 銘文 平기와의 樣相과 地域性 -연호명 평기와 출토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쪽.)

Ⅲ. ‘운주사환은천조(雲住寺丸恩天造)’ 해석사례와 분석

1. 해석 사례

〈그림 1〉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의 해석은 의미가 분명한 사명을 제외한 ‘丸恩天造’ 4자가 관건이 된다. 사명은 문자기와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丸恩天造’ 4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 되는 것이다.

김창현은 ‘丸恩天造’의 ‘丸’자를 원형(圓形)내지 구형(球形)으로 별을 가리킨다고 여기고, 운주사는 별 또는 하늘의 도읍을 의미하며, 원반형 내지 원구형 탑들은 별의 모양을 본 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운주사는 하늘 또는 별의 도읍지 의미로 만들어졌다며,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전남대 박물관의 발굴에서 발견되었지만 의미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雲住寺丸恩天造’銘 기와가 주목된다. ‘雲住寺丸恩天造’는 ① “운주사 환은천이 造成하다”, ② “운주사 환은천에서 조성하다”, ③ “운주사는 환은천에서 造成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丸恩天’은 ‘丸의 은혜를 지닌 하늘’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운주사가 곧 환은천으로 볼 수도 있고, 운주사를 환은천이 조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丸’은 무엇일까? 바로 하늘의 별로 여겨진다. 별

을 단순한 圓이 아니라 입체의 圓으로 인식해 '丸'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탑들의 일부를 원반형 내지 원구형으로 쌓아올렸다고 생각 된다. '丸恩天'은 곧 '별의 은혜를 지닌 하늘'로 해석되며 운주사 일대가 바로 그곳이었다고 추론된다. 고려 중기에 이지저(李之氐 ?~1317)는 「西京 大花宮 大宴 致語」에서, 皇上(인종)이 上帝(天帝)의 돌아봄에 힘입어 평양에 순행했다며 '五色雲中 望北宸'이라 노래했다. 北宸(北辰) 즉 북극성은 오색구름 속에 보이는 존재였으니, 그래서 북극성을 모신 능성의 이 절이 '雲住寺'로 명명되지 않았나 싶다. 雲住寺 영역은 바로 구름 속의(위의) 하늘 세계 내지 별들의 세계다.」[22]

「운주사 영역은 곧 丸恩天으로 설정되었다고 간주되는데 여기서 丸은 圓形내지 球形으로 곧 별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의 국내성과 세트를 이루는 산성이 丸都山城이었는데 여기의 丸도 별 내지 하늘을 지칭해 丸都는 별 내지 하늘의 도읍을 의미하지 않았나 싶다.」[23]

황호균은 '丸恩天造'의 정확한 뜻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운주사가 땅(세속)의 은혜와 하늘의 조화로 이루어 졌음을 천명(闡明)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고 하였다. 환은과 천조를 대귀로 보고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雲住寺丸恩天造銘' 암기와 명문에 있는 丸恩天造의 정확한 뜻을 밝히기 쉽지 않다. 문맥상 "丸恩天이 造(만들었다)했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렇게 되려면 丸恩天은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사찰과 천불천탑 조성집단의 명칭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丸恩天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뒤따른다. 혹시 환은천조를 운주사가 땅(세속)의 은혜와 하늘의 조화로 이루어졌

22) 김창현(2011), 「고려시대 능성 운주사에 대한 탐색」, 『史叢』 제72집, 41~42쪽.
23) 김창현(2014), 앞의 논문, 272쪽. 본 논문이 실린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환도산성이 둥근 모양의 포곡식 산성을 형용한 말이라고 하였다.

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절터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실증 유물자료이며 운주사 당대의 문자기록으로 의미가 깊다.」[24]

황호균의 해석은 '丸'자의 평범하다는 의미가, '凡'는 속세(俗世), 진세(塵世)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임을 주기에서 설명하고 있다. '丸'자는 '凢'자의 속자(俗子)로서 '凡'자와 뜻과 글자체가 거의 동일함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25]

김병인의 해석 역시 '丸恩天造'는 해석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天造'는 '하늘이 처음 생겨남(天造草昧)', '천연적으로 이루어짐(天造地設)', '하늘이 만들어 줌', '황제', '당대(唐代) 두건덕(竇建德) 휘하의 장수 유흑달(劉黑闥)의 참칭 연호(622~623)' 등의 의미를 지닌다. 운주사 사명의 연원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추정은 '天造'가 연호일 경우이다. 왜냐하면 '天造'가 연호라면 '雲住寺'라는 사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天造'가 연호일 가능성은 낮다. 통상적으로 연호일 경우 숫자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중략~ '天造'를 처음 단계로 파악하여 운주사가 만들어질 당시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더라도 '丸恩'을 연결시킨 '丸恩天造'는 여전히 해석하기 힘들다. 물론 '恩'만을 '天造'와 연결하면 '하늘이 만들어 주심에 감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초창기 혹은 처음보다는 '하늘의 조화' 혹은 '하늘이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이 나을 듯싶다. 그렇다면

24) 황호균(2014), 앞의 논문, 87쪽.

25) 황호균(2014), 앞의 논문, 86쪽 주58. 『大漢和辭典』(諸橋撤次, 大修館書店, 1943)에 의하면 丸(환)은 凢(환)의 俗子이고 凢(환)은 丸의 本字이다. 이로써 기와의 丸은 丸의 속자이다. 아울러 『漢韓大辭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9~2008), 전16권, 단국대학교 출판부)에 의하면 그 뜻은 丸(환)은 (凢환)과 같고 凢(환)은 丸과 동일하다. 다만 '丸(환)'은 평범하다는 의미가 '凡(범)'은 속세·진세라는 뜻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고 하였다.

'丸'은 무슨 의미일까?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丸'의 字意는 '작고 둥근 물건', '알', '작고 둥근 물건을 세는 단위', '완전하다', '오로지', '방울', '공', '돌리다', '잡다', '가지다' 등이다. 다음으로 '凡'자로 파악하면 '대강', '다', '모두', '무릇', '대개', '평범하다', '속세', '무릇', '모두', '다', '단지' 등의 뜻을 갖는다. 그럼 '무릇(모든) 하늘의 조화에 은혜롭게 여긴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를 '雲住寺凡恩天造'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운주사는 무릇 천조의 은공으로 세워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26]

김병인은 천조(天造)를 연호[27] 등의 뜻으로 구분하여 그 가능성을 예시하면서도 이어지는 숫자가 없다며 가능성을 낮게 보았으며, '丸'자를 '凡'자로 파악하여 '운주사는 무릇 천조의 은공으로 세워졌다'라는 해석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丸恩天造'는 4자에 불과하지만 해석이 용이하지 않으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조는 국어사전에 ① '하늘의 조화'라는 뜻으로, '사물이 공교롭게 잘되었음을 이르는 말' ② '천연으로 된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28] 앞의 해석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천조의 '天'을 하늘이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天造는 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의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 싶다. 그러므로 쟁점이 되는 문자는 환은(丸恩)이 될 수 있으며, 두자 중에 '丸'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앞에서 김창현은 '丸'자를 원형 또는 구형의 별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며, 황호균과 김병인은 '丸'자를 '凡'자로 파악하고 각각 '凡'자를 '天'

26) 김병인(2015), 앞의 논문, 6~7쪽.

27) 天造(622~623)라는 당고조 무덕 5년(622) 劉黑闥이 지금의 하북성 영년현인 洺州를 수도로 정하고 漢東王을 칭하며 사용한 연호가 없지 않으나, 운주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민중서림 편집국(2006), 『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은 '하늘의 조화라는 뜻으로 사물이 저절로 잘되었음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자와 대구(對句) 지어 평범 또는 무릇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결국 '丸'자의 용례에 따라 문장의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丸恩天造'에서 핵심적인 검토 대상은 '丸'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29]

2. '丸'자의 용례

황호균은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에 새겨진 '丸'자는 일반적인 '丸'자와 점의 삐침이 다르며, 점의 삐침이 중심 획에 가로 지르지 않고 두 획 사이에 걸쳐진 모습이고, '丸'의 본체자가 평범하다는 의미의 '凡'자와 유사함에 주목한다고 하였다.[30] '丸'자의 본래 자형(字形)이 이질적임을 지적하면서도 '凡'자와 유사함에 주목한 것이다. '丸'자와 '凡'자가 서로 연관이 없지 않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① '丸恩天造' 문자기와에서 '丸' 자 발췌
② '丸' 자의 속자, ③ '丸' 자의 본체자, ④ '凡' 자

29) '丸'자는 중국 한나라 許愼의 『說文解字』에 '圜,傾側而轉者。從反仄。凡丸[凡]之屬皆從丸[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울어진 채 빙빙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둥글다는 뜻이다.' 사람이 기울어져 있는 仄자를 반대로 놓은 자형으로 凡자가 본체자가 된다. 훈은 알이다. '丸'자는 점주(丶)부의 2획 문자이다. 원래 점주(丶)와 관련이 없었으나 楷書체로 오면서 점(丶)의 의미가 더해진 글자라고 한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권 사용 지역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단지 일본에서 '丸'자를 선박명의 접미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行舟論적인 운주사 설화와 연결하면 흥미롭다고 하겠다.

30) 황호균(2013), 「운주사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론」, 『화순 운주사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미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2쪽 주50.

'丸'자는 본체자(本體字)가 '凡'자이다. 본체자는 자형이 '凡'자와 가깝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와에 새겨진 '丸'자 서체와는 차이가 있다. 엄밀하게 '丸'자로 서사(書寫)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丸'자의 본체자와 비슷한 자형인 '凡'자로 볼 수 있겠으나 기와에 서사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면 '丸'자에 가깝다.[31]고 할 수도 있다. 서체에서 점(點)을 넣고, 늘이거나 빼는 증감(增減)법의 사용으로 자형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굳이 분석한다면 '凡' +'丸'의 중간 형태의 문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기와에서 '丸'자, '凡'자와 유사한 문자 중에 서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자가 기와를 의미하는 '瓦'자이다. '瓦'자는 '丸'자의 본체자인 '凡'자, 평범하다는 뜻의 '凡'자와 서체가 유사하여 '瓦'자를 '凡'자로 판독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丸'자, '凡'자, '瓦'자 등은 서체가 유사하여 통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와 제작 과정에서 문자를 새기는 번잡한 서각(書刻) 과정에서 한 획 정도 생략된다면 서체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32] 그러므로 서체와 문자기와에 자주 사용되는 '瓦'자의 용례를 비교함으로서 '丸'자와의 관련 여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1) '丸'자는 서체 면에서 기존의 판독과 같이 '丸'자로 판독해도 특별히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니다. '丸'자의 서체 사례로 중국 王羲之의 아들인 東晉의 王獻之(344-386)의 ' '자, 王羲之의 후손인 僧 智永(隨 6세기)의 ''자, 唐 顔真卿(709－785)의 ''자, 강희 55년(1716년)에 완성된 『康熙字典』의 ''자 사례로 볼 때 현재의 丸자와 병행 사용한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漢典 http://www.zdic.net/z/1e/zy/74E6.htm에서 발췌). 또한 자전에는 凡, 丸, 丸자를 동일자로 분류하고 있다. (미술문화원(1986), 『篆隸大字典』, 미술문화원, 15쪽.)

32) '금석문의 丸', '凡' '瓦'자는 문장의 구성이 명확하지 않는 한 서체적으로 자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자형이 서로 유사하므로 금석문 및 문자기와의 제작과정에서 서체가 통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체 증감의 배치, 서각 및 제작 과정에서 변형 발생 등 여러 요인이 많기 때문에 서예가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글자로 변형되거나 판독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Ⅳ. '丸'자의 판독과 해석

1. '丸'자의 서체 검토

'雲住寺丸恩天造'의 서체는 가로 세로의 획이 반듯하고 글씨가 3x3cm 크기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돈이 잘 되어있다. 이러한 서체는 예서체의 서풍이 가미된 해서체인 예변(隸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의 석탑이 백제 계열로 분류되듯이, 백제 와전 문자 기와의 명문이 대부분 해서체에 속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33]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의 향우(向右) 첫째 계선 사이는 다른 계선에 비해 간격이 넓고 문자 일부가 제작과정의 물 손질로 지워진 듯하고 판독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다. '雲'자는 전체 계선에서, '造'자는 둘째 계선 이외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둘째 계선은 셋째, 넷째 계선보다 약간 아래로 밀려서 인각된 듯 수평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丸'자는 셋째, 넷째 계선 사이의 '丸'자와 달리 흐트러진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기와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로 보이며, 기와제작 과정 등에서 유사문자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문자기와의 '丸'자는 '丸'자 형태로 양각되어 있다. 이러한 자형은 '丸'자의 본체자인 '凡'자와 다르다. 그렇다고 위로 솟은 삐침(丿)으로 인해 '凡'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체는 예변의 획과 중봉(中鋒)[34]으로 단아하게 쓴

33) '扶餘舊衙里出土 天王銘瓦'(538~663년), 武寧王陵 出土 大方銘塼, 使大銘塼(6세기), '熊川銘瓦'(미상), '益山王宮里出土銘文瓦'(미상), '阿尼城銘瓦'(538~663) 등 백제 문자기와의 서체는 楷書체가 다수이다.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34) 필획에 있어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용필 방법의 하나이다. 글씨를 쓸 때 붓끝이 항상 글자의 點劃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고 해서 '中鋒'이라 한다. 역대 대부분의 서예가들이 글씨에 있어서 이를 중요시하였다. (월간미술 엮음(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서체로서 기와의 문자는 주로 정자체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기와에서 굳이 '丸'자를 쓰려고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통용되는 자형 중에 어느 한 자를 선택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丸'자의 서체는 왕희지(王羲之 307~365), 왕헌지(王獻之 348~388), 지영(智永 6세기 후반), 조맹부(趙孟頫 1254~1322)등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온 단아한 조형을 따른 서풍(書風)의 필체로 보인다.[35]

'丸'자를 서법(書法) 필순으로 분석하면, 처음 삐침(丿)을 쓰고 다음에 가로획(一)에 지게다리(乚) 순서로 을(乙)(乁)을 써서 '九'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점(丶)을 찍음으로서 '丸'자를 완성하게 된다. 그런데 "丸'자의 자형(字形)은 처음 필순인 삐침(丿)의 시작점이 기본 필법과 달리 뭉툭하지 않고 가늘게 시작되고 있다. 기본 서법에 맞춰 썼다면 시작점이 굵어지게 되었을 것이다.[36] 이는 처음 필순의 삐침(丿)이 시작점이 아니었거나 다른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37] 그렇지 않으면 시작점 부분에서 한 획이 생략되거나 서각(書刻) 과정에서 한 획이 탈락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丸'자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문자로 쓰여 졌거나 '丸'자가 아닌 다른 문

35) 최광열 편(1985), 『書道大字典』, 미술문화원, 12쪽, 630쪽. 특히 이들 중에 조맹부는 고려 충선왕, 이제현과 교류를 가졌으며, 그가 개발한 서체인 '松雪體'는 楷書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과 行書의 유려함을 조화시킨 서체로서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기에 유입되어 조선 초기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36) 처음 붓을 움직이는 시작점의 서법을 起筆이라고 하는데, 기필의 기본이 逆入이다. 역입은 붓을 감추는 장봉법(둥글고 힘차며 두텁고 무거운 인상을 준다.)으로 시작점 부분이 굵어지게 된다. '丸'자의 기필은 세로 긋기가 된다. 세로 긋기의 역입은 붓을 꺾어 누른 후 아래쪽으로 밀어 머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필점이 뭉툭하고 굵어지게 되는데, 기와의 '丸'자는 가늘게 되어 있으니 마모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서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겠다.

37) '丸'자의 삐침(丿)을 보면 첫 획 부분의 역입이 중후하지 못하며 이 부분은 원래 약간 뭉툭하고 무겁게 하는 中鋒법을 사용한 것이 唐楷, 北魏楷書 등의 모든 해서법인데 삐침(丿)부분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 전체적인 글자가 예서체를 가미한 楷書로 볼 수도 있다. 본래 예서에서 예변으로 나온 글자가 해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38]

2. 사찰명 문자기와의 구성

고려시대 문자기와는 외면에 문양과 함께 연호·사명·지명·제작자와 제작일자·하나의 글자·단어나 문장 또는 지명이나 관명 기와·부호화된 형태의 기와 등 과 같은 다종다양한 문자가 시문되어 있다.[39] 내용 구성면에서 연호명·간지명·월일 등 제작연대와 생산처를 비롯한 사찰명·지명·인명 등의 표기 방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온전한 형태의 문자기와는 내용 구성이 (연호)+간지+사명+(대장명)+건물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찰명이 새겨진 문자기와는 사찰 유적 148건 중에서 화순 '雲住寺'처럼, '○○사'로 표기된 것이 119건에 이른다. 출토(수습)된 명문기와 유적 277건 가운데 43%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찰명 문자기와이다.[40]

사찰명 문자기와는 '寺'명만이 단독으로 출토되는 예도 있으나, '官'명과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官'명과 함께 출토되는 사지는 경주 영묘사지, 창원 봉림사지, 공주 수원사지 등이 있다. 이들 사지는 중앙 또는 지방관의 관계 속에서 창건되고 유지된 성격의 사원으로 보인다. 기와의 공급측면에서는 관청과 사

38) 황호균은 '운주사 환은천조' 기와의 丸자는 일반적인 丸자와 점의 삐침이 다르며, 점의 삐침이 중심 획에 가로 지르지 않고 두 획 사이에 걸쳐진 모습이고, 丸의 본체 자가 평범하다는 의미의 凡자와 유사함에 주목한다고 하였다. (황호균(2013), 앞의 논문, 32쪽, 주 50.) 이는 丸자의 본래 字形이 이질적임을 지적하면서도 凡자와 유사함에 주목한 것이다. 凡자로 보지는 않았으나 丸와 字形이 비슷한 凡자와 서로 연관이 없지 않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9) 이재명(2010), 「서부경남지역출토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 검토 -사천 본촌리 폐사지 출토 고려시대 평기와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제3집, 경남발전연구원, 10~11쪽; 金炳熙(2001), 「安城 奉業址 出土 高麗前期 銘文기와 研究」, 檀國大 碩士學位論文, 2쪽; 김호준(2013), 「고려 성곽 출토 문자 기와-남한지역 산성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한국기와학회·한국성곽학회 학술대회.

40) 홍영의(2015),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제41호, 한국중세사학회, 52쪽.

찰을 구분하는 경계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官'명이 등장하는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주관청(主官廳)과 주관리(主官吏)만이 등장하지만 나말여초 이후부터는 장인(匠人)의 명칭과 이름이 등장한다.[41] '官'명 명문기와는 산성, 건물지, 사찰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용도는 관아건물에 사용될 기와, 관영창고, 관을 나타냄과 동시에 화재를 피하기 위한 벽사의 의미를 지니며, 해당 지방의 명칭과 관련하여 관·성·군과 같은 뜻으로 지방호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구분되고 있다.

사찰명이 포함된 문자기와의 내용 구성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사찰명·사찰 건물명이 명문된 단일 구성, 사찰명+제작년(연호)·사찰명+제작년(간지)·사찰명+제작일(연호+간지)·사찰명+인명·사찰명+승려명·사찰명+불경·사찰명+사용건물·사찰명+기타 등의 2구성, 사찰명+인명+기타 형식의 3구성 이상의 명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42]

사찰명, 관명과 함께 많이 쓰여 진 문자로 '瓦'자가 있다. 문자기와에서 기와를 지칭하는 문자는 '瓦'자·'草'자·'瓦草'자 등이 있으며, '草'자·'瓦草'자는 '瓦'자와 같이 기와를 의미하는 문자이다.[43] '瓦草'자 문자기와는 전국적으로 10세기에서 11세기경의 사지·산성·건물지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시기를 편년하는 중요한 명문이 되고 있다. '瓦草'자는 지역명+'瓦草'·간지명+'瓦草'·사찰명+'瓦

41) 홍영의(2015), 같은 논문, 54쪽. '大匠' 또는 '瓦匠'으로 판독된 문자기와는 23건으로 익산 미륵사지 출토 '大匠憐才造成', 공주 구룡사지 출토 '居大瓦長老', '居大瓦長老大瓦大瓦', 충주 숭선사지 출토 '○○都監大師性林大匠暢交', 진도 용장산성지와 신안 압해도 건물지의 '大匠惠印癸卯三月'과 같이 大匠 長老 瓦匠이 생산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42) 김정주(2015), 앞의 논문, 31쪽.

43) 기와를 의미하는 문자는 '瓦'자, '草'자, '瓦草'자 등이 있다. 우리말 '기와의 어원은 '디새'이며, 딜[陶;질그릇]+새[草;풀]의 합성어이다. 디새〉 지새〉 지에〉 지와〉 기와로 음운변화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瓦草'는 곧 '구워서 만든 지붕부재'라는 의미로 풀이 할 수 있으며, '기와'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문자기와의 '草'는 우리말 '새'로 읽고 '기와'라고 풀이한다고 하였다. (김민수(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이동준(2005), 「朝鮮時代 평기와의 文樣變遷硏究」,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 제1집, 한국기와학회; 鄭治泳(2006), 「高麗~朝鮮 前期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권 2호, 중부고고학회, 35쪽.)

草'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44] 사찰명 뒤에는 간지명·'草'자·'～造瓦'자 등의 단어가 부가되기도 한다.[45] 또한 官자+'瓦'·'瓦'+제작자·와장(瓦匠) 등의 신분·이름이 있으며 '瓦'자와 자순(字順)이 바뀌기도 한다. 여주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元香寺瓦匠僧順文' 기와는 사찰명 뒤에 순문이라는 와장승(瓦匠僧)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다.[46] 이외에도 '大匠' 문자가 많이 보이고 있으며, 대장승은 기와 제작 기술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기술을 갖춘 승려를 의미한다. 완도 법화사지의 '癸卯三月大匠惠印' 기와[47], 익산 미륵사지의 '戊申年二月日大匠憐才造瓦' 기와에서는 대장의 신분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그 이름을 볼 때 승려가 확실해 보인다. 승장(僧匠) 외에 기와의 생산에 깊이 관여한 인물 혹은 승려가 아닌 와장(瓦匠)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한다. 영동 계산리유적의 발굴보고자는 '竹州瓦草匠水烏水院矣' 기와의 '水烏水院'을 2인의 와장 이름이 병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호족세력 수공업체제 하에서 죽주의 조영사업에 공역을 제공하였던 와장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48]

---

44) 松井忠春외(1994), 「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의 硏究」, 『靑丘學術論叢』 4, 41쪽; 성림문화재연구원(2011), 『경산 중산동 160-1번지 생활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이동주(2013), 「경산 중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 - 문자기와 분석을 통하여 -」, 『고문화』 제82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93쪽.

45) 柳煥星(2010),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신라사학보』 제19집, 신라사학회, 153쪽.

46) 숙종 5년(679)에 지어진 여수 鎭南官의 상량문에는 營造에 관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工匠僧에는 都邊手, 副邊手와 함께 燔瓦都邊手 僧 允俊 世安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 기와 제작이 건축 사업에서 고유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영준(2005), 「麗末鮮初 公役僧의 寺院營造 活動」, 『역사학연구』 제24집, 한국사학회; 鄭治泳(2006), 앞의 논문, 43쪽.)

47) 문화재연구소(1992), 『莞島 法華寺址』, 문화재연구소. 완도 법화사지의 '癸卯三月大匠惠印' 문자기와와 동일한 기와가 용장산성과 신안 신용리 건물지에서 각각 출토된바 있다. 大匠惠印이라는 동일한 와장에 의해 조영되어 주목된다. 癸卯년 1123, 1183 혹은 1243년 중에 법화사지는 이른 시기(1183년)에, 용장산성과 신안 신용리는 늦은 시기(1243년)로 편년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2005), 『신안 신용리 건물지』, 목포대학교 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2006), 『珍島 龍藏山城』, 목포대학교 박물관.)

48) 朴淳發·姜秉權(2002), 『永同稽山里遺蹟』,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鄭治泳(2006), 같은

운주사의 인근지역에서도 '瓦'자 또는 '瓦草'자가 명문된 문자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장흥 대리 상방촌의 '庚午九月日造瓦差使'[49], 화순 능주목지의 '官瓦'자·'瓦草'자 문자기와 등이 출토 되었다.[50] 영암 천황사지는 기와를 제작한 시기와 장소에 관한 기록으로 보이는 '巳卯旬中所造瓦'와 '造瓦'로 추정되는 '○瓦'자 기와가 출토되었다.[51] 운주사 기와는 관자, 차사 등 관(官)과 관련된 기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기와의 공급측면에서 관청과 사찰의 경계가 희박하므로 관과 무관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또한 통상적으로 문자기와에서 사찰명과 관명 다음에는 기와를 의미하는 '瓦'자가 새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瓦'자의 판독 오류

문자기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기와를 의미하는 '瓦'자를 '凡'자로 이해하고 판독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독은 오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52] 경산 중산동·홍성 석성산성·보령 천방유적·익산 미륵사지·경주 창림사지·남한산성 행궁지의 조사에서 '瓦'자를 '凡'자로 이해하였다.

논문, 44쪽.

49) 고용규(2007), 「장흥대리 상방촌 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제23호, 한국중세사학회, 330, 331쪽. 경오년 9월일에 특별히 기와제작[造瓦]을 위해 差使를 파견하여 건물을 조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70여 점이 출토되었으며, 경오년은 1150년으로 추정하였다.

50) 목포대학교 박물관·화순군(1998), 『능주목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학교 박물관·화순군, 247쪽. 조사된 건물지는 조선시대로 판단했으나 명문 중에 綾城郡이라는 명칭은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서 고려 태조 23년(940년) 동안만 사용된 것이어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 官衙址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51) 조근우 외(2006), 『영암 천황사 4차 발굴조사 보고서』, 南道文化財硏究院·靈巖郡.

52) 瓦자의 이체자가 凡과 유사하게 서사되는 점을 감안하면 '瓦'자가 분명하다면서, 많은 논문에서 '瓦'자의 오독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광열, 김희철, 이동주, 위의 보고서, 161쪽; 鄭治泳(2006), 앞의 논문; 이수경(2011), 「영산강유역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쪽; 홍영의(2015), 앞의 논문, 57쪽.)

인천 계양산성 '凡草'기와의 해석[53], 충남 홍성 석성산성의 사라와초(沙羅瓦草)의 '瓦'자를 '凡'자로 판독하고, '무릇 기초를 한다.'는 해석[54], 익산 미륵사지는 '凡草'를 '무릇 기초를 하다'로 해석하여 '기와를 덮으므로 건축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로 판단하기도 하였다.[55] 강원감영에서 출토된 '~官瓦草' 기와를 '官凡' 및 '凡首'로 읽고 이 두 명문을 이은 '官凡首' 를 '관청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56] '官'자와 '瓦'자 역시 마모된 명문의 경우 혼란을 가져오기 쉽다. 음성 망이산성의 '大官', 화성 당성의'大官', 광주 무진고성의 '大官' 등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57] 이처럼 문자기와에서 기와를 의미하는 '瓦'자는 경우에 따라 '凡'·'丹'·'九'·'月'자로 오독(誤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58]

후면에 첨부한 〈그림 4〉는 '雲住寺丸恩天造'의 '丸'자와 비교하고자 운주사 인근 지역과 기타 지역의 문자기와에 포함된 '瓦'자의 문자를 발췌하여 예시한 것이다. 진도 용장산성 기와와 문양이 유사하다는 일본 오키나와 출토 '癸酉年高麗瓦匠造'기와[59], 장흥대리 상방촌 '庚午九月日造瓦差使'기와 2건, 능주목지 출토 官瓦·瓦草기와, 창녕 인양사지 '瓦草'기와, 경주 영묘사 '造瓦' 문자기와를 예시하였다. 좌서(左書)로 새겨진 문자기와는 비교가 용이하도록 우서(右書) 형태로 돌려놓았다. 예시 그림에서 발췌한 '瓦'자를 단독으로 놓고 판독한다면

53) 서봉수 외(2010), 「인천 계양산성 출토기와와 문자자료에 대하여-4차 발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木簡과文字』 6호, 韓國木簡學會.

54) 상명대학교 박물관(1998), 『洪城 石城山城-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1998), 상명대학교 박물관.

55) 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발굴조사단(1996),『彌勒寺』, 國立 夫餘文化財硏究所, 236쪽.

56) 강원대학교 박물관(2001), 『江原藍營』, 江原大學校博物館.

57) 홍영의(2015), 앞의 논문, 57쪽.

58) 노명호 외(2004), 『韓國古代中世 地方制度의 諸問題』, 집문당, 185~561쪽; 鄭治泳(2006), 앞의 논문, 35쪽. 실제로 趙孟頫(1254~1322)의 『杭州福神觀記』에 瓦자를 로 쓰기도 하였다.

59) 윤용혁(2009),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 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제147집, 한국사연구회.

‘瓦’자의 판독 오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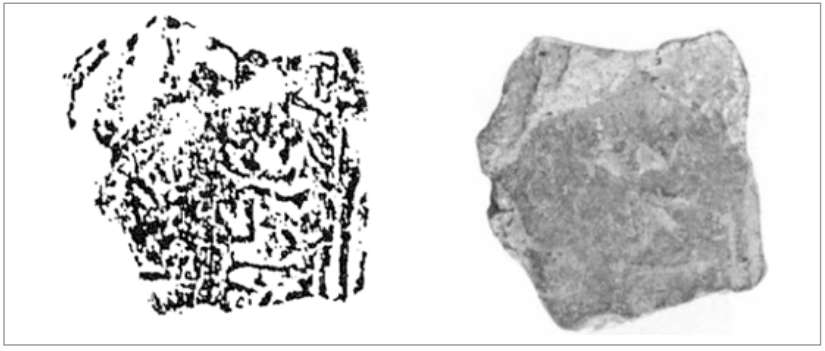
이러한 ‘瓦’자의 오독 사례는 대부분 문자기와의 제작과정에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문자기와를 제작하는 전 공정에 있어서 기와의 재료, 서각도구, 수제(手製)의 기술 및 숙련도, 작업 공정, 대량 생산의 특성은 새겨진 문자의 오독 발생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60]

4. 판독 결과 및 해석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는 가로 세로의 획이 비교적 반듯하며 글자의 전체적 모양이 정사각형을 이루고 정돈이 잘 되어있는 예서의 흐름을 가미한 해서체로서 금석문에서 멸실되어 보이지 않는 이외는 판독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서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丸’자는 서각 과정에서 해서체로 판독할 수 있는 ‘丸’자의 정자체인 ‘丸’자가 아닌 ‘丸’자로 새겨져 있어 서체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등 ‘丸’자의 판독 및 해석의 중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丸’자를 서법의 필순으로 분석할 때, ‘丸’자의 자형(字形)은 처음 필순인 삐침(丿)의 시작점이 기본 필법과 달리 가늘게 시작되고 있다. 서법의 필순에 맞춰 썼다면 시작점이 뭉툭하고 굵어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앞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필체가 필순 과정의 오류가 아니라면 기와 제작의 서각과정 이후에 문자의 획이 탈락 또는 훼손되었거나 처음부터 ‘丸’자가 아닌 다른 자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丸’자가 아니라면 다수의 문자기와에

60) 양각된 문자기와의 일반적인 명문과정은 기와의 타날판에 명문을 음각으로 새기고 타날 공정시에 타날(압인)하여 인각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문자기와의 명문은 점토기와 상면이 원형의 곡선이며, 부분적으로 평활하지 않는 재질적인 한계, 음각된 타날구의 불규칙한 압인력, 손으로 표면을 정리함으로서 남겨지는 손자국 등 수제 제와와 관련된 숙련도 및 제반 기술적 문제, 타날구의 청소 불량으로 음각된 부분에 이물질, 소위 도장밥이 끼는 현상 등 명문 상태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타날구의 書刻 과정에서 복잡한 서체는 단순하거나 생략 형태로 새기는 등 의도적인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림 3〉 양양 진전사지(陳田寺址) '甲大丸▨' 문자기와

서 '瓦'자를 '凡'자 등으로 오독하는 사례와 같이 '瓦'자로 쓰여진 '丸'자를 '丸'자로 판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자기와에서 '丸'자가 쓰인 사례는 1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5년 양양 진전사지(陳田寺址) 발굴조사에서 '丸'자가 포함된 '甲大丸▨' 문자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61] 보고서에는 회흑색 연질의 고운 점토, 무문 암키와에 문자가 양각되었다고 설명되었으나, 사진과 탁본이 선명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별도의 설명이나 해석을 하지 않아서 운주사의 '丸'자와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양양 진전사지 '甲大丸▨' 문자기와 1건이 '丸'자의 용례로 보고되었던 반면에 '丸'자와 유사한 문자인 '瓦'자를 포함한 문자기와는 전국 각 지역에서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운주사 인근지역인 장흥대리 상방촌, 화순 능주목지, 영암 천황사지 등에서도 '瓦'자가 새겨진 문자기와가 다수 출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丸恩天造'와 같이 '造'자가 포함된 문자기와의 내용과 구성 형식의 용례로 볼 때, '丸'자보다는 기와를 의미하는 '瓦'자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6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1989), 『진전사지발굴보고』,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08~109쪽.

'丸'자 대신에 '瓦'자로 판독하면 '雲住寺丸恩天造'의 해석이 더욱 유연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 검토한 결과 '丸恩天造' 문자기와의 '丸'자는 '瓦'자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雲住寺丸恩天造'는 '雲住寺瓦恩天造'로 새로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고려시대 문자기와의 내용 구성은 일반적으로 연호, 지역명, 사명, 제작자 등 기념적인 표식어와 송축(頌祝)할 때 쓰는 길상어로 분류 할 수 있다. '雲住寺丸恩天造'는 문맥상 사명과 '造'자의 형식으로 유추하면 기념적인 표식어에 가깝지만 인근지역에서 출토되는 길상적인 문자기와의 사례 등으로 볼 때 길상어 형식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62]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의 해석을 기념 표식적인 경우와 길상적인 내용의 문자기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념 표식적인 내용의 문자기와는 사찰명+연호·인명·승려명·불경·사용건물·기타 등이며, 길상적인 내용은 '仰天祈福'·'當玉貴大'·'長命富貴' 등 송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63]

기념 표식적인 문자기와의 구성인 사찰명+내용의 형식에 '雲住寺瓦恩天造'를 대입하면 '丸恩天造'에서 '造'자는 만들었다 또는 제작했다는 뜻이므로 내용의 주제는 '恩天'이 된다. 그러므로 '恩天'을 형식에 대입하면 연호·인명·승려명·불경·건물명·기관명 등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와를 제작한 연호, 와장의 신분 및 이름, 관장부서의 명칭, 불경의 명칭, 기와가 쓰이는 건물명, 제작소의 이름 또는 소재지 등의 명칭이 '恩天'이 될 수 있다. 인명이라

62) 운주사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길상적 내용의 문자기와는 全南 潭陽 羅山理의 '長命富貴' 문자기와(고려 11세기 이후)가 있다. 장수하고 재산과 지위가 높기를 頌祝한다는 의미이다. (김건수·이승용, 호남문화재연구원 편(2004), 『潭陽 大峙里遺蹟-羅山里·月本里遺蹟』, 湖南文化財硏究院.)

63) 수원 고읍성 '天下大平', 여주 원향사 '仰天祈福', 하남 교산동 '當玉貴大', 김해 대성동 고분 주변지역 '七珍盈滿', 담양 나산리 '長命富貴'문자기와 등이 있다.

고 한다면 운주사의 기와는 '恩天'이라는 이름의 와장 또는 승려가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64] 이러한 의미의 해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恩天'이란 인명 또는 명칭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전거(典據)를 찾기 어려운 탓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65]

다음은 길상적 내용의 문자기와로 제작되었을 경우의 '丸恩天造'이다. 운주사 인근의 길상 문자 기와의 출토, 많은 탑상과 범자문 문자기와의 밀교적 특성으로 유추해 볼 때 '丸恩天造'가 길상적인 문자기와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길상적인 내용의 경우에도 '造'자는 만들었다, 제작했다는 뜻이므로 길상적인 단어는 '恩天'이 된다고 하겠다. '恩天'이 아니고 자순(字順)이 바뀐 '天恩'이었다면 하늘 또는 황제의 은덕으로 바로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자순이 바뀜으로서 해석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恩天'이 '天恩'과 동일하게 하늘 또는 황제, 왕을 찬양하기 위한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恩天'은 하늘의 은덕', '황제의 은덕'이 되며, '하늘 또는 황제의 은덕으로 운주사 기와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66] 하지만 문자의 자순이 바뀌면서 '天'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한다면, '天'은 운주사와 관련된 고유한 '天' 또는 천신(天神)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고려시대의 천신관(天神觀)은 국시(國是)인 불교의 부처와 전통신앙이 습합된 다신관(多神觀)으로서 제신(諸神)을 총괄하여 하늘 또는 천신이라고 할 수

64)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의 역대인물 검색 결과 '恩天'이란 인명은 검색되지 않고 있다.

65) '恩天'은 연호·인명·승려명·불경·건물명·기관명 등의 명칭으로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단지 甑山 姜一淳(1871~1909)을 교조로 하는 종교의 경전에 恩天上帝라는 명칭이 있으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恩天上帝 上天 土宮之 五福, 水宮 聖君 脫劫衆生. (이중성(2013), 『증산도 대개벽경』, 대원출판사.)

66) '天恩'의 天이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은 황제국의 제후에 해당하는 군주이며, 일반적으로 왕의 은덕은 天恩보다는 聖恩으로 쓰인다고 하겠다.

있을 것이다.[67] 이러한 천신관은 운주사의 서쪽 산등성이에 위치하는 칠성바위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68] 칠성바위는 제천의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토착적인 칠성신앙과 불교의 약사신앙·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도교의 태일 북극성의 성수신앙 등이 습합되어진 결과로서 약사여래칠불의 현신장소인 동방정토의 상징이며, 의례장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69] 그러므로 운주사의 '天'은 불교적으로는 밀교적인 성격을 띤 약사여래사상을 위주로 하여 유교의 제천의례, 도교의 신불(神佛)과 토속적인 신들이 습합된 제신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운주사의 수많은 탑상은 이들 신불들의 화신(化身)을 표현 한 석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天'이 황제, 왕을 의미한다면 황제나 왕의 은덕으로 기와를 제작하였다고 송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天'은 왕의 의미보다는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의 왕은 황제를 나타내는 '天'을 사용하였으며 태조 왕건의 연호는 하늘이 왕권을 내렸다는 의미의 천수(天授)를 사용하였다.[70] 태조 이후로도 고려의 군주는 대왕, 왕이면서 황제, 천자로 인식하였다. 송(宋)은 책봉의 형식은 아니지만 고려 군주를 황제로 인정했고 팔관회를 통하여 고려 군주가 칭제하는 것을 알았으며, 금(金)도 건국 초에는 고려 군주를 황제로 인정했다.[71] 이러한 고려의 황제, 천자의 칭제는 원의 간섭을 받기 전까지는

67) 고려의 天神관은 양대 국가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한 태조 왕건의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고려사』권2 세가2 태조 26년 4월,「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 嶽名山大川龍神也.」

68) 7개의 원반형 바위가 북두칠성 형태로 자리 잡은 칠성바위는 실제 관측되는 북두칠성 각별의 밝기, 크기, 방위각과 매우 흡사하고 지상에서 관측되는 모습과 반대로 하늘의 북두칠성이 그대로 내려앉은 모습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69) 김기용(2014),「운등배치와 의례장소로서 화순 운주사」,『남도민속연구』제29집, 남도민속학회, 22; 30쪽. 운주사 범자문기와의 六子眞言의 한 種字는 東方琉璃光佛, 즉 약사여래를 지칭하고 있다.

70)『高麗史』권1, 太祖 원년 하6월 丙辰.

71) 박재우(2005),「고려 군주의 국제적 위상」,『한국사학보』제20호, 고려사학회, 77쪽.

지속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72] 그러므로 '丸恩天造'의 '天'이 황제를 지칭한다면 기와의 제작은 원의 지배(1271~1356)를 받기 이전에 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의 간섭기에 제작되었다면 '天'은 원의 황제를 지칭하게 된다고 하겠다. 고려왕들이 황제, 천자로 인식하였지만 태조와 같이 대외적으로 칭제건원(稱帝建元)한 왕은 광종(재위 949~975)이 있다.[73] 이 시기는 운주사 천불천탑 제작자로 전해지는 승려 혜명(惠明)이 관촉사 은진미륵을 조성하는 활동시기이다.[74] '天'이 대외적으로 칭제한 황제를 의미한다면 승려 혜명이 활동한 시대는 황제를 '天'으로 여길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주사 기와는 황제의 은덕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칭제건원 황제인 광종을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는 간단하게 구성된 문장임에도 해석이 쉽지 않았으며, 의미가 확실한 사명을 제외한 '丸恩天造' 4자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丸恩天造'에서 서체 및 문장 구조상 중점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문자는

72) 충렬왕 때 원의 간섭으로 팔관회 금오산 편액의 황제를 축원하는 '성수만세'라는 글자를 왕을 축원하는 '경력천추' 등으로 바꿨다는 사례가 있다. (『高麗史』 권69, 志卷 第23, 禮十一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忠烈王元年十一月庚辰 幸本闕, 設八關會. 改金鼇山額, '聖壽萬年'四字, 爲'慶曆千秋', '其一人有慶, 八表來庭, 天下太平'等字, 皆改之. 呼萬歲, 爲呼千歲, 輦路, 禁鋪黃土.」)

73) 고려 왕조에서 황제를 지칭하는 연호를 사용한 왕은 태조의 天授(918~933)외에 光德(광종 950~951), 峻豊(광종 960~963), 天開(묘청의 참칭 연호 1135)가 있다.

74) 김동수(1991), 「운주사의 역사적 고찰」, 『운주사 종합학술조사』, 전남대박물관·화순군, 47쪽. 운주사 창건과 관련하여 '신라 때 조성되었다고 전하기도 하고, 고려 승려 혜명이 수천명의 무리에게 각각 명령해서 조성했다.'는 기사가 있다.(~ 諺傳 新羅時所造 或謂高麗僧惠明 有徒衆數千 各令造成云) 『東國輿地志』(1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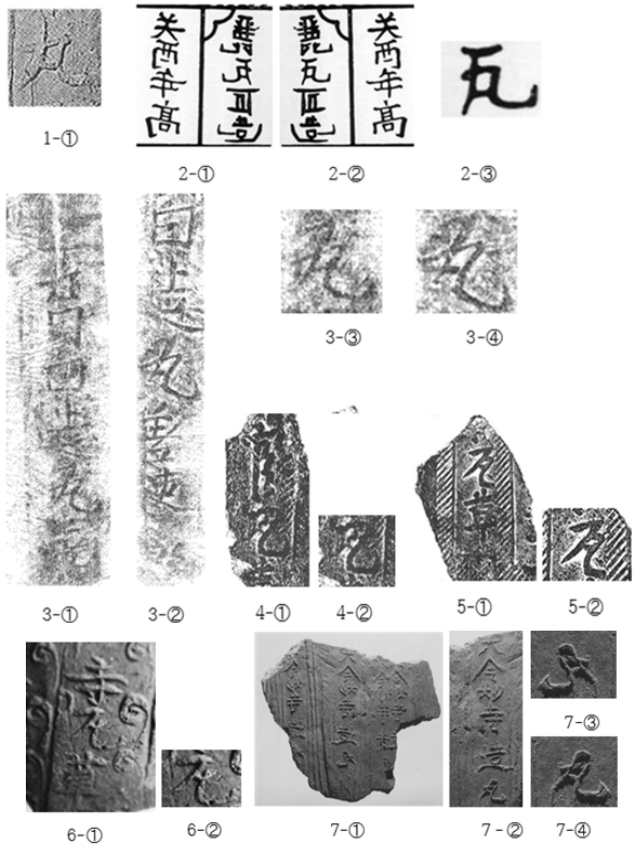
‘丸’자로서, 예변을 가미한 해서체인 ‘丸’자 형태로 양각되어 있어 ‘丸’, ‘凡’ ‘瓦’자로 다양하게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체 등의 재검토와 금석적인 판독을 하게 되었다.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의 ‘丸’자에 대한 서체와 문자기와의 용례, 유사문자의 오독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丸’자는 기와를 의미하는 ‘瓦’자로 판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雲住寺丸恩天造’는 ‘雲住寺瓦恩天造’로 판독해야 할 것이다.

‘雲住寺瓦恩天造’가 기념적인 표식어라면 ‘恩天’은 기와를 제작한 연호, 와장의 신분 및 이름이 될 수 있으며, 가능성이 큰 것이 인명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운주사의 기와는 ‘恩天’이라는 이름의 와장 또는 승려가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恩天’을 지칭하는 역대인물이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恩天’을 길상적인 단어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운주사 기와는 하늘(신)의 은덕으로 제작했다.’ 또는 ‘운주사 기와는 황제의 은덕으로 기와를 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와의 제작 시기는 고려왕이 황제로 인식되던 원의 간섭기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지붕재로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기와의 문자 내용이 왕실과 연계된 점, 당시 기와의 공급은 관과 무관하지 않은 점, 밀교와 연계되는 범자문 문자기와 출토, 운주사의 독특한 탑상의 양식과 규모 등으로 볼 때 운주사는 관의 주도 또는 배경으로 건립된 밀교적인 제천의례를 행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주사는 궁궐과 원거리에 위치하면서 호국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역적인 원찰 성격의 사찰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雲住寺瓦恩天造’ 문자기와의 판독과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문자기와에 수반되는 운주사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부족한 점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그림 4〉 고려(나말여초) 문자기와의 丸자 서체

1-① '雲住寺丸恩天造'의 丸자 발췌
2-① 오키나와 '癸酉年高麗瓦匠造' 문자기와 탁본
2-② 右書 형태로 변경, 2-③ 2-② 瓦자 발췌
3-① 장흥 대리 상방촌 '庚午九月日造瓦差使' 문자기와
3-② 장흥 대리 상방촌 '庚午九月日造瓦差使' 문자기와
3-③ 3-① 瓦자 발췌, 3-④ 3-② 瓦자 발췌
4-① 능주목지 출토 官瓦명 기와, 4-② 4-① 瓦자 발췌
5-① 능주목지 출토 瓦草명 기와, 5-② 5-① 瓦자 발췌
6-① 창녕 인양사시 瓦草명 기와, 6-② 6-① 瓦자 발췌
7-① 경주 令妙寺 造瓦명 기와, 7-② 右書 형태로 변경
7-③ 7-① 瓦자 발췌, 7-④ 7-② 瓦자 발췌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강원대학교 박물관(2001), 『강원감영』, 강원대학교 박물관.

김건수・이승용, 호남문화재연구원 편(2004), 『담양 대치리유적-나산리・월본리 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1989), 『진전사지발굴보고』,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문화재연구소(1992), 『완도 법화사지』, 문화재연구소.

목포대학교 박물관(2005), 『신안 신용리 건물지』, 목포대학교 박물관.

_____(2006), 『진도 용장산성』, 목포대학교 박물관. 민중서림 편집국(2006), 『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목포대학교 박물관・화순군(1998), 『능주목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 박물관・화순군.

미술문화원(1986), 『전예대자전』, 미술문화원.

부여문화재연구소(1996), 『미륵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성림문화재연구원(2011), 『경산 중산동 160-1번지 생활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월간미술 엮음(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조근우 외(2006), 『영암 천황사 4차 발굴조사보고서』, 남도문화재연구원・영암군.

전남대학교 박물관(1984), 『운주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1900), 『운주사: 발굴조사보고서3』,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_____(1991), 『운주사 종합학술조사』(1991),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황호균(2009), 『운주사 자료집성』,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청.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홍성 석성산성-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1998), 상명대학교박물관.
『高麗史』, 『東國輿地志』, 『東國輿地勝覽』, 『湖山錄』.

2. 단행본

김민수(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노명호 외(2004), 『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집문당.
박순발·강병권(2002), 『영동계산리 유적』,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이중성(2013), 『증산도 대개벽경』, 대원출판사.
이태호·천득염·황호균·유남해(2013), 『운주사』, 대원사.
장기인(2003), 『한국건축대계 Ⅵ 蓋瓦』, 보성각.

3. 논문

고용규(2007), 「장흥대리 상방촌 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제23호, 한국중세사학회, 321~347쪽.
김기용(2014), 「윤등배치와 의례장소로서 화순 운주사」, 『남도민속연구』 제29집, 남도민속학회, 7~36쪽.
김동수(1991), 「운주사의 역사적 고찰」, 『운주사 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김병인(2015), 「화순 운주사의 '寺名' 변화와 그 함의」, 『호남문화연구』 제57집, 전남대학교호남학연구원, 1~32쪽.
김병희(2001), 「안성 봉업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주(2015), 「고려시대 명문 평기와의 양상과 지역성 -연호명 평기와 출토 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현(2011),「고려시대 능성 운주사에 대한 탐색」,『사총』제72집, 고려대역사연구소, 27~74쪽.

_____(2014),「운주사 천불천탑의 도교적 성격」,『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전남대학교 박물관.

김호준(2013),「고려 성곽 출토 문자 기와-남한지역 산성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한국기와학회·한국성곽학회 학술대회, 163~191쪽.

박재우(2005),「고려 군주의 국제적 위상」,『한국사학보』제20호, 고려사학회, 45~79쪽.

서봉수 외(2010),「인천 계양산성 출토기와와 문자자료에 대하여」,『목간과 문자』6호, 한국목간학회, 109~132쪽.

성춘경(1991),「운주사 주변의 불적」,『운주사 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류환성(2010),「경주 출토 나말여초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과정」,『신라사학보』제19집, 신라사학회, 129~169쪽.

윤용혁(2009),「오키나와 출토의 고려 기와와 삼별초」,『한국사연구』제147집, 한국사연구회, 159~197쪽.

이동주(2013),「경산 중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 -문자기와 분석을 통하여-」,『고문화』제82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91~112쪽.

이동준(2005),「조선시대 평기와의 문양변천연구」,『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제1집, 한국기와학회, 129~157쪽.

이상규(2013),「고려~조선시대 범자문 와당의 형식과 제작특성 고찰」,『선사와 고대』제38호, 한국고대학회, 365~400쪽.

이수경(2011),「영산강유역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진(2012),「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의 범자 해석」.『역사민속학』제3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7~39쪽.

이재명(2010),「서부경남지역출토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 검토-사천 본촌

리 폐사지 출토 고려시대 평기와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제3집, 경남발전연구원, 102~134쪽.

전영준(2005), 「여말선초 공역승의 사원영조 활동」, 『역사학연구』 제24집, 호남사학회, 111~134쪽.

정제규(1990), 「운주사의 성립과 그 불교사상의 배경」, 『학술논총』 14권 1호, 단국대대학원, 601~620쪽.

정치영(2006), 「고려~조선전기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권 2호, 중부고고학회, 31~55쪽.

허일범(2014), 「운주사의 밀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전남대박물관.

홍영의(2015), 「고려시대 명문기와의 발굴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제41호, 한국중세사학회, 9~81쪽.

황호균(2014), 「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천불천탑의 제작공정 복원론」,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전남대박물관.

_____(2013), 「운주사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론」, 『운주사 세계유산세미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투고일: 2017. 05. 12.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4.

| 국문초록 |

‘운주사환은천조(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

화순 운주사는 천불천탑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석불석탑으로 구성된 사찰로 널리 알려졌지만 건축물이 있던 구역이 별도로 구획·분리되어 존재하였다. 고려 11세기 초 이전에 창건되어 16세기 조선시대까지 존속하였던 건축물 구역의 발굴조사에서 문자기와 4건이 출토 되었다. 이 중 사명(寺名)이 포함된 ‘운주사환은천조’(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다.

‘雲住寺丸恩天造’ 문자기와는 간단한 문자 구성임에도 ‘雲住寺’를 제외한 ‘丸恩天造’ 4자의 정확한 뜻을 밝히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특히 ‘丸’자는 해석이 난이한 문자로서, ‘丸’자가 아닌 ‘丸’자 형태로 양각되었으며 서체 등의 재검토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丸’자에 대한 서체, 서법(書法) 등 금석적인 관점과 문자기와의 용례, 오독(誤讀) 사례 등을 분석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丸’자는 기와를 의미하는 ‘瓦’자로 판독하게 되었다. 즉 ‘雲住寺丸恩天造’는 ‘雲住寺瓦恩天造’로 새로이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자기와는 일반적으로 연호, 제작자 등 기념적인 표식의 내용이거나 찬양 축원을 담은 길상(吉祥)적 의미를 가진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雲住寺瓦恩天造’ 해석의 중심 단어는 ‘恩天’이며, 기념적인 표식의 내용이라면 ‘恩天’은 기와를 제작한 연호(年號)·인명·승려명·불경·건물명·기관명 등의 명칭이 될 수 있다. 인명(人名)이라면 ‘운주사의 기와는 ‘恩天’이라는 이름의 와장(瓦匠) 또는 승려가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길상적 의미의 문자기와로 제작되었다면 ‘恩天’은 ‘하늘(신)의 은덕’, ‘황제의 은덕’이란 의미가 된다. 그리고 ‘雲住寺瓦恩天造’는 ‘운주사

기와는 하늘(신)의 은덕 또는 황제의 은덕으로 만들었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운주사, '丸恩天造', 판독, 문자기와, 금석문

호남문화연구 61: 165~191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세기 자이당(自怡堂) 이시헌(李時憲)의 '백운동별서(白雲洞別墅)' 승계와 향촌활동*

Jaidang Lee Si-heon's Succession to 'Baegun-dong Byeolseo' and his Hyangchon Activities

박 미 선**
Park Mi-Sun

목 차

Ⅰ. 머리말
Ⅱ. 선대의 백운동별서 이거와 가풍의 변화
Ⅲ. 이시헌의 백운동별서 승계와 가문 현창
Ⅳ. 이시헌의 교유관계와 향촌활동
Ⅴ. 맺음말

| Abstract |

It was in the late 17th century that Wonju Lee Family settled down in Gangjin. After then, Lee Dam-ro, Lee Si-heon's ancestor 6 generations ago built a vacation home called 'Baegun-dong Byeolseo', which was famous for its beautiful scenery and attracted a lot of literary men from all over the country, leaving their poems and writings when they stopped by Gangjin. And Wonju Lee Family in Gangjin had intermarriage relations with Baek Gwang-hoon and Ahn Bang-jun Family. The descendents firmly established the status as a local noble family in Gangjin-hyun by

* 본고는 2016년 11월 24일 「제 4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 - 원주이씨 사람들의 삶과 전라병영성의 깃발들」에서 발표한 「자이당 이시헌의 향촌활동과 강진 인식」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called Gwageo. But,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under Politics by In-powers, it was difficult for local students of Confucianism to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called Mungwa, even Samasi. Lee Si-heon Family was no exception to the situation. Lee Si-heon collected and compiled 'Baegun-dong Byeolseo' related materials and documents, and came to the 'restoration ancestor of Baegun-dong Byeolseo'. In addition, he could keep the status as a local noble family member called Yangban or Sajok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Hyangchon community system centering around the local governor called Suryeong.

Key words : Baegun-dong Byeolseo(白雲洞別墅), Lee Si-heon(李時憲), Restoration ancestor, Wonju Lee Family, Gangjin, Honoring family, Jaidang(自怡堂)

Ⅰ. 머리말

李時憲(1803~1860)은 자는 叔度, 호는 自怡堂으로 월출산 남쪽 성전면 월하리 백운동에서 평생을 거처한 강진 지역의 문인이다. 특별한 官歷이나 행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최근 白雲洞別墅[1]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백운동별서의 중흥조'로 주목받고 있다.[2]

이제까지 이시헌에 대한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절 제자 가운데 한명으로 서술하거나,[3] 강진지역에서 세거한 원주이씨 가운데 한 명으로 설명되는 수준이었다.[4] 이시헌에 대한 소개 및 그의 문집인 『자이선생문집』 해제라는 기초적 검토가 진행된 이후, 이시헌의 시문을 통해 그의 내면 세계와 현실 인식이 연구되기도 하였다.[5] 최근에는 백운동별서와 관련한 문헌기록, 문인들의 자취, 역대 주인, 차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저서가 출간되어 백운동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6] 이외에도 호남기록문화유산에 『자

1) 별서는 선비들이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은거생활을 하기 위한 곳으로 본가에서 떨어져 산수가 빼어난 장소에 만들어졌다.

2) 강진군은 2007~2010년 백운동 정원의 사랑채, 정자각, 솟을삼문 등에 대한 복원 정비작업 하였다. 또한 2016년 2~4월에는 백운동 정원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1월에는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복원 보존하기 위한 심포지엄 및 백운동별서에서 살았던 원주이씨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제 1회 백운동별서정원 학술심포지엄 – 별서원림의 가치와 문화재지정」,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건축역사연구실, 2016; 「제 4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 – 원주이씨 사람들의 삶과 전라병영성」, 2016).

3) 林熒澤(1998), 「丁若鏞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제21집, 한국한문학회.
김용흠(2015), 「중앙과 지방의 학술 소통: 다산학과 다산학단」 『다산과 현대』 제8집,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金奉楠(2008), 「자이선생집해제」 『茶山學團文獻集成』 권 5, 대동문화연구소, 13-20쪽.

4) 임형택(2007), 「전라도 강진의 한 가문이 일궈낸 정신유산, 원주세고」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임형택(1997), 「원주세고 해제」 『原州世稿』, 연담문고.

5) 金奉楠(2009), 「茶山 제자 李時憲의 詩文에 관한 一研究」 『東方漢文學』 第38輯, 동방한문학회.

이선생문집』이 소개되었으며,[7] 강진군청을 중심으로 백운동별서 복원 작업이 추진되면서 '호남 3대 정원'의 하나로 이시헌이 거처하던 공간도 중요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백운동별서의 건축학적 의미와 그곳에서 이루어진 문인들의 교유가 밝혀졌으며, 이시헌이 백운동별서의 중흥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산학단의 제자 가운데 1인' 또는 '백운동주인 가운데 1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시헌 개인에 대한 역사적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검토는 소략한 편이다. 변변한 관력도 없었던 이시헌이 '중흥조'로서 의미있게 설명되기 위해서는 19세기 세도정치기 강진 안주면 백운동이라는 향촌 사회에서 이시헌의 생애와 활동을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세기 향촌사회의 변화와 연관하여 이시헌의 가계, 생활 공간, 교유관계, 활동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선대의 백운동별서 이거와 가풍의 변화

이시헌이 강진 백운동별서의 주인이 된 것은 아버지 李德輝(1759~1828)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다. 본래 이시헌의 생부는 이덕휘의 동생 李錫輝(1779~1806)였다. 이시헌이 네 살이 되었을 때 이석휘가 세상을 떠나자 이덕휘의 양자가 되었다. 이시헌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어린 시절 다산 丁若鏞(1762~1836)에게 수학하였다. 19세기 이시헌은 백운동별서에서 성리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향촌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적, 학문적 토양은

6) 정민(2015),『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글항아리. 본고는 이 책에서 번역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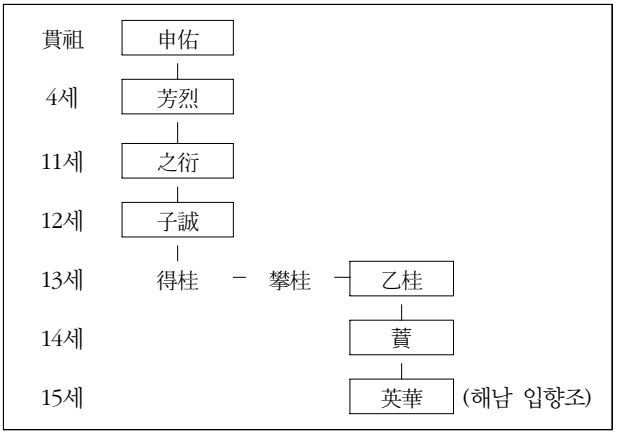
7)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이트 http://www.memoryhonam.co.kr/sub02/sub02_detail.php?seq=1411.

17세기부터 선대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에 이시헌 선조들의 관력 및 거주지, 묘지의 위치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8)]

이시헌의 본관은 원주이다. 본래 원주이씨는 경주이씨에서 나왔는데, 고려조 병부상서를 지낸 李申佑를 貫祖로 하여 나뉘어졌다. 그 증손 李芳烈은 검교대장군이었고, 이방열의 칠세손 吏部侍郎 李之衍의 손자 李得桂, 李攀桂, 李乙桂 대에 다시 분파되었다. 그 중 막내 아들이었던 李乙桂의 손자 李英華(?~1517)는 관조로부터 15세손이었는데, 강릉부사를 역임하다가 단종이 폐위되자 벼슬을 버리고 전라남도 해남으로 남행하여 마산면 無塵山에 산막을 치고 은거하였다. 초취는 직제학 慶龍의 딸 청주김씨이고, 재취로 도사 淑淨의 딸 신풍최씨를 맞이하였다. 그의 무덤은 해남 마산면 李英山에 있다.

---

8) 다음에서 서술한 내용은 『原州李氏世譜』(이중효 소장본, 『甲寅譜』 권1~3)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해남, 강진 지역의 원주이씨와 관련된 주요 족보는 후손 이흠이 찬한 「慶原分籍小序」에 의하면 신축보와 무신보로 파악된다. 우선 정조년 간에 만들어진 辛丑譜는 黃景源(1709~1787)이 그 序를 지었다. 경주 宗系를 쓰지 않고 尙書公 李申佑를 시조로 하여 만든 족보이다. 다음으로 헌종대에 만들어진 戊申譜는 阿粲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계통을 밝히고 尙書公를 기록하였다. 무신보의 序는 「海康合譜序」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보에 강진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丙戌譜에 그릇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강진과 해남 지역의 원주이씨와 관련된 족보를 만든 것이었다. 무신보는 후손 周輝, 碩章, 載興 등이 序를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이흠에 의하면 무신보는 휘자 위에 李字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작성된 丁丑譜 역시 신축보를 定式으로 삼고 무신보 이후 각파의 파보만 있음을 문제시 여겨 만들어졌다. 序는 후손 垕과 玹東이 작성하였다. 이후 만들어진 甲寅譜는 先系, 연혁, 이전 족보의 서문, 범례, 행록, 각파편람, 수보임원명단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領中郎將 攀桂를 원조로 삼고 判宗簿寺事 天翊을 분파의 중시조로 삼는 茂潭派譜가 있다. 또한 파보의 서에 의하면 壬寅年 全譜가 나타난다. 즉, 해남, 강진 지역 원주이씨와 관련하여 '丙戌譜', '壬寅年全譜', '茂潭派譜' 등이 있고, 특히 1781년 辛丑譜, 1848년 일명 '海康合譜'인 戊申譜, 1937년 丁丑譜, 1974년 甲寅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1974년 갑인보를 참고하여 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 외에도 강진 지역 원주이씨 가문에서 소장한 문서를 번역한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부록의 백운동 관련 인물과 문헌 필적 자료 중 이시헌이 찬한 「수졸암 이언길 공 家狀草記」, 이복흠이 찬한 「자이당 이시헌 공 行狀草記」, 이흠이 찬한 「白雲處士自怡先生行錄」, 朴濟允이 찬한 「自怡堂原州李公墓碣銘」 등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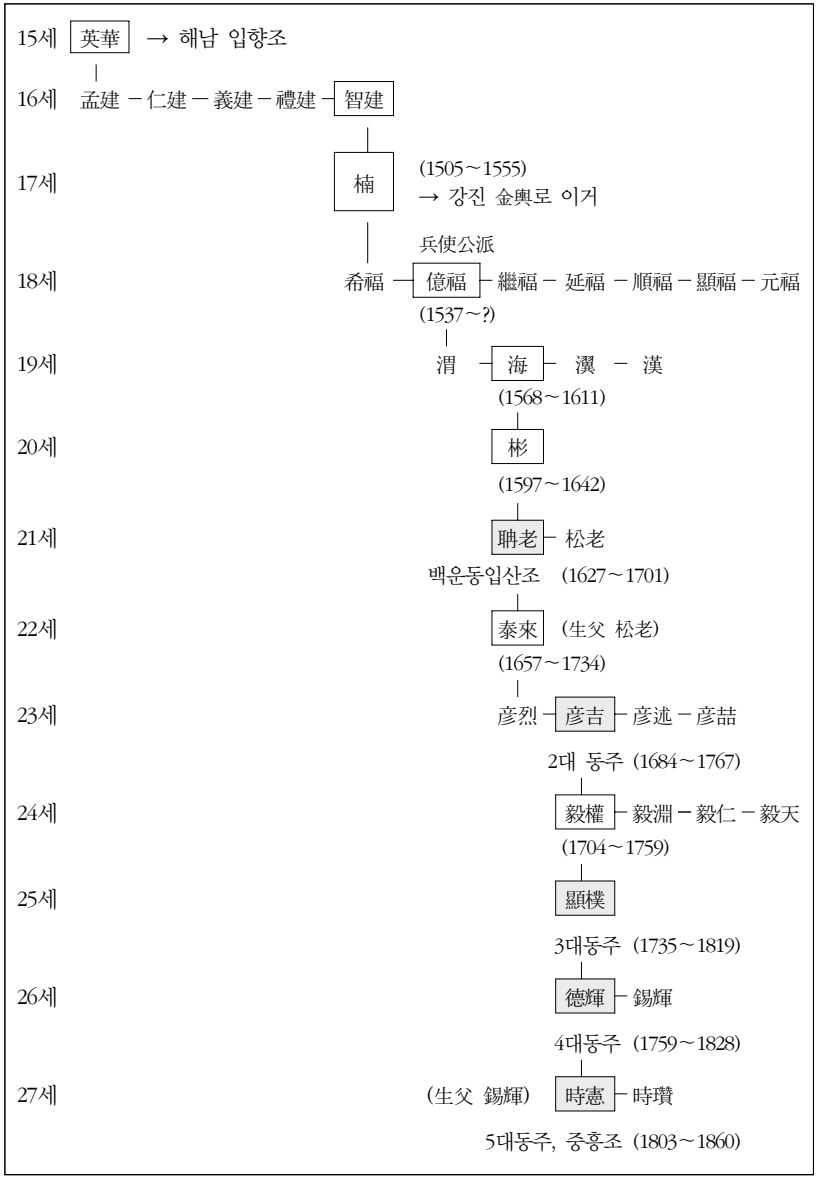


〈그림 1〉 원주이씨 해남 입향조와 그 선조

그 후 해남에서 강진 金輿로 이거한 것은 이영화의 증손 李楠(1505~1555) 대에 이르러서였다.[9] 이영화는 孟建(?~?), 仁建(?~1592), 義建(?~?), 禮建(?~?), 智建(?~?) 등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李智建의 아들 이남이 강진에 이거한 이후 그 후손들이 뿌리게 내리게 되었다. 이남은 希福(?~?), 億福(1537~?), 繼福(1540~?), 延福(1542~1580), 順福(1544~1617), 顯福(?~?), 元福(?~?) 등 7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 중 이시헌의 9대조는 이억복으로 병사공파의 파조이다.[10] 이억복은 渭(?~?), 海(1568~1611), 瀾(?~?), 漢(?~?)을 낳았

9) 금여는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로 일명 금예 또는 連塘으로 이남은 강진으로 처음 이거하였다. 『원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남은 재취로 강진 토성인 道康 趙氏 혼인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남의 묘는 그 부친 이지건의 묘가 있는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월암 墨山에 위치해 있다.

10) 이남이 강진으로 이거한 이후 일곱 아들을 중심으로 분파되었다. 李希福을 중심으로 한 萬項公派, 李億福을 중심으로 한 兵使公派, 李繼福을 중심으로 한 忠衛公派, 李延福을 중심으로 한 參判公派, 李順福을 중심으로 한 忠順公派, 李顯福을 중심으로 한 司果公派, 李元福을 중심으로 한 通政公派 등 7개로 나뉘어졌다. 이시헌의 9대조 李億福(1537~1586)은 병사공파로 그 후손들은 金塘, 月南, 松旨, 榆泉洞 등에 분포하였다.



〈그림 2〉 원주이씨의 강진 및 백운동별서 이거와 그 후손들

고, 이해는 李彬(1597～1642)을 아들로 두었다. 이억복, 이해, 이빈의 무덤은 모두 강진 안주면 藏寺洞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성전 秀岩山 아래로 강진 내에서 名墓로 분류된 곳이었다.[11]

여기에서 다시 강진 월출산 아래 백운동으로 이거가 이루어진 계기는 李聃老(1627～1701)부터였다. 본래 이곳에는 백운암이라고 하는 사찰의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靑蓮 李後白(1520～1578)에게 임금이 하사한 사패지를 이담로가 구입하여 별서를 조성한 것이었다.[12] 이담로는 "내가 고루하다보니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성품마저 게으름이 몸에 배어 남이 나를 소원하게 대한다"라고 하며, 과거 시험에 몰두하기보다는 백운동에서 처사로서 은거하며 지냈다.[13] 당시 그는 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둘째 손자 이언길과 함께 일시적으로 백운동별서를 이용하였다.

이담로는 이빈의 적장자였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처사로 지냈던 반면 이송로(1632～1677)는 1666년(현종7) 생원시에 들었다. 더구나 이담로와 함풍이씨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다. 물론 족보에 의하면 益來(?～?)와 石來(?～?) 등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함풍이씨에 대해서는 '育一女'라고만 기재하여, 3명의 자녀는 그녀의 소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후기 양자를 들이는 관행에 따라 이담로는 자신의 아우 이송로의 둘째 아들이었던 李泰來(1657～1734)를 양자로 들였다. 그는 안방준의 증손이었던 죽산 안씨와 혼인하여 彦烈(1680～1719), 彦吉(1684～1767), 彦述(?～?), 彦喆(1693～1738) 등 네 아들과 다섯 명의 딸을 낳았다.

백운동별서가 생활 거주지로서 의미가 커진 것은 이시헌의 고조부였던 李彦吉 대부터로 파악된다. 1756년(영조32) 가뭄이 심해지자 이언길은 자녀들과

11) 『康津郡誌』 卷3, 名墓.
12) 『백운세수첩』, 「白雲洞名說」.
13) 『백운세수첩』, 「白雲洞藏魄解」.

함께 백운동별서에 거처하기 시작하였다. 이언길은 통덕랑 炫의 딸 전주최씨와 혼인하여 毅權(1704～1759), 毅淵(1708～?), 毅仁(1717～1802), 毅天(1723～1751) 등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이언길의 손자 李顯樸(1735～1819)이 그를 이어 백운동의 3대 동주가 되었고, 다시 그의 장자 德輝가 백운동별서를 승계하였다. 하지만 이덕휘와 광산김씨 사이에서 아들은 없었고 딸만 4명이 있었다. 이에 동생 錫輝의 아내가 남편이 일찍 죽자 어린 아들 이시헌을 백부에게 양자로 보냈다. 이시헌은 이덕휘의 사후 백운동별서를 승계 받았고, 그의 장자, 장손이 백운동별서를 이어갔다.

특징적인 점은 이담로가 백운동에 별서를 꾸민 뒤, 그 후손들이 장사동이 아닌 백운동별서 주변에 무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태래 등 몇몇의 후손은 여전히 장사동에 무덤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백운동별서 승계자와 그 가족의 무덤은 대체로 백운동별서 주변에 조성되어 이담로 이후 이시헌으로 이어지는 제한적 가계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백운동별서를 조성하였던 이담로가 이곳에서 은둔하여 학문에 힘쓴 것과 같이 후손들도 성리학 공부에 힘썼다. 하지만 오히려 조선 전기에는 무반적 가풍의 면모가 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시헌의 12대조 이영화는 무과에 급제하여 감찰, 行稷山鴻山縣監, 강릉대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이시헌의 11대조 이남은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평안도 창성의 토병으로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이항복은 그를 가장 사납고 용맹하다고 평가하였다. 군공으로 연풍현감을 제수 받고 무장현감을 지낸 후, 강진군 성전면 금여에 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남의 아들 이억복 역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이시헌의 7대조인 李彬(1597～1642)대에 이르러서 변화되었다.[14] 이빈은 1626년(인조4) 중국 외교사절 영접시 백의종사로 중국 사신 접빈

14) 이남의 장자 李渭는 無嗣하였고, 차자 李海의 아들이 이빈이다. 족보에는 이빈의 삼남으로 殷老를 기록하고 있다. 생졸년 및 배우자 묘소 등이 실전되어 자세하지 않고 그 후손

에 참여하였는데 뛰어난 글 솜씨를 인정받았고, 그 이듬해에는 사마시에 합격하고 6년 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예조좌랑, 사간원정언, 병조정랑을 역임하였고, 鄕先生으로 존경받고 또한 월강사에 배향되었다.

이빈이 문과에 급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외가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빈의 어머니 백씨(1573～1650)는 조선 중기 8대 문장가 중 한 명이었던 玉峯 白光勳(1537～1582)의 막내딸이었다. 비록 이빈이 태어날 때에 외조부는 생존해 있지 않았지만 그가 외가인 영암 옥천에서 태어나 자랐던 만큼 백광훈 가문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15] 이빈이 열두 살이었을 때 외삼촌 白振南이 전라 감사 尹安性의 도움으로 시집을 간행하였는데, 李廷龜, 申欽, 柳根 등이 序를 지어 주었던 만큼 그의 성장기 외가의 학풍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빈은 거창 신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16]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이송로만이 1666년(현종5)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이담로는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하였지만 당대의 문인들과 수창시를 주고받으며 교류할 정도로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다. 이빈의 손자 李享來, 이태래, 李頤來는 모두 이송로가 생부였는데, 이 중 생원시에 합격한 자는 없었고, 이태래의 아들 이언열, 이언길, 이향래의 아들 李彦謙(1683～1734)이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이담로의 양자로 들어간 이태래는 竹山安氏와의 사이에서 4남 5녀를 두었다. 그 중 이언열은 1713년(숙종39) 생원시에 입격하고 그 다음해인 1714년(숙종40) 문과에 급제하여 봉상시 직장, 승문원 박사, 성균관 전적을 역임하였다. 이언길도 비록 고령이었지만 1765년(영조41) 생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래의 처 죽산안씨가 安邦俊(1573～1654)의 증손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들 가운데에 생원시에 합격한 자가 없으므로 본문에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15) 백광훈은 당대의 명사였던 택당 이식, 동명 정두경, 고산 윤선도 등과 교류하였던 인물로 1582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호남 관찰사였던 정철이 역군을 보내 상을 돕게 하였다.

16)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愼諴, 증조부는 관찰사를 지낸 愼喜男이었다.

안방준은 牛溪 成渾의 제자로 서울에 거주하다가 1614년 고향 보성으로 돌아와 牛山에 은거하며, 『湖南義錄』, 『壬丁忠節事蹟』, 『三寃記事』 등을 찬술하였다. 암행어사로 내려온 張維가 안방준을 찾아와 만나기까지 하였고, 여러 인사들에게 두루 천거되었으나 보성 우산과 화순 隱峯精舍 등에서 호남 유생의 거두로서 향촌사회에서 은거하였다. 그가 죽고 1704년(숙종30) 보성의 大溪書院에 사액을 내렸던 것 등을 볼 때, 그가 호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었다. 이빈, 이언열, 이언길은 『강진군지』 사마안에, 이빈과 이언열은 문과안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로써 강진현 내에서 원주이씨는 이름 있는 양반사족 가문으로서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17]

요컨대, 이시헌이 백운동별서에 거처하기까지 그의 선조들은 혼인을 통해 원주에서 廣州로 이거하고, 16세기 광주에서 해남을 거쳐 강진 금여로 거주지를 옮겼다. 17세기 이시헌의 6대조 이담로에 이르러서는 백운동별서를 별장 정도로 이용하다가 4대조 이언길 대에 생활 거처로 삼게 되었다. 또한 8대조 이해와 6대조 이태래가 호남지역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백광훈·안방준 가문과 통혼을 하고, 그 후 그 자손 이빈, 이언열, 이언길 등이 과거에 합격함으로써 강진현 내 양반사족 가문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17) 『金陵邑誌』에는 이빈과 이의경만이 인물조에 기록되어 있다. 『금릉읍지』가 편찬된 시기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편찬되었고, 사찬읍지로 이해하는 것이며(김경옥(2013), 「『금릉읍지』 편찬 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학연구』 제52집, 호남사학회.), 다른 하나는 1793년 경에 편찬된 읍지로 전국지리지 편찬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김선경(2015), 「조선 정부의 강진 파악: 『금릉읍지』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제8집,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한편 1923년 간행된 『康津郡志』에는 사마안에 이빈, 이송로, 이언열, 이언겸, 이언길 등이 본관이 표시되지 않은 채 기록되어 있다. 또한 문과안에 이빈과 이언열이 기록되어 있다.

Ⅲ. 이시헌의 백운동별서 승계와 가문 현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운동별서가 만들어진 것은 이시헌의 6대조인 이담로부터였다. 이태래의 둘째 아들 이언길이 조부로부터 백운동별서를 승계받은 후 이의권, 이현박, 이덕휘에게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생원시에 합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18] 조선시대에는 4대 이내에 사마시에 입격하거나 또는 관직에 나아가야 양반으로 공인될 수 있었던 만큼[19] 이시헌의 과거 합격은 가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덕휘는 이시헌이 강진에 유배 온 정약용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덕휘가 정약용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시헌의 조부인 이현박이 해남 윤씨와 결혼하여 정약용의 외가와도 멀지 않은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이덕휘는 정약용보다 세 살 더 많았다. 이덕휘와 정약용이 월출산 등반을 하였는데, 당시 10세였던 이시헌도 함께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일회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1816년(순조16) 겨울 이덕휘는 진귀한 과일과 향기로운 술을 정약용에게 보냈다.[20] 또한 1817년 5월 28일 정약용은 이시헌이 부지런하고 독실하

18) 이복흠이 찬한 「자이당 이시헌 공 행장초기」에 의하면 증조부 이의권이 영조 기유년 1729년 사마시에 급제하여 부호군에 제수되고 동지 중추부사에 올랐다고 하였으나 이 내용은 이언길과 동일하다. 또한 족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무엇보다도 읍지 사마안에 이름이 없다. 후손 이시헌이 사마시 입격한 선조에 대한 행장이나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하다. 이에 이시헌의 아들 이복흠의 기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 송준호(1970), 『이조 생원 진사시의 연구』,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김동수(1988), 「조선시대 나주지방의 유력사족」, 『羅州地方樓亭文化의 綜合的硏究 : 金安洞 雙溪亭을 中心으로』, 전남:羅州郡: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박진철(2010), 「조선시대 지방 거주 사족의 사회적 지위 유지 노력과 사마시-나주 거주 사마시 입격자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1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원영환(1998), 「조선시대 생원, 진사와 춘천사회의 특성」, 『강원문화사연구』 제3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 『時簡日覽』 「謹拜謝狀」. : 정민, 앞의 책, 131~132쪽.

게 공부한다는 것을 이덕휘에게 알렸다. 이덕휘는 아들의 공부를 위하여 닭과 죽순, 藥油 등을 정약용에게 보냈다. 이에 정약용은『楚辭』1책과『杜詩』1책 등 서책 및 약유를 추가로 이덕휘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그해 12월 3일에는 이시헌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이덕휘에게 편지로 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시헌이 열여섯 살이 되던 1818년 8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가까이에서 배울 수 없게 되었고,[21]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다. 1825년 이시헌의 나이 스물세 살이 되던 해에 정약용은 봄 별시를 대비하여 10일 먼저 올라와 머물며 강론하다가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편지를 보냈다. 그 이후로도 정약용과 이시헌 사이에 향시와 관련한 편지가 오고갔다. 1830년 다산은 이시헌에게 어느 고을에서 시험을 보는지 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시헌은 끝내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22] 여러 차례 응시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 것은 당시 문벌에 따라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9세기 호남지역의 인물 가운데 기양연이 서울에서 유학하며 몇 차례의 시험을 거치고 어렵게 1867년 문과 회시에 합격한 일화로 미루어 봐도 그러하다. 19세기 지방에서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요행으로 인식될 정도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23]

과거 합격이 아니면 추천을 받아 관직에 나아가야 했다. 이언열 가계의 후손, 이의경, 이여박, 이대휘 등은 추천을 받았지만, 이언길의 후손은 이 방법도 여의치 않았다. 이처럼 더 이상 4대 내 관직 진출 또는 생원시 입격이라는 공

21) 이시헌은 다산의 18제자 이름이 기록된「茶信契節目」에는 없지만, 다산의 강진 유배기 동안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812~1818년 8월까지 다산의 문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2)『時簡日覽』「例樵謝書」;「斗陵侯狀」;「與白雲洞李時憲」: 정민, 앞의 책, 137~146쪽.

23) 권수용(2013),「간찰을 통해 본 장성 유생 기양연의 과거 합격 과정」,『남도문화연구』제2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식적 절차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24] 이 외에 사회통념상 방법이 있었다. 향존 조직이나 종족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서원에 선조를 봉향하거나 선조를 위한 재실을 만드는 일 등이 후자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시헌 가문에는 서원이나 재실에 모실 뛰어난 현조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종족과 관련한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 이시헌은 백운동별서의 주인이 되고 집안에 전해오는 문적을 정리하여, 선대의 문집과 행록을 펴내고, 집안에 전해오던 필묵들을 묶어 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백운세수첩』,『守拙菴行錄』,『七世寶墨』,『時簡日覽』 등이다. 이러한 책자의 편찬은 이시헌 가문의 중흥을 위한 원천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시헌의 책 편찬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백운세수첩』의 작성이다.[25] 이시헌은 자신의 가문과 관련하여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역사문화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백운동별서는 시내와 바위, 안개와 노을 등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당대의 명인들이 강진에 오면 꼭 들르던 곳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였던 만큼 이곳을 거쳐 간 사람들은 관련 시를 남겼다. 이시헌 가문에서 보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678년 지은 金昌翕(1653~1722)의「백운동 8영」이다. 김창흡은 15세에 이단상에게서 수학하고 1673년 진사가 된 후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세자시강원 진선 등에 임명을 받을 정도로 성리학과 문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다. 1662년(현종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 부수찬, 집의를 역임하고 강진에 유배된 적이 있었던 申命圭(1618~1688)는 1682년 가을「백운동초당팔영시」를 지었다. 이단상, 박세채의 문인으로 1665년 17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671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가독

24) 김현영(1999),『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25)『백운세수첩』은 소장자인 후손을 만나 문의하고 그가 엮은『백운세수첩』의 내용 중 일부가 백운세수첩으로 엮어진 내용임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백운동을 노래한 내용은 각종 문집에서 파악된다. (정민(2015), 앞의 책, 154~250쪽 참조.)

서하고 이후 이조정랑, 검상, 부제학, 대사헌, 전라도관찰사를 역임, 대사간, 개성부유수를 거쳐 부제학이 되었던 林泳(1649~1696)도 백운동 명원을 꿈에도 못 잊어 1689년 겨울 팔영시를 지었다. 1734년 등과하여 지평에 오른 宋翼輝(1701~?)의 시 10首도 포함되어 있었다. 백운동별서의 입산조인 이담로는 별서의 유래를 밝힌 「백운동명설」, 그리고 백운동의 여러 사물을 삶과 관련하여 「백운동유서기」 「백운동관물음」 등으로 남겼다.

이처럼 입산조와 당대 명인들의 시문을 한데 모아 『백운세수첩』을 책자로 만든 것이었다. 유명한 문인의 시를 통해 백운동별서의 가치를 좀 더 가시적이고 역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시헌은 발문에 이 집은 당대의 뛰어난 문인들이 종유하였던 만큼 귀한 옥처럼 백운동을 받들어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어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남겨 『백운세수첩』 작성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둘째, 이시헌은 집안에 남아 있던 간찰을 모아 다시 필사해서 『時簡日覽』이라고 하는 서간집을 책자로 엮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당시 별서에 전해지던 정약용의 간찰 3통도 여기에 필사되어 있다.[26] 1816년, 1824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824년에서 1828년 사이에 쓰인 편지였다. 그 내용은 이덕휘가 보낸 편지와 선물에 대해서 감사 인사, 편지 배달 사고 및 다음해 별시 준비에 대한 조언, 과거 시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차 공급과 관련되었다. 다산은 백운동을 직접 찾아가 그곳의 12경을 친필 시로 적어 제자 초의에게 「백운동도」와 「다산도」를 그리게 한 뒤 『백운첩』으로 꾸며 선물했다. 『백운첩』에 의해 비로소 백운동 12경이 명명되어 명성을 더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대의 명유 정약용과의 사적인 에피소드 및 감정의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

26) 『시간일람』의 전 내용은 살펴보지 못하고, 정민의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에 나온 내용만을 통해 다산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추후 다른 서간문의 내용을 통해 『시간일람』 작성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이처럼 간찰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기록이었지만, 이를 모아 책자로 편찬함으로써 집안에 누대로 이어져 온 교유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었다.

셋째, 이시헌은 1849년 7대조 이빈부터 자신의 아버지 이덕휘까지 선조의 遺墨을 모아 『칠세유묵』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27] 그 중에서도 7대조의 유묵부터 모아 만들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강진에 세거한 원주이씨 가문에서 문반적 성격을 드러난 시점부터 정리한 것이다. 7대조의 업적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마흔 중반의 이시헌은 1848년 성근묵에게 직접 찾아가 傳聞과 挽詞, 誄詞 등의 자료를 건네주고 행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근묵은 204년 전의 일을 자신이 저술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는지 굳게 사양하였지만, 이시헌이 "私家의 소장이라 대수롭지 않고 믿지 못해 그런 것입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하였다. 7대조 행장의 작성을 위한 이시헌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28]

그런데 7대조 이빈과 관련하여 당시 집에 전해지던 자료의 찬자들을 살펴보면 모두 당대의 뛰어난 문인이었다. 汾西 朴瀰(1592～1645)는 반남박씨로 이항복의 문인이며, 선조의 다섯째 딸과 혼인하였고, 張維와 교유하였으며, 그의 조카가 박세채였다. 仲峰 朴漪(1600～1644)는 1628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성균관 학유, 전적 등을 거쳐 사가독서를 한 문신이었다. 惺菴 李壽仁(1601～1661)은 강진 출신으로 이조판서 이후백의 증손이며 문과 급제 후 여러 관직에 두루 제수되고 경사와 성리학에 모두 밝은 인물이었다. 이들은 모두 17세기 유명 인사들이었다. 그들을 통한 7대조 행적의 정리는 당시의 인사들

27) 『칠세유묵』의 내용은 소장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하였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28) 성근묵(1784～1852)은 1838년(헌종4) 양근군수로 재임시 이조로부터 재학이 뛰어난 인물로 추천을 받아 경연관을 역임하고, 1852년(철종3) 형조참의에 임명되었는데, 그 후 파산의 파산서원에서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 때 이시헌도 성근묵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파산서원(坡山書院)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서원이다

이 이빈의 죽음을 아쉬워했음을 밝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빈이 '영예롭고 명망 높은' 인물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그 권위로 양반사족의 면모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넷째, 사마시에 합격한 고조부 이언길의 행록을 모아 『守拙菴行錄』을 만들었다. 이언길과 부인 전주 최씨는 함께 장수하여 1763년(영조39) 회혼례를 하였다. 회혼례와 장수 두 가지 경사를 추모하며 관련 시 10여 개를 모아 한 권의 책자를 작성한 것이다. 이언길은 앞서 살펴봤듯이 늦은 나이였지만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담로의 당부를 잊지 않고 백운동별서를 후손에게 전달하였다. 수졸암 이언길은 이시헌 대에 거처할 공간과 양반사족으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 있게 해 준 선조였다. 이시헌은 직접 가장초기를 작성하여 『수졸암행록』을 책자로 만들었다. 그는 그 후손에게 "그저 그 땅의 소출만 받아먹는다면 이것은 할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곳에 주인 노릇을 하게 하거나 그 땅을 팔아먹는 것 또한 할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각별히 삼가 준수해서 선대의 뜻을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다"고 하여 백운동별서를 길이 후대에 전하도록 하였다.[29]

요컨대, 19세기 전반 세도정치기 지방 유생들은 문과 급제는 커녕 사마시 입격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향촌에서 양반으로 공인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대에 걸쳐 여러 문인들과 교유가 이루어졌던 백운동별서를 강조하고, 과거에 합격했던 선조들의 글을 모아 책자로 묶어 엮은 것은 재실이나 서원이 없었던 이시헌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사회에서 권위 유지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9) 「수졸암 이언길공 家狀草記」 : 정민, 앞의 책, 299~303쪽.

Ⅳ. 이시헌의 교유관계와 향촌활동

백운동별서 및 과거에 합격한 선조와 관련된 책자의 제작은 곧 “현조를 받들고 한 장원을 점유하여” 문호를 유지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30] 이외에도 이시헌은 향촌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방사회에서 양반사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촌사회에서 교화를 담당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이시헌의 성리학적 소양은 향촌사회에서는 상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젊어서 性理의 글만을 궁구하였다.[31] 흰머리가 되도록 경전을 궁구하는데 노력을 다하며 효제충신에 마음을 다 쏟고 九經四子와 九流百家의 서적을 두루 살폈다.[32] 이렇게 학문에 경주하여 비록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죽자 당시에 여러 집안사람들이 부고를 듣고는 모두 탄식하며, “가문의 운수가 막혀 이 사람이 문득 세상을 뜨니 신진 후학의 무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을 곳이 없겠구나.”라며 울음을 삼키기도 하였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 후손들에게 “공이 떠난 뒤로는 기댈 곳이 없다”고도 하였다.

종족의 인정뿐만 아니라 강진으로 부임 받은 태수들도 반드시 직접 집을 찾아와서 예를 표하였다. 당시에 이름나고 어진 분들이 이따금 편지 글 사이에서 만남을 의탁하여 우편으로 학문의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또한 상서 徐憲淳(1801～1868), 판서 사고 朴承輝(1802～1869), 상서 李寅奭 등은 모두 이시헌을 ‘큰 덕이 있는 자’, 공자의 제자 ‘顔子’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

30) 국중에서 莊墅(莊園, 사대부의 향촌 생활공간을 지칭함)의 훌륭함으로 말하면 영남지방이 으뜸이다. 그렇기에 사대부들이 정치현실에서 곤경에 처하기 수 백 년에도 지위와 부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쪽 풍조가 각기 한 현조를 받들고 한 장서를 점유하고서 일족이 모여 흩어지지 않고 사는 까닭에 지키기를 공고히 하여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跋擇里志」)

31) 『桂陽遺稿』 卷3, 「白雲處士自怡先生行錄」.

32) 『桂陽遺稿』 卷3, 「先府君行狀草記」.

그의 교유관계에서 주목되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우선 동문 黃裳(1788~1863)은 62세인 1849년에 강진읍 남쪽 40리 거리에 있는 대구면 백운동에 일속산방을 짓고 살면서 시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다. 다산의 조카 정유상이 내방하였고, 성암 유종삼, 윤종민 등과 함께 월출산을 오르기도 하였다. 전라도 무주에 이배된 申觀浩와는 좀 더 각별한 사이였다. 이시헌은 신관호, 김소 등과 함께 1844년 한산도에 있는 제승당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고, 1845년에는 장편시를 지어 보내며 회고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이선생집』의 記나 序를 통해 볼 때, 안주면 강진현 내에서 국가의 공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였음이 드러난다. 이시헌은 안주면 내에서는 금송계 면약의 서문을 썼고, 강진현 내의 사직단 중수기 및 사직단 재사 상량문, 객사 중수기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송계면약 서문을 작성하였다. 강진에도 명현들이 주도하는 향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33] 이시헌 당대에는 면약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헌이 금송계 면약의 서문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일향의 교화를 사족이나 향족이 자치적으로 맡았다면, 조선후기에는 명현들에 의해 실시되던 향약이 줄어들고 흉년으로 폐지되기도 하면서 수령 주도의 면약이 나타났다. 조선후기 수령이 직접 주도하는 주현향약으로 面[또는 坊]-里의 구조를 단위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面約 또는 坊約이라고 하였다. 특히 1734년(영조10) 장흥 유학 위세봉은 상소를 올려 풍속이 확고하지 않은 해변 백성을 대상으로 수령 주도의 면약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18세기 후반 이후 향촌질서의 이러한 변화가 강진에도 나타났고, 이시헌은 여기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33) 선조 이빈의 행장에 의하면 그는 17세기 鄕先生으로 향촌 교화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약의 목표는 禁松이었다. 금송은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소나무를 기르는 養松과 함께 지방의 수령이 관리하는 松政의 핵심이었다. 이미 조선 전기부터 송정과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었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국가적으로 파악되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강진에는 황장목을 禁養하는 산림이 26곳이 있었다. 이것과는 별개로 안주면에서 금송계를 조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헌은 금송계면약 서문에 금송계를 조직하게 된 이유로 '養生送死'를 제시하였다. 어버이를 생전에는 봉양하고 사후에는 장사지내는 것인데, 그 핵심 재용이 바로 나무였다. 즉 나무는 관곡의 재용이자 성리학의 효 이념에도 필요한 재용이었다. 과거 안주면은 월출산 아래에 나무가 무성했지만, 땔나무를 장만하고 가축을 먹이는 일로 벌목이 심해져서 가지, 줄기, 뿌리까지 뽑아 벌거숭이 산이 되었다. 효자들은 그곳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며 울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무를 기르는데 힘쓰는 養松을 위해서 금송계를 상의하여 조직한 것이었다.[34]

둘째, 강진현 내의 사직단 중수 기문과 사직단 재사 상량문을 작성하였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로 사람은 땅이 있어야 살고 곡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사직을 경배했다. 조선건국 후 각종 사교를 폐하고전국적으로 사직단이 설치되었다. 강진현의 사직단은 『여지도서』에는 관아의 서쪽 2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후의 『강진군지』에 의하면 관아의 서쪽 3리로 표시되어 관아로부터 5리 이내에 설치하는 원칙에 부합되어 있었다. 1669년(현종10) 재우를 단 아래에 건립하고 여기에 사판을 봉안하였다. 이시헌은 강진에서 떠나 4년 만에 돌아온 후 사직단을 둘러보았는데, 壇壝, 神室, 齋舍 등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고 기울어져 볼 품 없었다. 그런데 사전은 사람을 다스리고 신을 섬기는데 중요한 장소이므로 읍인들에게 이를

34) 『自怡先生文集』, 「禁松禊面約序」.

자문하고 목재를 모아 새롭게 세우기로 도모하였다. 이 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해전에 먼저 재사를 수리하고 북쪽의 훼손된 단유를 축조하고 門墻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로써 신이 편안하고 또 기뻐하여 홍수나 가뭄의 재해를 방지하고 위독한 병을 얻는 자가 없어 강진읍의 백성들이 편안할 것이라는 기원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사직단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양반사족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가의 영역이었고, 국왕의 대리인인 수령의 업무 영역이었다. 사직단은 국가의 지방지배가 잘 관철된 곳으로 그 중수는 조선후기 지방지배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기문을 이시헌이 작성하였던 것이다.

셋째, 객사중수기가 있다. 강진현은 영토는 치우치고 작지만 수륙이 교차하여 육지와 바닷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병영에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절도사의 내왕, 사신 맞이, 해외공헌을 수송하고 검사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읍치에서는 접객, 유숙을 위한 객사를 운영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점차 객사의 주요한 기능이 전패의 봉안과 행례처로서 중시되고, 망영례를 행하면서 국가적 의례의 장소로 강조되고 있었다. 객사는 국왕을 상징하는 殿牌와 궁궐을 상징하는 闕牌를 정청에 안치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국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배향하는 한편 중앙에서 내려 온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하던 곳이었으므로 중앙집권적 왕권을 추구하는 조선의 읍치에서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이며, 이러한 중수기를 이시헌이 작성하였다.

이시헌은 정약용과 성근묵을 스승으로 하여[35] 성리학적 소양을 쌓고 향촌사회에서 활동하며, 종족, 지방관, 향촌유생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소나무 정책, 천지 사직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 망영례가 행해지는 객사 등은 모두

35) 이시헌은 4년 동안 강진 지역을 떠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성근묵에게서 수학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국가가 수령 중심으로 향촌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던 사항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때 이시헌은 백운동별서에 은거하는 도학적 면모보다는 19세기 중반 향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성리학적 능력을 발휘하며 향촌의 양반사족으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Ⅴ.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시헌이 백운동별서에 거처하기까지 그의 선조들은 혼인을 통해 원주에서 광주로 이거하였고, 16세기 광주에서 해남을 거쳐 강진 금여로 거주지를 옮겼다. 17세기 이시헌의 6대조 이담로에 이르러서는 백운동별서를 별장 정도로 이용하다가 4대조 이언길 대에 생활 거처로 삼게 되었다. 또한 8대조 이해와 6대조 이태래가 호남지역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백광훈과 안방준 가문과 통혼을 하고, 그 후 그 자손 이빈, 이언열, 이언길 등이 과거에 합격함으로써 강진현 내 양반사족 가문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19세기 전반 세도정치 시기 지방 유생들은 문과 급제는커녕 사마시 입격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양반으로 공인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대에 걸쳐 여러 문인들과 교유가 이루어졌던 백운동별서를 강조하고, 과거에 합격했던 선조들의 글을 모아 책자로 묶어 엮은 것은 재실이나 서원이 없었던 이시헌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사회에서 권위 유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시헌은 정약용과 성근묵을 스승으로 하여 성리학적 소양을 쌓고 향촌사회에서 활동하며, 종족, 지방관, 향촌유생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소나무 정책, 천지 사직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 망영례가 행해지는 객사 등은 모두 조선

후기 국가가 수령 중심으로 향촌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던 사항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때 이시헌은 백운동별서에 은거하는 도학적 면모보다는 19세기 중반 향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성리학적 능력을 발휘하며 향촌의 양반사족으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현재 백운동별서는 이시헌의 직계 후손이 대를 이어 지켜오고 있다. 6대 동주 李冕欽(1824~?)과 7대 동주 李瓛永(1856~1928), 8대 동주 李大林(1875~1928), 9대 동주 李棁默(1910~?), 10대 동주 李孝天(1933~2012), 11대 동주 李承鉉에 이르기까지 13대째 직계의 후손으로만 한 줄기로 대를 이어 지켜왔다. 원주이씨 이시헌 가계는 백운동별서 곧 정원의 소유를 통해 양반사족의 지위를 유지 한 호남지역의 특색 있는 양반사족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自怡先生文集』
『原州李氏世譜』(이중효 소장본)
『桂陽遺稿』
『백운세수첩』
『金陵邑誌』
『輿地圖書』
『萬機要覽』
『康津郡志』(1923)

2. 단행본

강진향교편(1967),『康津郡誌』, 康津 : 康津鄕校.
김현영(1999),『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임형택(2007),『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송준호(1970),『이조 생원 진사시의 연구』, 국회도서관.
정 민(2015),『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글항아리.

3.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

권수용(2013),「간찰을 통해 본 장성 유생 기양연의 과거 합격 과정」『남도문화연구』 제2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45~168쪽.
김경옥(2013),「『금릉읍지』 편찬 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역사학연구』 제52집, 호남사학회, 63~86쪽.
김동수(1988),「조선시대 나주지방의 유력사족」,『羅州地方樓亭文化의 綜合的硏究 : 金安洞 雙溪亭을 中心으로』, 전남 : 羅州郡 :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1~28쪽.

金奉楠(2008),「자이선생집해제」『茶山學團文獻集成』권5, 대동문화연구소.
_____(2009),「茶山 제자 李時憲의 詩文에 관한 一硏究」『東方漢文學』第38輯, 동방한문학회, 109~133쪽.
김선경(2015),「조선 정부의 강진 파악:『금릉읍지』를 중심으로」『다산과 현대』제8집,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29~256쪽.
김용흠(2015),「중앙과 지방의 학술 소통: 다산학과 다산학단」『다산과 현대』제8집,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99~346쪽.
박진철(2010),「조선시대 지방 거주 사족의 사회적 지위 유지 노력과 사마시-나주 거주 사마시 입격자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제41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139~166쪽.
원영환(1998),「조선시대 생원, 진사와 춘천사회의 특성」『강원문화사연구』제3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48~266쪽.
林熒澤(1998),「丁若鏞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한국한문학연구』제21집, 한국한문학회, 113~150쪽.
임형택(1997),「원주세고 해제」,『原州世稿』, 蓮潭文庫.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이트
http://www.memoryhonam.co.kr/sub02/sub02_detail.php?seq=1411

투고일: 2017. 05. 14.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4.

| 국문초록 |

19세기 자이당(自怡堂) 이시헌(李時憲)의 '백운동별서(白雲洞別墅)' 승계와 향촌활동

원주이씨가 강진에 정착하게 된 것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그 후 이시헌의 6대조인 이담로가 '백운동별서'를 건립하였다. 백운동별서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별장으로 알려져 전국의 문인들이 강진지역을 들릴 경우 이곳을 방문하여 시문을 남겼다. 4대조 이언길 대에 이르러서는 생활거처지로 활용되면서도, 과거의 명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시헌가는 8대조 이해와 6대조 이태래가 백광훈과 안방준 가문과 통혼관계를 맺어 지역의 양반사족 가문으로 성장해나갔다. 그 후손 이빈, 이언열, 이언길 등은 과거에 합격함으로써 강진현 내 양반사족 가문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전반 세도정치 시기 지방 유생들은 문과 급제는커녕 사마시 입격도 어려워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시헌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가문의 경우 재실이나 서원을 재건하여 그 위상을 강조하였다면, 이시헌 가는 이와는 다른 공신력 있는 요건들을 부각시켰다. 바로 누대에 걸쳐 여러 문인들과 교유가 이루어졌던 '백운동별서'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은 이시헌이 담당하였다.

이시헌은 정약용과 성근묵을 스승으로 하여 성리학적 소양을 쌓고 향촌사회에서 활동하며, 종족, 지방관, 향촌유생들과 교유하였다. 그의 문집에는 향촌의 소나무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글이 확인되며, 사직단 중건기, 객사 중건기 등이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수령 중심으로 향촌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 이시헌이 참여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이시헌은 '백운동별서'에서 은거하면서 도학적 면모로 일관하는 삶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백운동별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정리를 통해 '백운동별서의 중흥조'가 되었고, 수령 중심의 향촌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진 지역의 양반재지사족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백운동별서(白雲洞別墅), 이시헌(李時憲), 중흥조(中興祖), 원주이씨(原州李氏), 강진(康津), 가문현창(家門顯彰), 자이당(自怡堂)

호남문화연구 61: 193~22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의 국방의식과 남북제승대책(南北制勝對策)

National Defense Consciousness and South-North Winning Measures of Songcheon Yang Eung-jeong

양 승 천*
Yang Seung-Cheon

목 차

Ⅰ. 머리말
Ⅱ. 양응정의 생애
Ⅲ. 양응정의 국방의식
Ⅳ.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
Ⅴ. 맺음말

| Abstract |

Yang Eung-jeong was a scholar and loyal patriot in mid-Joseon period. He was a scholar and yet a military strategy expert, which draws our attention.

The Joseon dynasty, since its founding, continued maintain a subservient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hinese Ming based on the pillar of investiture and tribute. Its national defense was not really threatened except by the northern Jurchen and the southern Wokou. In mid-16th century, Joseon suffered heavily from the ceaseless plunders and invasions by the Jurchen and Wokou in border areas.

Joseon took the aggressive-defensive operation against the Jurchen's invasion; defense mode during usual times and attack mode in other times. When the Jurchen's invasion left small damage, Joseon let it go, while

* 전남대학교

when Joseon suffered heavy casualties, it carried out punitive operations. It prepared military measures to defend against the Wokou. Joseon worked out measures to build fortresses and to refine the signal fire system in an effort for defense in coastlands where the Wokou landed ashore, while refining its navy to repel the Wokou.

Yang Eung-jeong served as an officer for military issues in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building up experience in the Defense Ministry, and as Chunnam military governor. Such first-hand military experience made him better know about Joseon's military problems, including shortcomings and measures. Thus, he, although he was a civil officer, taught his sons military strategy or battle formation, and attached importance to the military matters after predicting the surrounding situations.

Yang Eung-jeong, as a Confucian scholar, knew well what he had to do for the state. He, however, had a special interest in military matters because of the then perilous state situations. He pursued military strategy and tactics as a political expediency. He well recognized the risks of attacks from Jurchen and Wokou, which others would hardly recognize, and responded well to such situations. Such national defense consciousness of Yang Eung-jeong allowed him to win the top spot in the state-administered civil/military examination in February 1556 by discussing 'South-North winning measures', presenting his excellent insight into the national defense.

Yang Eung-jeong planned South-North winning measures based on the internal strength and external power enhancement. He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people's tax and forced labor, stabilizing their livelihoods, and that fortresses and strongholds as well as should be repaired and improved to defend the country. Through South-North winning measures, he emphasized the carrot-policy for the Jurchen rather than the stick policy, and emphasized defense measures against Wokou. In particular, he insisted that he emphasized moral influence on the Jurchen, appeasing them and stabilizing their devastated livelihoods of the northern people. Regarding the Wokou, he judged that the border area defense was

not properly conducted amid peace lasting long, and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appointment of fostering of generals, the training of military, and the building of warships. He also insisted that such military power should be supervised by the Defense Ministry, and that the dedicated system and responsibility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and unification of policy.

Yang Eung-jeong's South-North winning measures were excellent to the extent of allowing him to pass the state examination as the top winner, so that the measures greatly influenced the state's military policy. In particular, the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winning strategy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Jeolla-do navy. This greatly influenced the later-day theory of fostering 100,000 troops by Yulgok Yi I, and also greatly influenced Joseon such that it appointed Admiral Yi Sun-sin to make warships and to train troops, leading the victory of Imjinwaeran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Yang Eung-jeong's South-North winning measures are understood to be based on the very philosophy of putting national wealth and people safety first. He worried about and valued the national defense, and consequently insisted on South-North winning measures in an effort to achieve national wealth and people safety. Thus, Yang Eung-jeong's South-North winning measures should be highly evaluated.

In today's reality where South and North Korea confront each other, and where Japan is strengthening its military, Yang Eung-jeong's South-North winning measures will surely further raise Korean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Key words : Yang Eung-jeong, national defense consciousness, South-North winning measures, internal and external strength measures, winning strategy system, national wealth and people safety

Ⅰ. 머리말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1519~1581)은 조선 중기 문인으로, 군략에 조예가 있는 병법과 전술 등에 일가견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북쪽 여진과 남쪽 왜구의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나라 사정을 걱정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병법까지 가르쳤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내 자신을 잘 살피지는 못했지만, 다만 강한 활로 오랑캐를 쏘아 맞칠 수 있다"라고[1] 하였다. 글에 능한 그가 이처럼 굳이 강한 활로 오랑캐를 쏘아 맞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나라를 걱정한 데서 나온 무인의 기개를 보인 하나의 예이다.

조선 왕조는 개국 초부터 명나라에 대하여 책봉과 조공 관계를 축으로, 사대외교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때문에 여진과 왜구 문제를 제외하고, 국방상 그리 큰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다. 16세기 중엽 조선은 여진과 왜구의 끊임없는 약탈과 침범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선은 여진 침입에 대응해 강온 양면 작전을 취하여, 평상시에는 수비 위주로 하다가 때로는 공격을 감행하였다. 조선 전기 2백여 년 동안 여진 정벌이 20여 차례 이루어졌는데, 대개 여진 본거지를 곧바로 공격하여 그 부락을 소탕하였다.

조선은 왜구를 막기 위한 군사적 대책도 마련하였다. 왜구가 상륙하는 연해 지역에 성을 쌓고 봉수제를 정비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는 한편, 병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왜구를 격퇴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방어 태세가 정비되고 침범에 대한 군사적 응징이 강화되면서, 왜구의 침범과 위세는 잦아드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교 교섭과 군사적 대책만으로 왜구를 억눌러 침범을 못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양응정은 미래에 왜구의 침범이 크게 있을 것을 예견하였다. 그래서 자녀들

1)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國譯註解 松川集』, 장산재, 369쪽.

에게도 군략을 익히는 군대의 진을 치고 싸우는 방식을 가르쳤다. 항상 자녀들에게이르길, “남방에 우환이 닥칠 것이 머지 않았다. 내가 못 보더라도 너희는 모름지기 배운 바를 저버리지 말고, 아비가 국록을 먹었던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한다”[2] 하며, 평소 간직했던 우국애군하는 정성을 보였다.

양응정이 타계한 10년 후, 왜구가 남방으로부터 크게 침범하여 비참한 전란이 일어났다. 무려 7년간이나 지속된 일대참극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이 두 전란을 예견한 것이다.

지금까지 양응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권순열에 의해 양응정의 생애와 교유관계, 임억령과의 수창시, 승려와의 교유시, 사행시, 만시, 문학사적 위상 등문학적 측면이 연구되었다. 최근에 와서 그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양응정의 문학적 측면을 연구한 데 대하여, 여기서는 그의 국방의식과 국방대책에 관해 연구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양응정의 생애를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양응정의 국방의식을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양응정의 생애와 국방의식을 통해, 당시 조선의 변방 여진과 왜구의 침입에 대해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였는가. 양응정이 제시한 남북제승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양응정의 생애

양응정(梁應鼎, 1519~1581)의 자는 공섭(公燮), 호는 송천(松川),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그는 1519년 1월 14일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3남으로 전남

2)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78쪽.

화순군 도곡면 월곡에서 출생하여, 1581년 9월 12일 63세로 별세하였다.

양응정의 생애는 이집(李集)이 지은 「송천선생 행장」이 있다. 이 행장에는 양응정 선조들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그의 일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가 죽은 후 처와 자식들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일과 정유재란 때 자결한 일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행장을 통하여 양응정 생애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가 있다.

양응정의 어린시절은 수난으로 시작된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부친 양팽손이 기묘사화에 휘말려 관직을 박탈당했다. 이 사화로 부친이 존경하던 조광조는 사사되었고, 그의 많은 동료들이 귀향갔거나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의 유년기는 부친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시기였다.

양응정이 5세 때 그의 부친은 월곡의 옛 집을 버리고, 중조산 속 쌍봉리[3]로 들어가 그 곳에 단칸 집을 지었다. 양응정은 그 집 벽에다 큰 붓으로 "문왕의 아들로 무왕이 태어났네"라고 쓰고, 그 곁에다 대구로 아버지 휘와 자신 이름을 써 "아무의 아들로 아무가 태어났다"[4]라고 썼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문왕와 무왕은 중국의 역사상 성군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양응정이 문왕과 무왕을 연결시켜 부친을 거론함으로, 평소 훌륭한 인물로 여겨왔던 부친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부친의 정당성을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학업을 닦는 시기라 할 수 있는 7세부터 33세까지 기록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응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문에 뛰어났고, 학업을 닦는 데 스승과 어른의 특별한 가르침이 없이 스스로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는 특정한 스승이 없이 부친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것이다. 양응정의 행장에 수학과 관련있는 다음

3) 중조산(中條山) 속 쌍봉리(雙峰里)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마을이다.

4) 文王之子武王出 又對書 學圃先生諱 及先生小學曰 某之子某出 (梁應鼎 著, 梁鴻烈 譯 (1988), 앞의 책, 364쪽.)

과 같은 기록이 있다.

> 휴암 백인걸이 쌍봉정사로 학포 선생을 찾았을 때 선생은 마침 중용을 읽고 있었다. 휴암은 선생의 재주를 시험해 보기 위해 반복해서 이것저것 자세히 물었다. 그러나 선생의 대답은 틀리거나 막힌 데가 없었다. 휴암이 돌아가서 영천 신잠에게 말하기를, "내가 양동자를 만나 보았는데, 그의 문장은 이미 성숙했고, 자못 경술까지 있어 후일 마땅히 사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5]

양응정 가문에서 실시한 교육 방법은, 당시 일반적인 교육 방법과는 달랐다.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역자이교지(易子而敎之) 방법이었으나, 양응정 가문 교육 방법은 이와는 다른 추정(趨庭) 방법이었다. 이 추정 교육 방법은 공자가 자신의 아들 리(鯉)를 직접 교육한 것과 같은, 부친이 직접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을 말한다.[6]

양응정은 16세 때 모친을, 27세 때 부친을 잃는다. 그는 부모를 잃은 슬픔속에서도 예서와 경서 읽기에 조금도 게으리함이 없었다. 그의 성품은 온화하고 엄숙하였으며, 언행은 간략하면서 고상하였고, 재주가 많고 깔끔하여 좀처럼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7] 이러한 그의 성품과 행동은 그가 대단한 자존심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런 강직한 성품이 사간원 정언에 임명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관뿐만 아니라 선후배도 그의 높은 기개와 절조, 넓은 재주와 도량을 인정하였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기상이 뛰어나고 확고하여 서로 맞설 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고,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1527~1572)도 그의 정밀한 학식과 해박한 문장력에 대하여

---

5) 白休菴仁傑 適訪學圃先生于雙峰精舍 是時先生讀中庸 休菴欲試其才學 反覆詳問先生應對無遺 休菴歸語申靈川潛曰 吾見梁童子 文章已成而頗有經術 他日當師表矣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65쪽.)

6) 권순열(1995),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硏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5쪽.

7)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66쪽.

칭찬하였다.

양응정이 학업을 닦는 시기에 있어 중요한 사건은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과 만남이다. 이들이 당성(棠城), 지금의 해남에서 만나 수창시를 나눈 것은 32세 때 1550년 겨울이었다. 이때 두 사람은 61수나 되는 많은 시를 수창하였다. 양응정은 임억령과 만남이 있은 2년 후 1552년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다음은 양응정이 벼슬길에 나아간 34세부터 59세까지 기록에 대해 살펴본다. 그의 벼슬길은 34세 때인 1552년 급제후 홍문관 정자로 임명되면서 시작된다. 1553년 시강원설서로 옮기고 사가독서에 들어갔다. 그 후 홍문관 부수찬과 예문관 봉교와 대교를 거쳐 홍문관 수찬으로 승진하였다. 그는 임금으로부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주위의 견제와 압력으로 한때는 외직으로 나와 전라도사, 순창현감을 역임하였다.

1556년 38세 때 다시 조정에 들어와 사간원 정언, 공조, 예조 좌랑 등에 이어 병조좌랑이 되었다. 이때가 바로 을묘왜변 이듬해 1556년이다. 당시 조정에서 을묘왜변으로 인한 교훈을 삼고자 북쪽 여진과 남쪽 왜구에 대한 대책(이하 '남북제승대책(南北制勝對策)'[8]이라 한다)을 물었다. 이때 그는 국가 방위에 대한 자신의 뛰어난 대책을 내놓아 문과 중시에서 장원을 하였다.[9] 이로 인해 이조좌랑으로 승진하였다. 39세 때 삼사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두루 거쳤다.

1559년 41세 때 척신 이량(李樑)과의 갈등으로 외직으로 나가 관서 및 관북 평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이러한 외직을 통해 내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대륙의 상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564년 46세 때 고시관으로

8) 양응정이 1556년(명종 11) 중시에서 장원할 때 대책에는 이름이 없다. 권순열(1995), 앞의 논문, 26쪽에서 권순열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9) 문무과 중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증서를 수여했는데, 문과에 공조 좌랑 양응정 등 9인, 무과에 유용 등 20인을 뽑았다.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2월 20일 기사)

천도(天道)라는 제목으로 선비들을 책문하여,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를 장원으로 뽑았다. 중국 사신이 와서 그 책제와 대책을 보고 "천하 문장이 낸 책제이고, 일대의 현사가 쓴 대책이다"라고 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10)]

1567년 49세 때 광주목사로 나가 3년간 선정을 베풀고, 1570년 진주목사로 옮겼다. 이때 임진왜란 때 명장 신립(申砬, 1546~1592) 장군을 만난 것이다. 양응정이 당시 판관이던 신립을 훌륭한 제목으로 여겨 말하기를, "내 공을 보니 장차 국가에 크게 쓰일 인물인데 학문을 닦지 않으면 안되니 지금부터 나에게 배우게"하니, 신립은 제자같이 배웠다.[11)]

그 후 대사간, 성균관대사성, 경주부윤 등을 역임하고, 1577년 이조참의에 임명되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성균관 대사성에 다시 임명되었다. 그 후 외직인 황해감사로 내보내려 하자 귀전부를 짓고, 고향 나주 박산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대해 살펴본다. 양응정이 관직에서 물러나 제자를 가르칠 생각으로 59세에 고향 박산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고향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특히 경전의 토석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는 후세 교육을 위한 교재발굴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과 주고 받은 서신, 그의 행장 등을 통해 볼 때, 그는 자제와 문도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경전의 토석과 같은 교재발굴에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찾아오는 제자들을 교육하다가 1581년 9월 12일 63세로 고향인 박산 집에서 생을 마쳤다. 문하생으로는 송강 정철, 죽천 박광천, 일휴당 최경회 장군, 옥봉 백광훈, 고죽 최경창, 정훈 장군 등이 있다.[12)]

---

10)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71~372쪽.
11)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같은 책, 373쪽.

Ⅲ. 양응정의 국방의식

양응정 사상의 핵심은 충(忠), 신(信), 신독(愼獨)의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충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경우에 취하는 도리를 말한 것이며, 신은 사회적인 모든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다. 신독은 개인수양 덕목으로 자기 양심에 대한 자신의 도리를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양응정의 사상은 유교에서 선비가 지키고 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동 지침들이다. 양응정 사상의 핵심은 현실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는 생활적인 실천철학이었다. 그가 중시(重試)에서 '남북제승대책'으로 장원을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양응정은 국방과 관련해 조정에 근무할 당시 내직으로 병조와 외직으로 광주도사를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자신이 몸소 조정과 국경의 변방에 근무하면서 보고 들은 체험을 통해서, 조선의 방위 문제에 있어 무엇이 결점이며 그 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을묘왜변을 통해 왜구의 갑작스런 침입에 놀란 군사들이 소문만 듣고도 무너지고 흩어져, 수전과 육전 할 것 없이 모두 손을 쓸수가 없었고, 거기에 조정의 논의까지 정당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13] 그는 자식들의 재주와 학문이 어느 정도 성취되자 병법을 가르쳤다. 그는 이미 나라 안팎 상황을 예견하고 병사(兵事)를 중시한 것이다. 이것은 병사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학자로서 병사를 중시한 그의 태도는 드물기도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가 속했던 사회에 대하여 유학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 사명감의 발로이다.

---

12)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같은 책, 12쪽.
13)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257쪽.

언제나 주자의 시, '모든 일을 충과 효 그 밖에서 찾지 말라'라는 한 구절을 외워 깨우치곤 했다. 그들의 재학이 어느 정도 성취되자 틈이 있을 때면 또 진도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르기를, "군려의 일이란 선비로서 우선해야 할 것은 아니나, 이것 또한 궁리의 일정이다. 옛 선비도 오히려 궁구한 바가 있으니, 선비들도 또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14]

양응정은 외직인 전라도사와 순창현감을 통해 백성의 생활과 전라도 해안에 침입하는 왜구와 전라도 수군에 대한 상황을 좀더 실증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가 사직의 안위에 대해 더욱 근심을 했던 것도 이러한 실증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全羅兵營題詠	**〈전라병영에서 읊다〉**
王度曾包納	임금의 도량 일찍이 만물을 감싸고
天威且用憑	높으신 위엄을 여기에도 보이셨네
鑿門牙爪壯	문 지키는 장병들 모습 씩씩하니
掃海浪波澄	바다 말끔하고 물결 맑고 잔잔하네
帳下紅旗簸	장막 아래에는 붉은 기가 펄럭이고
樽前翠黛凝	술통 앞에 푸른 산 경치 머무르네
滿城雲日麗	성 가득히 구름 햇빛 곱게 빛나고
築作罷丁登	병영을 쌓고서 정등도 없어졌다네[15]

이 시는 양응정이 전라도사로 있을 때 강진에 있는 전라병영을 방문하여 지은 시이다. 그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 경계를 하니 왜

14) 每誦朱子萬事不求忠孝之外之句 以警之 及其才學之各就 講業之暇 亦授陣圖曰 軍旅之事非儒者所先 而此亦窮理之一事 先儒尙有所究 儒亦不可不知也.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77쪽.)

15)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같은 책, 57쪽.

구의 침범이 없어 바다와 백성이 평안함을 알 수 있다. 또 병영을 쌓아 경계를 튼튼히 하므로 젊은 장정들이 군대에 동원되는 일도 없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는 항상 왜구의 침범이 심상치 않음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수군과 해안 방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시도 양응정이 수군과 해안 방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全羅右水營太平亭 **〈전라 우수영의 태평정〉**

作鎭年來事事雄 이 진을 둔 일부터 매사가 웅걸터니
津頭新構壓鴻濛 나루머리 새 정자가 홍몽을 압도하네
凌風萬舸旗幢出 기를 꽂은 수 많은 배 풍파에도 끄덕없어
虜膽先搖日本東 일본 오랑캐 놈들 간담이 먼저 서늘하리

將軍刮寇擁樓船 적 소탕을 위한 장군 누선을 끼고 앉아있고
勝策空彈壯士弦 승리 다지는 장사들은 빈 활시위를 퉁기고 있네
夕照歸來簫鼓動 석양되어 돌아 오니 진동하는 소고 소리에
海山千疊舞羣仙 겹겹 쌓인 해산에서 물 신선이 춤을 추네[16]

양응정이 명종 11년(1556) 실시된 중시에서 '남북제승대책'으로 장원할 당시, 왜구에 대한 대책으로 인재양성, 수비 위주의 전술, 병선 제작을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양응정은 문인이었지만 병조좌랑과 전라도사, 순창현감 등 병조와 외직을 거치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심상치 않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대륙에서는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가는 만주족의 형세, 남해안에 끊임없이 출몰하는 왜구의 침범 등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상황이 그에게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래서 가끔 나라 일에 언급을 하면, 곧 의분에 찬 목소리로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16)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1쪽.

것이다.[17]

> 평상시 어쩌다가 나라 일에 언급이 되면 곧 의분에 찬 목소리로 탄식을 하면서 이르길,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기 누란과 같은데 지키는 자는 이렇듯 허술하다. 편안히 즐기며 세월을 보내면서, 그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니 심히 걱정스럽다. 남쪽의 근심이 멀지 않는데 나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배운 바를 저버리지 말고, 내가 벼슬했던 은혜에 보답할지어다"라고 했다. 선생의 나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이처럼 겉에 드러났다.[18]

양응정은 자식들에게 머지않아 남쪽에 외환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분란과 허술한 변방 경비로 국란이 있을 것을 예견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선견지명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외직을 맡으면서 얻게 된 국방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의 결과이다. 그는 오래지 않아 있을지 모를 변란에 대비해 자식들을 교육시킨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런 대비책도 놀랍지만 자식들에게 당부한 내용이다. 국가에 보답하여 자신의 충성심을 잇도록 한 것은 오래도록 학식과 덕행이 높아 세상 사람의 표적이 될 만한 내용이다.

부친에게 병법과 진도를 배운 아들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즉시 창의해 목숨을 바치고자 했다. 차남 양산룡은 아우 산숙과 함께 창의하여 김천일을 맹주로 모시고 따랐다. 산룡은 운량장이 되어 호남과 호서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군량을 조달하였다. 산숙은 부장이 되어 창의사 김천일과 함께 진주성 싸움에서 33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양응정은 외직을 거치면서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무인에 대해서도

---

17) 권순열(1995), 앞의 논문, 106쪽.

18) 閑居或語及國事 輒慷慨而嘆曰 國勢危如累卵 備禦之方莫此空疎 而恬嬉度日不思無患之策 是甚可憂也 顧謂諸子曰 南憂當在邇 而吾不及見 汝等須無負素學 以答乃父肉食之恩 其憂國愛君之誠 箸於外者如此.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77~378쪽.)

극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진주 목사 재직시 판관이던 신립을 제자로 가르쳤다.[19] 신립은 그 후 온성부사, 함경북병사가 되어 북쪽 변방을 튼튼히 하였고, 임진왜란 때 삼도순변사로 최후까지 죽음으로 싸웠다. 이는 양응정이 머지않아 있을지 모를 변란에 대비해, 무인을 중히 여기고 교육시킨 그의 국방의식을 말해주고 있다.

양응정은 1555년 을묘년에 왜구가 남쪽 지방에 침입해 왔을 때[20], 상제의 몸으로 있는 종형에게 서신을 보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종용했다. 조정에서 군대를 파견한다면 너무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방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놀라운 기민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그가 일찍부터 병사의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조예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왜놈의 변이 이렇게까지 되다니요. 영해라면 적을 막기에 가장 편리한 요충지대인데 오랜 태평속에서만 살아, 백성들이 전쟁을 몰라 창졸간에 어찌 할 바를 모른 것입니다. 만약에 백씨, 중씨, 계씨 같은 어진이들이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선다면 모든 혈기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흠탄할 일입니까. 조정에서 장수를 파견하여 토평한다고 해도, 시일을 끌어 오래되면 오랑캐의 만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어찌 상복 입은 몸임을 따지겠습니까. 평소에 기복의 뜻에 대해 이미 강마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충효가 일치한데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소견은 그러합니다. 바라건대 일각도 지체하지 마시고 한번 의리를 일으키시어, 사림의 바람에 위안을 주십시오.[21]

---

19)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같은 책, 373쪽.

20) 을묘왜란(乙卯倭亂): 1555년 5월 11일(명종 10년) 해남군에 있는 달량포와 이포에 왜선 70여 척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했다. 이때 왜구들은 어란포와 장흥·강진·진도까지 침입하여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다. (진도군지편찬위원회(2007), 『진도군지』, 진도군지편찬위원회 참조.)

양응정은 유학자로 그의 본분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군려의 일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그가 병가(兵家) 일을 추구한 것은 하나의 권도였던 것이다. 그는 당시 그만큼 감지하기 어려운 변방의 여진과 왜구에 대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국방의식은 1556년 2월 실시된 문무과 중시(重試)[22]에서 '남북제승대책'을 통하여 자신의 국가 방위에 대한 탁월한 경륜을 펼쳐 장원을 하였다.

Ⅳ.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

대책(對策)은 오래전부터 문장 종류에서 문체의 하나로 구분되어 쓰였다. 임금이 정치상 문제를 서책에 써서 의견을 묻는 것을 책문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한다. 대책은 시대 상황에 대한 관점과 이에 대처하는 방책의 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작자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정치문제에 대한 생각과 국민생활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학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도 국방현실에 대한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의 사상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음에 예외가 아닐 것이다.

16세기 중엽 조선의 국경지대를 자주 괴롭히는 북쪽 여진과 남쪽 왜구에 대

---

21) 海寇之變一至此哉 靈海爲直衝要害之地 而昇平日久 民不知兵 倉卒間罔知所措 以若伯仲季之賢 辨得一死之義 則凡有血氣者 亦爲之先後 豈勝欽歎 朝廷之遣將討平 恬嬉持久則廣酋之肆行 恐難防禦 豈以衰麻在身 經權於其間哉 起復之義想 已講磨於平昔 而忠孝一致 夫孰曰不可 愚見如此 幸須不留晷刻 一振義旅 以慰士林之望.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377쪽, 書 答宗兄參奉達洙書乙卯 參照.)

22) 『명종실록』 권 20, 명종 11년(1556년) 2월 20일.

한 문제와 대책은 1556년 2월 실시된 문무과 중시 책문에서 제시되었다. 당시 명종은 을묘왜변으로 인한 교훈을 삼고자, 조정의 모든 신하에게 여진과 왜구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때 양응정은 '남북제승대책'을 통해 자신의 국가 방위에 대한 탁월한 경륜을 펼쳐 장원을 하였다. 당시 실시된 중시 책문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23]

첫째, 북쪽 여진에 대한 강경책과 유화책에 대한 질문이다. 북에 육진을 설치하고 강참(江塹)을 경계로 국경을 정한 다음에 성심으로 복종해 온 여진을 울타리로 삼아 지금까지 일백 년 동안 탈 없이 지내왔다. 근자에 국경을 넓힌다는 주변 신하의 잘못된 계책으로, 여진의 화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 군대를 풀어 그들을 몰아 낸다면 성심으로 복종해 온 뜻에 어긋나고, 내버려 두자니 그들에게 나쁜 마음이 자라나 어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어찌 했으면 좋겠는가?

둘째, 왜구에 대한 방비책 마련이다. 남쪽은 왜구에 대비해 연해에 진을 설치하고 엄하게 방비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통해 우정을 맺은 왜인들은 은혜로 어루만주어 주고, 이국에 와 있는 저들 입장을 위로까지 하여 온지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일이다. 그런데 얼마전에 왜구들이 호남지방에 들어와 허함과 실함을 정탐해 흉물스런 모책을 꾸며, 백성과 짐승을 죽이고, 장수를 죽였으며 마을에 불을 질렀다. 이러한 왜구을 수군으로 물리치자니 그들의 배타는 기술을 당하기가 어렵고, 성문만을 지키자니 그들의 칼숲에 포위되어 앉아서 함락당할 염려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셋째, 여진과 왜구에 대한 대책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라는 것이다. 혹자는 남쪽 왜구는 다루기 쉽고, 북쪽 여진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왜구 침임과 여진 사태로 보았을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

23) 1556년(명종 11년) 중시에서, 북쪽 여진과 남쪽 왜구에 대한 대책의 물음이다.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247쪽.)

겠는가?

넷째, 군권을 병조로 귀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비변사 체제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군대 일은 병조판서에게 총괄시켜야지, 비변사를 두어 병조에서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주장은 변방의 방어 임무는 마땅히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를 채택해야지, 병조에게 전임시키면 절충의 계책을 얻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이러한 명종의 책문에 대해 양응정은 내수외양책(內修外攘策)에 의한 '남북제승대책'을 마련하였다. 양응정은 유학자로 그가 소중하게 간직한 신념은, 군자의 도라고 할 수 있다. 군자의 도는 덕을 지녀 스스로 삼가기 때문에 소인을 부릴 수 있고, 사리를 아는 지혜는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양응정은 귀순하는 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덕을 베풀면, 그들의 힘으로도 변방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흉년까지 겹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형세 또한 위축되어 있는 처지이다. 설사 그들을 몰아낸다 치더라도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백성의 조세를 덜어주고 부역을 경감시켜 백성이 생업을 즐기게 함과 동시에 성과 요새를 개수하고 기계를 정비해, 방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곧 군대와 말이 배부르고, 변방의 백성이 편안하게 생업을 즐기게 하는 일이며,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법규라는 것이다.

첫째, 북쪽 여진에 대해 강경보다 회유책을 우선으로 하였다. 양응정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나, 이웃 나라가 비록 오랑캐일지라도 대하는 근본 정신을 덕의 실천에 두고 있었다. 그는 유학자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신념은 군자의 도이다. 군자의 도는 덕을 지녀 스스로 삼가기 때문에 소인을 부릴 수 있고, 사리를 아는 지혜는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북쪽 여진에 대해 군자의 도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에 이적이 있는 것이 마치 양에는 음이 있고, 군자가 있으면 소인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춘추'에서는 양을 부추켜 세우기 급급했고, 군자로서는 소인에 대해 근엄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쪽을 삼가하여 결함이 없어야만 비로소 저쪽에 응할 때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 두 오랑캐 문제에 대해 대처의 방법을 신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정이 없게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 힘을 축내는 일일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름하여 귀순한다고 하는 자를 군대를 동원하여 몰아 낼 것까지 있습니까? 구이가 길을 텃을 때 비록 작은 행위라도 더욱 더 삼가 한다면 설사 그들 소원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오랑캐을 회유하여 그들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흉년이 겹쳐서 병졸들이 피곤한 상태이니 때로 보아도 굴해 있는 상태이고, 형세 또한 위축되어 있는 처지로 설사 몰아 낸다고 치더라도 꼭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오직 성과 요새를 개수하고 기계를 정비해, 군대와 말이 배부르고 변방 백성이 생업을 즐기게 함으로, 한결같이 조종의 내수하던 법규를 따를 뿐입니다. 그리하여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형세가 우리 쪽에 있게 한다면, 저 야심에 찬 오랑캐 무리가 자연적으로 또 그들이 복심의 병을 될 것을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24]

둘째, 양응정은 침범을 일삼는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대책으로, 인재양성과 수비 위주 전술, 병선 제작을 주장하였다.

양응정은 먼저 인재양성을 중시하였다. 그는 장수가 될 만한 인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들 인재를 발굴해 군졸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 변방의 성

24) 中國之有夷狄 猶陽之有陰 君子之有小人也 是以 春秋 汲汲於扶陽 君子嚴已於小人 盖必謹之於此 而無缺然後 始可應之於彼 而有餘也 然則臣於南北二虜之事 知所以處之矣 幕南無庭 無補於虛耗之禍 則名爲歸順者 奚至於擧兵 而驅之乎 九夷通道 益加細行之謹 則容之如願不害 爲守在四夷也 況我國家積歲飢荒兵因卒疲 時已屈矣 勢亦蹙矣 設若驅之未必能利者乎 唯在乎繕城堡精器械 使士馬飽氣 邊氓樂業 一遵祖宗內修之規 使伸縮之勢在我 則彼之狼子 野心之徒 自然退循 漸爾消亡 何事於擧兵驅之 何慮於其爲腹心之疾乎哉.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247쪽.)

을 지키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작은 병력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수비가 지혜로운 전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세종이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하여, 그 수비하는 3대 원칙을 제시한 내용과 같다. "오랑캐를 막는 계책은 수비가 그 근본이 된다. 수비하는 데는 가장 긴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장수를 잘 선택해야 하고, 사졸을 정선해야 하며, 방법과 계략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하였다.[25]

양응정은 병선 제작에 대해서, 우리 조종(祖宗)께서도 일찍이 병선을 만들기 위해 각 섬에 있는 나무을 벌채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왜적을 막는데는 수전이 보다 편리하다는 뜻에서였다. 지금이라도 우리 조종이 뜻 했던 대로 각 섬에 있는 나무을 벌채하지 못하게 하여 병선을 만들어, 우리의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응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용병술의 대가이다. 그는 인재를 찾아 군졸을 훈련시키고, 병선을 제작하기도 하여 우리의 준비가 하나에서 열까지 빈틈이 없다면, 패몰에 의한 재화와 난리가 어디에서 올 것인가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수비 방법으로 대적한다면 큰 희생 없이 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장은 수군을 잘 다스리고, 육장은 성을 굳게 지키게 하여 좌우로 기각지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신이 듣기로 주의 세종은 영란진에서 수전을 훈련시켜 당의 군대를 마음 늦추게 했다가, 그로부터 몇 년 후 강회 수군 보다 오히려 낳은 전력을 길렀습니다. 우리 조종께서도 일찍이 병선을 만들기 위해 각 섬에 있는 나무을 벌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적을 막는데는 수전이 보다 편리하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의 세종이 했던 것처럼 장재를 골라 군사를 훈련시키고, 우리 조종

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9), 『국역 제승방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4쪽.

이 했던 대로 병선을 만들기도 하여, 우리의 준비가 하나에서 열까지 빈틈이 없다면야 패몰의 화란이 어디에서 올 것 입니까?

위의 불리는 57만이라는 대군으로 2천 8백명에 불과했던 장질의 우치성 군대에 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의 태종은 한시대 영웅으로 천하 1백만 대군을 몰아 고연수 혜진의 50만 군대를 안시성에서 깨부수었을 때, 당시 형세야 말로 벼락이 내리치고 바다가 몰고 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시성 성주[26]는 겨우 몇 백명 군졸을 가지고, 태연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할 수없이 돌아가는 태종을 절하여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키는 것이 적을 제어하기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은 뚜렷한 사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탄환 정도 크기의 강좌지역 이라던지 좁살스런 고구려 따위야 비록 자치의 대열에 끼어 논의할 존재도 못됩니다. 그러나 그들 장재를 선임해 빈틈없이 막아냈던 방법에 있어서만은 잘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 조종조에서 인재를 그만큼 길러 냈는데, 왜 그러한 인재를 찾아 내어 그들로 하여 변성을 지키게 하는 길이 어찌 없겠습니까? 만약 인재가 아니라면 조괄의 40만 대군이 장평 아래서 모조리 파묻힘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하물며 성 하나를 지키고 장벽 하나를 타는 그러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장은 수군을 다스리고 육장은 성의 수비를 엄밀히 하도록 하여 좌우로 기각의 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27]

셋째, 양응정은 현재의 국방대책은 주로 북쪽 여진 위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남쪽이 소홀하기 때문에 남쪽 왜구 방어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명

26) 안시성 성주(安市城 城主): 고구려의 명장 양만춘(楊萬春)을 말한다.

27) 臣聞 周世宗 督習水戰于迎鑾鎭 以肆唐兵 數年之後 殆勝江淮之師 而我祖宗亦嘗禁伐諸島之木 以作兵船 其意固以水戰 爲便於禦倭也 今苟能擇將鍊卒 如周世宗之習戰 我祖宗之治船 而所以備之者 無一之不至 則敗沒之患 何自而至哉魏佛狸 以五十七萬之軍 而見挫於臧質旰眙城 二千八百之卒 唐太宗 以命世之雄 驅天下百萬之衆 而破高延壽 惠眞 五十萬之兵 於安市城之下 其勢不啻若霆震海捲 而其城主 只以數百之卒 怡然不動 拜而送之然則城守之便於制敵也 較然矣彼彈丸之江左 區區之高麗 雖不復齒議 於自治之列 而其選將備禦之方 則不可謂不得也 嗚呼 以祖宗儲養之人才 豈可以不得如此之人 而使守邊城乎 苟人之不得趙括之四十萬 盡坑於長平之下 況玆守一城乘一障者哉 然則令水將 治水軍 陸將嚴城守 左右掎角 宜無所不可也.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247쪽.)

종이 북쪽 여진과 남쪽 왜구에 대해 어느 쪽이 다루기가 쉽고 어려운가에 대해 묻자, 그는 쉬움이 쉬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사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쉽다고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라도 조심을 다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짜서 이루어 나가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양응정은 당시 실시된 중시(重試) 전에 외직으로 순창현감과 전라도사를 역임하고 내직으로 병조좌랑을 역임했다. 또한 을묘왜변을 통해 호남의 중요성과 호남에 대한 조정의 정책과 방비가 소홀했던 점을 몸소 느끼며 경험했다. 인재를 고르고 병졸을 훈련시키며 백성을 쉬게 하고 조세 거두는 일에 대해, 북쪽의 육진에 하던 것 처럼 호남의 변읍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행하며 조금도 쉬지 않고 힘써 나가게 한다면, 남이나 북이나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 쉽고 어려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 신이 보기에 전하께서 왕년의 북방을 염려하시던 생각으로 오늘의 남방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장재를 고르고 병졸을 훈련시키며 민력을 쉬게 하고, 부렴을 늦추는 등 미리 준비하여 막고, 벌어진 사태에 대해 육진에 대해 하던 것 처럼 호남의 변방 읍에다 하십시오. 북쪽에서 쓰던 그대로 시행하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더욱 힘써 나가게 하신다면, 남이나 북이나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 쉽고 어려울 것이 없다고 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28]

넷째, 양응정은 비변사 대신 병조에서 군권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8) 臣聞 危者保其安者也 難者保其易者也 苟於易制之處 應之或忽 則將驕卒惰 其禍可勝言哉 雖在難圖之處 而臨事而懼 好謨而成 則吉無不利矣 臣竊觀 殿下往年北顧之慮 轉而南方今日之憂 則其擇將鍊卒 寬民力緩賦斂 備禦策應之方 一以六鎭爲準於湖南之邊邑 而北方已成之規 使之益勵不弛 則臣知南北制虜之術無有難易於其間也.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같은 책, 247쪽.)

조선의 국방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와 병조가 담당했다. 그러나 문치주의가 점차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군사 책임자도 이 분야에 실무적 경험이 없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이들이 만든 정책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중종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변사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어 비상 시국에 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변사가 설립된 후 변경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다. 비변사 당상관들은 공적을 위한 일거리를 좋아해 군사를 일으킬 만한 단서를 자극하고 있었다. 대신들 또한 이 말에 홀려 변방 오랑캐와 일의 단서를 맺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큰 병폐라고 하였다.[29]

양응정은 병권에 대해 중국 주나라와 한나라 예를 들며, 병권은 병조에 총괄시켜 병권이 귀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권은 매우 중요하여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반드시 그 재기가 천하 사직을 맡을 만 해야지만 그 자리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전임제와 책임제를 통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여러 사람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에서 비롯되는 의견 불일치, 무책임성, 비전문화를 염려한 것이다. 그는 여러 사람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임성이 지니는 책임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신이 들은 바로는 육군을 맡아 나라의 평화를 유지했던 것은 주에서는 사마 이외다른 자가 맡았다고 들은 바가 없고, 남북군을 진무했던 일을 한에서 태위 말고 누가 했다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체로 나라의 중병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의 재기가 천하 사직을 맡을만 해야지만 그에게 그 자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평시에는 융률을 정제할 수 있고 난리를 당하면 독단적으로 승리를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

29) 『명종실록』 권17; 이성무(1999), 『조서왕조사』, 동방미디어, 464쪽.

다. 그렇다면 오로지 병조에게 맡기자는 쪽이 참으로 주역에서 말한 수사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송대의 중서 추밀 두 기관이 서로 이견을 주장하며, 마치 길가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난잡함을 범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변방 방위 문제는 마땅히 중론을 채택해 결정해야 한다고 한 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조종조에서도 사실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병권을 맡은 자들은 모두다 전임을 했고, 책임 또한 중했던 것입니다. 비변사는 중종대왕 때에 일시적 편의상 임시로 설치했던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조종조 법규를 그대로 갖추시고 제왕들이 하던 제도를 본받아 비변사라는 이름을 없애 병권이 귀일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면, 반드시 당장 성패가 판가름 나는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종대왕의 큰 빛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입니다.[30]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중시에서 장원으로 뽑힐 정도로 당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남북제승대책'이 끼친 영향이나 의의를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은 을묘왜변 때, 진관 체제로서 효과적인 공격을 감행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제주 목사 김수문이 제승방략[31]의 공격법을 채용하여 왜구를 크게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32] 그 뒤부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제승방략 체제

30) 臣聞 掌六師平邦國 周之司馬之外無聞也 鎭撫南北 軍漢之太尉之外 赤未聞也 所以然者 盖以國之重柄 不可人人而典之也 必其才氣有以寄天下社稷之安危然後授之 故平時 則可以整齊戎律 臨亂則可以獨制廟勝 然則專任兵曹之議 眞得義易帥師之義 而不陷於宋之中書樞密 互相異同 有似作舍道傍之類也 彼所謂 邊圉之務 當採衆議云者 其見誤矣 祖宗之慮 實出於此 故當時典兵柄者 任專而責重其在 中宗大王時 盖以權一時之宜 而偶設此司者也 伏願殿下 備祖宗之規 法帝王之擧 特罷備邊司之號 使兵權歸一 則必無呼吸成敗之慮 可以揚我中宗之大烈矣.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 앞의 책, 247쪽.)

31) 제승방략(制勝方略): 유사시 각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에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本鎭)을 떠나 배정된 방어지역으로 가는 분군법(分軍法)이다. 중종 때 삼포왜란, 명종 때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시도된 전략이다. 후방지역에 군사가 없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는 막을 길이 없는 전법이다.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2007), 『한국고중세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 가람기획, 참조.)

를 채택했다. 그래서 여러 고을 군사를 5위제 5부제로 편성하였고, 왜구 침입에 대비한 수비책과 공격책을 아울러 강화했다. 그 후 을묘왜변에서 임진왜란까지 왜구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40여년 동안 존속했다.[33] 양응정 역시 전임제와 책임제를 바탕으로 한 군사체제 개편을 주장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양응정의 주장은 이러한 전략 마련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국방대책에 있어서 북방 뿐만 아니라 남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은 이후 장수 선발과 수군의 훈련,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 경비 강화, 병선의 제작과 정비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임진왜란 때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 장군이 우수한 병선과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응정의 병조로의 병권 단일화는 채택되지 않았다. 을묘왜변 이후 약해지는 국방력을 감안해 비변사를 상설기구화 하자는 주장에 따라 점차 독립된 합의 기구로 발전하였다. 비변사는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후기 명실상부한 최고 합의 기관이 되었다. 비변사 확대와 강화는 국가의 주요한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정을 문란케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비변사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비변사는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 때문에 19세기 후반 대원군에 의해 철폐되고 말았다. 이 또한 양응정의 빛나는 예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

32) 『선조수정실록』 권 25, 선조 24년 10월 1일(계사)조.
33)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9), 앞의 책, 102쪽.

Ⅴ. 맺음말

양응정은 조선 중기 학자이며 문인으로, 충의사상이 투철한 애국자이다. 그는 왜구의 끊임없는 도발과 미래에 침략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자녀들에게 군략을 익히는 진도를 가르쳤다. 그가 타계한 10년 뒤에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나, 부친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즉시 의병활동을 하였다. 차남 양산룡은 군량장으로 군량을 조달하고, 아우 산숙은 의병장 김천일의 부장으로 33세 젊은 나이로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조선 왕조는 개국 초부터 명나라에 대해, 책봉과 조공의 관계를 축으로 사대외교를 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북방 여진과 남방 왜구 문제를 제외하고는 국방상 큰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다. 16세기 중엽 조선의 변방은 여진과 왜구의 끊임없는 약탈과 침범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선은 여진의 침범에 대응해 강온 양면 작전을 취하여, 평상시에는 수비를 위주로 하다가 때로는 공격을 감행하였다. 왜구를 막기 위한 군사적 대책도 마련하였다. 왜구가 상륙하는 연해 지역에 성을 쌓고 봉수제를 정비해 방어 태세를 갖추는 한편, 병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정비해 왜구를 격퇴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외교 교섭과 군사적 대책만으로 침범을 못 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양응정은 국방과 관련하여 내직으로 병조와 외직으로 전라도사 등을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몸소 조정과 국경의 변방에 근무하며 보고 들은 체험을 통해 조선의 방위 문제에 있어 무엇이 결점이며, 그 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을묘왜변을 통해 왜구의 갑작스런 침입에 놀란 군사들이 소문만 듣고도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조정은 수전 육전 할 것 없이 모두 손을 쓸수가 없었고, 조정의 논의까지 정당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식들의 재주와 학문이 어느정도 성취되자 병법을 가르쳤다. 그는 이미 나라 안팎 상황을 예견하고 병법을 중시한 것이다. 이것은 병법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학자로서 병법을 중시한 그의 태도는 드물기도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속했던 사회에 대해 유학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 사명감의 발로이다.

양응정은 유학자로 그의 본분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병법 일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그가 병법에 관한 학문을 추구한 것은 하나의 권도였던 것이다. 그는 그만큼 감지하기 어려운 변방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국방의식과 국방에 대한 지식은 문무과 중시에서 '남북제승대책'을 통해 자신의 국가 방위에 대한 탁월한 경륜을 펼쳐 장원을 하였다.

양응정은 '내수외양책'에 바탕을 둔 '남북제승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는 백성의 조세와 부역을 경감해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면서, 성과 요새를 개수하고 기계를 정비하여 방비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보다는 회유를, 왜구에 대해서는 먼저 방어책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여진에 대해서 덕화를 우선시하여 그들이 감화를 받도록 하고, 피폐한 북방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구에 대해서는 평화가 오래되어 변경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수 선발과 양성, 군사 훈련, 병선 제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병권은 병조가 총괄해야 하고, 전임제와 책임제를 통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당시 중시에서 장원한 탁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후 조정의 국방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제승방략체제와 전라도 수군 강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후일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의

선구가 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을 선발하여 병선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의 기초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가가 부강하고 민생이 안정 되려면, 무엇보다 국방이 튼튼하여 외적 침입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옛날부터 국가통치 기본목표는 부국안민과 국방확립에 있었다.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바로 이러한 부국안민 우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가 국가를 걱정하고 '남북제승대책'에서 주장한 것도, 부국안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양응정은 선비로서 드물게 군략에 조예가 있었던 병법의 전문가라는 데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기대한다. 아울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이 우리나라 국방에 대한 의식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명종실록』

『선조수정실록』

梁應鼎 著, 梁鴻烈 譯(1988),『國譯註解 松川集 全』, 장산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9),『국역 제승방략』,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진도군지편찬위원회(2007),『진도군지』, 진도군: 진도군지편찬위원회.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 엮음(2007),『한국고중세사사전』, 가람기획.

이성무(1999),『조서왕조사』, 동방미디어.

權純烈(1995),「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硏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네이버 사전(http://dic.naver.com).

조선왕조실록(www.silok.history.go.kr).

투고일: 2017. 05. 20.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5.

| 국문초록 |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의 국방의식과 남북제승대책(南北制勝對策)

양응정은 조선 중기 학자이며 문인으로, 충의사상이 투철한 애국자이다. 그는 선비로서 드물게 군략에 조예가 있었던 병학의 전문가라는 데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이다.

조선 왕조는 개국 초부터 명나라에 대해 책봉과 조공 관계로 사대외교를 함으로써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여진과 왜구 문제를 제외하고, 국방상 그리 큰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다. 16세기 중엽 조선 변방은 여진과 왜구의 끊임없는 침범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선은 여진의 침입에 대응해 강온 양면 작전을 취하여, 평상시에는 수비를 위주로 하다가 때로는 공격을 감행하였다. 여진의 침입에서 피해가 적을 때에는 그대로 참고 지나갔으나, 인명 피해가 클 때는 응징을 하는 정벌을 단행하였다. 왜구를 막기 위한 군사적 대책도 마련하였다. 왜구가 상륙하는 연해 지역에 성을 쌓고 봉수제를 정비해 방어 태세를 갖추는 한편, 병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정비해 왜구를 격퇴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양응정은 국방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에 근무할 때, 내직으로 병조와 외직으로 전남도사 등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국방과 관련하여 자신이 몸소 조정과 변방에 근무하면서 보고 들은 체험을 통해, 조선의 방위 문제에 있어 무엇이 결점이며 그 대책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인이었던 그가 자식들에게 병서나 진법을 가르치고, 이미 나라 안팎 상황을 예견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중시한 것이다.

양응정은 유학자로 본분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군려의 일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그가 병법과 병술 등의 일을 추구한 것은 하나의 권도였던 것이다. 그는 당시 그만큼 감지하기 어려운 변방의 여진과 왜구에 대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응정의 국방의식은 1556년 2월에 실시된 문무과 중시에서 '남북제승대책'이라는 자신의 국가 방위에 대한 탁월한 경륜을 펼쳐 장원을 하였다.

양응정은 '내수외양책'에 바탕을 둔 '남북제승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조세와 부역을 경감하여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키면서, 성과 요새를 개수하고 기계를 정비하여 방비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제승대책'으로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보다 회유를, 왜구에 대해서는 먼저 방어책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여진에 대해서는 덕화를 우선시하여 그들이 감화를 받도록 하고, 피폐한 북방의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구에 대해서는 평화가 오래되어 변경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장수의 선발과 양성, 군사의 훈련, 병선의 제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병권은 병조가 총괄해야 하고, 전임제와 책임제를 통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당시 중시에서 장원을 한 탁월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방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후일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의 선구가 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을 선발하여 병선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부국안민 우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가 국가 방위를 걱정하고 '남북제승대책'에서 주장한 것도, 부국안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양응정의 '남북제승대책'이 우리나라 국방에 대한 의식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양응정, 국방의식, 남북제승대책, 내수외양책, 제승방략체제, 부국안민

호남문화연구 61: 223~2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전라도 장흥도호부 수군(水軍) 만호진(萬戶鎭) 회령포(會寧浦) 연구

Study of Naval Manho-jin Hoeryeong-po in Jangheung Prefecture (Dohobu), Jeolla-do

이 병 혁*
Lee, Byung-Hyuk

목 차

Ⅰ. 머리말
Ⅱ. 회령포 수군 만호진의 설치와 이설
Ⅲ. 회령포진 수군편제의 변화
Ⅳ. 회령포진성의 축성과 수군의 운용
Ⅴ. 맺음말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stallation and shift of Naval Manho-jin in Jeolla-do Jangheung Prefecture (Dohobu) Hoeryeong-po installed to defend against invasion by Japanese raider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change of jurisdiction, fortification facts and the operation of Naval Force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facts concerning the times of the installation and shift of a base (Jin), which give confusion to related research because there are different records.

Hoeryeong-po Base became Naval Manho-jin as warships were anchored in Hoeryeong-po, east of Jangheung-bu, a strategic point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in the 4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22). Three years later in the 7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25), the warships were anchored, moving south to the currently nearby coast of Hoeryeong-po

* 전 광주광역시청

Fortress. In the 21st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1490), it was fixed at the current position as Hoeryeong-po Fortress was constructed. This study verified the facts of the installation and shift of Hoeryeong-po Base that the existing nomination has been used as it had bee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records such as annals, geographical descriptions and maps.

Nex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installation and shift of Naval Jin-po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should be perceived based on the anchoring and leaving of warships according to Naval forces' working method, the principle of 'long stay on the vessel and defense (Jangjaeseonsangsueo),' concerning 'the view of shift of Hoeryeong-po Base in the 9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1554)' based on Jangheung-ji (Report on Jangheung) that became a stumbling block of research on the time of shift of the Hoeryeong-po Base, pointed out that the official title of 'Hoeryeong-po Manho' already appeared in the record on the shift of warships in Hoeryeong-po to Jupo in the 7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25) and all records after Sejong Sillok Jiriji (King Sejong's Treatise on Geography) write the location of Hoeryeong-po Base as south, not east and proved the facts of establishment in the 3rd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22) and shift in the 7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1425), listing the overlooking of the articl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shift of Hoeryeong-po Base, which already appeared in public historical books like annals and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se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that is, choosing private records published by local Confucian school (hyanggy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primary historical materials,

Next, this study perceived that, since Hoeryeong-po Base was installed at the half-way point of Naval Base in left and right provinces of Jeolla-do, change of jurisdiction was severer than in other Jin-po (Naval bas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s such as Japanese raiders' intrusion path, coastal terrain, tidal currents and change in policies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naval maneuvers, summarized the records of the related materials chronologically and revealed the transition process and cause of

the change of Hoeryeong-po Base.

In addition, through a discussion on the fortification of Hoeryeong-po Fortress, this study raised a question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record on some historic sites assumed to be remains of Hoeryeong-po Fortress in the whole area of Hoecheon-myeon, Boseong-gun, Jeollanam-do, based on 'the view of shift in the 9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1554)', and lastly,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of the operation of Naval forces that keep Hoeryeong-po Base.

Key words : Naval forces, Japanese raiders, Hoeryeong-po Base, Hoeryeong-po Fortress, Naval Base, Naval maneuvers, Fortress keeping forces

Ⅰ. 머리말

14세기말 고려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롭게 개국한 조선왕조는 고려시대 북방기마민족의 침략과 남쪽 왜구(倭寇)에 의한 극심한 침탈과 피해를 당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국과 동시에 전국의 요해처에 관방(關防)을 설치하여 외침에 대비하는 국방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관방체제는 주로 북방의 여진족(女眞族)과 남방의 왜구에 대한 방비가 주를 이루었고, 그 중에서도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해방체제(海防體制)는 여말 왜구의 토벌로 명성을 얻어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진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관심[1]속에 태종, 세종을 거쳐 세조 3년(1457)에 이르러 전국적인 진관체제(鎭管體制)[2]와 함께 일차적인 해방체제가 완비되었다.

이때에 구축된 해방체제는 이후 삼포왜란·을묘왜변·임진왜란 등 크고 작은 왜구의 침입을 거치면서 왜구의 침입 경로·해안지형·조류변화 그리고 수조(水操)의 시행에 따른 정책변경 등의 추이에 따라 신설·이설·폐지·관할변동과 같은 변화를 거치면서, 왜구의 침입이 비교적 줄어든 후대에는 근해에 출몰하는 황당선(荒唐船)·이양선(異樣船)의 포촉과 표류민(漂流民)의 호송 등 해상방어의 근간으로 작동되다가, 고종 32년(1895) 을미년에 각 군문이 통합되어 군무아문(軍務衙門)으로 일원화 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러한 해방체제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는 주로 국방제도사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거나[3] 왜구의 침입에 따른 전쟁사 특히 임진왜란시 전라좌수

1) 송은일(2016),「조선전기 고흥지역 수군진의 설치와 수군의 동향」,『역사학연구』64권, 호남사학회, 41쪽.

2) 진관체제는 행정조직 단위인 각 읍을 동시에 군사조직단위인 진으로 편성하여 주진·거진·제진으로 나누어 각도의 수령이 군사지휘관의 임무도 겸임토록 하는 방위 체제이다.(허선도(1974),「제승방략연구(하), 임진왜란 직전 방위체제의 실상」,『진단학보』제37집, 진단학회, 9~12쪽)

3) 이재룡(1970),「조선전기의 수군 -군역관계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제5호, 한국사연

영 이충무공(李忠武公)의 승전과 역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진포(鎭浦)의 설치와 변동 등이 부차적으로 기술[4]되기도 하였지만, 해방체제의 하부조직인 제진(諸鎭), 즉 개별 진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는 미비한 편이었다. 이처럼 미진한 해안 진포에 대한 연구가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근래에 이르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사 연구의 명분과 관광 유적지 개발 등을 통한 지역홍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경쟁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또한 해당지역의 지방대학에서도 해양도서(海洋島嶼) 연구와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5]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회령포진 또한 정유재란(1597)시 삼도수군통

구회; 김제근(1981), 「조선왕조의 수군」, 『해양전략』 제5호, 해군대학; 장학근(1987),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방상현(1991), 『조선 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차용길(1988), 『고려말 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명양사; 노성호(1996), 「명종대 수군강화정책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용한(2009), 「조선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제7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송기중(2016), 『조선후기 수군제도의 운영과 변화』,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이 참고가 된다.

4) 허선도(1980), 「임진왜란에 있어서의 이충무공의 승첩」, 『한국학논총』 제3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조원래(1993),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박물관; 이민웅(2006), 『임진왜란해전사』, 청람미디어; 정성일(2011), 「전라좌수영과 남해방어」,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경인문화사; 신윤호(2016), 「호좌수영지를 통해본 전라좌수군의 운영과 충무공 현창」,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등이 참고가 된다.

5) 김경옥(2000), 「조선후기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훈(2000), 「조선후기 완도청산진의 치폐와 그 배경」,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봉룡 (2005),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김경옥(2007), 「조선후기 고군산진의 설치와 운영」,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1호, 역사문화학회; 김경옥(2009), 「16~17세기 고금도 인근의 해로와 수군진 설치」, 『바닷길과 섬: 그 실제와 활용』, 민속원; 한샛별(2011), 「조선후기 장흥 내덕도 궁방전분쟁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동명(2008), 「조선시대의 돌산진과 고돌산진」, 『역사학보』 198권, 역사학회; 변남주(2014), 「영광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도서문화』 44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서태원(2013),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진의 설치와 변천」, 『역사와 실학』 50권, 역사실학회; 송은일(2016), 「조선전기 고흥지역 수군진의 설치와 수군의 동향」, 『역사학연구』 64권, 호남사학회 등이 참고가 된다.

제사로 복귀한 이충무공이 전선 12척을 얻어 임진왜란 해전 중 가장 극적인 승리를 쟁취했던 명량해전(鳴梁海戰) 승리의 단초를 제공했던 역사의 현장이고, 근래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조선수군 재건로 조성'사업의 중요 거점이 되어 새로운 역사·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유적지로서 그간 크게 부각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설진과 이설의 시기·축성 등 관련 문헌상의 상이한 기록들에 대한 제검토가 요청되고 있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지금의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처음 설치된 회령포진의 설치시기와 장흥군 회진면으로 이설된 시기에 대해서 장흥군 지역 내에서 발간된 여러 문헌들의 기록이 상이하고, 또한 인근 고을 보성군에서 발간한 기록들과도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사료와 지지(地誌)·지도(地圖) 등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전라 좌·우수영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국가 해방정책의 추이에 따라 두 수영 사이에서 관할의 변동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시기별로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회령포진의 관할변동을 기록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끝으로 기왕의 사료와 연구서에 언급된 회령포진성의 축성기록을 정리하여 회령포진성의 규모와 부대시설 그리고 병선·수군의 운용 상황을 알아보고 기록에 나타난 회령포진성의 축성시기와 위치를 재삼 확인시킴으로서, 회령포진의 이설 시기에 대한 기록상의 상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류가 수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회령포 수군 만호진의 설치와 이설

고려 고종 10년 을해년(1223) 5월 금주(金州)의 침입 기사[6]로 고려사에 처음 등장한 왜구는 그 후 충정왕 2년 경인년(1350) 2월에 고성(固城)지역 등의 침입을 기점으로 하여 고려 전역에 대대적으로 침구하기 시작하였다.[7] 장흥지역 또한 같은 해 4월 장흥부의 조운선이 약탈당하고 6월에 장흥부 안양향(安壤鄕)이 침탈을 당한이래, 공민왕 8년(1359) 7월과 동왕 21년(1372) 3월에 장흥부가, 우왕 3년(1377) 6월에 장흥부 장택현(長澤縣)이 그리고 우왕 4년(1378) 8월에는 장흥부에 침입한 왜구가 회령현(會寧縣)에서 격퇴되는 등 왜구의 침탈이 점점 거세지고 지역이 황폐해지자, 다음 해인 우왕 5년(1379)에 왜구의 약탈을 피하여 장흥부의 치소를 내륙의 철야현(鐵冶縣)으로 옮기고, 공양왕 원년(1389)에는 보성군으로 잇달아 옮기는 등 극심한 피해를 당하였다.[8]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태종 6년(1406) 1월에 왜선 6척이 장흥부 주포(周浦)에 침범하여 병선 1척을 약탈하였고,[9] 태종 8년(1408) 11월에는 왜적이 회령포에 입구(入寇)하여 남녀 2사람을 죽이는[10] 등 침탈을 그치지 않자, 조정에서는 거듭된 왜구의 침입에 대한 비변책(備邊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왜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종 4년(1422) 11월에 주포와 회령포를 관할하는 전라도 지역의 수군통수권자인 도안무처치사(都安撫處置使)의 청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왜적이 침입했던 해변 요해지인 회령포(會寧浦)에 본영의 군선 2척과 좌·우도의 군선 각 1척씩을 차출하여 정박(碇泊)시켜둠으로서 뜻밖의 사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11]

---

6)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10년 5월 22일 갑자.
7) 『고려사절요』 권26, 충정왕 2년 2월 미상.
8) 「중녕산황보성기」, 『동문선』 권76; 「장흥」, 『대동지지(1865)』
9)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18일 기유.
1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23일 정묘.

이러한 조치가 시행 된지 3년 후인 세종 7년(1425) 2월에 전라도 감사가 병조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전라도 각 포 병선의 이박(移泊)편의에 대한 여부를 현지시찰하고, 조목별로 열거한 보고서에 회령포 만호의 병선이 머무르고 있는 소마포(召麻浦)는 조수가 물러가면 물이 얕아지기 때문에 병선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서, 비옥한 토지가 많고 왜적이 밟는 첫 길〔初程〕인 주포(周浦)로 병선을 이박 시키기를 청하므로 지형의 이점과 방비의 편의를 위하여 만호진을 주포로 이설하게 되었다.[12)]

이때에 기존의 회령포라는 지명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게 되어 장흥부의 관내에 2개의 동일 지명이 통용되게 되었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지역 진포의 이설 과정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역사정에 밝지 못한 외지 연구자들의 혼란과 오류를 초래하기도 하였다.[13)] 더구나 처음 회령포진이 설치된 장흥부의 회령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장흥부에서 떨어져 나가 보성군에 편입[14)]됨으로서 이러한 혼란이 더욱 심하여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

11) "전라도 수군 도안무처치사가 본영의 군선 두 척과 좌·우도의 군선 각 한 척씩으로 요해지인 회령포(會寧浦)에 세워 두어서〔泊立〕 뜻밖에 일어나는 사변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1월 22일 을해)

12) "전라도 감사가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도내 각 포 병선의 이박(移泊)에 대한 편의 여부를 현지 방문 시찰하고 이를 조목별로 열거한 보고서에 '회령포 만호의 병선이 머무르고 있는 장흥부의 소마포(召麻浦)는 조수가 물러가면 물이 얕아지기 때문에, 병선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주포(周浦)는 왜적이 밟는 첫 길〔初程〕이요, 또 토지가 비옥하고 많아서, 소마포의 병선 4척을 주포로 이박 시켜 두는 것이 편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25일 을축)

13) 이러한 사례는 전라좌수영의 고흥 남양성, 보성 조양성과 경상수영의 동래 개운포, 동래 감포, 동래 칠포, 동래 포이포, 거제 가배량, 거제 견내량 등 처음의 관방 명칭을 이설한 포구에 그대로 사용한 예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노기욱의 남도 이순신」, 『전남일보』 2017. 2. 17; 김상룡(2005), 「조선시대 경상도 수군 영진의 변천과정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쪽)

14) 처음 회령포진이 설치된 "전남 보성군 회천면(會泉面)은 백제시대 마사량현(馬斯良縣)이었고 치소는 지금의 회령리에 있었다. 757년(경덕왕 16)에 대로현(代勞縣)으로 개칭되어 보성군의 영현(領縣)이 되었으며, 940년(고려 태조 23) 회령현으로 바뀌었다. 1124년(인종 13) 영암군의 정안현(定安縣)이 공예태후 임씨(任氏)의 고향이라 하여 장흥지사부(長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회령포진의 이진사실은 그 후 7년째 되는 세종 14년(1432)년에 완성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전라도조[15]에 "관방(關防)의 수어(守禦)는 회령포가 장흥부의 남쪽 주포에 있다"라고 한 기록과, 후대인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官撰) 지리지와 1747년 정묘년(丁卯年)에 발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흥부의 사찬(私撰)지리지인 『장흥읍지(長興邑誌)』 등 모든 지지·지도에 회령포의 위치를 '장흥부 남거(南距) 또는 남지(南至) 50~77리'라고 표시하고 있으며,[16] 회령포진의 설치와 이설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한 1871년의 『호남읍지중장흥도호부지(湖南邑誌中長興都護府誌)』와 1872년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장흥부회령진지도(長興府會寧鎭地圖)」의 표제에 "옛적 본진은 장흥부의 동(東)쪽 60리 떨어진 회령면 휘리포(揮里浦)에 있었는데 장흥부 남(南)쪽 60리 떨어진 대흥면(大興面) 선자도(扇子島)로 옮겨서 옛 이름 그대로 회령포라 했다."라고 한 기록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17] 반면에 장흥부의 동(東)쪽에 소재한 회령면·회령

興知事府)로 개칭·승격될 당시 장흥에 속하였고, 조선 초기 태종 때에 장흥도호부 관내에서 회령면과 천포면으로 분할되었다. 1914년 장흥군의 회령·천포·웅치 등 3개면이 보성군에 편입된 후 1932년에 회령과 천포의 두면을 병합, 회천면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면내에 회령폐현·회령포진성·회령성(城池府城)·전일산봉수지·사직단 등 유서 깊은 역사유적들이 많다." (보성군사편찬위원회(2014), 『보성군사-의향의 역사』(이하 의향), 보성군사편찬위원회, 140~141쪽.)

15) "관방(關防)의 수어(守禦)는……회령포(會寧浦)가 장흥부 남쪽 주포(周浦)에 있으며, 【중선 4척, 별선 4척과 군사 4백 72명과 뱃사공 4명을 거느린다.】"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 전라도)

16) 뒷면 제 Ⅳ장의 〈표 4〉 참조.

17) "옛적 본진이 장흥부의 동쪽 60리 떨어진 회령면 휘리포(揮里浦)에 있었는데 장흥부 남쪽 60리 떨어진 대흥면 선자도(扇子島)로 옮겨서 옛 이름 그대로 회령포(會寧浦)라 하였다. 지방이 본래 좌도라서 원래는 좌수영에 속했는데 중년에 우수영에 이속되었다가 다시 좌수사 신유(申鍒)의 계청으로 좌수영으로 환속 되었다. 경오년에 우수사 한간(韓偘)의 계청으로 다시 우수영에 소속되어 가리포(加里浦)가 주진관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좌수영에 소속되어 사도진(蛇渡鎭)이 주진관이 되었다." (전라좌도장흥부회령포진지고적,

방(會寧坊)에 대해서는『세종실록지리지』이후에 발간된 모든 지지·지도상에 회령폐현(會寧廢縣)의 기록 외에는 수군의 진포를 위시한 성보(城堡) 등 관방에 대한 특기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위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위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회령포만호의 병선이 정박했던 회령포진은 처음 병선을 정박시켰던 세종 4년(1422)부터 세종 7년(1425)까지 3년 동안은 장흥부의 동(東)쪽인 지금의 보성군 회천면 관내의 포구에 소재해 있었고, 이후 정박처를 옮겨서 옛 이름을 그대로 붙인 회령포진은 장흥부 남(南)쪽 지금의 장흥군 회진면 관내의 포구에 위치하였다가, 성종 16년(1485)과 성종 21년(1490)사이에 회령포성의 축성을 계기로 현재의 위치인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會鎭里)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위 글에서 우리는 회령포진의 설치와 이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회령포진의 설치와 이설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존재하고 있다. 장흥향교에서 주관하여 일제강점기인 1938년 무인년(戊寅年)에 시작하여 1940년에 발간한『장흥지(長興誌)』에 기록된 "회령진은 명종 9년(1554) 보성군 회령면에서 옮겨와서 회령진으로 개칭하였다."라고 한 기사가 그것이다.[19]

위 기록에 대하여 일제시기에 나온 이 읍지 외에는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어 그대로 취신(取信)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와, 이는 회령포진의 이설 기록이 아니라 수군편제상의 소속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20]이 있기도 하지만, 이 기록이 장흥군에서 발행된 주요 향토기록물에 받

1872, 규 10442)

18) 뒷면 'Ⅳ. 회령포진성의 축성과 수군의 운용' 참조.

19) "회령진은 대덕면 회진리에 있는데 동쪽으로는 녹도, 사도를 제어하고 서쪽으로는 마포, 고금도, 신지도와 연결되며 수군만호가 주둔한다. 좌수영에 소속되어 명종 9년(1554)에 보성군 회령면에서 옮겨와서 회령진이라 개칭하였는데 고종 을미년(1895)에 폐지되었으나 성벽 등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있다." (『장흥지 (무인지, 1938)』, 장흥지속록, 제1권, 고제, 요처)

아들여지고[21] 1989년에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장흥군에서 발간한 『장흥군의 문화유적』 중 「장흥군의 연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22]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이후에도 비판 없이 수용되어 장흥군에서 발간되는 주요 문헌들[23]이 이에 기초하여 기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처음 회령포진이 설치되었던 옛 장흥부의 회령면을 이관 받은 인근 고을인 보성군에서 발간된 『보성군사』[24], 『보성문화유산총람』[25]은 물론 전라남도의 '조선수군재건로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학자들의 저서[26]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회령포진의 설치·이설 시기에 대한 관련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회령포진의 설치와 이설에 관한 다른 견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론해 보겠다. 첫

---

20) 최인선·변동명(2004), 『장흥군의 성곽』, 장흥군·남도문화재연구원, 29쪽 주 90, 69쪽 주 118.

21) 장흥군향토지편찬위원회(1975), 『장흥군향토지』, 장흥군향토지편찬위원회, 250~253쪽; 장흥군마을유래지편찬위원회(1986), 『마을유래지』, 장흥군, 529쪽.

22) "회령포진은 원래 현재의 보성군 회천면 회령포(群鶴里)에 있었으나 (1490년 2월 성종 21 쌓음), 1554년(명종)에 현 위치(회진면 회진리)로 옮겨 이듬해의 을묘왜변(달량진사변)과 임진~정유재란을 맞는다. 특히 정유재란 시는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과 회령진의 관계는 크게 부각된다. 이 진은 전라좌·우수영의 관할권을 가르는 지점이며, 좌수사 신유(申鍒)때는 좌수영으로, 우수사 한간(韓侃)때는 우수영으로 넘나들다 종국에는 좌수영 사도진첨사의 관할진으로 굳어졌다." (이해준(1989), 「장흥군의 연혁」, 『장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장흥군, 28쪽)

23) 장흥문화원(1992), 『장흥지리지·읍지모음』, 장흥문화원, 43쪽; 장흥군지편찬위원회(1993). 『장흥군지』, 장흥군, 997~999쪽.

24) 보성군사편찬위원회(1995), 『보성군사(전)』, 보성군사편찬위원회, 1290~1291쪽; 보성군사편찬위원회(2014), 『의향』, 140~141쪽, 273쪽; 보성군사편찬위원회(2014), 『보성군사-선인의 자취: 사료와 역사유적』(이하 선인), 보성군사편찬위원회, 639쪽.

25) 보성문화원(2004), 『보성문화유산총람』, 도서출판 사람들, 80~81쪽.

26) 노기욱(2014), 『약무호남 시무국가 명량 이순신』, 전남대학교출판부, 196쪽; 노기욱·이수경·정현창(2015), 『금신전선 상유십이 보성 이순신』, 전남대학교출판부, 67~68쪽.

번째는 세종 4년(1422)에 회령포에 병선 4척을 정박하여 세워두었다(泊立)는 기록을 최초의 설진 기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선초기의 수군의 근무방식인 '수군장재선상수어(水軍長在船上守禦)'의 원칙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초기의 수군은 병선에 무기와 식량을 싣고 배 위를 영보(營堡)로 삼아 항상 선상에서 근무하도록 되어있었다.[27] 이 원칙에 의하면 당시의 수군 진포는 병선의 정박처(碇泊處)로 지정된 포소(浦所)일 뿐으로 정박처의 이동에 따라 진포의 위치도 수시로 변동 되었으며, 후대의 그것처럼 고정된 성보(城堡)를 수축하여 진포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진포의 명칭 또한 회령포진처럼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포소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조선왕조실록』가운데 조선 초기 성종이전의 관련 기록에서 쉽게 확인 해 볼 수 있는데, 전라도 용문포(龍門浦)에 정박해 있던 도만호(都萬戶)의 병선을 여도(呂島)에 이박(移泊)시킨 세종 7년(1425) 2월의 기사를 여도 도만호진의 설진(設鎭) 기사로 보는 것도 이 같은 사례 중의 하나이다.

병선의 정박처를 포소로 삼는 조선 초기 수군의 근무방식은 본격적으로 진포에 성보를 수축하여 수군의 '장재선상수어' 원칙이 폐지되기에 이른 성종 15년(1484)경 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병선의 정박과 이박에 관한 기록을 수군 진포의 설치·이동과 연계해서 해석한 연구의 사례는 관련 논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28] 회령포진의 설치와 이설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령포에 수군 만호진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령포에 처음 병선을 정박시킨 3년 후인 세종 7년(1425)의 회령포진의 병선을

27)『성종실록』권 171, 성종 15년 10월 29일 계미;『성종실록』권 207, 성종 18년 9월 17일 계축.

28) 송은일(2016), 앞의 논문, 45쪽~46쪽.

주포(周浦)로 옮겼다는 기사의 머리에 '회령포만호'라는 관직명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세종 4년(1422)과 세종 7년(1425) 사이 3년 내외간에 이미 회령포에 수군 진포가 설치되어 만호가 주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선초기의 수군의 근무방식과 관련기록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회령포에 병선 4척을 정박하여 세워두었다〔泊立〕는 세종 4년(1422)의 기록을 회령포의 최초 설진 기록으로 보는 견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위시한 모든 장흥부 관련 지지·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회령포진이 장흥부의 남(南)쪽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흥부 남거(南距) 또는 남지(南至) 50~77리'라고 표시한 회령포진의 위치는 모든 기록상에 변동이 없고, 1871년의 『호남읍지중장흥도호부』와 1872년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장흥부회령진지도」의 표제 또한 최초 설진 당시의 회령포 위치를 장흥부의 동(東)쪽 60리로 표시하고 있음은 물론, 관련 기록 중에 『세종실록지리지』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시기인 1530년에 간행된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고려시대에 회령포를 관장했던 회령폐현지(會寧廢縣址)의 위치를 '장흥부의 동(東)쪽 32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회령포진의 이진(移鎭)은 적어도 세종 14년(1432)년에 완성된 「신찬팔도지리지」 전라도조에 "관방(關防)의 수어(守禦)는 회령포가 장흥부의 남(南)쪽 주포에 있다"라고 기록한 때보다 빠른 시기에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또한 세종 4년(1422)에 설진한 회령포 만호진을 세종 7년(1425) 이설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기록이라 하겠다.

세 번째로는 부적절한 사료(史料)의 선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1989년에 발간된 『장흥군의 문화유적』 중 「장흥군의 연혁」의 회령포 관련 기록은 회령포진이 명종 9년(1554)에 보성군 회령면에서 장흥군 대

덕면으로 옮겨왔다는『장흥지』기록의 기초위에, 그 이전 시기인 성종 21년(1490)에 회령포진성이 축조되었다는『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2차적으로 수렴함으로서 진의 이설과 축성의 시기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명종 9년(1554) 이전에는 회령포진성이 보성군 회령면에 소재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그 이전 시기의 사료인 세종 4년(1422)과 세종 7년(1425)의 기록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간된 지지·지도의 기록내용과도 배치되는 입증하기 어려운『장흥지』의 기록을 손쉽게 1차 사료로 선택함으로서, 사실의 혼란을 초래 하고 회령포진이 소재했던 두 지방자치단체인 보성군과 장흥군의 지방사 연구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회령포진의 '명종 9년(1554) 이진설'에 대한 부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회령포진은 세종 4년(1422)에 지금의 보성군 회천면인 옛 장흥부 회령포에 처음 설진되어, 3년 후인 세종 7년(1425)에 장흥부 주포 즉 지금의 장흥군 회진면에 이설되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였다.

Ⅲ. 회령포진 수군편제의 변화

회령포만호진이 처음 설치된 세종 4년(1422)의 전라도 수군처치사영은 무안현 대굴포(大堀浦)에 있었다. 지리적으로 전라좌도에 속한 회령포는 전라좌도를 관장하는 도만호인 고흥지역 여도량(呂島梁)에 있는 여도 만호진을 거진(巨鎭)으로 하여 내례(內禮)·돌산(突山)·축두(築頭)·녹도(鹿島)·마도(馬島)·달량(達梁)·어란(於蘭) 등 7개 만호진과 함께 전라좌도에 소속되었다.[29] 이후 무

29)『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안현에 있던 전라도 수군처치사영이 세종 14년(1432) 10월에 목포(木浦)로 이설되고, 세종 22년(1440)에는 지금의 해남 황원곶(黃原串)으로 옮겨져서, 세조 12년(1466)의 관제개편으로 전라도수군절도사영이 되었다.[30]

이후 성종 9년(1478)에 순천부 내례포(內禮浦)[31]에 왜구가 침입하여 군기와 화약을 탈취한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서 전라도 순찰사 이극배(李克培)의 계청[32]을 받아들여 이듬해인 성종 10년(1479)에 내례포에 수군절도사영을 추가로 설치하여 전라도의 수군을 강화하였다. 이때부터 해남에 있던 기존의 수군절도사영은 전라우도수군절도사영, 내례포에 신설된 수영은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으로 승격 되었다.[33]

세조 3년(1457)부터 시행된 조선의 국방체제인 진관체제에 따르면 이 시기 전라도의 수군 편제는 좌·우 절도사영에 있는 수군절도사인 수사(水使, 정3품)의 휘하에 수사를 보좌하는 본영의 우후(虞侯, 정4품)와 직접 수군을 통솔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인 첨사(僉使, 종3품)가 있고 그 다음으로 각 포구의 만호(萬戶, 종4품)가 배속 되어있었다.

이후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34]에 나타난 전라도 수군의 편제에 의하면 회령포는 주진인 전라좌수영 관할 하의 첨절제사진인 흥양의 사도진(蛇渡鎭)에 달량(達梁)·여도(呂島)·녹도(鹿島)·발포(鉢浦)·마도(馬島)·돌산(突山) 등 7개 만호진과 함께 소속되었다. 회령포진의 주진관이 같은 전라좌도의 여도진에서 사도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35]

---

30) 조원래 (1993),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박물관, 136쪽.

31) 지금의 전라남도 여수시이다.

32) 『성종실록』 권 100, 성종 10년 정월 계해.

33) 조원래 (1993), 같은 글, 136쪽.

34) 『경국대전』 권4, 「병전」, 외관직, 전라도.

35) 송은일(2016), 앞의 논문, 48쪽에서 사도(蛇渡)가 여도(呂島)를 대신하여 첨절제사진으로 승급된 시기를 도만호가 첨절제사로 바뀌었던 1466년경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할 체제는 영속되지 않고 변화를 계속 하였다. 중종 17년(1522) 6월 왜구가 추자도(楸子島)에 침입하자, 강진현 완도의 가리포(加里浦)에 진관(鎭管)을 설치하여 첨절제사를 배치하고 이곳을 전라우수영에 배속시켰다. 동시에 전라좌수영의 돌산도(突山島)에 방답진(防沓鎭) 진관을 설치하면서, 좌수영 관할의 마도(馬島)를 우수영에 이관하고 달량(達梁)을 폐지하여 소속 수군과 선박을 가리포에 이관하였다.[36] 그 때까지도 회령포는 여전히 전라좌수영 사도진에 소속되어 있었다.

명종 10년(1555) 5월에 왜구가 지금의 해남군인 영암의 달량포(達梁浦)에 침입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전라병사 원적(元積)과 장흥부사 한온(韓蘊) 등이 전사하고, 장흥부와 강진의 병영(兵營)이 약탈을 당하고 회령포진성이 소각되는 등 전라우수영 관할인 영암(靈巖)·해남(海南)·강진(康津)·장흥(長興)·흥양(興陽)·제주(濟州) 등지에 큰 피해를 입힌 을묘왜변(乙卯倭變; 달량포왜변)이 발발하자, 이를 어렵사리 토벌한 조정에서는 전라우수영의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라좌수영 관할의 장흥 회령포를 우수영관할인 완도의 가리포진(加里浦鎭) 소속으로 이관하여 우수영을 확대 개편한 가운데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다.[37]

임진왜란 이후인 숙종 9년(1683)에는 기존의 전라우도 임치진관(臨淄鎭管)이 제진(諸鎭)인 임치진으로 격하되면서 위도(蝟島)에 진관을 설치하여, 기존의 가리포진과 관할 구역경계를 조정할 때에도 회령포는 여전히 전라우도 가리포 진관에 배속되어 있다가,[38] 숙종 12년(1686) 당시의 전라 좌수사였던 신유(申鍒)가 수군을 조련하는 훈련인 수조(水操)의 편의를 위하여 강진 경내의 마도(馬島)·신지도(薪智島)·고금도(古今島)·가리포(加里浦) 등 4개 진포와 함

36) 정성일(2011),「전라좌수영과 남해방어」,『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경인문화사, 33쪽.
37) 정성일(2011), 같은 글, 34쪽.
38)『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윤6월 10일 경술.

께 회령포진을 좌수영으로 이속시키기를 청한 장청(狀請)이 받아들여져서, 회령포진 등 5개진이 함께 전라좌수영으로 이관되었다. 다시 한간(韓偘)이 전라우수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숙종 16년(1690)에 전라도의 군정을 살핀 암행어사 심계량(沈季良)이 두 지역사이가 육로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왕래하는 데 폐단이 있다는 별단(別單)을 올리자, 회령포진과 강진의 4개진이 도로 우수영으로 환원되는 등 관할의 변동이 계속되었다.[39]

이 후 숙종 37년(1711)에 전라도 순찰사 권상유(權尙游) 서계(書啓)에 의하여 장흥의 전선과 회령포진의 전선은 또 다시 좌수영으로 예속되게 되었는데, 회령포진은 이 때의 변동을 마지막으로 전라좌수영의 사도진(蛇渡鎭) 진관에 소속되었다가,[40] 고종 32년(1895년) 각 군문이 군무아문으로 일원화되어 수군통제영과 각도의 수영이 혁파되기에 이르자 따라서 폐지되었다. 이러한 회령포진의 빈번한 관할의 변동과 변천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령포진이 전라 좌·우도 수영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서해와 남해를 가르는 길목이고, 또한 왜적이 밟은 초정지(初程地)가 되는 지리적 특수성이 시대에 따라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1〉 會寧浦鎭 管轄의 變動

時期別	世宗實錄 地理志 (1432)	經國 大典 (1485)	壬辰 倭亂 (1592)	肅宗 12年 (1686)	肅宗 16年 (1690)	肅宗 37年 (1711)	續大典 (1744)	高宗 32年 (1895)
管轄水營	全羅左道	左水營	**右水營**	左水營	**右水營**	左水營	左水營	左水營

39)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4월 5일 경자; 「장흥부회령포진지도, 1872, 규 10443」.
40) 『호남읍지중장흥도호부지, 1871, 규 12175』; 『호남영지부사례, 1895, 규 12189』.

Ⅳ. 회령포진성의 축성과 수군의 운용

1. 회령포진성의 축성과 부속시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조선 초기에 수군은 원칙적으로 병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왜적을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군의 '장재선상수어(長在船上守禦)'의 원칙은 왜구의 침입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잘 지켜지지 않게 되었는데, 고된 선상생활에 지친 해변 진포의 만호(萬戶)들이 음성적으로 육지에 영사(營舍)를 두는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수군의 선상수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자 성종 대에 이르러서는 만호의 방어지인 진포에 여사(廬舍)의 축조를 허락하여 아예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41]

이러한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 연해안의 성보(城堡)의 축조에 대한 논의로 성종 9년(1478)에 전라도 어란(於蘭)과 달량(達梁), 마도(馬島)와 회령포(會寧浦) 사이에 보(堡)를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대신들의 찬반 논의 끝에 연해의 작은 보로 적을 방어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니 읍성을 견고히 하여 고수하는 것만 못하다 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42]

설보(設堡) 논의는 이후 성종 15년(1484) 10월에도 계속되어 사헌부 집의(執義) 조숙기(曺淑沂)가 경연에서 경상도 김해(金海)의 예를 들어 연변의 긴요한 곳에 설보할 것을 건의하자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동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종은 대신을 현지에 보내서 살펴보고 긴요한 곳에 보(堡)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승정원 대신들과 전라도·경상도 연변에 보를 수축하는 일을 심정(審定)할 대신을 보낼 것을 의논하니, 대신들 중 심회(沈澮)와 윤필상(尹弼商)은 점차적 시행을 건의하고, 이극배(李克培)와 노사신(盧思愼)은

41) 『성종실록』 권48, 성종 5년 10월 경술.
42) 『성종실록』 권94, 성종 9년 7월 20일 기묘.

반대하였다. 성종은 이를 절충하여 병기와 육물(陸物)을 저장하는 선에서 소석보(小石堡)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43]

같은 해 11월에는 우의정 홍응을 4도 순찰사로 보내어 전라도·경상도 연해에 보를 설치 할 곳을 심정하도록 결정하고, 다음해인 성종 16년(1485) 1월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서 여러 포(浦)에 보(堡)를 설치할 형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해 3월 홍응의 서계에 의하여 회령포진 등 전라좌수영 관하의 7개소, 경상도의 3포 등 9개소를 설보 대상지로 심정하고 성종 19년(1488)부터 축성을 시작하였는데, 성종 20년(1489) 2월에는 축성의 규식을 정하여 제포와 제읍의 성은 포백척(布帛尺) 15척을 기준으로 삼고, 쌓은 뒤 5년 이내에 15척 이상이 무너지면 감축(監築)관리를 파출하고 10척 이하는 율(律)에 의해 죄를 과하기로 하였다.[44] 이에 따라 성종 22년(1491)까지 4년간에 걸쳐 전라도·경상도 연안 진포의 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회령포진성도 이시기인 성종 21년(1490) 4월에 높이가 13척, 둘레가 1,990척 규모로 축성되었다.[45]

〈표 2〉는 시대별 기록에 나타난 회령포진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치첩(雉堞)·천정(泉井), 부속시설 등을 정리한 것이다. 회령포진 성내의 민호(民戶)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816년경에는 220호였던 것이 1870년대에는 72호가 되고, 회령포진이 폐진될 즈음인 1895년에는 계속적인 흉년을 당하여 42호로 줄어들었다는 기록을 보면 민호의 변동추세에 따른 회령포진의 성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46]

---

43) 『성종실록』 권171, 성종 15년 10월 28일 임오, 29일 계미.

44)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6일 기축; 『성종실록』 권 174, 성종 16년 1월 12일 을미; 『성종실록』 권176, 성종 16년 3월 25일 병오; 『성종실록』 권225, 성종 20년 2월 4일 임진.

45) 『성종실록』 권239, 성종 21년 4월 29일 신해.

46) 『호남진지중회령진지, 1895, 규 12188』.

〈표 2〉 會寧浦鎭城의 位置·規模·附屬施設·城內民戶

資 料 名	刊行年度	位置	材質	規 模		附屬施設		城門	城內民戶
				둘레	높이	雉堞	泉井		
世宗實錄地理志	1432	府南 周浦	-	-	-	-	-		
成宗實錄 239卷	1490	-	-	1,990尺	13尺	-	-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府南 72里	石築	1,990尺	10尺	-	1泉		
東國輿地志	1656	府南 72里	石城	1,990尺	10尺	-	1泉		
長興邑誌	1747	南至 70里	-	1,990尺	8尺	-	3泉		
輿地圖書	1765	在府 50里	石築	1,990尺	8尺	993	3泉		
大東地志	1866	南 70里	-	1,990尺	-	-	3井		
長興都護府邑誌	1868頃	南距 60里	-	1,990尺	8尺	-	3處		
湖南鎭誌中 長興都護府誌	1871	南距 70里	石城	-	-	-	-		72戶
長興府會寧浦鎭地圖	1872	南距 60里	-	1,860尺	8尺	-	-	東·南·北門	72戶
湖南鎭誌中會寧鎭誌	1895	府南 60里	-	-	-	-	-		42戶
增補文獻備考	1908	在南 72里	石築	1,990尺	8尺	993	3井		
長興邑誌	1910	南至 70里	石築	1,999步	10尺	663	5池 5泉	東·北·南門	
長興誌	1938	南至 70里	石築	1,999步	8尺	663	5池 5泉	東·南·北門	

※ 1816년경에 작성된 『長興府邑誌, 奎 17428』에 기록된 會寧浦鎭 城內의 民戶는 220戶이다.

회령포진 성내에는 진을 운영하는 아사(衙舍)와 공해(公廨) 등 부속시설물이 갖춰져 있었다. 아사와 공해에 대한 시대별 기록은 〈표 3〉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로 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1871년의 『호남읍지중장흥도호

부지』와 1872년의 『장흥부회령포진지도』의 기록을 종합하여 소개하면 회령포진은 성내에 객사(客舍) 3간, 동헌(東軒) 3간, 내아(內衙) 3간, 비장청(裨將廳) 5간, 군기고(軍器庫) 4간, 선창고(船倉庫) 3간, 그리고 진무청(鎭撫廳), 사령청(使令廳), 공수문(公守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진포의 행정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會寧浦鎭 城內의 衙舍·公廨

資 料 名	會 寧 浦 鎭 城 內 衙 舍 ·公 廨
長興邑誌(1747)	客舍, 軍官廳, 作廳, 使令廳, 將官廳
湖南邑誌中長興都護府誌(1871)	客舍 3間, 東軒 3間, 內衙 3間, 裨將廳 5間, 軍器庫 4間, 船倉庫 3間
長興府會寧浦鎭誌圖(1872年 奎 10443)	客舍 3間, 外東軒 3間, 內衙舍, 裨將廳, 鎭撫廳, 使令廳, 船倉庫, 軍器庫, 公守門
長興邑誌(庚戌誌, 1910)	客舍, 軍官廳, 將官廳, 作廳, 使令廳, 通引廳

이밖에도 회령포진의 남문 밖에는 돈석(墩石)을 둘러 방파시설을 갖춘 선소(船所)가 있어 전선·방선(防船)·사후선(伺候船)이 수심 50장(丈)이 되는 회령포 앞바다를 출입하였고, 진을 외호(外護)하는 내덕도(來德島)[47]와는 석교(石橋)가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를 제공하였다. 선소는 매년 봄·가을에 굴포(堀浦)하여 준설하고 성첩(城堞)은 간간히 보수·보강하였으며, 화포와 군기류는 수시로 개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회령포 만호가 관리하는 봉산이 천태산(天台山)과 천관산(天冠山)의 중간에 위치한 대흥면 심치동(深峙洞)[48]에 있어서 해마다 나무를 심

47) "내덕도 훈련도감 둔전은 회령포진의 군량을 위해 설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덕도는 해상과 해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었다. 내덕도는 회령포진의 바로 앞에 있어서 다른 섬에 비해 군량이동이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샛별(2011), 앞의 논문, 16쪽)

고 주민 가운데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금송(禁松)의 임무를 맡기고 수호하도록 하였다.

2. 회령포진의 관원·병선·수군의 운용

회령포진의 관원·병선과 입방군(入防軍)인 군사의 수효가 최초로 기록된『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회령포진은 무안현 대굴포에 있는 전라도수군처치사영 관할 하에 고흥의 여도량에 있는 좌도도만호를 거진(巨鎭)으로 하는 8개 만호진 가운데 하나로 설진되어 종4품직 무관인 수군만호가 중선 4척과 별선 4척의 병선과 472명의 군사 그리고 뱃사공인 초공(梢工) 4명을 거느리고 장흥부의 남쪽인 주포에 소재해 있었다.

이러한 회령포진의 관원과 병선 그리고 입방군인의 운용내용은 시대와 기록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록을 발췌하여 정리한 〈표 4〉를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회령포진의 관원·병선과 입방군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1747년에 간행된『장흥읍지』와 그 후대인 1817년에 간행된『호남읍지중장흥도호부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회령포진 지휘부의 구성과 병선·병력의 운용상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기록에 따라 회령포진에 딸린 관원 수를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만호가 1명, 군관 20명, 장교 6명, 진무(鎭撫) 30명, 통인(通引) 10명, 사령 16명이었으며 병선은 열자전선(列字戰船) 1척, 방선 1척, 사후선 2척을 운용하였고, 입방하는 군사의 수는 전선에는 사부(射夫) 15명, 포수(炮手) 24명, 대포장(大砲匠) 10명, 키와 돛을 조종하는 타료정수(舵繚碇手) 9명, 능노군(能櫓軍) 108명과 포도관 2명이 탑승하였다. 방선에는 방선장 1명, 집사 1명, 훈도 1명,

48)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구평마을 지명에 '지푼재'가 보인다. (장흥문화원(1996),『대덕면지』, 장흥문화원, 482쪽)

사부 10명, 포수 10명, 화포장 1명, 능노군 42명이, 1사후선에는 키잡이인 타공(舵工) 1명, 능노군 5명이, 2사후선에는 타공 1명, 능노군 5명이 탑승하였다.

군사의 수는 입방군이 386명, 정병(正兵)은 498명, 사부가 90명이었다. 일 년을 통하여 수륙군 810명 중에서 바다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에는 매월 95명, 바람이 세찬 6개월은 매월 40명씩 입방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수군의 번차(番次)는 '2번1삭상체(二番一朔相遞)'로서 1개월 교대로 1년에 6개월 복무이며, 정병은 '8번2삭상체(八番二朔相遞)'로서 1년에 3개월 복무토록 규정되어있었다.[49] 임진왜란 이후에는 수군의 조련인 수조가 실시되어 매년 2월에 실시하는 춘조(春操)와 8월의 추조(秋操)가 있었는데, 춘조는 합조(合操)라 하여 수군통제사가, 추조는 도조(道操)라 하여 각수영의 수사가 주관하여 수조규식(水操規式)에 의하여 실시하였다.[50] 회령포진이 전라좌수영의 관할로 고정된 조선 후기에는 여수의 경도(鯨島) 앞바다에서 시행되는 수조에 전라좌수영 수군 진영의 전전좌사(全前左司)의 전초(前哨)[51]가 되어 수조에 참가하였다. 입방수군의 군량미 대전(代錢)은 810냥(兩)으로 순영인 전주감영으로부터 매년 봄에 획급(劃給)하여 810명 수군의 군량을 책수(責需)하도록 하였다.

---

49) 이재룡(1970), 앞의 논문, 125~126쪽.

50) 장학근(1987), 앞의 논문, 241쪽.

51) 조선후기 수조시 "삼남수군의 편제는 5영(營)체제로 경상우수사가 겸하고 있는 삼도수군통제사를 중영(中營)으로 전라좌수영이 전영(前營) ……, 각 영 밑에 중사·전사·좌사·우사·후사 등 5사(司)를 두었고, 각사 밑에 중초·전초·좌초·후초·후초 등 5초관(哨官)을 두었다." 회령포진은 전라좌수영인 전영(前營)의 좌사(左司)·전초(前哨)에 배속되었다. (유미나(2014), 「조선후반기의 통제영 수군조련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81호, 한국미술사학회, 176쪽.)

〈표 4〉 會寧浦鎭의 官員·兵船·入防軍數

資 料 名	官 員 數	兵 船 數	入 防 軍 數
世宗實錄地理志 (1432)	–	中船4, 別船4隻	軍士472, 梢工4名
經國大典 (1485)	–	大猛船1, 中猛船1, 小猛船2, 無小猛船4隻	–
長興邑誌 (1747)	萬戶1, 軍官20, 將校6, 鎭撫30, 通引10, 使令16名	戰船1, 兵船1, 伺候船1隻	風高6個月 每月40名, 風和6個月 每月80名 射夫15, 炮手15, 能櫓軍 50餘名
湖南邑誌 中 長興都護府誌 (1871)	萬戶1, 啓請軍官2, 旗牌官3, 鎭撫15名	列字戰船1, 防船1 伺候船2隻	·戰船: 射夫15. 炮手24, 大砲匠10. 舵纔碇手9, 能櫓軍108, 捕盜官2名 ·防船: 將1, 執事1, 訓導1, 射夫10, 炮手10, 火砲匠1, 能櫓軍42名 ·1伺候船: 舵工1, 能櫓軍5名 ·2伺候船: 舵工1, 能櫓軍5名 ·入防軍386名, 正兵498名, 射夫 90名 通1年 水陸軍810名內 風和每月95名式 入防, 風高每月40名式 入防
長興府會寧浦 鎭誌圖 (1872)	萬戶1, 啓請軍官2, 旗牌官5, 鎭撫15名	列字戰船1, 防船1, 1伺候船, 2伺候船	·戰船: 射夫15, 炮手24, 火砲匠10, 舵纔碇手9, 能櫓軍108, 捕盜官2員 ·防船: 射夫10, 炮手10, 舵工1, 火砲匠1, 能櫓軍42名 ·入防軍: 水軍383名, 正兵417名, 射夫90名 通1年合 水陸軍810名內 風高每月40名 風和每月95名
湖南鎭誌 中 會寧鎭誌 (1895)	萬戶1, 啓請軍官1, 將校8, 鎭撫8名	–	–

Ⅴ. 맺음말

지금까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수군만호진 회령포에 대하여 진의 설치와 이설, 진의 관할인 수군편제의 변화 그리고 회령포진성의 축성과 관원·병선·수군의 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회령포진은 아직도 왜구의 세력이 잔존해 있던 조선 초기인 세종 4년(1422)에 요충지인 장흥부의 동(東)쪽 회령포에 병선을 정박시키면서 수군만호진이 되었는데, 3년 후인 세종 7년(1425)에 남(南)쪽인 지금의 회령포진성 인근 해안으로 옮겨서 정박하다가, 성종 21년(1490)에 회령포진성이 축성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고착되었으며, 이 때에 기존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회령포진의 설치·이설 사실에 대하여 실록·지지·지도 등 관·사찬 기록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어서 회령포진의 이설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으로 관련 연구의 걸림돌이 되었던『장흥지』에 기초한 '명종 9년(1554) 이진설'에 대하여 조선초기의 수군진포의 설치·이동은 당시 수군의 근무방식인'장재선상수어'원칙에 따라 병선의 정박과 이박을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과, 회령포의 병선을 주포(周浦)로 이박 시킨 세종 7년(1425)의 기록에 '회령포만호'라는 관직명이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세종실록지리지」이후의 모든 기록에 회령포진의 위치를 동(東)쪽이 아닌 남(南)쪽으로 적고 있는 점, 그리고 실록 등 관찬 사서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회령포진의 설진·이설 관련 기사를 간과하고 일제시대 지방의 향교에서 발간한 사찬기록물을 1차 사료로 선택한 사료선택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여, 기록의 부당성을 밝히고 세종 4년(1422) 설진과 세종 7년(1425)의 이진 사실을 입증 하였다.

다음으로 회령포진이 전라 좌·우도 수영의 중간지점에 설진되어 왜구의 침입 경로·해안지형·조류변화 그리고 수조(水操)의 시행에 따른 정책변경 등의

추이에 따른 관할의 변동과 변화가 다른 진포에 비해 심했던 까닭에 관련 연구에 혼란이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자료의 기록들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본 결과, 회령포진은 전라좌도 소속으로 장흥부 회령포에 설진되었다가 조류에 따른 병선 운용의 편리를 위하여 장흥부 대흥면으로 이설되었고, 을묘왜변 후에는 왜구의 침입경로 변화에 따른 우수영의 강화책으로 우수영에 소속되어 임진왜란을 겪었으며, 임란 이후인 숙종 12년(1686)에는 좌수영으로, 4년 후인 숙종 16년(1690)에는 다시 우수영으로, 이후 숙종 37년(1711)에는 또 다시 좌수영으로 환속되어 고종 32년(1895)에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숙종 이후의 관할 변동의 원인은 모두 전라좌·우도의 수조의 편의를 위한 해방정책의 변화에 기인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회령포진 등 연안 진포의 축성은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어 수군의 '장재선상수어'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한 성종 9년(1478) 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성종 15년(1484) 사헌부 집의 조숙기(曺淑沂)의 건의와 성종 16년(1485) 4도 순찰사 홍응(洪應)의 서계에 따라 전라좌수영 관하의 7개소와 경상도의 3포 등 9개소가 1차적인 축성대상지로 선정되어 성종 19년(1488)부터 성종 22년(1491)까지 4년간에 걸쳐 축성되었는데, 회령포진성은 이들 중 비교적 빠른 시기인 성종 21년(1490) 4월에 높이 13척, 둘레 1,990척 규모로 축성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회령포진성의 축성시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명종 9년(1554)의 이진설에 입각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와 봉강리 일대에서 회령포진성 관련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회령포성(귀두산성)'과 '구미영지'[52] 등의 기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 제기가 가능해졌고, 나아가 관련 지지·지도의 기록을 참고하여 회천면 봉강리 지역의 '회령포성'은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회령폐현의 관련 유적〔城池府城〕이고[53] 전일리 군학마을에 소재하여 '구미영지'라

52) 보성문화원(2004), 앞의 책, 80~81쪽.
53) 보성군사편찬위원회(2014), 『의향』, 140~141쪽 참조.

불리는 석축열(石築列)은 회령포진성 축성 이전시기에 회령포 만호가 운영했던 여사(廬舍)의 유적이거나, 아니면 이후 어떤 시기에 왜구를 방비하기위하여 일종의 엄폐물로 사용되었던 임시 방책(防柵)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구미영지'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은 『보성군사』 집필자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54]

끝으로 회령포진에 입방(入防)하는 수군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회령포진에는 종 4품 무관직인 수군만호가 주재하였으며, 병선은 열자전선 1척, 방선 1척, 사후선 1척을 운용하였고, 수륙군의 수효는 810명이었다. 각 병선별로 탑승인원은 정수가 있어 회령포진에 소속된 수군은 1개월 교대로 1년에 6개월 근무하는 '2번1삭상체(二番一朔相遞)', 정병은 1년에 3개월 근무하는 '8번2삭상체(八番二朔相遞)'의 원칙에 따라 입방하였다. 또한 수군은 1년 중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수조에 참가하였는데, 숙종 37년(1711)이후의 수조에서 회령포진은 전라좌수영 수군진영의 전전좌사(全前左司)의 전초(前哨)가 되어 여수 앞바다 경도(鯨島)에서 행해지는 수조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4) 보성군사편찬위원회(1995), 앞의 책, 1290~1291쪽에는 '회령포영', 보성문화원(2004), 앞의 책, 81쪽과 보성군사편찬위원회(2014), 『선인』, 639쪽에는 '구미영지', 보성군사편찬위원회(2014), 『의향』, 140~141쪽에는 '회령포진성', 보성군청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군학마을'유래에는 '구미영성'으로 나와 있는 '구미영지'에 대하여, 보성군사편찬위원회(2014), 『선인』, 639쪽에서 집필자인 순천대학교 최인선 교수는 "…… 후대에 없어졌다고 해도 현재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이 수긍하기 어려워서, 혹시 성이 아니라 바다에 상륙하는 왜적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엄폐물로서 사용되었던 소규모 석축열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장흥부회령포진지도, 1872, 규 10443」
「전라좌도장흥부회령포진지고적, 1872, 규 10442」
『경국대전』
『고려사절요』
『대동지지, 1865』
『동문선』
『성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숙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장흥부읍지, 1816경, 규 17428』
『장흥지무인지, 1938』
『정조실록』
『태종실록』
『호남영지부사례, 1895, 규 12189』
『호남읍지중장흥도호부지, 1871, 규 12175』
『호남진지중회령진지, 1895, 규 12188』

2. 단행본

강봉룡 (2005),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노기욱(2014), 『약무호남 시무국가 명량 이순신』, 전남대학교출판부.
노기욱·이수경·정현창(2015), 『금신전선 상유십이 보성 이순신』, 전남대학교출판부.

보성군사편찬위원회(1995),『보성군사(전)』, 보성군사편찬위원회.
_____(2014),『보성군사-의향의 역사』, 보성군사편찬위원회.
_____(2014),『보성군사-선인의 자취: 사료와 역사유적』, 보성군사편찬위원회.
보성문화원(2004),『보성문화유산총람』, 도서출판 사람들.
장흥군마을유래지편찬위원회(1986),『마을유래지』, 장흥군
장흥군지편찬위원회(1993),『장흥군지』, 장흥군.
장흥군향토지편찬위원회(1975),『장흥군향토지』, 장흥군향토지편찬위원회.
장흥문화원(1992),『장흥지리지·읍지모음』, 장흥문화원
_____(1996),『대덕면지』, 장흥문화원.
_____(2007),『회진면지』, 광명문화사.
조원래 (1993),「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박물관.
최인선·변동명(2004),『장흥군의 성곽』, 장흥군·남도문화재연구원.

3.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

김상룡(2005),『조선시대 경상도 수군 영진의 변천과정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쪽.
김승·최치훈(2011),「장흥군의 회진 신항 개발 필요성에 대한 연구」,『한국도서연구』 23권 4호, 19~215쪽.
배종무(1989),「장흥지방의 관방유적·도요지」,『장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장흥군, 391~402쪽.
송은일(2016),「조선전기 고흥지역 수군진의 설치와 수군의 동향」,『역사학연구』 64권, 호남사학회, 39~63쪽.
유미나(2014),「조선후기의 통제영 수군조련도 연구」,『미술사학연구』 281호, 한국미술사학회, 165~202쪽.
이재룡(1970),「조선전기의 수군 –군역관계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 제5호, 한국사연구회, 117~145쪽.

이해준(1989), 「장흥군의 연혁」, 『장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전라남도·장흥군, 9~38쪽.
장학근(1987),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1쪽.
정성일(2011), 「전라좌수영과 남해방어」,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경인문화사, 27~56쪽.
정승진(2007), 「장흥부제도 양안의 분석」,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31~263쪽.
한샛별(2011), 『조선후기 장흥 래덕도 궁방전 분쟁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쪽.
허선도(1974), 「제승방략연구(하), 임진왜란 직전 방위체제의 실상」, 『진단학보』 제37집, 진단학회, 5~42쪽.
노기욱, 「노기욱의 남도 이순신」, 『전남일보』 2017. 2. 17.
보성군청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투고일: 2017. 05. 10.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5.

| 국문초록 |

전라도 장흥도호부 수군(水軍) 만호진(萬戶鎭) 회령포(會寧浦) 연구

이 글은 조선 초기에 왜구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하여 전라도 장흥도호부 회령포에 설치된 수군 만호진의 설치와 이설 그리고 관할의 변동과 축성사실, 수군의 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로 다른 기록이 있어 관련연구에 혼란을 주고 있는 진의 설치와 이설 시기에 대한 사실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회령포진은 조선 초기인 세종 4년(1422)에 요충지인 장흥부의 동(東)쪽 회령포에 병선을 정박시키면서 수군만호진이 되었는데, 3년 후인 세종 7년(1425)에 남(南)쪽인 지금의 회령포진성 인근 해안으로 옮겨서 정박하다가, 성종 21년(1490)에 회령포진성이 축성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고착되었으며, 이 때에 기존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회령포진의 설치·이설사실을 실록(實錄)·지지(地誌)·지도(地圖) 등 관(官)·사찬(私撰) 기록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이어서 회령포진의 이설시기에 대한 연구의 걸림돌이 되었던 『장흥지(長興誌)』에 기초한 '명종 9년(1554) 이진설'에 대하여 조선초기의 수군진포의 설치·이동은 당시 수군의 근무방식인 '장재선상수어(長在船上守禦)'원칙에 따라 병선의 정박과 이박을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과, 회령포의 병선을 주포(周浦)로 이박 시킨 세종 7년(1425)의 기록에 '회령포만호'라는 관직명이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의 모든 기록에 회령포진의 위치를 동(東)쪽이 아닌 남(南)쪽으로 적고 있는 점, 그리고 실록 등 관찬 사서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회령포진의 설진·이설 관련 기사를 간과하고 일제시대 지방의 향교에서 발간한 사찬기록물을 1차 사료로 선택한 사료선택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여, 기록의 부당성을 밝히고 세종 3년(1422) 설진과 세종 7년(1425)의 이진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회령포진이 전라 좌·우도 수영(水營)의 중간지점에 설치되어 왜구의 침입 경로·해안지형·조류변화 그리고 수조(水操)의 시행에 따른 정책변경 등의 추이에 따라 관할변동이 다른 진포에 비해 심했던 점에 착안하고, 관련 자료의 기록들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여 회령포진의 변천과정과 원인을 밝혔다.

또한 회령포진성의 축성시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명종 9년(1554)의 이진설'에 입각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일대에서 회령포진성 관련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몇몇 유적지에 대한 기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회령포진에 입방(入防)하는 수군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수군, 왜구, 회령포진, 회령포진성, 수영(水營), 수조(水操), 입방군(入防軍)

호남문화연구 61: 255~28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60년대 광주·전남 화단

— '구상과 추상 논쟁'에 관한 비평 —

The Art Scene of Gwangju and Jeollanam-do in the 1960s:

Critical Studies on the 'Debate of Abstraction versus Figuration'

김 허 경*
Kim Heo-Kyung

목 차

Ⅰ. 머리말
Ⅱ. 전위적 회화의 등장과 전개
Ⅲ. 구상과 비구상의 미술논쟁
Ⅳ. 결론

| Abstract |

The transition from the late 1950s to the 60s in Korea was a transformative period when the challenge and resistance against existing values came to the fore. Korean art scene at the time witnessed the rise in Informel art of the post war period which led to a higher tension between figuration and abstraction. After experiencing Korean War, Gwangju and Jeollanam-do art scene saw the expansion of non-figurative, abstract art, representing avant-garde, into Informel art which created the parallel composition of abstraction and figuration. In various aspects, avant-garde art is at the opposite of figuration which involves impressionism, naturalistic tradition and orientation on realism as it focuses on describing the subject and avant-garde painting transformed the modes of the existence of art.

This thesis focuses on the 'debate between figuration and non-figuration' in Gwangju art scene in the 1960s which rouse the question prior to Seoul

*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but has not been shed light on. What is the reason that the question of abstraction, in relation to figuration and non-figuration, started in Gwangju art scene and how does it link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Starting from this point, the debate between figuration and non-figuration that was stemmed together with the advance and development of avant-garde art is critically explored, mainly focusing on the Gwangju art scene. Based on their time in Japan, Gwangju and Jeollanam-do artists formed a Western art circle and developed the aesthetical thinking of figuration and non-figuration through practices of those such as Oh Ji Ho and Kim Hwan Ki in the 1930s. These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avant-garde paintings that Kang Yong Woon and Yang Soo Ah pursued in the 1950s, which again drove Informel in the early stage of Korean contemporary art.

Discussion about Contemporary Painting by Oh Ji Ho and *Contemporary Painting Studies* by Kang Yon Woon were exceptional cases in that they claimed the artists' strong ideas in figurative studies in the regional art scenes where critics or commenters are not so common. The importance of revisiting them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art is apparent as they are discourses that mark the beginning of the 'debate in figurative studies' after the war and shows aesthetic thinking about artistic ideas and practices. Thus the significance of these phenomenon in Gwangju art scene in the 1960s where the discussion was highly active is not only in that it dealt with the substantial aesthetic issues by exploring the nature of art, painting formats, attitudes of artists or future direction of artistic practices but also in that it was in the path of seeking the identity of Korean contemporary art.

Key words : Gwangju Art Scene, Figuration, debate, Avant-garde Painting, Oh Ji Ho, Kang Yong Woon

Ⅰ. 머리말

호남은 사림문화의 근원지로 남도에 안착한 선비들에 의해 '사의(寫意)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조선후기를 거쳐 남종화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미술전통은 근대의 서양화로 이어졌다. 20세기 초 외세와 더불어 들어온 서양화는 전통과 서구의 양식이 혼재하던 한국화단에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식민지 시대 광주·전남지역은 목포, 여수, 군산 등의 개항 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이라는 중앙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도 근대화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주·전남에 서양화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첫 서양화가인 김홍식을 비롯하여 1926년의 오지호(吳之湖, 1906~1982) 1928년의 박근호, 1933년의 김환기(金煥基, 1913~1974) 등 무려 20여명이 순차적으로 일본 유학을 나서던 때부터였다. 그러나 초창기 유학파 김홍식, 박근호는 귀국한 뒤 활발한 활동을 펴지 못한 데다 오지호, 김환기는 서울에 머물러 있어 호남의 서양화단은 크게 활성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호남화단에 실질적으로 서구의 조형방식이 유입되던 시기는 일제 강점기지만 1930년대에 전개된 근대화가 진정한 우리 것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문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식민치하에서 자주성과 독창성, 자유로운 사고의 표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긴 작품에는 고난의 역사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역사성, 시대적 정체성, 치열한 문제의식, 사회적·문화적 충격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1930년대를 거치면서 오지호와 김환기가 형성해 나간 순수와 전위적 태도, 재현과 추상의 표현은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자 지역미술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향의 전통을 이어나간 상징적인 행보였다.

광주·전남화단은 해방을 맞아 일본 유학을 떠난 세대들이 광주에 정착하면서 화단의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1950년대에 이르러 오지호를 비롯한 구상 작

가들과 양수아(梁秀雅, 1920～1972), 강용운(姜龍雲, 1921～2006)의 활동이 양립구도를 이루면서 발달하였다. 무엇보다도 양수아, 강용운은 1950년대 초, 일본 미술학교에서 경험한 전위적 회화를 바탕으로 자연주의와 인상주의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광주·전남화단에 추상미술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였으며 이는 한국 앵포르멜(Informel)[1] 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전후 추상미술인 앵포르멜은 서울 지역에서 1950년대 말에 급격히 대두하여 전통적 자연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지향하는 구상과 대립양상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추상미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반응으로 일종의 국제적인 보편화 현상이었다. 구상과 추상의 논쟁은 1950년대 초반부터 파리 화단을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을 만큼[2]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는 미술계의 추세였다. 동시대의 한국화단도 기존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과 저항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국전》과《국제전》에 대한 미술계의 구조문제로 인한 비평이 집중됨에 따라 이른바 '구상·추상 논쟁'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60년 장두건의『미술에 있어서의 구상과 추상』(『民國日報』, 1960.7.26)과 국제전의 관심이 한창 고조되었던 1963년에 이르러 박서보의「구상과 사실(寫實)-국제전을 에워싼 화단의 동향과 관련하여」(『동아일보』, 1963.5.29)를 중심으로 이열모의「현대미술과 전위-박서보씨의 '구상과 사실'을 읽고」(『동아일보』, 1963.6.14),「추상은 예술이 아니다」(『세대』, 1963.11),「비평한다-추상과 구상의 대결」(『서울신문』, 1963.6.7) 등이 발표되어 잡지와

1) "앵포르멜이란 앵포름(informe, 부정형, 형식을 만들지 않음)이라는 소극적이고 엄밀하지 않은 의미와 반대로, 피안의 추상적 세계를 나타내는 극히 보편적인 용어"이다. (미셸 타피에, 타키쿠치 슈조 옮김, 안연찬 재역(1956),「다른 미학에 관하여(d'une esthetique autre)」,『미즈에』12월호, 일본: 미술출판사.)

2) 전후 프랑스화단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구상단체인 '옴므 테므앙(Homme Témoin)'을 중심으로 아카데믹한 자연주의풍이나 서정적인 에콜드 파리풍, 공산당계열이 내세우는 리얼리즘의 작가들은 새로운 구상의 대표주자인 베르나르 뷔페(Bernard Buffet)를 통해 추상진영과 이념적·미학적 공방을 전개하였다. (오광수(1998),『이야기 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이야기』, 정우사, 284쪽 참조.)

신문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과 추상 논쟁은 일찍이 「순수회화론」(1938), 「현대회화의 근본문제」(1940), 「구상회화선언」(1959) 등을 발표하면서 인상주의 회화를 자신의 조형언어로 이끌어낸 오지호에 의해 시작되었다. 오지호는 1959년에 발표한 「구상회화선언」을 토대로 1960년 1월 『전남일보』 을 통해 구상과 비구상 논쟁을 제기한 것이다. 광주에서 촉발된 오지호의 「현대회화를 논한다-구상과 비구상회화에 대하여」[3]와 강용운의 「현대 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4]은 당시 한국화단에서 보기 드문 현대미술에 관한 비평으로서 총30여회에 걸쳐 펼쳐진 미술논쟁이었다.

따라서 오지호와 강용운의 논쟁은 해방이후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 전개된 '조형이념의 대결'로서 예술적 사유와 실천에 따른 미의식이 드러난 담론이기에 주목케 한다. 특히 강용운의 「현대회화론」은 장장 200자 원고지 300매 분량에 해당되는 본격적인 회화론으로, 추상미술의 출현에 대한 역사적 요구와 필연성을 아주 면밀하게 개진하여 현대입문서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내용임을[5] 평가 받았다. 더구나 서울화단의 경우 구상 대 추상의 논쟁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 중앙이 아닌 지방신문을 통해 단평이 아닌 장문으로 연재되었다는 점, 작가의 확고한 조형이념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논쟁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작품의 내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구상 대 추상의 논쟁이 광주화단에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이며, 시대적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가? 라는 논점에 근거하여 변혁의 시대의식이 반영된 오지호와 강용운의 미술논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광주·전남화단에 도입된 전위적 회화의 등

3) 오지호(1960), 「현대회화를 논한다-구상과 비구상회화에 대하여」, 『전남일보』, 1.7~1.18, 총11회.
4) 강용운(1960), 「현대 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 『전남일보』, 2.11~3.1, 총21회.
5) 광주시립미술관(1999), 『강용운의 회화60년』, 광주시립미술관, 15쪽.

장과 배경을 토대로 구상과 비구상 담론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광주화단을 중심으로 제기된 구상과 비구상의 논쟁을 비평적으로 고찰한다. 본 연구는 오지호와 강용운의 미술논쟁에 내재된 미학사상의 진전과정을 신문지면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미술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시대적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방법론의 비평적 시각을 재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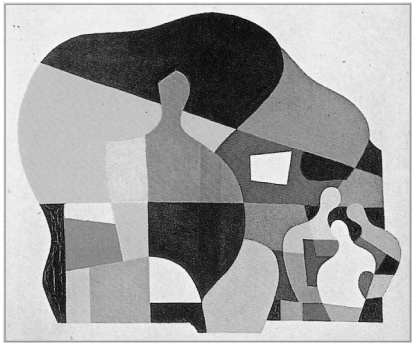
Ⅱ. 전위적 회화의 등장과 전개

현재까지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추상' 양식의 첫 단서를 제공해준 작품으로는 가장 연도가 이른 1923년 주경의 〈파란波瀾〉(도판1)을 일컫는다.[6] 그는 서양화 이입의 초기와 정착 단계인 1930년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추상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쉽게도 추상화로 남겨진 작품은 〈생존〉(1930)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후 추상미술은 1930년 후반, 가장 전위적인 미술 사조를 표방한 일본의 《자유미술가협회전》과 《이과회구실전》을 중심으로 젊은 작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김환기, 유영국은 일본에 유학한 미술학도로서 일본 추상미술의 거점이었던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참가하여 당시 유행한 현대적 미술개념을 자신의 조형방법으로 전개시켜나갔다.

이 중에서 한국 비구상미술의 선구자격인 김환기는 1938년 작품 〈론도〉(도판2)와 〈창〉(1940)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대상을 점진적으로 요약해가는 기하학적 양식 즉 구성적 추상의 방법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론도〉는 인체의 형태와 배경을 직선과 곡선의 분할된 색과 면으로 구성하여 입체주의 경향을 보인 추상미술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당시 추상미술은 자연에서

6) 김인환(1979), 「한국추상미술의 여명기」, 『한국의 추상미술-20년의 궤적』, 중앙일보, 25쪽.

〈도판1〉 주경, 〈파란〉, 1923



〈도판2〉 김환기, 〈론도〉, 1938

출발하여 자연적인 요소를 지워가며 순수한 추상에 도달하는 것과 처음부터 그런 과정 없이 기하학적인 도형인 직선, 곡선, 사각형, 원과 같은 구성요인들로 표현하는 두 가지의 경향을 선보였다. 이러한 김환기와 유영국의 추상양식의 시도는 당대 한국 화단에서 행해졌던 아카데미즘, 인상주의적 화풍에서 벗어나 한국 모더니즘 미술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초석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화단에서 근대적 추상미술의 등장 시점은 아카데미즘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새로운 재료와 형식을 도입하여 추상으로의 전이를 시도했던 1930년대 후반이라 할 수 있다.

호남화단의 추상도 일본유학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본 화단에 유입된 유럽의 입체파, 야수파 등 전위미술사조로 인한 자극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조형심리와 연관하여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한 '전위(前衛, Avant-Garde)'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표현방식을 표방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과거의 관습을 배격하는 가장 앞서나가는 미술을 상징하였다. 1930년대 등장한 전위미술을 두 영역으로 묶는다면, 첫째는 자연대상에 기초하여 자연주의적 방법을 극복하려는 표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표현파와 야수파이고, 둘째는 자연대상을 화면에서 지워가는 순수한 조형논리의 구성파, 추상파의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광주·전남화단은 대상을 충실히 묘사하려는 사실적인 사생, 자연주의의 풍조가 지배적으로 뿌리내리는 동시에 대상에 대한 작가의 주지적 입장을 강조한 야수파, 표현파, 입체파, 추상파 등의 새로운 경향이 시도되면서 크게 두 양상으로 구획되어갔다. 두 가지의 경향은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해지면서 전자를 편의적으로 아카데미즘, 후자는 대체로 모던아트 또는 전위적 회화, 아방가르드로 통칭하였다. '전위적 회화'라는 말은 구상작가인 오지호의 「순수회화론-예술이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19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위파(前衛派)라는 그 이름이 표시하는 것과 같이 전위(前衛)요 본통(本統)은 아니다.(생략)환언하면 전위파 회화는 회화의 본류에 표면에 발생하는 포말적 현상이다. 포말이 수류가 외적 장애에 충돌해서 수류에 오회곡절(汙廻曲折)이 생기는 때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같이 전위파 회화는 회화의 유동이 외적 장애 - 사회적 불안, 모순, 갈등에 약언하면 세기말적 광풍에 조우해서 고민하고 초조하고 혼란하는 데서 생긴 일시적이오 또 일부적 현상이다"[7]

오지호는 '전위회화'를 '회화의 본류에 발생하는 포말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일시적이고 일부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특히 「순수회화론」에 뒤이은 「피카소와 현대회화」(1939)의 글을 통해 피카소(Pable Picasso)가 고안해낸 입체파를 두고 "기형(奇形)으로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거나 이지(理智)의 작위로서 신기(神奇)를 위한 신기에 불과하다"[8]라며 구상회화의 시각에서 추

7) 오지호(1938), 「순수회화론-예술이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9.4.
「순수회화론」은 오지호가 1938년, 『오지호·김주경 이인화집』(오지호(1938), 『오지호·김주경 二人畵集』, 漢城圖書株式會社)에 예술의 본질, 미의 본질, 미의 내용, 감정과 이지, 회화의 본질, 색과 형, 회화의 방법, 내용과 형식, 예술의 영원성, 전위파 회화, 변화와 통일 등 총 10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회화적 입장을 밝힌 글이다. 오지호는 「순수회화론」(1)~(10)의 내용을 1938.8.20~9.4일까지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

상회화를 거듭 부정하였다. 그러나 실험적인 미술을 선도했던 김환기는 전위회화에 관해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환기는 「피카소와 현대회화」에서 밝힌 오지호의 의견에 맞서 『조선일보』의 「추상주의 소론」에서 전위회화 즉 추상미술에 무게를 싣는 글을 발표하였다.

> "현대의 전위회화(前衛繪畵)의 그 주류는 추상예술(Abstract art)이라 하겠다. 내가 의미한 진정한 미의 형태란 대개를 생각하는 생물의 형태 또는 회화가 아니라 직선, 곡선, 정규(正規) 등(等)으로 만들어진 면 혹은 입체의 형태를 말함이다. (…)현하 조선화단에 전위적 회화의 분위기가 잇는지 업는지 나는 모르되 적어도 현대예술에 있어서 사상, 시대성, 의식 감각 즉 말하자면 적어도 현대생활의 표현양식 또는 방법이 가장 추상회화에 다분한 특질이 없지 않을까?"[9]

김환기는 전위회화가 이미 자연의 재현을 떠났다고 지적하면서 "요컨대 시대의 성격, 시대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데에 있을 것이니,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오로지 묘사가 아님은 이미 상식화된 사실"[10]이며 "자연의 모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회화는 가장 민중에게 접근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차보다 비행기에 매력을 느끼는 오늘날에 구상회화는 우리의 생활, 문화일반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있을 수 없다"[11]고 주장했다. 김환기는 현대생활의 표현형식 및 방법을 추구해 나간 현대 전위회화의 주류인 입체파야 말로 진정한 순수회화의 예술이라 여겼다. 이러한 김환기의 견해는 입체주의 회화를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간주했던 오지호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지만 현대사회의 시대성격, 시대의식을 반영한 미술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수용적인 입장

8) 오지호(1939), 「피카소와 현대회화」, 『동아일보』, 5.31~6.7, 5회.
9) 김환기(1939), 「추상주의 소론」, 『조선일보』, 6.11.
10) 김환기(1939), 같은 글.
11) 김환기(1939), 같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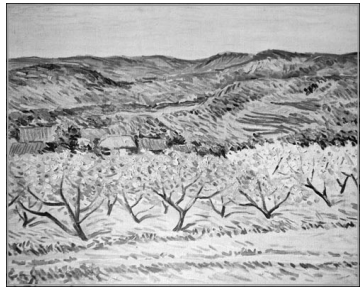
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화단에서 미술의 변화에 따라 제기된 추상미술에 대한 갈등은 오지호와 김환기가 논한 전위적 회화와 구상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오지호의 전위파 회화에 대한 비판은 「피카소와 현대회화」 이후 「현대회화의 근본문제-전위파 회화운동을 중심으로」(1940)로 이어지면서 회화의 '형식'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는 「현대회화의 근본문제」에서 회화란 원래 자연을 기초로 재현하는 미술이기 때문에 입체주의의 경우 형태를 파괴하여 자연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는 한국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를 재차 주장하였다.

오지호는 "입체파는 확실히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의 회화사상 일찍이 그 전례가 없었던 회화양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경이로움, 입체파에 대한 경이로움은 그것은 미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기형성 때문이다. 기형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입체파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파악하고 이용한 상술이다"[12]라고 폄하하면서 입체파의 '기형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혼란이 야기됨으로 전위파 회화의 '병적 상태'를 고쳐 회화 본연의 정신성을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지호는 창작과 비평과의 관계를 두고 자신이 직접 창작에 대입하여 체득한 회화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가 있다.

> "회화의 방법은 다만 사실에 있을 뿐이다. 즉 자연을 사실하는 것 외에는 여하한 방법도 없다. 자연의 형체를 그리지 않고는 자연의 여하한 생명도 표현할 수 없다. 색과 선은 회화의 소재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아직 회화가 아니다.(…)회화에 있어서는 색과 선은 자연의 형체 내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것은 생명을 갖게 된다.[13]"

12) 오지호(1940), 「현대회화의 근본문제-전위파 회화운동을 중심으로」, 『동아일보』 4.18~5.1.



〈도판3〉 오지호, 〈도원풍경〉, 1937

여기서 오지호는 회화의 방법에 관해 "색과 선은 자연의 형체를 형성하는 요소로써 사용될 때 비로소 그것은 유기적 결합체로서 생명을 가진 색과 선으로 느끼게 되는 것[14]이라고 논하였다. 이는 자연의 풍토와 기후, 환경에 따라 인간의 감각과 미의식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형체를 구현해 내었을 때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특질을 살릴 수 있다는 오지호의 창작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1938년 『오지호·김주경 二人畵集』에 실린 〈도원풍경〉(도판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원풍경〉은 화면전체에 여러 개의 붓 터치인 선과 색으로 묘사한 분할기법을 적용하였다. 〈도원풍경〉에서 보이는 인상주의 화풍의 특징은 자연주의의 발전적인 표현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빛의 구조에 의해 해체된 자연의 형상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지호는 사물에 빛이 닿아 광선이 반사될 때 생명감을 담을 수 있다는 순수주의 미학과 외광파 양식을 결합시켜 빛을 연구하였다. 이는 사물의 표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광선의 효과를 선과 색으로 그려낸 끌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작업과는 다른 의미의 특성을 지닌다. 엄밀히 말하면 오지호가 화폭에 담고자 한 것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시도했던 과학적인 광선과 색채의 분석이 아니고, 빛이 투과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외형도 아니었다. 그가 분할된 색채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연과 사물이 지닌 꿈틀거리는 본질적인 생명감이었다. 따라서 〈도원풍경〉에는 맑고 투명한 색채를 바탕으로 인상파의 기법을 '자기화', '체화'하는 과정에서 구현된

13) 오지호(1938), 「순수회화론-예술이 아닌 회화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9.2.
14) 오지호(1938), 같은 글.

자연의 생명력이 담겨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상주의 화풍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상화의 전조(前兆)를 보였다는 점이다. 하나는 표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빛을 분해하고 추출하거나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곽선이 사라진 형태의 틀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구상을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추상의 일면과 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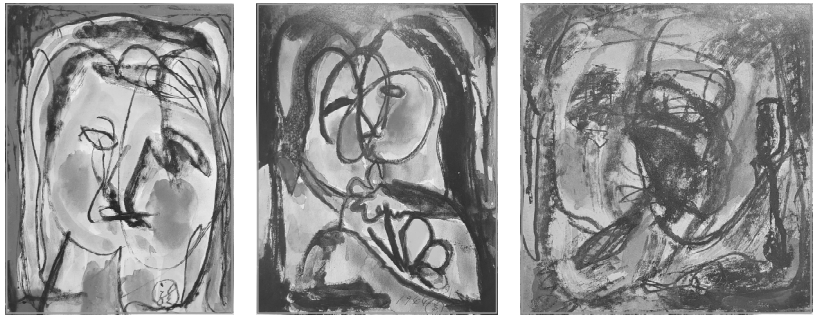
이처럼 추상은 외부의 세계를 묘사하는 자연주의적 방법에서 출발하여 외형의 점진적인 변이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다. 추상으로의 변화는 해방 이후 활약한 배동신, 양수아, 강용운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광주화단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 구상 화가로서 독창적인 유화와 수채화를 선보였던 배동신은 사실적인 양식의 범주를 탈피하여 표현적으로 추상회화의 단계를 진전시켰다. 배동신은 무등산, 누드, 정물 등 한정된 소재를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그려나감으로써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시켰다. 그가 수채화로 그린 〈산〉(도판4), 〈무등산〉은 화면구도의 짜임새와 형태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배동신은 화면에 큐비즘적인 입체감각과 형태의 선, 색채의 융합을 통해 자신의

〈도판4〉 배동신, 〈산〉, 1953

〈도판5〉 양수아, 〈따진다 질투〉, 1940년대 말

시각을 담아냄으로서 오지호의 구상 회화와는 다른 직관적인 표현을 회화의 특질로 삼았다. 이러한 변화된 시각의 관점은 자연과의 교감을 근거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조적 입장에서 보려는 작가의 태도에서 연유한다. 오지호와 배동신의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는 대상의 밖보다는 안으로 관심이 내재되었기 때문에 대상의 외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940년대 중반에 이르면 내적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 대상의 사실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시도한다. 양수아의 〈따진다·질투〉(도판5), 〈불만〉과 강용운의 〈女〉(도판6), 〈여름날에〉은 초기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강용운은 1947년 전남도 학무국 주최로 열린《새교육전람회》(6월, 중앙초등학교 강당)에 〈봄〉을 출품하여 광주·전남의 첫 추상작품이라 평가받으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강용운과 양수아는 인상주의적 화풍과 미학이 미술의 성격을 규정짓는 상황 속에서 추상으로 변이를 시도하며 앵포르멜을 탐색해 나갔다. 두 사람은 추상과 구상의 구분에 앞서 자신들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실존적 자아를 탐색하고자 회화의 자율성을 추구하였다. 이들이 화면에 보여준 표현주의적 특성은 거친 붓질과 강렬한 색채 표현에서 점차 비정형의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도판6〉 강용운, 〈女〉, 1940년대, 〈女〉, 1944년. 〈女〉, 1947년.

이석우에 의하면 “양수아는 구상화도 나름대로의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음에도 그는 구상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늘 못 마땅하게 여겼으며 그 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내면의 소리를 거부하지 못했다”[15]고 말했다. 이러한 추상미술에 대해 원동석은 지방 작가들에게 6·25 전쟁이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도리어 구상적 공간 표현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는 “양수아의 추상작품은 앵포르멜의 전후 논리에서 파생한 우울하고 염세적인 인생관의 반영이기도 했으며 간혹 생활의 자구책으로 구상화를 내놓으면서도 위조지폐를 그린다고 자책하는 자기모순의 갈등의식”[16]이라고 하였다. 시인 위증 역시 추상으로의 변모를 추구했던 양수아의 실험적인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그는 (양수아) 사실로서의 회화가 아닌 느낌으로서의 회화를 추구했다. 사랑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혹은 꽃잎이 흩날리는 소리, 늦은 봄의 나른하고도 달콤한 빗소리, 격정과 환희 등을 색채의 리듬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선이나 원근과 명암의 회화적 율법에 구애받지 않으려 했으며 오히려 이를 부정했다.[17]”

양수아는 자신의 작품에 관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는 상상력의 갈등, 현실과 이상사이의 비좁고도 넓은 격차,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그 격차를 포착해 보려고 한 것이다”[18]라고 설명하였다. 강용운과 양수아는 한국전쟁을 겪고 민족상잔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세대였기에 회화의 본질이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묻는 전위적인 추상회화

15) 이석우(2004),『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들』, 아트북스, 232쪽.
16) 원동석(1985),「풍부한 예술적 풍토, 호남화단」,『계간미술』 가을, 중앙일보사, 154쪽.
17) 이석우(2004), 앞의 책, 233쪽.
18) 이석우(2004), 앞의 책, 234쪽.

를 시도하였다.

이일의 평론에 따르면 "전위미술이란 어떤 전위적 형태이기 이전에 미술의 본질에 대한 신문(訊問), 일종의 자기비판의 형태이며, 거기에 따르는 변혁의 당위성에 대한 자각의 한 형태"[19]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위적 회화는 화가 자신의 성찰을 통해 필연적인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스스로를 초극하게 된다. 따라서 강용운과 양수아는 진정한 예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추상의 변이 과정을 선도해나간 전위적인 작가인 것이다.

그러나 전위적 회화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른바 새로운 추상, 즉 뜨거운 추상을 의미하는 앵포르멜 운동으로 대처되면서 사실적인 경향과 대립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추상과 비정형 회화를 의미하는 한국 앵포르멜은 한국 아방가르드를 지향하는 하나의 집단미술을 지칭하는 용어이자 전후 분단의 상황에서 전통에 저항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조형언어로 받아들여졌다. 1957년 제1회 〈현대작가초대전〉(『조선일보』, 11.23)의 전시 평문에서 밝힌 "새로운 시대의 배경과 전위적인 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라는 김영주의 글을 위시하여, 당시 신문지상에 '한국의 전위', '전위적인 작가의식', '전위작품', '전위의 광장' 등 전위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화단의 흐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살펴본 봐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전위 회화'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시대적 조형심리와 연관된 미술의 특성을 보이며 점차 한국 화단을 주도해 나갔으며 1960년에 들어서면서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 이일(1982), 『한국미술 그 오늘의 얼굴-또는 그 단층적 진단』, 공간사, 78쪽.

Ⅲ. 구상과 비구상의 미술논쟁

1960년대에 호남은 전쟁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전 시대에 비해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문화전반에 흐르고 있었다. 특히 광주화단은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친 활발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의 자극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변혁의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때 현대미술 즉 추상이라는 이질적인 경향을 추구하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학이 성장하면서 기존 광주·전남화단을 지배하고 있던 인상주의의 독보적인 화풍, 자연주의 전통, 모든 사실적 경향을 일컫는 구상과 전면적으로 대치하였다. 여기서 구상(具象, figuratif)은 형태를 갖는다는 의미이자 전후의 전위적 회화 즉 비구상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상대적인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후 추상미술의 급격한 대두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용어로서 이는 당시 미술계에서 비구상계열에 대항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1960년대 초반 뜨거운 추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즈음, 서로 다른 이념적·미학적 사고는 갈등의 한 형태로서 구상과 추상의 공방전으로 표출되었다. 구상과 추상에 대한 미술계의 갈등은 국전의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관전파'와 현대성을 지향하는 '야전파'의 이원구도로 과열되었고, 구상계열 측에서는 추상이란 서구의 모방이나 아류를 답습하는 것이니 단순히 시대적인 미의식과 흐름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지호의 '비구상은 회화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당연히 비구상 작가들로부터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앵포르멜은 추상미술의 최종 형태이다'라는 주장도 확고한 미학이 정립되지 못한 광주화단에서 회화의 본질과 이에 따른 미술론에 대한 논쟁을 고조시켰다.

광주화단에서 야기된 구상과 추상의 갈등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크게 두 번에 걸쳐 미술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첫 번째는 1957년 강용운의 제3회 개인

전(광주 YWCA, 10월)을 계기로 미술전문지가 없던 상황에서 지방 신문인 전남일보를 통해 시작되었다. 신문지면에 「추상미술도 예술인가」라는 제목으로 발단이 된 '추상 시비'사건은[20] 구상화가 배동신이 강용운의 작품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촉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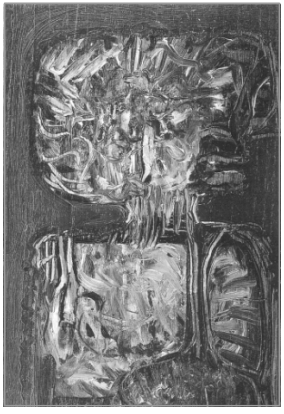
> "내가 생각하기에는 姜兄그림은 그처럼 알기 쉬운 그림은 아닌 성 싶다.(…) 〈예술〉이니 〈태고의 밤〉이니 〈동양의 철학〉이라니 〈…라지다〉니 하는 너무도 엉뚱한 화제에 깜짝 놀라서 그림을 보니 무엇이 동양의 철학이고 무엇이 예술가라는 그림인지 알 수 없다. 〈예술가〉라는 그림을 보면 마치 시장에서 약장사들이 약을 팔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신체해부도를 그리다가 잘못 그린 그림이 어찌하여 예술인고…"[21]

당시 강용운은 앵포르멜 미학을 추상의 원류로 보고 자동기술에 의한 분방함과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감정의 발로로서 비정형을 추구하였다. 강용운이 개인전에서 선보인 〈예술가〉(도판7)는 두꺼운 큰 붓 자국과 격렬한 색채로 어우러진 화면이야말로 바로 회화 그 자체임을 입증하였다. 그는 목판 위에 굵은 터치와 행위를 통한 물감의 흔적과 거칠게 긁혀진 선의 움직임으로 예술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배동신은 신문지면에 '인체해부도' 같은 작품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으며, 〈동양의 철학〉이라는 작품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수아는 일주일 후 같은 신문에 「현대성을 표현-강용운씨 개인전 소감」이라는 제목으로 강용운을 옹호하는 글을 게재하여 구상, 추상 간의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다. 양수아는 강용운

---

20) 강용운과 배동신이 화해하는 자리에서 K기자가 강용운에게 재떨이를 던져 이가 4개나 부러지고 입술을 꿰매야하는 불상사로 번지게 되었다. (손정연(1977), 「전남양화50년」, 『전남매일』, 8.30; 장석원(1991), 「光州추상회화의 선구자, 姜龍雲」, 『월간미술』 제8집, 월간미술, 98쪽.)

21) 배동신(1957), 「抽象派에 대한 小考-강용운兄의 개인전을 보고(上)」, 『전남일보』, 10.6.



〈도판7〉 강용운, 〈예술가〉, 1957

의 〈예술가〉, 〈사라지다〉의 작품들이 "표현주의적인 감정의 노출에서 나온 앙포르멜을 의식한 가장 현대적인 표현들이며 특유의 개성과 조형을 파악했다는 것을 증명한 전시"[22]라고 평가하면서 순수한 표현방식이 어떻게 회화에 제시되어야 하는지 작가의 소신도 함께 피력하였다.

"현대회화란 무엇이냐? 하는 과제가 갑론을박으로 사건을 거듭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결론은 두 개로 나누어 존립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뚜렷한 하나의 (절대) 것으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가장 자기를 순수한 표현양식에 의해서 제시하려면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인가 쯤은 자명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추상이나 구상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23]

이를 계기로 광주화단은 구상과 비구상의 대립이 촉발되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서울화단의 비평가인 김영주까지 개입되어 「천대받은 비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논쟁에 관한 내용과 상황을 소개하는 글을 잡지에 실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구상 대 추상의 대립은 추상미술의 급격한 대두에 반하여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오광수는 "추상미술에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 전례의 사실적인 경향으론 거의 불가능했기에 추상의 반대세력이 상대적으로 주장하고 나온 것이 새로운 구상이었다고"[24] 설명한다.

두 번째 논쟁은 1960년 1월 전남일보에 발표된 오지호의 「현대회화를 논한

22) 양수아(1957), 「현대성을 표현-강용운씨 개인전 소감」, 『전남일보』, 10.13.
23) 양수아(1957), 앞의 글.
24) 오광수(1995),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재원, 245쪽.

다」에 관한 글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대응한 강용운의 「현대회화론」이 이어진 '구상과 추상논쟁'을 일컫는다. 오지호와 강용운의 논쟁은 전남일보를 통해 오지호가 먼저 11회에 걸쳐 연속 게재를 하고 다음달 2월부터 강용운이 21회를 연재함으로써 총 30여회의 장기전으로 펼쳐진 미술비평이었다. 이때 게재된 오지호의 글은 1959년 『자유문학』에 발표했던 「구상회화선언」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는 일찍부터 현대회화에 있어서 구상회화와 비구상회화를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오지호는 신문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술에 있어서 구상, 비구상, 추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내가 보는 바로는 비구상 예술은 '앙포르멜'의 형식을 그 극한으로 하는 것이오 이 이상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만일 그것에 발전의 여지가 있다면 현재의 수공업적 기법을 보다 기계화하는 일일 것이다. '앙포르멜' 미술가 자신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앙포르멜'은 추상미술의 연장이오 하나의 발전 형태로 본다. 즉 양자는 동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구상'이라는 말은 'INFORMEL'의 역어로 쓰는 것이 아니요 입체파를 시원으로 하고 이념에 이르는 모든 피상적 형식의 유파로서의 '앙포르멜'을 범칭으로서 '구상회화'와 대립되는 말로 사용한다."[25]

오지호는 구상회화를 자연의 '재현'을 방법론으로 하는 회화이자 모든 사실적 회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구상회화를 자연형태의 긍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비구상미술은 자연형태의 부정을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는 이에게 왜곡되지 않은 긍정의 세계는 추상이 아

25) 오지호(1960), 「현대회화를 논한다」, 『전남일보』, 1.7; 오지호(1959), 「구상회화선언-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은 양자가 별개종자임을 선언한다」(상), 『자유문학』 제4권 8호, 자유문인협회.

닌 구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오지호는 위의 글에서 구상회화에 대립되는 단어이자 동시에 추상미술, 앵포르멜을 포괄한 범칭으로서 '비구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철저히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비구상미술 자체가 아니오, 그것은 비구상 미술을 회화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비구상미술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비구상미술을 회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소 난해한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그의 비평은 더욱 단호하게 이어졌는데, "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은 양자가 별개종자의 예술"[26]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연에 대한 감각의 표현이 회화이기에 "외부세계(자연)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회화'이고, 내부세계(정신)의 요구적 충족이 '장식미술'에 속한다"[27]고 강조하였다.

오지호는 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은 시각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될 뿐이며 그 출발점과 회화적 표현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회화의 형식이 '자연 재현적'이라면 도안(圖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구상미술이 내적 정신세계를 형상화한다는 생각은 망상이며 도리어 추상이 종래의 '도안'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하게 반문하였다.

이에 강용운은 오지호를 향해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리얼리티(reality)를 내세워 아카데미즘을 비판하고 비구상 미술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용운이 「현대회화론」에서 주장한 논지는 "예술이란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시대감각에 맞춰 앞서나가는 전위이어야 하며 예술과 생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위적인 분리는 있을 수 없다"는[28]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예술이란 곧 생이요, 생이 곧 예술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추상회화가 이념으로 틀 지워진 형식을 추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26) 오지호(1960), 「현대회화를 논하다」, 『전남일보』, 1.8.
27) 오지호(1960), 「현대회화를 논하다」, 『전남일보』, 1.10.
28) 강용운(1960), 「현대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 『전남일보』, 2.11.

결과로서 추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강용운은 근대 이후 현대의 기계적 환경으로 인한 의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순수조형, 순수이념의 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추상미술의 필연적 도래를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각각 주장한 논지를 요약해보면 오지호는 추상미술을 가리켜 "그것은 20세기라는 기계문명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양식의 장식미술이다. 즉 그것은 시대의 필요에 의하여 산출된 신양식의 도안이다"[29]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용운은 생에 따라 예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에 추상미술의 도래가 조형예술사적 맥락에서 필연적이었다는 점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강용운이 발표한 「현대회화론」은 추상미술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작가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회화는 파괴의 총계'[30]라고 말한 강용운은 끊임없이 형태를 추적해 나갔으며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고 초월하기 위한 행위의 방식들을 선택해 나갔다. 강용운은 자신이 무엇을 파괴하던지 어제의 '스타일'은 금일에 변하고 금일의 양식은 계속 변모해 가기 때문에 스스로 지속적인 파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당시 전남일보에 게재된 강용운의 삽화들(도판8)을 살펴보면 그가 매순간 형태를 파괴함으로써 형식이나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추상의 비정형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용운은 자연의 외견적 묘사에 열중하는 자연주의적, 아카데미즘이 복잡한 현실과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무가치한 행위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더불어 "추상이 무의 심연에 직면한 인간의 반항이며 유기적인 원리를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도 인간의 심의를 긍정하는 불안의 표현이기에 실존주의 철학의 전개와 추상주의 예술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31]며 추상미술의 발생근거를 논증하였다.

---

29) 오지호(1960), 「현대회화를 논한다」, 『전남일보』, 1.17.
30) 강용운(1960), 「현대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 『전남일보』, 2.12.
31) 강용운(1960), 「현대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 『전남일보』, 2.20.

〈도판 8〉 강용운, 1950년대 전남일보에 게재된 〈삽화1.2.3.4.5.6〉

강용운은 불안한 시대 속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는데 아카데미즘의 자연주의적 표현보다 눈에 보이는 사물과 인식된 시각의 상호관계를 무시하고 내적 차원의 새로운 리얼리티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는 「현대회화론」에서 '추상주의 예술의 철학적 의의'를 논하면서 현대에 있어서 추상예술은 잠재적 또는 기초적인 것을 표면화한 것이자 필연적인 전개과정이라 하였으며, 시대의 필연성과 인간의 창조적 추구와의 합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32] 하였다. 이는 예술이 그동안 과거로부터 계승한 관념이나 습관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면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결방법도 변화의 과정을 관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추상예술에 대한 강용운의 직접적인 주장은 현대라는 시대 환경과 그에 걸맞은 신조형의 형식을 작품 속에 투영하기 위해 실질적인 표현

32) 강용운(1960), 「현대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 『전남일보』, 2.18.

과 방법을 시도한 결과이며 경험을 통해 구축된 자신의 회화론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강용운을 옹호했던 양수아가 쓴 글인 『중앙화단의 제언-한 지방화가로서』(195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수아는 "현대회화란 구상이나 비구상, '슈르'나 '프리미티브' 혹은 '앙·포루멜'과 같은 양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스스로에 충실할 때 회화 양식이 이루어진다고"[33]라고 설명한 부분에서 그의 회화 이념을 엿보게 한다.

한편 현대회화의 추세는 서울화단에서도 1957년 후반부터 비구상미술, 추상미술로 활기를 띄면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앵포르멜 회화를 주도해 나갔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구상 대 추상 논쟁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광주화단의 논쟁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는 《국전》과 《국제전》을 위시한 미술계의 구조 문제와 새로운 사조로서 전후 추상미술 즉 앵포르멜과 연계되어 발단되었다.

예컨대 "세계 미술사조가 단연 구상주류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이 추상 위주냐", "우리화단에 국제시장에 내놓을 떳떳한 구상이 무엇이냐", "시위와 선전뿐인 전위-추상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등[34] 논의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로는 「반 아카데미즘을 이념으로 하는(…)한국의 전위미술가도 초청을 받고」(『동아일보』, 1961.8.8), 「추상 화가만 지나치게 각광받아」(『동아일보』, 1963.5.10), 「화단의 분규화 표면화」(『동아일보』, 1961.6.10), 「잃어버린 정체성」(『조선일보』, 1963.6.11), 「세계의 시야에 던지는 우리미술」(『동아일보』, 1963.7.3) 등의 기사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약된 내용들에 나타난 일련의 논쟁들은 구상과 추상의 미학적 탐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전》의 참여를 계기로 야기된 '국제성과 동시성', '지역적인 특수성', '서구 사조의 모방' 또는 '한국적 수용' 등 화단기류에 관한 의견을 피

33) 양수아(1957), 「중앙화단의 제언-한 지방화가로서」, 『조선일보』, 11.30.
34) 오광수(2010),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205쪽, 재인용.

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비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중에서 1963년 파리청년작가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등 국제전 참가를 계기로 작가선정의 문제에서 드러난 추상일변도에 대한 불만은 구상 대 추상논쟁을 가시화하였다.

서울화단에서 추상미술을 선도했던 박서보는 동아일보에 직접 게재한「구상과 사실-국제전을 에워싼 화단의 동향과 관련하여」에서 "사실과 구상은 본질적으로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이 다르다. 전자는 조형표현의 기준을 자연 혹은 시각적인 대상에 두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충실히 묘사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구상회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추상예술이 풍성한 개화기를 맞음에 따라 추상 내지는 비구상에 대립하는 회화이념으로서 구체화된 것이며, 구상은 곧 이것이 무엇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한다"[35]라고 언급하면서 구상이 전후에 등장한 새로운 표현개념과 추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것임을 소상이 밝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열모는 사실과 구상이 추상과 대립하는 동의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이어 게재한「추상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제목의 글에서 앵포르멜 열풍의 추상회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현대미술에 대한 투철한 의식도 없이 그들의 단순한 표현형식의 영향에서 또는 모방에서 연연하고 독창성 없는 추종을 일삼으면서 최첨단을 걷는 전위의 행세를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라며[36] 한국 현대미술이 서양의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이인범은 서울화단의 구상과 추상논쟁을 두고 "신·구세대간, 제도권과 재야 사이의 알력이기도 했으며 그 갈등

35) 박서보(1963),「구상과 사실-국제전을 에워싼 화단의 동향과 관련하여」,『동아일보』, 5. 29.

36) 이열모(1963),「추상은 예술이 아니다」,『세대』, 문학사, 251쪽.

과 해소과정이야 말로 1960년대 미술계의 성격을 결정해간 핵심적인 요인"[37]으로 보았다.

이에 구상 측의 논자로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이열모는 「현대미술과 전위-박서보씨의 구상과 사실을 읽고」를 통해 구상회화에 대한 관심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사실주의는 생(生)의 유기적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방식이고 추상주의란 무(無)의 심연에 직면한 인간의 반항이며 유기적 원리를 거부한 그러면서도 심의(心意)의 창조의 자유를 긍정하는 불안의 표현"[38]이라며 높은 차원의 구상을 통해 현대회화의 과제를 전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1963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상과 비구상논쟁'은《국제전》의 참여와 작가선정에 기인하여 미학적 논전을 벌였지만 구상과 비구상의 이분법이라는 일시적인 논지에 국한되었다. 이는 새로운 예술을 독자적으로 추구해나가던 작가들에게 화단의 흐름이 구상과 비구상만이 존재한다는 단편적인 모순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예술의 본질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지역화단에 구상미술에 맞서는 창작활동의 자극제가 되어 비구상미술의 미학을 일깨우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평론의 부재와 추상미술에 대한 미학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상을 선도했던 화가들은 구상의 우위 속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작가 스스로의 고뇌와 갈등은 깊어만 갔다. 오광수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오랫동안 구상미술의 명맥을 유지했던 호남화단의 풍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37)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2001),『한국현대예술사대계Ⅲ-1960년대』, 시공사, 266쪽.

38) 이열모(1963),「현대미술과 전위-박서보씨의 구상과 사실을 읽고」,『동아일보』, 6.14.

"한사람의 작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그를 에워싼 풍토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옥토에 떨어진 열매가 잘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듯, 예술의 경우도 이와 같다. 오랜 남화산수의 전통이 한쪽에 버티고 있고, 인상적 자연주의의 뿌리가 또 한쪽에서 그 굳건한 터를 확보하고 있는 터에, 현대미술이란 이질적 경향과 사고가 이 속에 자리 잡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39]

강용운이 「현대회화론」에서 "현대에 있어서의 추상예술은 현실을 표현한 양식이며 인간 정신의 필연적 전개로서 추상예술의 양식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현대의 과학이나 철학과 일련의 연관성 위에 이루어진 실증적인 미적 충족성의 가치를 보유하고 20세기 문명의 실존적 원동력이 될 것"[40] 이라고 피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다.

미술의 역사를 보면 추상미술은 자연 대상을 표현하는 자연주의 계열, 즉 사실이나 구상과 서로 교차되거나 때로는 함께 공존해 왔다. 보링거(Wilhelm Worringer)는 『추상과 감정이입(Abstraktion und Einfühlung』(1908)에서 구상과 추상의 양식이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일종의 친화관계가 성립될 때 자연주의에 감정이입을 느끼며 인간이 외부에 대해 불안과 감정적 억압을 받을 때 추상충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과 추상은 서로 다른 이면에서 파생된 다른 양식의 미술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나 자연관에 근거한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서로의 공존은 불가피한 것이다. 자연주의가 뿌리내린 광주·전남화단은 서양화가 도입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인상주의 양식, 이념상 구상회화의 독보적인 아성이 오히려 시대정신에 맞서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으로 이어져 비구상, 추상 나아가 앵포르멜의 미학을 일깨우는 요인이 되었다.

---

39) 광주시립미술관(1999), 앞의 도록, 12쪽.
40) 강용운(1960), 「현대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 『전남일보』, 2.22.

Ⅳ. 결 론

광주·전남화단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로 이어지는 시점은 역사적 격동기를 거쳐 구상과 추상충동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예술의 변혁의지가 높았던 전환기에 해당한다. 추상을 시도한 광주·전남의 작가들은 일본유학을 통해 전위적 회화를 배웠고,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직접적인 실존의식을 구현하면서 일종의 지각변동에 비유될 만큼 미술계를 변혁시켜 놓았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정착해 가던 서양화가 주로 대상을 묘사하는 데 치중했다면 전위적 회화로 등장한 추상은 대상을 창조함으로써 예술의 존재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광주·전남의 작가들은 1950년대 이르러 그들이 살아온 시대의 아픔과 상처, 내면의 격정적 세계를 표출하기 위해 추상미술 즉 앵포르멜 회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작가에게 주어진 사회·문화적 환경들은 창작에 대한 고뇌 못지않게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식되었고 기존의 미학으로 자리한 구상과 대결구도를 이루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펼쳐진 오지호와 강용운의 구상, 비구상논쟁은 고조된 구상과 추상의 양립구도 속에 현실 즉 '리얼리티'에 따른 조형이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발단된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논쟁의 꽃을 피운 광주화단의 현상은 예술의 본질과 회화의 형식, 작가의 태도, 창작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함으로써 근본적인 미학의 문제를 다루었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구상의 일변도가 강한 지역적 조건 속에서 강용운의 추상미술옹호론은 작가정신이 발현된 용기 있는 행동이며 이는 광주·전남화단이 한국현대미술의 태동기에 앵포르멜 회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 오지호와 강용운의 미술논쟁은 미학적 이론을 직접적으로 제

시할 만한 평론가와 논객이 드문 상황에서 작가로서의 직접적인 체험이 반영된 시각이며 이를 기반으로 논쟁한 미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은 동시대 미술화단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무엇보다 1960년 오지호와 강용운의 구상과 비구상 논쟁은 서울이 아닌 지방화단에서 본격적으로 예술론을 개진했다는 점과 예술에 대한 신념, 미술론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미술계의 중요한 논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인환(1979), 「한국추상미술의 여명기」, 『한국의 추상미술-20년의 궤적』, 계간미술 편.

오광수(2010),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_____(1995), 『한국현대미술의 미의식』, 재원.

_____(1998), 『이야기 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이야기』, 정우사.

오지호(1938), 『오지호·김주경 二人畵集』, 漢城圖書株式會社.

이일(1982), 『한국미술 그 오늘의 얼굴-또는 그 단층적 진단』, 공간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2001), 『한국현대예술사대계Ⅲ-1960년대』, 시공사.

2. 잡지 및 신문

강용운(1960), 「현대 회화론-그 사조의 의미와 금일의 예술」, 『전남일보』, 2.11.~3.1.

김환기(1939), 「추상주의 소론」, 『조선일보』, 6.11.

미셸 타피에, 타키쿠치 슈조 옮김, 안연찬 재역(1956), 「다른 미학에 관하여(d'une esthetique autre)」, 『미즈에』 12월호, 일본: 미술출판사.

박서보(1963), 「구상과 사실(寫實)-국제전을 에워싼 화단의 동향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5.29.

배동신(1957), 「抽象派에 대한 小考-강용운兄의 개인전을 보고(上)」, 『전남일보』, 10.6.

손정연(1977), 「전남양화50년」, 『전남매일』, 8.30.

이석우(2004), 「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들」, 아트북스.

이열모(1963), 「추상은 예술이 아니다」, 『세대』 11호, 문학사.

_____(1963), 「현대미술과 전위-박서보씨의 '구상과 사실'을 읽고」, 『동아일

보』, 6.14.
오지호(1938), 「순수회화론(1)~(10)」, 『동아일보』, 8.20~9.4.
_____(1939), 「피카소와 현대회화(1)~(5)」, 『동아일보』, 5.31~6.7.
_____(1940), 「현대회화의 근본문제-전위파 회화운동을 중심으로」, 『동아일보』, 4.18~5.1.
_____(1959), 「구상회화선언-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은 양자가 별개종자임을 선언한다」(상), 『자유문학』 4권 8호, 자유문인협회.
_____(1960), 「현대회화를 논한다-구상과 비구상회화에 대하여」, 『전남일보』, 1.7~1.18.
양수아(1957), 「현대성을 표현-강용운씨 개인전 소감」, 『전남일보』, 10.13.
_____(1957), 「중앙화단의 제언-한 지방화가로서」, 『조선일보』, 11.30.
원동석(1985), 「풍부한 예술적 풍토, 호남화단」, 『계간미술』 가을.
장석원(1991), 「光州추상회화의 선구자, 姜龍雲」, 『월간미술』 8.

3. 화집

광주시립미술관(1999), 『강용운의 회화60년』, 광주시립미술관.

투고일: 2017. 05. 15.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4.

| 국문초록 |

1960년대 광주·전남 화단

— '구상과 추상 논쟁'에 관한 비평 —

한국현대미술사에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로 이어지는 시점은 기존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과 저항, 변혁의식이 표면화된 전환기에 해당한다. 당시 한국화단은 전후 추상미술인 앵포르멜이 급격히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 자연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지향하는 구상과 추상의 대립양상이 고조되었다. 광주·전남화단은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위를 상징하는 비구상, 추상미술 나아가 앵포르멜 회화로 확장하면서 구상과 추상의 양립구도를 이루었다. 전위적 회화는 대상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 인상주의 화풍, 자연주의 전통, 모든 사실적 경향을 일컫는 구상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면서 예술의 존재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본 논문은 서울화단에 앞서 구상 대 추상의 논쟁을 제기하였으나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한 1960년, 광주화단의 '구상과 비구상 논쟁'을 주목하였다. 구상과 비구상에 관한 추상시비가 광주화단에서 촉발된 이유는 무엇이며 시대적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가? 라는 논점을 근거로 광주화단을 중심으로 전위적 회화의 등장과 전개과정 속에 유발된 구상과 비구상의 논쟁을 비평적으로 고찰하였다. 광주·전남 작가들은 일본유학의 직접적인 체험을 발판삼아 서양화단을 형성하면서 1930년대 오지호와 김환기의 활동을 통해 구상과 비구상의 미의식을 전개하였다. 이는 1950년대 강용운, 양수아가 추구해 나간 전위적 회화의 자양분이 되었으며, 한국현대미술의 태동기에 앵포르멜을 선도적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오지호의 「현대회화를 논한다」와 강용운의 「현대 회화론」은 평론가와 논객이 드문 지방화단에서 현대 회화에 대한 작가의 확고한 조형이념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논쟁이었다. 특히 해방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조형이념의 대결'

이자 예술적 사유와 실천에 관한 미학적 의식이 드러난 담론이기에 한국현대미술의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재고해야할 논쟁임을 방증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논쟁의 꽃을 피운 광주화단의 현상은 구상과 추상의 양립구도 속에 예술의 본질과 회화의 형식, 작가의 태도, 창작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함으로써 근본적인 미학의 문제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동시대 한국현대미술의 정체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전개된 미술논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광주화단, 구상, 논쟁, 전위적 회화, 오지호, 강용운

호남문화연구 61: 287~31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오지호 관련 미술비평과 연구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t Criticism and History of Research Related to Oh Chi-ho

홍 윤 리**
Hong Yun-Lee

목 차

Ⅰ. 시작하며
Ⅱ. 오지호에 대한 당대 비평
Ⅲ. 오지호 사후 연구
Ⅳ. 마치며

| Abstract |

Critical essays on Oh Chi-ho's work written by literary persons, painters, art critics and art history researchers can be divided into periods by examining achievements in art criticism and the history of research pertaining to Oh Chi-ho's art. We find a lot critical essays on his art and life written both in the 1930s and 1970s when Oh worked actively. Thus, these periods can be defined as eras shedding light on his art in Korean art history.

However, his art drew less attention in the 1940s, 1950s and 1960s. And, his art was less researched than that of other artist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First of all, he only lived and worked in Gwangju during these periods. As Korean art history highlighted art in Seoul at that time, his art inevitably attracted less attention. Also, Oh suffered hardships in a prison because of his activity as a partisan and a member of the Council for National Autonomy and Unification during the Korean War. Moreover,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吳之湖의 繪畵 硏究 -〈남향집〉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his activity was constantly watched and controlled during the military regime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because he had been branded a leftist. Since abstract art was the mainstream of Korean art in his latter years between the 1960s and the 1970s, Oh who insisted on figurative art was regarded as an established artist. His painting also fell out of the limelight because minjung misul or people's art rose up between the 1980s and the 1990s after his death in 1982. He was particularly credited with advocating pure painting in contrast with proletariat art when his On Pure Painting was made public during the period when Japanese colonial rule was the focus of attention.

Research on Oh's art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several areas: the tendency of impressionist painting; the critical tendency of minjok misul or national art; research on his life as an activist intellectual; and research on his painting theories. His paintings done befor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were often considered associated with impressionist painting but this assessment was also uncritically applied to his paintings produced after liberation. Oh was seen as a nationalist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1970s and the 1980s when nationalism was on the rise but his painting was criticized by the minjok misul movement.

Oh's painting theory and life were also the subject of research after the 1990s, but studies on his art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are required. In particular, previously conducted research referred him as a leading artist of Korean impressionist painting or a nationalist painter and interpreted his painting in terms of this perspective. Of course, it is true that he was drawn to Impressionism but the impressionistic elements he accepted had stylistic differences and limitations based on the times. It might have been hard for him to achieve consistency because Oh lived turbulent times such as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the period under a military regime. So, we need to examine alterations in his painting styles while scrutinizing his painting theories and his painting's features by time and style.

Key words : Oh Chi-ho, Art Criticism, Impressionism, Nationalism

Ⅰ. 시작하며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가장 한국적 인상주의 화가로 주목받았던 오지호(吳之湖; 1906~1982)는 1926년부터 1931년까지 동경미술학교에서 인상주의를 배웠고, 평생 인상주의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당대 회화경향에 대한 논쟁적인 미술이론을 저극 제기한 회화이론가이기도 했다.[1] 또한 오지호는 일제강점기에 부역하지 않은 극소수의 화가였고, 실천적 지식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아울러, 1940년대 후반부터 광주에 정착한 후 지방화단으로서는 일찍 서양화를 제작했으며 제자들을 가르쳐 그는 호남 서양화단의 스승이라고 불려왔다. 이처럼 한국의 인상주의 수용, 당대 회화이론의 추이, 정치적 격변기에 처한 화가의 고뇌, 지방 화단의 원류 등 오지호의 삶과 예술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주요 과제를 통찰할 수 있기에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근현대미술사 상당수의 문헌에서 오지호는 인상주의 화가로 일컬어졌다. 이런 평가와 더불어 기왕의 오지호에 대한 연구는 인상주의 화풍 연구, 민족미술 관점에 대한 연구, 회화이론 연구,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생애 연구 등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오지호에 대한 당대 비평과 사후의 연구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관한 당시 평가가 시기별로 일정한 성격을 띠었지만 초창기 오지호의 평가인 한국 인상주의 화가 또는 민족주의적,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삶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지호의 생

1) 오지호의 대표적인 회화이론 관련 글은 오지호(1938),「순수회화론」,『오지호·김주경 이인화집』, 漢城圖書株式會社, 1~10쪽; 오지호(1939),「피카소와 현대회화」1~5,『동아일보』, 5. 31~ 6.7; 오지호(1946),「자연과 예술」,『신세대』1호, 신세대사, 68~73쪽; 오지호(1956),「데포르메론」,『조선일보』, 10. 31~11. 6; 오지호(1959),「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자유문학』8호, 자유문인협회, 230~237쪽 등이 있다.

애와 예술세계를 굳건하게 자리매김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각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오지호 관련 연구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오지호에 대한 당대 비평

1. 1945년 이전 유진오·김용준의 비평

오지호의 이름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30년 조선미술전람회와 녹향회에 관련한 기사를 통해서였다. 오지호와 동경미술학교 입학동기생이었고 화가였던 김용준(金瑢俊, 1904~1967)은 당시 미술비평을 했는데 화가들의 작품평을 쓴 「제9회 조선미전과 조선화단」에서 오지호의 작품에 대해 "沈着한 作風이다. 풍경에 있어서는 자연의 생명을 嚴重하게 捕捉하였다. 그리고 敬虔한 색채이다. 무엇보다도 충실한 態度가 魅力"을 가졌다고 간략하게 비평했다.[2] 같은 해 9월 녹향회는 제3회 총회에서 "新入會員 吳占壽氏의 入會 決議가 有"라며 오지호를 신입회원으로 받아들였다.[3] 문학가 유진오(俞鎭午, 1906~1987)는 「제2회 녹향전의 인상」을 『조선일보』에 4일간 4회 연재해 녹향회에 27명의 출품작가 76점의 작품에 대한 인상을 실었다.[4] 유진오는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한 오지호에 대해 "오지호의 작품 주요 소재는 평범한 것, 평화로운 시민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서 그렸고, 필치는 살아 있는데 대담한 필치

2) 김용준(1930), 「제9회 조선미전과 조선화단」, 『동아일보』, 5. 24 참조.

3) 필자미상(1930), 「제2회 녹향전 명춘 개최키로 제3회 총회서 결정」, 『동아일보』, 9. 30 참조.

4) 제2회 녹향회 관련 당시 글은 유진오와 김용준, 이태준이 썼다. 유진오(1931), 「제2회 녹향전의 인상」 (1)~(4), 『조선일보』, 4. 15~4. 18; 김용준(1931), 「동미전과 녹향전평」, 『혜성』 제1권 제3호, 개벽사, 86~91쪽; 이태준(1929), 「녹향회 화랑에서」 (1)~(4), 『동아일보』, 5. 28~5. 31 참조.

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색채 또한 대치되는 양극 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순정적이고 감정적이며 강렬성이 없는 느낌”이라 했고 묘사력에 대해서도 칭찬 했다.

> 吳占壽 氏, 이분의 作品은 이번에 出品한 作家 中 가장 多數를 占하고 있다. 大作은 〈早春〉 一點밖에 없으나 爾餘의 것도 모두가 相當한 力作이다. 氏의 畵風은 그 溫雅한 곳에 特質을 가졌다. 于先 取材에 있어서 그러하다. 氏의 畵材는 조금도 奇怪 特異한 것이 아니고, 全部가 다 日常 生活의 平凡한 것 - 그것이 善良하고 平和로운 小市民의 生活인 것은 注意해 두어야 한다. 自然의 風物은 畵材 삼을 때에도 氏는 普通 사람은 何等 美的 感興을 일으키지 아니 할만한 平凡한 곳을 選擇하여 이것을 美化 藝術化한다. 이것은 普通人의 能히 하지 못하는 바다. 우리는 흔히 藝術的 素質이 가장 貧弱한 사람일수록 도리혀 對象의 變化만을 求해 마지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筆力과 色彩도 또한 그러하다. 氏의 붓은 죽지 않았으되 또 決코 大膽奔放하지 아니하다. 色彩는 變化가 豊富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나, 決코 對崎되는 兩色을 極端으로 驅使함이 없다. 要컨대 吳占壽 氏의 畵風은 穩健着實의 一語에 盡한다. 따라서 그의 畵風은 打算的이 아니오, 殉情的이며 知的이 아니오 感情的이다.[5]

이 글은 담백하게 그려낸 오지호의 작품 표현 형식과 평범한 소재적 특징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을 비교적 세세하게 언급했다. 오지호의 작품에 대한 첫 미술평이라고 할 수 있는 유진오의 글은 동경미술학교 졸업 직후의 미술평이기 때문에 동경미술학교 시절에 오지호의 작품 경향을 추측할 수 있다.

유진오의 녹향전 감상평 이후 한동안 오지호는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다가 1938년 『二人畵集』을 김주경과 함께 발간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김용준은 “이 화집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맨 먼저 之湖·周經 두 분의 앞에 무릎

5) 유진오(1931), 앞의 글.

을 꿇고 절할 만한 의무를 느끼는 것이다."라고 『二人畵集』 발간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호씨의 온아한 화풍은 근작에 이를수록 명랑화하면서 차츰 점묘파풍으로 변조되어감이 滋味스런 장래를 약속하여 주는 듯 반가우며, (중략) 이 중에서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지호씨의 〈시골 소녀〉, 이 작품은 확실히 조선 땅 소녀임을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다."고 짧은 작품평을 했다. 구본웅(具本雄, 1906~1953) 또한 「戊寅이 걸어온 길: 今年의 異彩는 吳, 金二人畵集」에서 『二人畵集』의 출판 소식을 전했다.[6]

유진오는 화집 발간이 조선 미술계에서 갖는 의의와 함께 오지호의 화풍에 관해 썼다. "오씨의 화풍은 虛心坦懷하게 대상 속으로 자기를 沒入시켜 끈기 차게 그 정체를 탐색하는 데 있다. 作者의 의욕은 허무하게 抑制되고 또는 교묘 隱蔽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김씨는 '이데'와 '로만'의 예술가다. 그에게 있어서는 대상은 이데의 창조물이요. 이리해 화면의 奔放한 구성과 붓의 대담한 省略이 따른다. 오씨가 리얼리즘의 예술가라면 김씨는 로만티시즘의 예술가다." 라고 썼다. 그리고 이어서 유진오는 다음과 같이 작품과 회화론에 대해서 언급했다.

> 오씨는 '미는 전적 생명감이다. 생의 환희감이다.'라고 하고 김씨는 미의 근본문제 '생명의 顯現'이라 한다. 결국, 씨들의 상이는 씨들의 체질의 相異에서 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씨들의 공통된 예술관은 씨에게 공통된 명랑한 색관에 의하여 화폭 위에 나타난다. 색채 감각 색채의 배합법까지도 양씨는 몹시 다르면서 결국 명랑한 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상하리만치 일치한다. 이것은 조선의 명랑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예술적 선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씨들의 예술관 현현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7]

---

6) 김용준(1938), 「화집 출판의 효시 『오지호·김주경 二人畵集』평」, 『조선일보』, 11. 17); 구본웅(1938), 「戊寅이 걸어온 길: 今年의 異彩는 吳, 金二人畵集」, 『동아일보』, 12. 10 참조.

그는 김주경과 오지호의 작품을 비교하며 오지호는 '리얼리즘의 겸허한 예술가'라 했다. 이는 자연의 대상을 직접 대하며 관찰하여 표현한 오지호의 작화 태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지호와 김주경의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그는 이들의 명랑한 화면과 예술관의 일치를 언급했다. 김용준의 글과 함께 이 유진오의 글에서도 오지호의 작품이 '밝고 명랑한 자연'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방이전 오지호 관련 미술비평은 유진오와 김용준의 글이 주요하다. 유진오는 문학가로서 당시 미술비평을 했고, 오지호와 동경미술학교 입학 동기생이었던 김용준은 당시 화가 활동과 더불어 미술비평을 했다. 해방 이전 전문 미술비평가가 없던 시기 작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진오와 김용준의 글은 오지호 회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2. 1945년 이후~1960년대 중반 정규·석도륜의 비평

정규는 1957년 「한국 양화의 선구자들」이라는 글에서 오지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글은 근대서양화가들을 정리한 사적 논고로서 1957년 『신태양』에 8회에 걸쳐 연재하여 한국 근대미술사 정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오지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 오지호를 우리나라 인상주의 화가라고 하면서 다른 화가를 이에 더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면, 다른 화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혜석씨의 경우와 같이 일관된 작품의 기준으로서 인상주의적인 기법이 체득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상주의적인 기법이 우리나라의 자연으로서 소화되지를 못하였었다기 보다는 소화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중략) 화가 오지호의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우리나라 자연을 조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형의 방법을 인상주의적인 기법으로써 통일

7) 유진오(1938), 「오지호·김주경 『이인화집』을 보고」, 『동아일보』, 11. 23.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8]

정규는 최초로 한국 자연을 인상주의 기법으로 그려낸 인상주의자로 오지호를 평가했고 그 이유는 '일관된 작품'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을 소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규의 비평은 '한국 양화의 선구자들'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서양화 유입시기인 해방 이전 회화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오지호는 1940년대 후반 광주에 정착하여 서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에 이 글은 1950년대의 오지호 화풍은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후대 미술 비평가들은 정규의 글을 자주 인용하며 오지호를 이야기했고, 이에 이 글은 오지호를 '한국의 인상주의자'로서 평가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6년 석도륜은 「女苑名品展(107)해설 오지호작 〈정물〉」에서 "그는 현대 예술의 變轉을 민감하게 체험으로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마음속 깊이 문제 삼으면서 자기 자신이 홑으로 흔들리지 않는 희귀한 화단 원로에 속하는 한분인 것이다."[9]라고 오지호를 소개했다. 미술비평가였던 석도륜은 추상미술을 비판하며 1959년 「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을 썼던 오지호를 떠올리며 구상주의를 고수한 화가로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오지호에 관한 미술비평은 거의 없었다. 해방공간에서는 오지호 자신이 작품 활동보다 미술운동과 비평 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술비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1940년대 후반 광주 정착 이후에는 서울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계 상황에서 서울 활동이 미진했던 그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한국전쟁 때 남한 유격대 빨치산 활동으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

8) 정규(1957), 「韓國洋畵의 先驅者들 隨想的 美術家系譜」(五), 『新太陽』 8월, 신태양사, 176~180쪽.
9) 석도륜(1966), 「女苑名品展(107)해설 오지호작 〈정물〉」, 『女苑』 5월, 학원사, 275쪽.

기도 했고 더불어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의 고초를 겪었다.[10] 이러한 행적 때문에 그는 감옥생활 이후에도 '좌익'으로 낙인되어 정치·사회적으로 감시받고 통제받는 등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 한편, 당시 추상미술의 대두로 인해 추상미술과 모노크롬 미술이 주류로 해석되었던 상황에서 구상주의를 강조했던 오지호는 기성세대화가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미술사적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해방 이후 약 20년간 그의 작품에 대한 미술비평은 거의 없었다.

3. 1960년대 후반 이후 미술평론가들의 비평

오랜 침묵을 깨고 1968년 오지호는『현대회화의 근본문제』를 발간했다. 이 저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소개들이 석도륜 등에 의해 있었다. 석도륜은『현대회화의 근본문제』책에 실린「구상회화선언」과 관련해 그가 "그만큼 기개 있는 지조와 책임감 있게 자기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11]고 했다. 또한 그는「한자폐지 반대론」과「치마 형태의 미적 분석」등 오지호의 문화비평에서 그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다.

『현대회화의 근본문제』발간 이후 그는 서울에서 개최될 개인전 준비를 했었던 것 같다. 오지호는 서울 신문회관에서 1970년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첫 개인전을 가졌고 석도륜과 이경성은『동아일보』와『조선일보』를 통해 그의 작품에 대한 평을 실었다.[12]

오지호에 대한 미술비평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구열, 유준상, 이경성, 김윤수, 박용숙, 오광수 등 당시 활동했던 미술평론가들 대부

10) 이태호(2003),「오지호의 회화예술과 사상적 역정」,『인문과학연구소논총』제25집, 명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7~208쪽.
11) 석도륜(1968),「공간 서평 오지호저 현대회화의 근본문제」,『공간』12월, 공간사, 83쪽.
12) 석도륜(1970),「오지호 작품전 격렬한 색감, 원숙한 표현」,『동아일보』, 11. 23; 이경성(1970),「오지호작품전 시각의 구조」,『조선일보』, 11. 24 참조.

분이 오지호에 대한 평론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 의한 오지호 관련 평문들은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평가와 그의 인상주의와 민족주의 회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평가

1968년 석도륜은 오지호의 생애에 대하여 "기개(氣槪) 있는 지조와 책임감 있게 자기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13] 손정연은 1977년 1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남매일신문』에 「전남 양화 50년 오지호편」이라는 주제로 총 76회에 걸쳐 그의 삶을 게재했는데[14] 이 글은 생존해 있는 오지호와 직접 인터뷰를 통했기에 그의 생애를 밀접하게 알 수 있는 글이지만 대부분 '자결한 아버지', '녹향회', '『二人畵集』 제작', '일본식 성명 강요 반대' 등 민족주의적 측면이 특히 강조된 내용으로 일관했다.

비슷한 시기에 박용숙은 『韓國現代美術 代表作家 100人 選集』 제52권 오지호 편에서 「민족주의적 회화이념의 고수」라는 글을 썼다. 박용숙은 "우리나라 근대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인 노력과 또한 그에 값한 몸부림을 쳤던 화가의 한 사람이 오지호였다는 것은 하나의 통설이다."라고 첫 문장을 시작했다. 그리고 1930년대 '녹향회 활동', '해방 이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비평 활동', '민족주의적 회화이념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서의 구상주의 선언' 등을 그의 업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오지호를 민족주의자로 여겼다.[15]

생애에 있어서 김윤수의 비평은 대표적이다. 김윤수는 아래와 같이 오지호를 지조 있는 삶을 살아온 지식인이며 화가라고 평가했다.

---

13) 석도륜(1968), 앞의 글, 83쪽.
14) 손정연(1977), 「全南洋畵 50年: 吳之湖편」 1~76, 『전남매일신문』, 1. 11~5. 9 참조.
15) 박용숙(1977), 「민족주의적 회화이념의 고수」,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100인 선집-오지호』 52, 금성출판사, 2쪽 참조.

> 동시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지식인이요 화가이었다. 식민지시대와 해방 후의 격동기를 살며 수많은 화가들이 變節과 自己離反을 일삼던 풍토에서 예술의 절대성=예술가의 지조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몸소 실천해온 것이다. 이는 그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측면이기도 하다.[16]

이상과 같이 오지호는 197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지조 있는 삶을 산 실천적 지식인'으로 평가되었다.

나. 인상주의 및 민족주의 회화 비평

1968년 석도륜은 "인상화파의 정통적인 계승자며, 그것의 토착화를 위하여 깊게 꾸준한 일을 해 왔던" 화가로 오지호를 설명했다. 석도륜의 '인상주의의 토착화'라는 말은 1957년 정규의 '우리나라의 인상주의 화가'라는 말을 계승한 것이다.[17]

한편, 1970년 오지호 개인전 평에서 이경성은 동경 미술학교 후지시마(藤島)교실에서부터 배운 '형태의 창조'가 40여 년간 굳건한 조형의 바탕이 되고 있다며, 밝은 외광 밑에 물체의 고유색을 잡으려는 시각이나 경쾌하고 속도감 있는 붓의 움직임, 자연에의 깊은 애정을 '인상파의 아류'에 위치한다고 표현했다.[18] 추상미술을 선도적 현대미술로 보았던 이경성은 오지호의 작품을 지나간 인상파적 경향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1957년 정규, 1968년 석도륜, 1970년 이경성에 이어 후대의 미술평론가들도 오지호의 회화를 인상주의에 연결했다. 1976년 오지호 자신도 「내가 인상파에 심취했던 시절」이라는 글을 『공간』에 실었고,[19] 손정연은 1977년 오지호와의

---

16) 김윤수(1978), 「인상주의 토착화의 기수」, 『계간미술』 6월, 중앙일보사, 40쪽.
17) 석도륜(1968), 앞의 글, 83쪽; 정규(1957), 앞의 글, 176~180쪽.
18) 이경성(1970), 「오지호작품전 시각의 구조」, 『조선일보』, 11. 24 참조.
19) 오지호(1976), 「내가 인상파에 심취했던 시절」, 『공간』 4월, 공간사, 42~44쪽 참조.

인터뷰를 통해 그의 생애를 정리한 글 「全南洋畵 50年: 吳之湖편」에서 동경유학시절 오지호가 인상주의에 천착했다고 언급했다.[20] 이 글들은 해방 이전 오지호가 인상주의 화풍에 영향 받았음을 확인해준다. 특히, 오지호가 밝힌 인상주의 소회는 평론가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를 '한국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로 일관된 평가를 내리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7년 이구열은 「금년도 예술원 수상작가 오지호의 작품세계」의 글을 통해 동경미술학교 시절의 작품과 개성시절 후기 인상주의적 화풍 등 해방이전 오지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하며 마지막 한 단락에 최근 작품경향에 관해서 썼다.

> 오지호 예술의 특질적 전개와 본질은 1930년대 중엽에 확고히 틀 잡혔던 색채주의 자연애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색채주의는 초기의 짙은 인상주의 경향에서 서서히 자신의 감각적 형상주의로 이행되어 왔다. 거기엔 빛과 색에 그치지 않은 조형적 감성과 시정이 또 하나의 심도로 곁들여지고 있는 것이다.[21]

이구열은 1930년대 회화세계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인상주의적 경향이 형상주의로 표현되었다고 했다. 그는 해방 이전과 이후의 작품경향을 어느 정도 다르게 보았다고 여겨진다. 이구열은 오지호를 초기에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를 인상주의자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후기 작품은 '형상주의' 경향으로 해석했다.

1978년 김윤수는 1968년 석도륜이 사용했던 '인상주의 토착화'라는 말을 빌려 「인상주의 토착화의 旗手」라는 제목으로 오지호의 작품에 관해서 글을 썼다.[22] 그는 오지호를 '초창기 서양화가 중 제2세대'이며 '1930년대 인상주의 회

20) 손정연(1977), 앞의 글 참조.
21) 이구열(1977), 「오지호의 작품세계」, 『화랑』 17호, 현대화랑, 41~45쪽.

화에 경도'되었다고 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인상주의를 바탕으로 더욱 자기 세계를 굳혀 심화해갔다고 말하며 오지호를 인상주의 및 그 이후의 현대 미술을 적극 받아들인 '한국 인상주의 회화의 기수'라고 표현했다.

1970년대 오지호의 작품을 '지나간 화풍, 인상주의'를 그린 화풍 또는 '인상주의 아류'라고 평했던 이경성은 1978년 「화가의 신구작」이라는 글에서 오지호를 '철두철미 인상파의 흐름 속에서 일생을 지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23]

오광수도 '인상주의의 토착화'라는 제목으로 오지호가 1930년대 인상파 화가로 뚜렷한 이미지를 남겼다고 했으며 일관성 있게 인상주의를 추구했다고 말했다.[24]

한편, 1977년 박용숙은 오지호의 회화를 '빼앗긴 우리 강산의 풍경화', 그리고 '구상주의 선언을 민족적 민족주의적 회화이념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했으며 오지호의 회화를 민족주의 회화라고 평했다.[25] 1970년대의 문학·예술계의 상황은 '민족'이라는 큰 화두 아래서 여러 면을 민족과 관련지었는데 박용숙의 언급은 이와 연관되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용숙에 대한 비판이었는지 다음 해 1978년 김윤수는 오지호가 '인상주의 토착화의 기수'였지만 그가 받아들인 인상주의가 우리 민족 현실이 요구하는 선진적 예술양식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민족미술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평했다.[26] 김윤수가 언급한 오지호 회화에 관한 민족주의적 한계는 후대 미술평론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오지호의 회화이론을 중심으로 오지호의 회화를 살펴본 유준상의 글이 있다. 유준상은 오지호를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갈등이 단편적으로나마

22) 김윤수(1978), 앞의 글, 35~40쪽 참조.
23) 이경성(1978), 「화가의 신구작」, 『화랑』 21호, 현대화랑, 11~15쪽 참조.
24) 오광수(1979),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76~77쪽 참조.
25) 박용숙(1977), 앞의 글, 2쪽 참조.
26) 김윤수(1978), 같은 글, 같은 쪽 참조.

개화 일본에 의해 수용되었을 때 그 전체상을 어느 정도 넘겨 볼 수 있는 인식의 소유자라고 평가했으나 그를 인상주의의 유형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오지호의 「미의 원리」, 『예술원 논문집』(1977) 등 그의 회화론을 통해 오지호의 예술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오지호를 '본질과 존재를 융합하려는 작가'로 보았으며 "내적인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정신성에만 의지해온 게 아니라 지각되는 외부세계를 일방적으로 물질적으로 모사했다는 것도 아닌 나름의 종합의 입장에서 생의 양면성을 화면 위에 해석하려 했다."고 했다. 즉, 오지호를 종래의 낡은 관념인 정신과 자연이라는 이원의 세계를 의식과 물질로 대응해서 설파한 예술론의 성과를 보여준 화가라고 평가했다.[27]

이렇듯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지호에 대한 재조명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미술평론가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일 수도 있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창작겸업의 비평가들은 거의 활동을 중단했고, 일부 신진 평론가와 외국에서 미술사, 미학을 전공 수학하고 들어온 이일, 유준상, 임영방 등이 본격적인 비평을 시작했다. 기존의 비평활동을 했던 이경성과 방근택은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고, 1960년 초중반 석도륜, 이구열, 김인환, 오광수, 유근준이 등장했으며, 1960년대 후반 임영방, 유준상, 박래경, 1970년대 들어와 김윤수, 박용숙, 김인환, 이일 등 미술평론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28]

또한, 『공간』(1966년 11월 창간), 『계간미술』(1976년 11월 창간) 등 미술·예술잡지들이 간행되면서 미술평론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들이 늘어났던 이유도 간접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시기는 이구열과 이경성 등에 의해

27) 유준상(1977), 「한국의 구상화가 10인」, 『季刊美術』 4월, 중앙일보사, 61~66쪽; 유준상(1979), 「오지호 예술과 인간」, 『선미술』 가을, 선미술사, 11~19쪽; 유준상(1988), 「오지호의 예술」, 『오지호작품집』, 오승우·오승윤 발행, 45~54쪽 참조.

28) 한국 근·현대미술비평에 대한 연구는 심영옥(2001), 「한국 근·현대미술비평의 시기 구분과 특징에 관한 연구: 1910~198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쪽; 오광수(1998), 「〈국전〉의 쟁점과 구상 대 추상의 논쟁」, 『한국현대미술비평사』, 미진사, 122쪽 참조.

근대미술관련 단행본이 발간되었고, 이구열이 주축으로 하는 한국근대미술연구소의 발족으로 거의 불모지였던 근대미술사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근현대화가들의 작품을 화집으로 볼 수 있는 미술전집류들도 출판되는 등 근대미술 연구가 본격화되었다.[29] 이처럼 근대미술에 관한 미술평단의 관심이 동경미술학교 출신이며 녹향회 활동, 『二人畵集』의 발간 등 해방 이전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오지호를 다시 거론하게 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지호에 대한 글이 다수 써졌던 배경은 1970년, 1973년 개인전에 이어 유럽여행, 예술원 회원, 국전운영위원, 예술원상 수상 등 1970년대 들어 오지호의 왕성한 활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Ⅲ. 오지호 사후(死後) 연구

1982년 오지호 별세 이후 유족과 지인들에 의해 오지호 관련 도록과 책들이 발간되었다. 1985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지호 전시를 개최한 이후 유족은 『오지호작품집』(1988), 오지호의 회화론 유고집인 『미와 회화의 과학』(일지사, 1992), 오지호와 관련한 미술평과 글 등을 묶은 『팔레트 위의 철학』(죽림, 1999) 등을 발간했다. 추모 글을 묶은 『지산동 초가와 화실』(미진사, 1992)과 최예태의 『오지호 예술의 발자취』(프레지던트사, 1987) 등 지인과 제자들에 의해 오지호의 생애를 살필 수 있는 책들의 발간도 계속 이어졌다.[30]

---

29)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사에 대해서는 이태호(1997), 「한국미술사 연구 100년」(하),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41~43쪽; 홍선표(1999), 「한국회화사 연구 80년」, 『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36~37쪽 등 참조.

30) 오지호의 유족과 지인들에 의한 오지호 생애관련 글은 채복희(1982), 「개창의 길」, 『광주일보』, 1982. 12. 23~1983. 2. 11; 박남재(1985), 「강인한 정신력과 성실성」, 『화랑』 50호,

미술잡지에는 별세 직후 회화와 생애에 관해 쓴 이태현, 한국 자연주의와 인상주의를 오지호 회화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한 원동석, 오지호를 한국의 인상파 화가로 본 오광수, 오지호의 빨치산 행적을 쓴 최석태, 오지호를 민족주의자이자 세상의 모든 사물을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는 화가로 본 최열 등의 글이 있다.[31]

이외에 미술평론가와 미술사학자인 김영나, 오광수, 서성록 등은 단행본에서 1930년대 오지호의 회화를 중심으로 오지호를 한국의 인상파 화가로 평가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32] 학위논문으로 김의경의 「오지호의 회화세계 연구」와 김인진의 「오지호(1905~1982)의 회화이론 및 작품세계 연구」 등 석사학위논문과 기영미의 「오지호의 회화론과 작품에 나타난 "생명" 개념 연구」와 홍윤리의 「오지호의 회화 연구_〈남향집〉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등 박사학위논문이 있다.[33]

현대화랑, 76~77쪽; 최예태(1987), 『오지호 예술의 발자취』, 프레지던트사; 유준상, 이성부 기획(1988), 『오지호작품집』, 오승우·오승윤 발행; 김기창 외(1992), 『지산동 초가와 화실』, 미진사; 오지호(1992), 『미와 회화의 과학』, 일지사; 김창실(1995), 「예향 광주가 낳은 한국미술의 거장 오지호」, 『미술세계』 10월, 미술세계; 오난희·오순영 편(1999), 『팔레트 위의 철학』, 죽림 등의 글이 있다.

31) 이태현(1983), 「오지호의 예술과 인생」, 『선미술』 봄/여름, 선미술사, 36~49쪽; 원동석(1990), 「한국자연주의와 인상파 미학의 한계」, 『가나아트』 3/4월, 가나아트 갤러리, 52~57쪽; 오광수(1986), 「한국근대미술사상노트 6: 오지호와 인상파 미술」, 『공간』 4월, 공간사, 72~75쪽; 최석태(1990), 「격동기를 살다간 한 예술가의 고뇌」, 『가나아트』 9/10월, 가나아트 갤러리, 178~180쪽; 최열(1994), 「오지호 부드럽고 따스한 사랑의 노래」, 『미술세계』 1월, 미술세계, 134~137쪽 참조.

32) 윤범모(1984), 『한국 현대미술100년』, 현암사, 291~300쪽; 오광수(1987), 『한국근대미술사상 노트』, 일지사, 72~75쪽; 오광수·서성록(2001), 『우리미술100년』, 현암사, 82~87쪽; 서성록(1994), 『한국의 현대미술』, 문예출판사, 41~44쪽; 김영나(2010), 『20세기의 한국미술 2: 변화와 도전의 시기』, 예경, 173~177쪽.

33) 김의경(1994), 「오지호의 회화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진(1999), 「오지호(1905~1982)의 회화이론 및 작품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영미(2002), 「오지호의 회화론과 작품에 나타난 "생명"개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윤리(2013), 「吳之湖의 繪畵 硏究 - 〈남향집〉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 명지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오지호 회화이론을 살펴 본 장석원과 김인진의 연구, 조선 향토색 관점에서 오지호 회화를 예시한 박계리 연구, 오지호의 인상주의에 관한 정병모, 김희대의 연구, 오지호의 불교 탱화 작품을 연구한 윤범모의 연구, '민족자주통일협의회' 활동으로 옥고를 치렀던 행적을 살펴 본 이태호의 연구, 한국전쟁 때 빨치산 미술인으로서 오지호의 활동을 추적한 조은정의 연구, 『二人畵集』을 통해 오지호의 1930년대 회화를 살펴 본 홍윤리의 연구와 오지호의 〈남향집〉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34]

이외에도 도록에 수록된 글들로 1985년 『오지호 화집』에 실린 이성부와 유준상의 글, 남봉미술관 개관기념전으로 발간된 『오지호 회고전』의 이구열의 글, 한국근대회화선집 양화 3의 『오지호』에 수록된 김윤수의 글과 유홍준의 작품설명 등이 있었다. 2004년 이태호는 『20세기 7인의 화가들』에서 한국회화사에서 20세기를 자랑할 일곱 거장 중에 오지호를 꼽았다.[35]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34) 정병모(1986), 「오지호론: 인상주의와 민족미술의 갈등」, 『한국학대학원논문집』 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2~230쪽; 장석원(1992), 「오지호의 선형이론 연구」, 『근대한국미술논총』, 학고재, 385~400쪽; 김희대(1993), 「한국근대서양화단의 인상주의적 화풍의 계보」, 『미술사연구』 제7집, 미술사연구회, 47~60쪽; 박계리(1996), 「일제시대 '조선 향토색'」, 『한국근대미술사학』 제4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65~210쪽; 김인진(2001), 「오지호의 회화론 연구」, 『미술사논단』 제13집, 한국미술연구소, 205~229쪽; 윤범모(2002), 「근대기 사찰 봉안용 불화 혹은 정종여와 오지호의 경우」, 『동악미술사학』 제3집, 동악미술사학회, 273~289쪽; 이태호(2003), 앞의 논문, 197~208쪽; 조은정(2010), 「6·25전쟁기 미술인 조직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제21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90~110쪽; 홍윤리(2011), 「『오지호·김주경 二人畵集』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2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90~209쪽, 홍윤리(2014), 「오지호의 〈남향집〉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8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317~345쪽 참조.

35) 이성부(1988), 「오지호의 생애」, 『오지호작품집』, 오승우·오승윤 발행, 13~43쪽; 유준상(1988), 앞의 글, 45~54쪽; 이구열(1988), 「오지호예술의 역사성과 광채」, 『오지호 회고전』, 남봉문화재단, 159~162쪽; 김윤수(1990), 「오지호의 인상주의 회화 및 민족미술의 성격」, 『오지호』 한국근대회화선집 양화3, 금성출판사, 71~96쪽; 유홍준(1990), 「도판해설」, 『오지호』 한국근대회화선집 양화3, 금성출판사, 102~123쪽; 이태호(2004), 「한국회

이상과 같이 1982년 오지호의 별세 이후 더욱 활발한 미술평론과 연구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오지호 연구경향은 항목별로 실천적 지식인에 관한 생애 연구, 회화이론을 분석한 회화론 연구, 1970년대 후반 미술비평과 연결된 인상주의 및 민족주의 회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생애 연구

오지호의 생애 연구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보는 평가와 연구가 해방이전의 평가에 이어 사후에도 이어졌다. 이구열은 오지호를 사회적 의식이 대단히 강했던 지식인으로 현실을 직시한 적극적인 '사회의식의 실천가'로 보았고, 원동석 또한 그를 '민족 지사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했다. 최석태는 그의 빨치산의 동기와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의 생애의 행적을 민족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이태호는 한국전쟁 당시 남부군 활동과 함께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로 옥고를 치렀던 상황 등 사실 확인을 통한 면밀한 행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를 사회적 요구를 물리치지 않은 '선구적 민주 인사'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36]

실제로 해방 직후 오지호는 '미술인의 사회 실천'을 강조하였다.[37] 그의 이런 실천적 행동은 빨치산 활동으로 이어져 감옥생활을 하는 등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했다. 그의 빨치산 행적과 감옥생활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기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그의 생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지조 있는 삶'이라는 말로 대신 되기도 했다. 김윤수가 말했듯 그의 행적

화사에서 20세기를 자랑할 일곱 거장」, 『20세기 7인의 화가들』, 노화랑, 69~97쪽 등 참조.

36) 이구열(1988), 앞의 글, 159~162쪽; 원동석(1985), 「지방미술과 지방주의」,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0~208쪽; 최석태(1990), 앞의 글, 178~180쪽; 이태호(2003), 앞의 논문, 197~208쪽 이외에 오지호의 빨치산 행적에 대해서는 조은정(2010), 앞의 논문, 90~110쪽에서 언급했다.

37) 오지호(1946), 「조선혁명의 현단계와 미술인의 임무」, 『신세대』 6월호 참조.

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오지호의 '지조 있는 삶'과 '지사적인 면모'만 강조한 채 그의 생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미루어져 왔다. 특히 활발한 활동을 재개한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생애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2. 회화론 연구

오지호는 자신의 회화관을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표현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오지호의 회화 이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있었다. 장석원은 「오지호의 선형이론 연구」에서 오지호가 자신의 회화 생리에 맞는 회화, 민족적 체질에 맞는 회화를 건설하려고 했지 민족회화의 문제를 이데올로기로써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38]

생명주의 영향관계에서 오지호의 회화론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 김인진은 오지호의 회화론 형성을 일본 유학시절로 보고 그의 스승인 후지시마 타케지와 유학 당시 일본 문예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생명주의 및 니시다 기타로의 생명예술론의 영향에 주목하였으며, 기영미는 오지호가 한결같이 추구했던 지향점을 '생명'으로 보고 생명의 개념이 형성되는 배경과 작품과의 관계에서 분석해 보며 생명을 그의 작품, 삶, 예술관에서 이를 한결같이 추구했다고 했다. 오지호가 일본 동경미술학교 출신임을 상기하면 생명주의 영향은 당연한 지적이다.[39] 하지만 이들 논문은 '생명'을 식민지 현실 안에서 이를 초극하기 위한 저항 자세로 여겨진다는 문제까지 도출하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다. 이에 최근 필자는 1938년 발간한 『二人畵集』을 중심으로 그의 회화와 회화론의 특징을 분석하여 '밝고 명랑한 조선의 자연'을 '긍정의 생명'으로 도출하고 시대상황에

38) 장석원(1992), 앞의 글, 385~400쪽 참조.

39) 오지호와 생명주의 영향관계 연구는 김인진(1999), 앞의 논문; 김인진(2001), 앞의 논문, 205~229쪽; 기영미(2002), 앞의 논문 참조.

비추어 일정 부분 저항의 자세를 가지고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려 했던 1930년대 오지호 회화의 의미를 살폈다.[40]

오지호 자신의 회화론은 그의 회화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회화론은 대부분 해방이전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30년대 후반 「순수회화론」, 「피카소와 현대미술」을 발표했다. 추상미술이 한국미술에 대두하여 유행일 당시 「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은 1930년대에 발표한 「피카소와 현대미술」의 연장선상의 글이다. 1977년 발표한 「미의 원리」도 자신이 직접 언급했듯 1941년에 탈고 했던 글이다.[41] 하지만 해방 이전 형성된 회화론이 한국전쟁과 군사정권의 격동기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의 말년까지 일관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1970년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해방 이전의 그의 회화세계가 재조명되고, 형상주의의 영향이 되새겨지며 과거 그의 회화론이 재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인상주의적 회화 연구

1980년대 이후에도 오지호는 한국의 인상주의자로 평가받았다. 오지호 별세 직후에 이태현은 그의 회화를 인상주의 관점에서 본 기존 평가를 수용하였고, 윤범모는 오지호를 '추상미술을 부인한 인상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했으며, 오광수는 한국의 인상파미술가로서 오지호를 언급했다. 정병모는 오지호를 해방 이전과 이후 인상주의와 민족미술을 연결하려고 노력한 화가였고 유럽여행 이후 인상주의와 민족미술의 사이를 벗어나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출했다고 보았다. 오지호에 대한 저서를 썼던 최예태도 오지호의 회화를 인상

40) 홍윤리(2011), 앞의 논문, 190~209쪽 참조.

41) 오지호(1938), 「순수회화론」(1)~(10), 『동아일보』, 8. 20~9. 4; 오지호(1939), 앞의 글; 오지호(1959), 앞의 글. 230~237쪽; 오지호(1977), 「美의 原理: 미적 감정의 육체생리적 근거」, 『예술논문집』 제16집, 대한민국예술원, 56~80쪽 참조.

주의적 맥락으로 해석했다. 정병모는 오지호를 해방이전과 이후 인상주의와 민족미술을 연결하려고 노력한 화가였고 유럽여행 이후 인상주의와 민족미술의 사이를 벗어나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출했다고 보았다.[42]

1990년대 이후에도 오지호는 항상 한국의 인상파 미술과 함께 언급되었다. 김희대는 한국 인상주의 계보에 오지호를 넣었고, 김영나는 오지호를 김주경과 더불어 인상주의를 누구보다도 양식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의 인상주의 화가'로 언급했으며, 서성록도 오지호를 인상주의 화가라고 했다.[43]

정규를 비롯한 오광수, 김희대, 김영나, 이태호, 정병모 등의 연구는 오지호가 야외사생과 색채분할의 터치 등 인상주의 기법과 조형으로 한국 산천 또는 청명한 기후에 이를 접목시켰기에 그를 인상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오광수는 그가 평생 인상주의에 일관했다고 했다.[44]

오지호가 1930년대에 인상주의에 천착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려 했던 측면은 오지호 자신의 글과 연구 성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오지호가 인상주의를 일관했다는 면은 재고해야 한다. 오랫동안 작품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오지호에 관한 미술비평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술평론가들은 오지호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시기인 1930년대와 1970년대 작품에 대한 인상이 짙었지만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을 시기인 40~50대에 화가로서 오지호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고 암울한 풍경과 내면세계 표현에 집중하기도 했다. 이에 오지호를 한국적 인상주

42) 이태현(1983), 앞의 글, 36~47쪽; 윤범모(1984), 앞의 책, 291~300쪽; 오광수(1986), 「한국근대미술사상노트 6: 오지호와 인상파 미술」, 『공간』 4월, 공간사, 72~75쪽; 정병모(1986), 앞의 논문, 212~230쪽; 최예태(1987), 앞의 책 참조.

43) 김희대(1993), 앞의 논문, 47~60쪽; 김영나(1998), 『20세기의 한국미술』, 예경, 44~51쪽; 서성록(1994), 앞의 책, 35~44쪽 참조.

44) 김영나(1998), 앞의 책, 45쪽; 정규(1957), 앞의 글, 176~180쪽; 이경성(1978), 앞의 글, 11~12쪽; 김윤수(1978), 앞의 글, 40쪽; 이태호(2003), 앞의 논문, 197~208쪽; 오광수(1979), 앞의 책, 76~77쪽; 김희대(1993), 앞의 논문, 47~60쪽; 정병모(1986), 앞의 논문, 212~230쪽 참조.

의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회화 전반에 걸친 성격과 특징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

4. 민족주의 회화에 대한 비판

오지호가 "민족미술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1978년 김윤수의 견해는 오지호 별세 이후 이태현, 박계리, 윤범모, 원동석 등의 글에서도 언급되었다. 이태현은 김윤수가 말했던 민족미술로서의 한계점을 그대로 수록하며 이를 받아들였고, 박계리는 일제시대 '조선향토색' 연구에서 오지호를 '조선적인 색채'를 통해 '향토색'을 표현하려 했으나 식민지 현실을 관념적 낭만성으로 도피하려 했고 미의 형식만을 통해 표출하고자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범모는 오지호의 민족미술이 형식에 치중하였을 뿐 메시지에 대한 진취적인 인식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45]

원동석은 「한국 자연주의와 인상파 미학의 한계」에서 한국 인상파 미학의 한계점을 오지호를 중심으로 지목했다. 그는 패배주의적 식민사관에서 "오지호를 중심으로 한국 자연의 발전을 인상파적 기법으로써 접목한 것은 1930년대의 경이적인 변화였다."고 평가했지만, 광주를 중심으로 펼친 지방미술이 역사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한 향토적 서정주의에 머물렀다고 비판했으며 아래와 같이 그의 작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 오지호의 생리적 자연주의 민족미술이라는 논리가 자기 작품의 이론적 강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자연의 불변성과 예술의식을 동일하게 결부시킨 역사정체론의 함정, 자연주의 예술관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한다.(중략) 농민의 삶에 대한 경건한 애정의 시선이 없었으며, 도시 산업화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촌의 생

45) 이태현(1983), 앞의 글, 36~49쪽; 윤범모(1984), 앞의 책, 299쪽; 정병모(1986), 앞의 논문, 212~230쪽; 박계리(1996), 앞의 논문, 187~189쪽 참조.

> 활자연에 대한 관심이 부재함으로서 자연 정서도 구체적 현실성을 갖는다는 진리를 망각한 것이다.(중략) 또한, 자연주의 양화가들은 도시인의 시각으로 관념화된 취미를 반영함으로써 부유한 도시부유층의 수용에 영합하였던 결과를 가져왔다.[46]

민중미술을 주축으로 활동했던 원동석은 오지호의 자연주의 예술관의 한계점과 현실의 농촌 자연을 직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부르주아 도시민의 취향에 맞춘 작품이라고 그의 작품을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족미술 비평의 입장을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 오지호는 일제 강점기 기록화 제작을 거부했듯 다른 예술과 분리한 회화, 독립한 회화를 추구했다. 그의 회화는 직설적 표현이 아닌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개인적 한계라기보다 군국주의가 대두되었던 시기에 미술이 정치의 도구화가 되었기에 회화를 분리해서 섞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여겨지며[47] 1970~80년대 민중미술 비평가들이 요구했던 미술과는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5. 다양한 평가의 움직임

이태호는 자료 확인을 통해 오지호의 옥고를 치른 행적을 밝힌 동시에 오지호를 민족미술을 정립하려는 의지로 인상주의적 양식을 받아들였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서구 인상주의 틀을 벗고 야수파적 색채주의적 경향으로 독창적인 화풍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48]

단, 김인진은 오지호가 기법의 사용면에서는 인상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지

---

46) 원동석(1990), 앞의 글, 52~57쪽.
47) 홍윤리(2011), 앞의 논문, 190~209쪽 참조.
48) 이태호(2003), 앞의 논문, 197~208쪽 참조.

만 '빛의 변화', '자연의 변화', 그리고 '사실중시' 등 세부이론에서는 인상주의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49]

필자는 1930년대 작품을 볼 수 있는 『오지호·김주경의 이인화집』 연구를 통해 오지호의 1930년대 작품세계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오지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남향집〉에 대한 분석과 제작시기 등의 재검토를 통해 〈남향집〉이 드러난 시점과 그 위상을 재점검했고, 기존 편년의 문제점을 밝혀 자기만의 화풍이 형성된 시기를 살펴보았다.[50]

이처럼 최근 오지호에 대한 연구는 자료 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지호의 생애와 회화론,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오지호의 미술비평과 연구사 성과를 시기별로 살펴보았으며, 오지호에 관한 미술비평은 시대에 따라 문학가, 화가, 미술비평가, 미술사연구가 등으로 이어졌다.

오지호의 활동이 활발했던 1930년대와 1970년대 오지호에 대한 미술비평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미술사에 있어서 오지호에 대한 조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에 대한 오지호에 대한 관심은 미비했다. 오지호에 대한 연구는 다른 근현대미술가들에 비해 미진한 편이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1948

49) 김인진(2001), 앞의 논문, 205~229쪽 참조.

50) 홍윤리(2011), 「『오지호·김주경 二人畫集』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2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90~209쪽; 홍윤리(2013), 「오지호의 회화 연구-〈남향집〉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윤리(2014), 「오지호의 〈남향집〉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8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317~345쪽 참조.

년 그는 줄곧 광주에서 거주하며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서울 미술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미술사에서 지방에서 활동했던 오지호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오지호는 한국전쟁 때 남한 유격대 빨치산 활동을 했고,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의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행적 때문에 그는 감옥생활 이후에도 '좌익'으로 낙인 되어 군사독재 시절 감시받고 통제받는 등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다. 한편, 그의 회화 말년기인 1960~70년대 한국 미술은 추상미술이 주류였기 때문에 구상주의 미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오지호는 기성세대화가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미술사적 상황이 있었다. 더불어, 1982년 임종이후 1980~90년대 한국 미술은 민중미술이 부상되면서 오지호의 회화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으리라 본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발표한 오지호의 「순수회화론」이 강조되어 그를 프롤레타리아 미술과 대비된 순수회화론자로 인식되고 비판되는 경향이 컸다.

오지호에 관한 연구는 인상주의 회화 경향과 민족미술 회화의 비판적 경향,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생애연구, 오지호의 회화이론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오지호의 회화를 인상주의와 연결하는 면은 해방이전 회화를 토대로 한 평가였으나, 추후의 회화에도 비판적 검토 없이 이를 적용하여 따르는 경향이 다수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족'이 화두였던 시기 오지호는 민족주의자로 평가받았으나 민족미술의 경향에서는 그의 회화가 비판을 받았다. 1990년대 이후에도 오지호의 회화론과 생애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보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의 오지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오지호는 '한국 인상주의 대표적 화가' 또는 '민족주의 화가'라고 불리며 그의 회화가 이와 연관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컸다. 물론 오지호가 인상주의에 경도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지호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인상주의는 시대적 양식적 차이와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더불어 오지호

는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군사독재 정권 등 격동기의 역사를 살았던 화가였던 만큼 그의 작품은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따라서 오지호의 회화이론과 회화의 시대별 양식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의 화풍의 변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기창 외(1992),『지산동 초가와 화실』, 미진사.
김영나(1998),『20세기의 한국미술』, 예경.
_____(2010),『20세기의 한국미술 2: 변화와 도전의 시기』, 예경.
서성록(1994),『한국의 현대미술』, 문예출판사.
오광수(1979),『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_____(1987),『한국근대미술사상 노트』, 일지사.
오광수·서성록(2001),『우리미술100년』, 현암사.
오난희 오순영 편(1999),『팔레트 위의 철학』, 죽림.
유준상·이성부 기획(1988),『오지호작품집』, 오승우·오승윤 발행.
오지호(1992),『미와 회화의 과학』, 일지사.
윤범모(1984),『한국현대미술 100년』, 현암사.
최예태(1987),『오지호 예술의 발자취』, 프레지던트사

2. 신문 및 잡지

구본웅(1938),「戊寅이 걸어온 길: 今年의 異彩는 吳, 金二人畵集」,『동아일보』, 12. 10.
김용준(1930),「제9회 조선미전과 조선화단」,『동아일보』, 5. 24.
_____(1931),「동미전과 녹향전평」,『혜성』 제1권 제3호, 개벽사.
_____(1938),「화집 출판의 효시『오지호·김주경 二人畵集』평」,『조선일보』, 11. 17.
김윤수(1978),「인상주의 토착화의 기수」,『계간미술』 6월호, 중앙일보사.
김창실(1995),「예향 광주가 낳은 한국미술의 거장 오지호」,『미술세계』 10월호, 미술세계.

박남재(1985),「강인한 정신력과 성실성」,『화랑』50 겨울호, 현대화랑.
석도륜(1966),「女苑名品展(107)해설 오지호작 〈정물〉」,『女苑』5월호, 학원사.
_____(1968),「공간 서평 오지호저 현대회화의 근본문제」,『공간』12월호, 공간사.
_____(1970),「오지호 작품전 격렬한 색감, 원숙한 표현」,『동아일보』, 11. 23.
손정연(1977),「全南洋畵 50年: 吳之湖편」1~76,『전남매일신문』, 1. 11~5. 9.
오광수(1986),「한국근대미술사상노트 6: 오지호와 인상파 미술」,『공간』4월호, 공간사.
오지호(1938),「순수회화론」1~10,『동아일보』, 동아일보사(8. 20~9. 4).
_____(1939),「피카소와 현대회화」1~5,『동아일보』, 5. 31~6. 7.
_____(1946),「자연과 예술」,『신세대』1호, 신세대사.
_____(1946),「조선혁명의 현단계와 미술인의 임무」,『신세대』2호, 신세대사.
_____(1956),「데포르메론」,『조선일보』, 조선일보사(10. 31~11. 6).
_____(1959),「구상회화와 비구상미술」,『자유문학』8월호, 자유문인협회.
_____(1976),「내가 인상파에 심취했던 시절」,『공간』4월호, 공간사.
원동석(1990),「한국자연주의와 인상파 미학의 한계」,『가나아트』3/4월호, 가아아트갤러리.
유준상(1977),「한국의 구상화가 10인」,『季刊美術』4월호, 중앙일보사.
_____(1978),「오지호 예술과 인간」,『선미술』가을호, 선미술사.
유진오(1931),「제2회 녹향전의 인상」1~4,『조선일보』, 4. 15~4. 18.
_____(1938),「오지호·김주경『이인화집』을 보고」,『동아일보』, 11. 23.
이경성(1970),「오지호작품전 시각의 구조」,『조선일보』, 11. 24.
_____(1978),「화가의 신구작」,『화랑』21호, 현대화랑.
이구열(1977),「오지호의 작품세계」,『화랑』17호, 현대화랑.
이태준(1929),「녹향회 화랑에서」1~4,『동아일보』, 5. 28~5. 31.
이태현(1983),「오지호의 예술과 인생」,『선미술』봄/여름호, 선미술사.

정규(1957),「한국양화의 선구자들 수상적 미술가계보」5,『신태양』8월호, 신태양사

채복희(1982),「개창의 길」,『광주일보』, 1982. 12. 23~1983. 2. 11.

최석태(1990),「격동기를 살다간 한 예술가의 고뇌」,『가나아트』9/10월호, 가나아트갤러리

최열(1994),「오지호 부드럽고 따스한 사랑의 노래」,『미술세계』1월호, 미술세계.

필자미상(1930),「제2회 녹향전 명춘 개최키로 제3회 총회서 결정」,『동아일보』, 9. 30.

3. 학술논문

기영미(2002),「오지호의 회화론과 작품에 나타난 "생명"개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윤수(1990),「오지호의 인상주의 회화 및 민족미술의 성격」,『오지호』한국근대회화선집 양화3, 금성출판사.

김의경(1994),「오지호의 회화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진(1999),「오지호(1905~1982)의 회화이론 및 작품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2001),「오지호의 회화론 연구」,『미술사논단』13, 한국미술연구소, 205~231쪽.

김희대(1993),「한국근대서양화단의 인상주의적 화풍의 계보」,『미술사연구』7, 미술사연구회, 47~60쪽.

박계리(1996),「일제시대 '조선 향토색'」,『한국근대미술사학』4,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66~210쪽.

박용숙(1977),「민족주의적 회화이념의 고수」,『오지호』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100인 선집 52, 금성출판사.

심영옥(2001),「한국 근·현대미술비평의 시기 구분과 특징에 관한 연구: 1910~198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광수(1998),「〈국전〉의 쟁점과 구상 대 추상의 논쟁」,『한국현대미술비평사』, 미진사.

오지호(1938),「순수회화론」,『오지호·김주경 이인화집』, 漢城圖書株式會社.

_____(1977),「美의 原理: 미적 감정의 육체생리적 근거」,『예술논문집』16, 대한민국예술원.

원동석(1985),「지방미술과 지방주의」,『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유준상(1988),「오지호의 예술」,『오지호작품집』, 오승우·오승윤 발행.

유홍준(1990),「도판해설」,『오지호』한국근대회화선집 양화3, 금성출판사.

윤범모(2002),「근대기 사찰 봉안용 불화 혹은 정종여와 오지호의 경우」,『동악미술사학』제3집, 동악미술사학회, 273~289쪽.

이구열(1988),「오지호예술의 역사성과 광채」,『오지호 회고전』, 남봉문화재단.

이성부(1988),「오지호의 생애」,『오지호작품집』, 오승우·오승윤 발행.

이태호(1997),「한국미술사 연구 100년」하,『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_____(2003),「오지호의 회화예술과 사상적 역정」,『인문과학연구소논총』제25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08쪽.

_____(2004),「한국회화사에서 20세기를 자랑할 일곱 거장」,『20세기 7인의 화가들』, 노화랑.

장석원(1992),「오지호의 선형이론 연구」,『근대한국미술논총』, 학고재.

정병모(1986),「오지호론: 인상주의와 민족미술의 갈등」,『한국학대학원논문집』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은정(2010),「6·25전쟁기 미술인 조직에 대한 연구」,『한국근대미술사학』제21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90~110쪽.

홍선표(1999),「한국회화사 연구 80년」,『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홍윤리(2011), 「『오지호·김주경 二人畫集』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2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90~212쪽.

_____(2013), 「吳之湖의 繪畵 硏究 - 〈남향집〉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투고일: 2017. 05. 16. **심사기간:** 2017. 05. 25~2017. 06. 11. **게재확정일:** 2017. 06. 19.

| 국문초록 |

오지호 관련 미술비평과 연구사에 관한 연구

오지호의 미술비평과 연구사 성과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오지호에 관한 미술비평은 시대에 따라 문학가, 화가, 미술비평가, 미술사연구가 등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오지호의 활동이 활발했던 1930년대와 1970년대 오지호에 대한 미술비평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미술사에 있어서 오지호에 대한 조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에 대한 오지호에 대한 관심은 미비했다. 오지호에 대한 연구는 다른 근현대미술가들에 비해 미진한 편이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1948년 그는 줄곧 광주에서 거주하며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서울 미술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미술사에서 지방에서 활동했던 오지호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오지호는 한국전쟁 때 남한 유격대 빨치산 활동을 했고,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의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행적 때문에 그는 감옥생활 이후에도 '좌익'으로 낙인 되어 군사독재 시절 감시받고 통제받는 등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다. 한편, 그의 회화 말년기인 1960~70년대 한국 미술은 추상미술이 주류였기 때문에 구상주의 미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오지호는 기성세대화가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미술사적 상황이 있었다. 더불어, 1982년 임종이후 1980~90년대 한국 미술은 민중미술이 부상되면서 오지호의 회화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으리라 본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발표한 오지호의 「순수회화론」이 강조되어 그를 프롤레타리아 미술과 대비된 순수회화론자로 인식되고 비판되는 경향이 컸다.

오지호에 관한 연구는 인상주의 회화 경향과 민족미술 회화의 비판적 경향, 실

천적 지식인으로서 생애연구, 오지호의 회화이론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오지호의 회화를 인상주의와 연결하는 면은 해방이전 회화를 토대로 한 평가였으나, 추후의 회화에도 비판적 검토 없이 이를 적용하여 따르는 경향이 다수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족'이 화두였던 시기 오지호는 민족주의자로 평가받았으나 민족미술의 경향에서는 그의 회화가 비판을 받았다. 1990년대 이후에도 오지호의 회화론과 생애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보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의 오지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오지호는 '한국 인상주의 대표적 화가' 또는 '민족주의 회가'라고 불리며 그의 회화가 이와 연관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컸다. 물론 오지호가 인상주의에 경도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지호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인상주의는 시대적 양식적 차이와 한계가 있다. 더불어 오지호는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군사독재 정권 등 격동기의 역사를 살았던 화가였던 만큼 그의 작품은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따라서 오지호의 회화이론과 회화의 시대별 양식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의 화풍의 변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오지호, 미술비평, 인상주의, 민족주의

휘 보

□ 호남학연구원 조직(2017. 6. 30. 현재)

부 서	이 름	소 속
원장	조 윤 호	인문대학 철학과
운영위원	김 신 중	인문대학 국문과
	김 용 의	인문대학 일문과
	나 경 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 강 래	인문대학 사학과
	박 태 진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천 득 염	공과대학 건축학부
	최 대 우	인문대학 철학과
연구부장	박 구 용	인문대학 철학과
학술기획부장	김 병 인	인문대학 사학과
교육사업부장	장 일 구	인문대학 국문과
감성문화자원개발부장	정 경 운	문화전문대학원
편집출판부장	이 성 원	인문대학 사학과
HK 운영부장	정 명 중	호남학연구원
행정원	최 원 종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T.A	조 아 름	인문대학 국문과 대학원
	오 창 환	인문대학 철학과 대학원
	이 연 숙	인문대학 사학과 대학원
	채 지 선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대학원

□ 수행 중인 연구 과제

연번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지원금액
1	인문한국 지원사업 - 세계적 소통코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계 정립	조윤호	학술 연구재단	2008.11.01. ~2018.10.31.	799,000,000원
2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김신중	한국 고전번역원	2017.01.01. ~2017.12.31.	95,440,000원
3	화순 고사정 소장 중요 고문헌 완역 및 도록 제작 용역	조윤호	화순군	2017.05.29. ~2018.01.23.	38,400,000
4	쌍계루 시서번역 2차 학술용역	조윤호	국립공원 관리공단	2017.05.29. ~2017.09.25.	7,840,000
5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조사 용역	김병인	보성군	2017.02.06. ~2017.05.06.	9,200,000
6	보성 의병사발간 자료조사 연구용역	김병인	보성군	2017.03.02. ~2018.02.27.	43,000,000
7	보성 개흥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	김병인	보성군	2017.02.06. ~2017.04.06.	5,520,000
8	고흥군지 편찬사업 연구용역 2단계	김병인	고흥군	2016.07.04. ~2017.09.26.	149,875,00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규정

제정 1973. 3.31. 제58호	개정 1982. 11.30. 제202호	개정 1988. 6. 15. 제313호
개정 1993. 4. 2 제463호	개정 1995. 6.12. 제529호	개정 2008. 8. 5. 제1145호
개정 2009. 9. 1. 제1211호		

제 1 조(명칭) 이 연구원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연구원은 호남지방의 문화를 연구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 제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호남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2.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보존
3. 정기간행물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
4.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대회 등 학술회의의 개최
5.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별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함)
6.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8. 기타 설치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 4 조(조직)

① 연구원에 원장과 연구부, 학술기획부, 교육사업부, 감성문화자원개발부, 편집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

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구원 내 연구사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연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

④ 원장의 강의책임시수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⑤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⑥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 : 학술연구 업무
2. 학술기획부 : 연구원 사업 전반의 기획 업무 및 국내외 학술교류 및 협력 업무
3. 교육사업부 : 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및 운영 업무
4. 감성문화자원개발부 : 감성문화자원콘텐츠의 개발 및 응용 업무
5. 편집출판부 : 연구원의 각종 출판에 관한 업무

⑦ 행정실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연구원)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인문한국교원(인문한국 정년보장교수,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인문한국교원으로 임용된 자
2.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전임'으로임용된 자
3.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4.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자
5. 보조연구원 : 연구원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6.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하고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제 6 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2. 연구원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3. 각 부장, 연구원의 임명 및 편집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 인문한국교원 인사
4. 기타 인문한국사업을 비롯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7 조(연구위원)

①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연구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8 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하며 학내외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원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연구윤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원의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이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간접경비, 각종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3. 3.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와 호남학연구단의 모든 업무를 호남학연구원에서 승계한다.

부 칙(2009. 9.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남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논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과제 등 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

제 3 조(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연구원의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연구원 산하에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7인 이내
3. 간사 : 1인

제 4 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간사는 연구원 행정요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일체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표절 여부는 학술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따름)

②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③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④ 연구원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맡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제 7 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② 심사의 개시

1.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③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2.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 심사 결과의 보고

1.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8 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①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1. 연구원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연구원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4.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②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1.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학술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제 9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① 제보자의 보호

1.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② 피조사자의 보호

1.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제10조(연구윤리의 교육)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논문집인 『호남문화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호남문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논문
② 서평
③ 자료 소개
④ 기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관련되거나 부합되는 글

제3조 『호남문화연구』에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단, 연구원의 실무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원 주최 전국학술대회 등에서 주제 발표했던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호남문화연구』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호남학연구원의 원장 및 실무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호남문화'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부장이 맡으며,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④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⑤ 기타『호남문화연구』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③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④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호남문화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일반 원칙

① 『호남문화연구』는 1년에 두 번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자로 정한다. 이 간행 일정에 맞춰 원고 모집 마감일을 5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② 『호남문화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호남문화' 또는 '지역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 일반에 관한 주제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운영 규정〉에서 제시된 사업에 관련된 주제라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학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③ 논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④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이는 『호남문화연구』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을 호남학연구원 홈페이지 내 〈논문제출〉 시스템(https://homun.jams.or.kr)을 통해 호남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제목 — 영문제목 — 국문이름 — 영문이름 — 목차 — 영문초록 — 영문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국문주제어'의 체재를 갖춘다(단, 주제어는 네 단어 이상 제시).

⑥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넘긴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게재될 경우 초과 게재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⑦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정해진 게재료를 내야 한다. 심사료는 6만원이며, 게재료는 일반 논문의 경우 10만원, 각종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30만원이다.

⑧『호남문화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 갖는다. 또한 이의 확인을 위해 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논문 투고시 별첨한 〈논문 게재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각주 표기 방식

①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③ 한국어 및 동양어로 된 논문은「 」안에, 단행본은『 』안에 제목을 넣는다.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며,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⑥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한다.
(예)『중국내의 고구려유적』(이하는『고구려유적』)

⑦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 (출판연도) —『서명』— 출판지: 출판사 — 권수 —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서명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번역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예) James T. C. Liu(1959), Reform in Sung China: Wang An-shih(1021~1086) and His New Policies, Cambridge, MA: Harvard East Asian Studies; 이범학 옮김(1991),『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51쪽.

⑨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 (발간연도) —「논문제목」—『잡지명』 — 통권(혹은 권·호) — 학회지 —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3. 인용 방식

①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주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는다.
③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④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는다.
⑤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⑥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친절하게 밝혀야 한다.

4. 참고문헌 기재 방식

①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 서양어 순으로 하며, 한국어와 동양어는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하고, 서양어 문헌은 ABC 순으로 기재한다.
② 논문의 경우 수록된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시작 쪽수와 마지막 쪽수를 반드시 밝힌다.

(예) 박준규(1987),「韓國의 樓亭攷」,『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42쪽.

5. 원고 작성 및 제출 요령

① 국문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출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원본의 논문 제목 및 필자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④ 원본에는 소속, 직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⑤ 논문체제 및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문제목(15.5pt)
영문제목(13.5pt)

국문이름(9.5pt)
영문이름(8.5pt)

목 차

〈영문초록〉
Key words :

본문내용(10pt) - 줄간격(185%)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

심사경위

『호남문화연구』 제61집에 투고된 총 논문은 13편입니다.『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0편이 제61집의 게재 논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투고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의 게재율은 76.9%(10/13)입니다.

『호남문화연구』 제62집 수록논문 모집 안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는 학술지『호남문화연구』제62집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호남문화', '지역문화' 관련 전 학문 분야
2. **자격** : '호남문화', '지역문화' 관련 국내외 연구자
3.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원고 제출 마감** : 2017. 11. 15. (수)
5. **투고 형식** :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6. **심사 및 게재 결정** :『호남문화연구』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
7. **필자 대우** : 학회지 1부 및 별쇄본 20부를 제공함.
8. **논문 게재료**
   - 심사료 : 6만원
   - 일반 논문 : 10만원 / 연구비 수혜 논문 : 30만원
   - 지정계좌 : 광주은행 074-107-309110 (예금주 : 전남대호남학연구원)
9. **원고 제출처** ① 호남학연구원 JAMS 홈페이지(http://homun.jams.or.kr)
   ② 전자우편

연락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3호관 210호 호남학연구원 행정실
☎ (062) 530-2710/5020 Fax : (062) 530-2711
Homepage : http://www.homun.or.kr
E-mail : honamstudy@hanmail.net

□ 편집위원장 : 조윤호

□ 편집위원

박수철(서울대) 신해진(전남대) 엄기표(단국대)
이영배(안동대) 정명중(전남대) 정세근(충북대)
정인호(전남대) 조태성(전남대) 차철욱(부산대)

호남문화연구 제61집

2017년 6월 20일 인쇄
2017년 6월 30일 발행

편집·발행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제작·판매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 (062) 530-0571~2
팩스 : (062) 530-0579
등록 : 1981. 5. 21. 제53호
홈페이지 : http://www.cnup.co.kr
이메일 : cnup0571@hanmail.net

호남학연구원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전화 : 062) 530-2710
팩스 : 062) 530-2711

* ISSN 1225-3561

가격 15,000원